

2021 JELLA Annual FALL Conference
2021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가을 학술대회

**"4차 산업시대 인문학 연구의 방향을 묻다:
영문학, 영어학,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11:00-17:00

주관 :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후원 : 춘천교육대학교

장소 : Online Zoom Meeting
www.jellaconference.weebly.com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 본 학술대회는 2021년 순천교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연구역량강화를 위한 학술대회지원사업 후원을 받음

목 차

▪ Welcoming Address / 이승복	5
▪ Conference Program	7
▪ Concurrent Sessions	8
Research Ethics	11
Keynote Speech	15
Concurrent Session 1:	33
소설	
Concurrent Session 2:	89
드라마	
Concurrent Session 3:	129
시	
Concurrent Session 4:	167
언어학	
Concurrent Session 5:	201
영어교육	

Welcoming Address



이승복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회장, 춘천교육대학교

2021년 가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어 관련 학문 연구와 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학회 회장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우선 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작년, 올해 다들 경험하고 계시듯 우리 학회도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올봄 회장에 취임하면서 나름 야심차게 계획했던 학술활동이 이런 저런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쉬운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외국어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하는가의 질문이 제 마음속에 더 생생하고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많은 사회 변화는 이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일상의 삶의 모형을 통째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학회 회원 여러분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영어 관련 과목을 지도하시는 분들이신데 최근 2년여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범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변화는 우리의 전공 분야도 예외 없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술발표회의 주제는 “4차 산업시대 인문학 연구의 방향: 영문학, 영어학, 영어교육을 중심으로”입니다. computer, technology-based, internet, digital, AI, cyber, zoom, on-line, mega, cloud, e-class, e-journal 등과 같은 용어들은 어느새 외국어 연구 분야의

우리 연구자들에게 밀접하게 다가와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연구자들에게 “Publish or perish”는 문구가 있었다면 이제는 “Accept, publish or perish”의 표현이 어울릴 듯합니다. 외국어 관련 연구자와 교육자들의 현재는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고 미래는 힘겨워 보입니다.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에서 이루어지는 학술 활동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난관을 헤쳐 나가는 작은 씨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2021 가을 학술발표에는 4차 산업시대 언어(외국어) 연구 및 교육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신 미국 University of Oregon 언어학과 Julie Sykes 교수의 특강(keynote speech)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됩니다.

이번 가을 학술발표에서는 3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논문을 준비해 주신 발표자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활성을 위해 바쁜 시간을 흔쾌히 할애하여 많은 기여를 해주신 사회자, 토론자, 영역별 학술 분과위원장님, 학술이사님, 총무이사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주신 춘천교육대학교 총장님,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장님, 특별히 교수학습개발원 조성환선생님께 학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회장 이승복

Conference Program

학술대회 전체 개요

시 간	주요 일정					Zoom
11:00-11:20	연구윤리교육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					Zoom#5
11:20-12:00	초청특강: Julie Sykes (University of Oregon, USA) The Use of Mixed-Reality Games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English					Zoom#5
12:00-13:00	휴 식					
13:00-13:10	개회사: 이승복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회장, 춘천교육대학교)					Zoom#5
13:10-16:00	분과별 논문 발표					
	소설 Zoom#1	드라마 Zoom#2	시 Zoom#3	언어학 Zoom#4	영어교육 Zoom#5	
	김대중(강원대) 류승구(강릉원주대) 정은숙(중앙대) 안동현(서울신학대) 이영애(한라대)	채수경(강릉원주대) 이용희(강원대) 한광석(강원대) 우승정(조선대)	권영탁(세명대) 김연규(강릉원주대) 추지형(경상대)	강남길(극동대) 박준석(세명대) 신성균(강원대) 이두원(한국교통대)	이승복(춘천교대) 이삭(서울교대부초) 신창원(제주대) 윤택남(춘천교대) 김병선(가톨릭관동대) 허선민, 이강영(충북대)	
16:00-16:20	지역총회 강원: Zoom#5 / 충청: Zoom#4					
16:20-16:50	전체총회					Zoom#5
16:50-17:00	폐회사					Zoom#5

분과별 발표 개요

Concurrent Session 1				[Zoom#1]			
소설 분과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13:10- 13:35	김대중	강원대	조안 디디언의 민주주의에 나타난 미국 현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연구	박용준(강원대) 김경미(경동대)	이우학 (건국대)	
	13:35- 14:00	류승구	강릉 원주대	The Poethics of Nostalgia in Thomas Pynchon's <i>Bleeding Edge</i>	송은주(이화여대) 공명수(대진대)		
	14:00- 14:25	정은숙	중앙대	민족적 알레고리로서의 하진의 『광인』	김문주(가톨릭 관동대) 박선화(건국대)		
	14:25- 14:45	휴식					
	14:45- 15:10	안동현	서울 신학대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에 나타난 여성의 글쓰기	한미야(충신대) 서정은(한국교통대)	신진범 (서원대)	
	15:10- 15:35	김효실	강원대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로서의 마크 트웨인의 시뮬라시옹 - 『신비한 소년 44호』를 중심으로-	조비결(강원대) 노동욱(삼육대)		
	15:35- 16:00	이영애	한라대	기후소설로 본 바바라 킹솔버의 『비상』	정신희(한남대) 김대영(강원대)		

Concurrent Session 2

[Zoom#2]

드라마분과	발표시간	발표자	소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13:10-13:40	채수경	강릉원주대	『시련』에 나타난 악의 문제	김영지 (강원대)	한광석 (강원대)
	13:40-14:10	이용희	강원대	인스 최(Ins Choi)의 Kim's Convenience: 한국계 캐나다인 작가의 작품의 세계적 보편성	윤정용 (고려대)	
	14:10-14:40	한광석	강원대	『폭풍』에 나타난 프로스페로의 “중용”적 비전	김현주 (중원대)	채수경 (강릉원주대)
	14:40-15:10	우승정	조선대	페미니즘을 위한 두 편의 영화 『작은 아씨들』	이용희 (강원대)	

Concurrent Session 3

[Zoom#3]

시분과	발표시간	발표자	소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13:10-13:40	권영탁	세명대	이성과 신앙 사이: 프로스트의 천국	심진호 (신라대)	권영탁 (세명대)
	13:40-14:10	김연규	강릉원주대	홉킨스 시에 미친 디슨의 영향	장철우 (강원대)	
	14:10-14:40	추지형	경상대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 나타난 문학적 명성에 대한 연구	임진아 (청주대)	

Concurrent Session 4

[Zoom#4]

언어학분과	발표시간	발표자	소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13:10-13:45	강남길	극동대	On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A Corpora-based Analysis	박준석 (세명대)	홍성심 (충남대)	
	13:45-14:20	박준석	세명대	Syntactic Peculiarities of Some Control Constructions	강남길 (극동대)		
	14:20-14:40	휴식					
	14:40-15:15	신성균	강원대	A Diachronic Syntactic Study of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이두원 (한국교통대)	김경열 (강원대)	
	15:15-15:50	이두원	한국교통대	Negative Island Effects in Sluicing-like Construction	신성균 (강원대)		

Concurrent Session 5				[Zoom#5]			
영 어 학 부 학 과 학 생 회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13:10-13:35	이승복	춘천교대	ELP 활용을 통한 영어학습자 자기주도성 향상 방안	이해련 (서원대)	나경희 (충북대)	
	13:35-14:00	이삭	서울교대 부설초교	학습자 몰입(engagement) 이론 기반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 개발 및 교수·학습 설계 원리	신창원 (제주대)		
	14:00-14:25	신창원	제주대	지역수준의 영어교육정책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삭 (서울교대 부설초교)		
	14:25-14:45	휴식					
	14:45-15:10	윤택남	춘천교대	음성대화처리기술 기반 수업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반응 연구	조형숙 (서원대)	이승복 (춘천교대)	
	15:10-15:35	김병선	가톨릭 관동대	외국 동화 역번역을 통한 영어 어휘 학습 효과	윤택남 (춘천교대)		
	15:35-16:00	허선민 & 이강영	충북대	코로나바이러스 19 영어 교육상황의 현실 점검: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백지연 (서원대)		

Zoom 접속정보			
구분	주 소	패스워드	용 도
Zoom#1	838 7277 4891 https://us02web.zoom.us/j/83872774891	없음	소설분과
Zoom#2	837 0648 7590 https://us02web.zoom.us/j/83706487590	없음	드라마분과
Zoom#3	813 2673 3067 https://us02web.zoom.us/j/81326733067	없음	시분과
Zoom#4	848 3849 6751 https://us02web.zoom.us/j/84838496751	없음	언어학분과 / 충청지역총회
Zoom#5	889 8497 9304 https://us02web.zoom.us/j/88984979304	없음	연구윤리 / 초청특강/ 개회사 / 폐회사 / 강원지역총회 / 영어교육분과

연구 윤리 교육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연구윤리 교육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1. 연구부정 행위란?

- ▶ 본 학회에서는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러한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함
- ▶ 본 학회에서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준수 확인서를 제출 해야함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1)

-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 연구 재료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위조와 변조의 차이(풀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 사례)

- 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맞춤형 배아복제 풀기세포를 마치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논문을 작성한 것은 위조

- 배반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사용된 난자 273개를 185개로 축소 한 것은 데이터 조작으로서 변조에 해당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2)

- ③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
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
는 경우
 -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3)

- ④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
여하는 경우
 -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
하지 않는 경우
 -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
하는 경우

다만, 논문심사 교수가 논문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저자
의 자격을 일정 정도 갖추었다면, 지도교수와 논문심사교수, 그리고 지도학생
등이 포함된 저자 자격 표시는 관련 학술지 및 학회기관의 규정에 따름으로써
올바른 연구행위를 실천할 수 있음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4)

- ⑤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⑥ 기타
-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
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①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 인지
- ②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③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

4. 연구부정행위 예방

1)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https://www.kci.go.kr>

- ▶ KCI 논문유사도 검사시스템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 업로드 문헌과 KCI에 등록되어 있는 약 100만여건의 국내학술지 논문을 비교하여 유사도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시스템
 - 유사율 : 문서 내 유사의심영역 어절 수 / 문서 전체 어절 수 x 100%
 - 문장유사율 : 문장 내 유사의심영역 어절 수 / 문장 전체 어절 수 x 100%
- ▶ 제한사항
 - 과거 발행된 (2004년 이전) 논문은 유사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스캔한 파일은 유사도 검사가 어려움
 - 외국 논문은 유사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5. 연구부정행위 예방

2) 카피킬러 <https://www.copykiller.com/>

- ▶ 1일 3건 무료검사 가능하며, 1회 업로드 문서는 1MB로 제한 (hwp, doc, xls, ppt, txt, pdf)
- ▶ 50억 건의 인터넷 공개 콘텐츠와 비교 검사 : 6어절, 1문장 이상 일치할 경우 표절로 인식

<참고자료>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2016.1.1.)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해설서(교육부, 2015.11)
3. 연구윤리 질의 응답집(한국연구재단, 2016.11)

초청특강 Keynote Speech



Dr. Julie Sykes
Professor of Language Teaching Studies, University of Oregon, USA
(jsykes@uoregon.edu)

Title: The Use of Mixed-Reality Games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English.

Abstract: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explore the ways in which mixed-reality, game based learning experiences can be used to facilitate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a second languages, with a specific focus on experiences designed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English. The presentation will include an exploration of three types of experience as related to critical design features. The presentation will conclude with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teaching.

Dr. Julie Sykes (PhD, University of Minnesota; M.A. Arizona State University) is a national leader in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for language acquisition. Her research includes a special focus on interlanguage pragmatic development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Dr. Sykes' experience includes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online immersive spaces and the creation of place-based, augmented reality mobile games to engage language learners in a variety of non-institutional contexts. Julie serves as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Applied Second Language Studies, a National Foreign Language Resource Center, and Co-Director of the Oregon Chinese Flagship Program.

The Use of Mixed-Reality Games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English

Junga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Association
Conference 2021



Julie M. Sykes, Ph.D.
University of Oregon



A Note of Gratitude

- CASLS Team
 - Stephanie Knight
 - Christopher Daradics
 - Mitra Nite
- JELLA Planning Team
- Collaborators and Particip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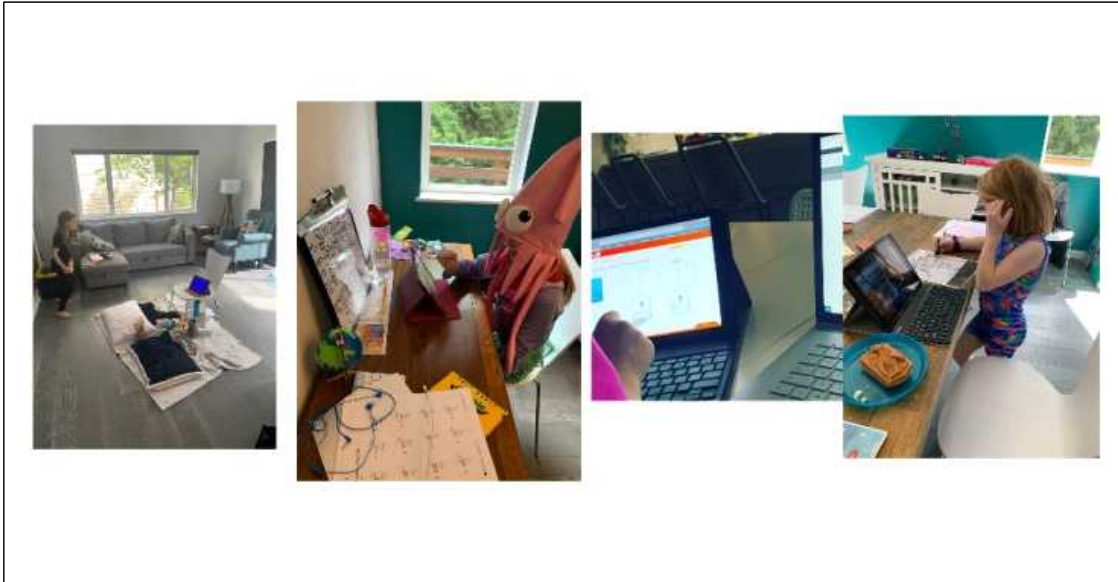


Overview





Place co-constructed, dynamic interaction at the core of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Rethinking Pedagogy



- hypothesis testing through event driven scenarios
- memorization and large amounts of play time
- risk taking
- tolerance to ambiguity
- problem solving
- (intense) meaningful collaboration (peers and experts)

Cook, 2000; Crystal, 2001; Lantolf, 1997; Peterson, 2010; Purushotma et al., 2008; Reinhardt & Sykes, 2011; 2013; Reinhardt, 2019; Sykes et al, 2010; Sykes, 2018; Thome et al., 2009; Thome, 2008, 2010, 2012; Zheng et al., 2009,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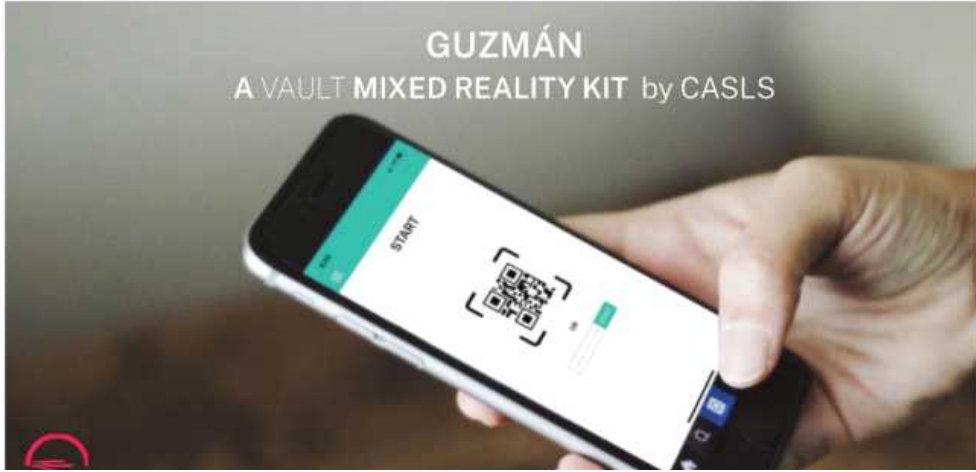
Make students active agents
in their own learning.
Promote deep thinking and
inquiry.

What are mixed-reality experiences (MREs)?

play-oriented, immersive game experiences, participants complete
collaborative, multi-step scenarios to unpack critical knowledge related to
targeted language functions

Facilitated Mixed-Reality Experiences

Can you avert disaster by apprehending the art thief while you learn language?



PHASE 3

TRANSPORTE
 63% El transporte público
 15% Carro-taxi
 13% Moto
 9% Bicicleta

TIEMPO
 26% 1 hora
 16% + 30 Min
 6% 1 hora - 1 hora 15 min
 53% 45 Min - 1 hora

DINERO
 65% \$ 5000000
 29% \$ 10000000
 6% \$ 5000000

ACTIVIDADES
 57% Música - Música
 14% Fútbol - Fútbol
 12% Comida

Avianca TARJETA DE EMBARQUE

CASLE

Teacher Guide and Wrap-Around Activity Samples



1. Subraya o marca todos los papeles que entiendo.
2. Escribe el nombre de la persona que "habla" después de la primera vez que aparece.
3. Escucha un resumen del diálogo con tus propios palabras.
4. ¿Cuál es la situación? ¿Cuáles son las sugerencias?

C. Lee este mensaje. Subraya todas las sugerencias.

CONFIDENCIAL

Es necesario poder confiar en ti. Hay que trabajar junt@s. Somos colega...amig@s.

¿Qué debes hacer para confirmar nuestra amistad (friendship)?

Lee mi pregunta.

Observa el Museo y las tiendas que están cerca (quizás al otro lado de la calle).

Escribe una respuesta a mi pregunta.

¿Qué debo comprar si quiero ir de compras en las tiendas cerca del museo?

-Agente 23

D. Escribe el mensaje confidencial de nuevo, pero escríbelo a tu jefa, Agente 1.

D. The Blue Rynr/Moa can't go to the Purple Rynr/Moa's party. Which restaurant by the purple Rynr/Moa would be their most preferred?	C3: You had. Let's get filter juice sometime!
	D1: But you must come! You don't have to stay the whole time if you are busy!
	D2: Okay, Companion, I understand.
	D3: Too bad. Let's get filter juice sometime. What is your availability in three settings of the second ear after 1500 time segments?

A

A1 A2 A3

B

B1 B2 B3

C

C1 C2 C3

D

D1 D2 D3

g W Wr

lid p So o

OCCUPATION: Assistant Coordinator of Interstellarlocutor Station

CURRENT LOCATION: Interstellarlocutor Station

LIKES: Friendship, group starthops, I who respect my time

DISLIKES: Hierarchies, anything that is

FAVORITE QUOTE: "We were together. I forgot it. Wellman (Earth).

Captain's Log 9103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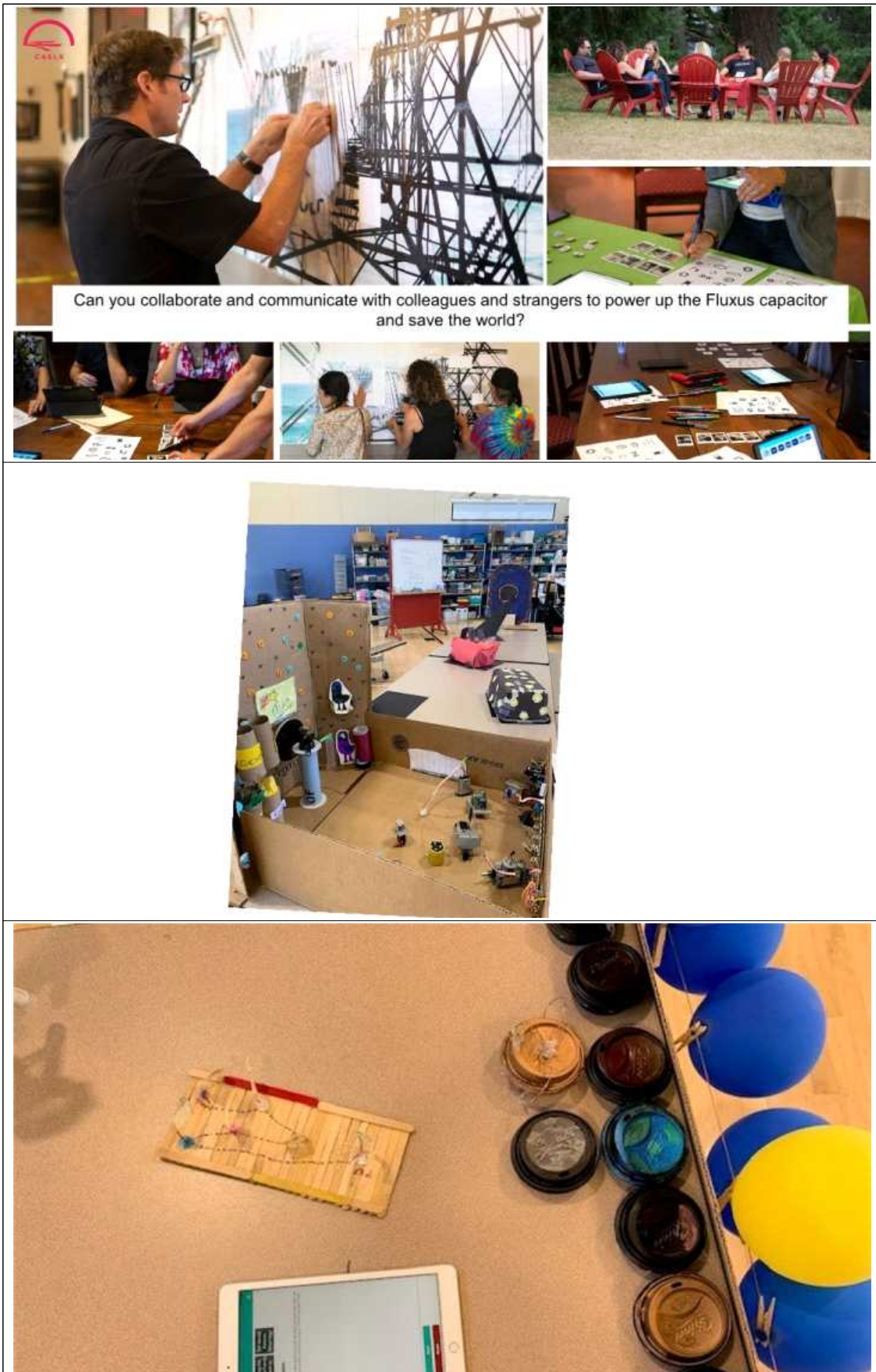
The Byru'Maxi utilize a plethora of communication patterns, and while we STILL cannot quite discern enough to fully comprehend when communication works and when it break down (after all, their words are the same with no discernible regional variances in terms of lexicon), I have some notes that might be of use as we continue to explore this planet. It seems that the rank of imposition, or how difficult a situation is, is not perceived the same among the six Byru'Maxi I observed and that this difference can hinder communication-particularly with requests, apologies, and when making pl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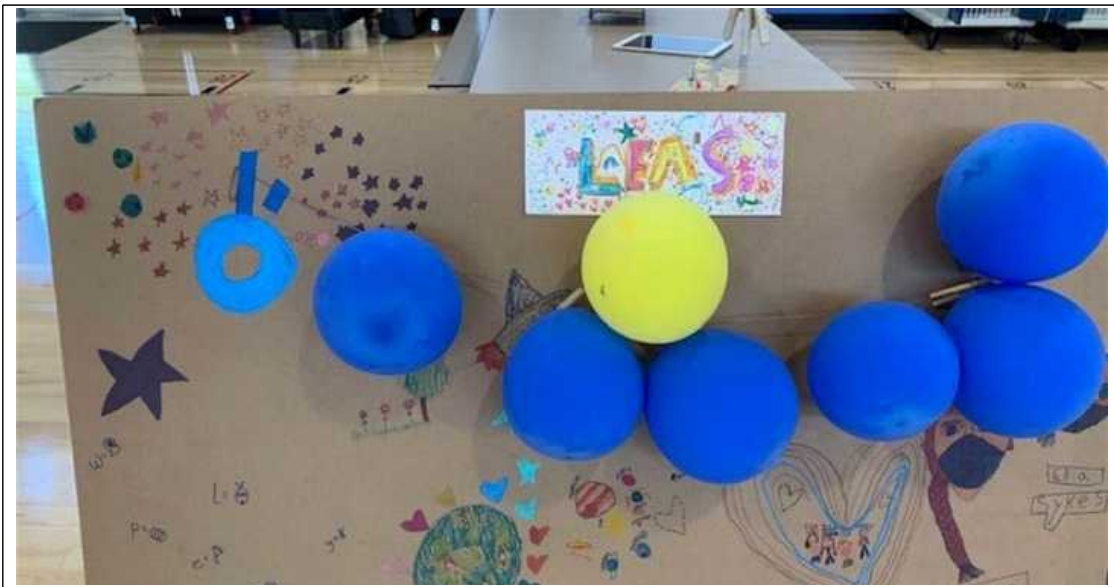
The diagram consists of a central diagonal line with arrows pointing from the bottom-left towards the top-right. Along this line, several colored rectangular boxes are placed. From bottom-left to top-right, the boxes are: a purple box labeled 'Money', a green box labeled 'Materials', a red box labeled 'Money', a yellow box labeled 'Materials', an orange box labeled 'Modes of Transportation', a blue box labeled 'Money', a yellow box labeled 'Materials', an orange box labeled 'Modes of Transportation', a red box labeled 'Materials', a green box labeled 'Time', a red box labeled 'Materials', a purple box labeled 'Money', a blue box labeled 'Modes of Transportation', a yellow box labeled 'Money', and a purple box labeled 'Modes of Transportation'. At the top-right end of the line, there is a small arrow pointing to the right with the label '+R'.

Pop-Up Mixed-Reality Experiences

Mavericks: The Fold







Event-Driven Mixed-Reality Experience

Step 1:
Participants
are
presented
with an
urgent quest
on the field
folio.



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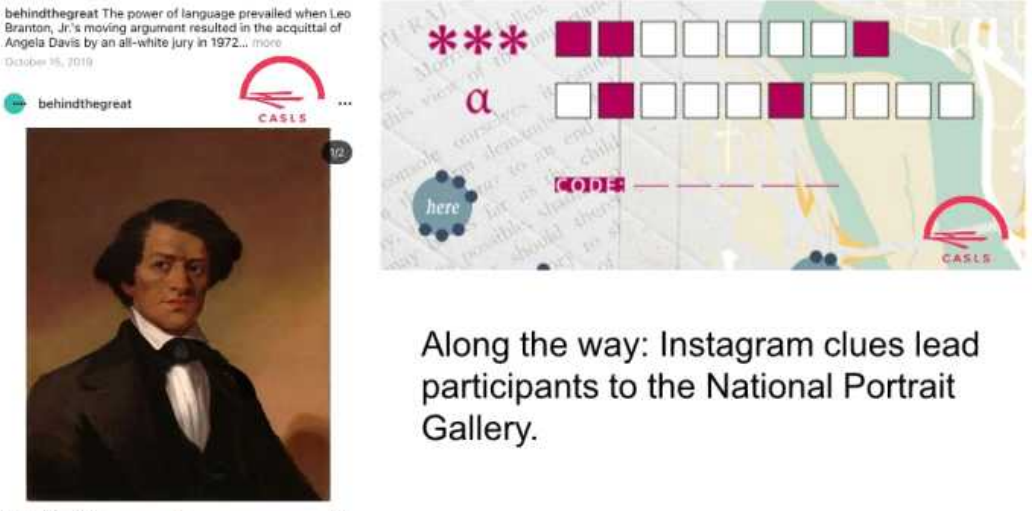


Step 2: Participants use the
hidden code from the field folio
to unlock the VAuLT Modulator
on their mobile devices.



Step 3:
Participants
explore D.C.
with their
field folios
and VAuLT
Modulators
in hand.

behindthegreat The power of language prevailed when Leo Branton, Jr.'s moving argument resulted in the acquittal of Angela Davis by an all-white jury in 1972... more
October 16, 2019



Along the way: Instagram clues lead participants to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Along the way: The puzzles within the field folio and VR interactions unlock less-frequently told stories of Ford's Theatre.



To win it all:
Participants fold the field folio and head to Newseum to enter their final responses.



Design Pillars

Daradics, Knight, and Sykes (forthcoming)

Designed Underspecification: Participatory Infrastructures for Agency and Co-Creation



Underspecification to encourage engagement (Sykes, 2018)

Action to gain information from the environment (Gallagher, 2017)

Group sense-making contingent on immediate moment and context (Hellerman, Thorne, and Haley, 2019)

Cómo formar una sugerencia	arte	que ★	no ★★	a	maleta ★ / ★★ / ★★★
	por qué ★★	Nicaragua	viajas	la ★ / ★★ / ★★★	en
	darme ★	das ★★	importante	me ★★	compra
	hay ★	artesanias	viajar	dame ★★★	Colombia
	es	de	viaja	recuerdos	Costa Rica



Integrating Frames (Narratives) and Schema (Gameplay): Crafted Narratives and Use of Failstates



Failstates to create experiential learning (Squire, 2008 and Sykes and Reinhardt, 2013)

Person-centered learning (Boell and Senge, 2016; Lantolf & Pavlenko, 2001)

Porosity of the classroom (Larsen-Freeman, 2018; Knight, Marean, & Syke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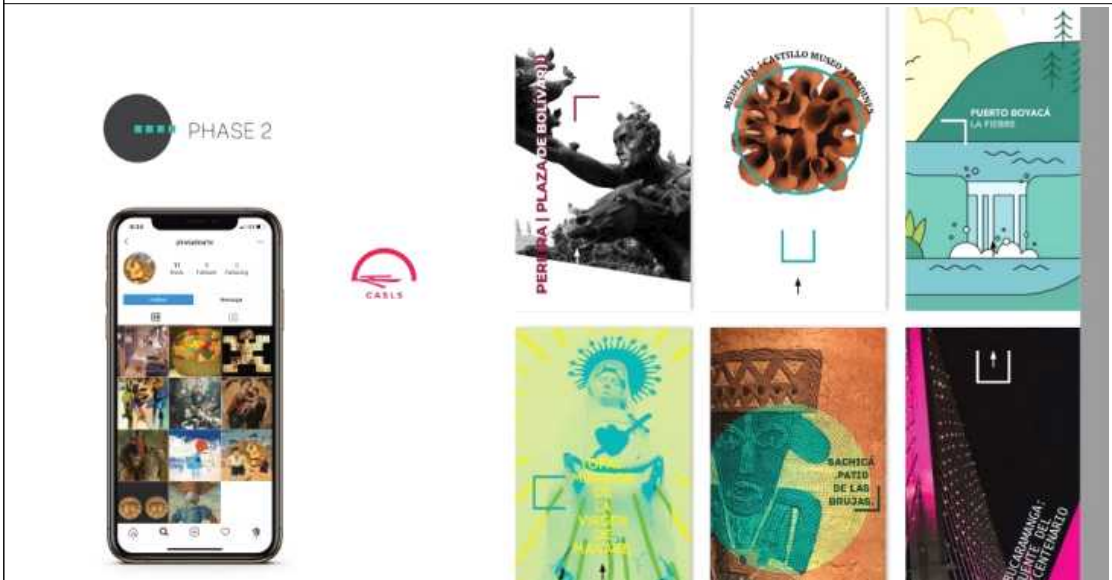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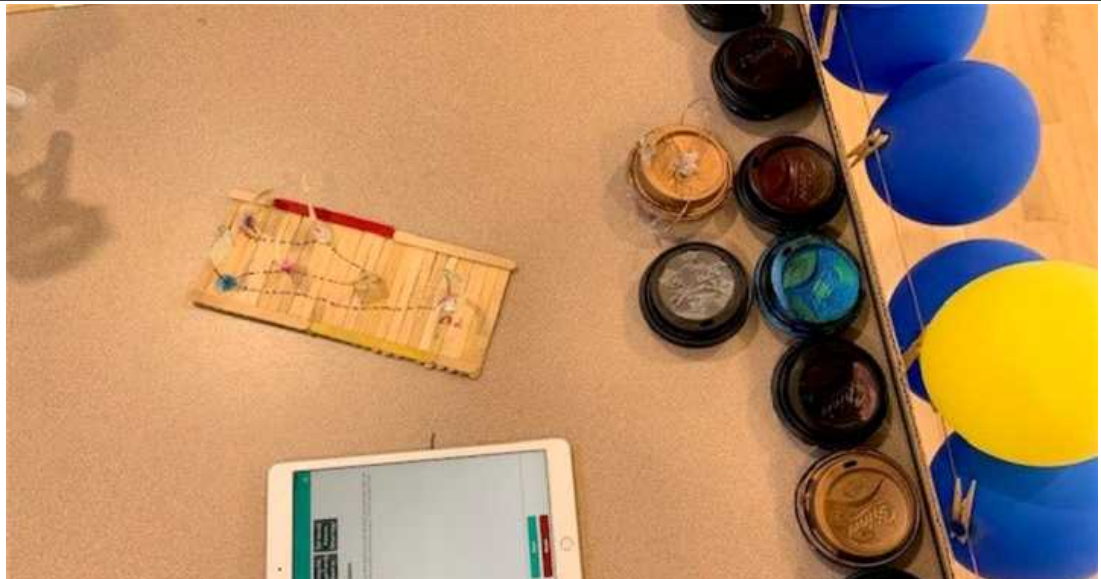
Leveraging Multimodalities: Authentication via Context Awareness, Real Worldness, and Enactment



Authentication as a "process of personal relevance" (van Lier, 1996, p.128)

Cognitive processes diverse; unfold in unplanned ways (Steffenson, 2013)

Physical embodiment and enactment via pedagogies of multiliteracies (New London Group, 1996); Reinhardt and Thorne, 2019)



Facilitation for Immediate and Possible Futures



Feedback that is comprehensible (Holden and Sykes, 2013) without compromising learning (Bjork and Bjork, 2011)

Feedback that is timely (Gee, 2007; Sykes Reinhardt, and Thorne, 2010)

PHASE 3

63% 15% 13% 9%

Transportation resources Carpooling Video Bicycles

TIEMPO

26% 15%

6% 53%

DINERO

65% 29% 5%

ACTIVIDADES

57% 14% 12%

Avianca TARJETA DE EMBARQUE

CASL

Where are we going?

- Data, data, data!
 - How do MREs compare to other game genres?
 - In what ways do they work well and in what ways do they not?
 - Skill
 - Topic
 - Timing
 - Digital versus multimodal?
- High fidelity as compared to low fidelity design. Does it matter?
- Learners as builders

Questions?

jsykes@uoregon.edu



Session 1

소설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쪽수
13:10- 13:35	김대중	강원대	조안 디디언의 민주주의에 나타난 미국 현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연구	35
13:35- 14:00	류승구	강릉원주대	The Poethics of Nostalgia in Thomas Pynchon's <i>Bleeding Edge</i>	51
14:00- 14:25	정은숙	중앙대	민족적 알레고리로서의 하진의 『광인』	55
14:25- 14:45	휴식			
14:45- 15:10	안동현	서울신학대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에 나타난 여성의 글쓰기	65
15:10- 15:35	김효실	강원대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로서의 마크 트웨인의 시뮬라시옹- 『신비한 소년 44호』를 중심으로-	73
15:35- 16:00	이영애	한라대	기후소설로 본 바바라 킹솔버의 『비상』	83

조안 디디언의 『민주주의』에 나타난 미국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김대중
(강원대)

I.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조안 디디언의 『민주주의』(*Democracy*)는 미국 민주주의의 본령이 부패와 포퓰리즘과 반지성주의에 있음을 폭로하는 소설로서 아이러니로 가득찬 포스트모던 소설이다. 이 소설의 가장 큰 의문점이자 핵심은 왜 제목이 『민주주의』인가이다. 사실 내용적으로 이 소설은 정치를 다루기는 하지만 한 정치인 가문의 이야기를 다룰 뿐 실제 미국 정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물론 작품의 현재적 배경이 되는 1975년 베트남전쟁과 사이공 탈출 등 미국의 국제정치와 맥락이 닿고 스파이라는 인물을 시대 배경에 넣기는 하지만 중심 주제로 미국 정치를 직접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소설은 어떤 의미에서 고도로 정치적인 소설이며 민주주의의 근원을 묻는 소설이다. 소설은 오히려 발터 벤야민의 성좌처럼 과편화되고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이미지들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정치와 민주주의와 가족과 세계정치에 대한 근원 문제를 스스로 던지도록 만든다. 즉 소설은 벤야민의 알레고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알레고리의 중심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디디언이 제시하는 작품 속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 있다. 실제로 현대 정치에서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다. 자본주의는 이미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모두 지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의제는 모두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혹은 트위터와 같은 응집력이 강하고 조작이 가능한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이성 사라지고 감정적 확증편향과 온라인 부족문화(tribalism)가 판을 치고 정치권은 선거에만 올인하며 권력을 잡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원인 '인민'(demos)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대표집된 집단으로 남겨나 정치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정치혐오주의에 빠져 있다. 소수당과 소수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모든 정치적 판단은 다음 선거의 승리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지역과 계급과 계층과 젠더와 섹슈얼리티 등으로 미세하게 나뉘어진 미시정치는 모두의 욕망을 빨아들이고 있다. 한 사람이 각 이슈들에 대해 당파성이 없다고 해도 수많은 미디어의 유혹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는 다른 정파에 소속되기도 하고 정치적 정체성 자체가 무의미해지기도 했다. 정치는 오히려 사법부가 행하고 있고 모든 정치적 사건들은 검찰과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반대에 있는 독재정권과 전체주의 정권이 '민주'나 '공화국'을 국가명에 넣는다. 모든 국가가 선거를 통해 권력이 선출되는 민주적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누구도 그 정권이 과연 민주적인지 장담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은 모두가 민주주의자라고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 민주주의 범용화의 시대이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민주주의가 되면서 민주주의는 아무런 의미 없는 텅빈 기표로만 남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심장인 미국은 극렬한 정파의 대립과 트럼프즘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이 폭도들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의 민주주의는 회의감만을 부르고 있다. 더구나 민주주의의 확신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전세계 제국주의 전쟁들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예에서 보듯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현대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는 제한되고 정치의 핵심이 경제가 되었다. 민주국가와 독재국가가 서로 양분되면서도 모호하게 겹쳐져 있다면 이제는 자본주의의 반대인 공산주의마저 정치체제는 공산당 일당 독재임에도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갖고 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세계 자본주의가 이루어졌고 모든 정치 이슈는 경제이슈의 표면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란 자본주의의 폭주 속에 발생하는 이슈들과 언론에 비취지는 스펙타클의 허무한 비전만을 갖게 된다. 신자유주의와 같은 경제논리가 정치논리가 되면서 푸코가 논하듯 인구라는 이름의 인간에 대한 관리와 노동력에 대한 경영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지오 아감벤은 『왕국과 영광』(*The Kingdom and the Glory*)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어떻게 정치가 스펙타클 사회 속에서 경제논리 혹은 그가 오이코노미아라고 지칭하는 패러다임으로 지배되게 되었는지 고고학적 방식을 통해 고대로부터 파고든다. 그리고 아감벤에 따르면 오이코노미아는 가정, 배치와 질서, 삼위일체와 같은 신의 섭리, 군림은 하지만 통치않는 주권에 대한 국가 이론, 스펙타클의 사회와 신자유주의 속 생명관리정치로까지 확장된다.

미국의 여성작가 존 디디언의 『민주주의』 속 민주주의는 스펙타클로서의 정치와 그 안에 숨겨진 오이코노미아의 현대적 의미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 본 연구는 이 작품에 나타난 오이코노미아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근대 이후 민주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민주주의와 스펙타클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에서 유럽의 지성인들인 아감벤, 바디우, 낭시, 랑시에르, 지젝 등은 모두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한다. 이 중 아감벤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권두노트」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정치체제의 구성형식이나 통치기술의 형태로 인식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그러면서 통치로서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어원인 ‘민중’(demos, people)이 갖는 주권과 통치의 모호한 분리와 결합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민중이 주권을 지닌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때 민중을 통치하는 행정력은 민의의 대변이라고 하는 입법권과 충돌하게 된다. 즉 주권을 지닌 민중의 뜻이 행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행정이 민의와 민중의 합의를 각종 강제력과 폭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통치의 어두운 면에 권위주의가 자리잡게 된다. 주권과 통치의 분리는 통치의 주체가 행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통치는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금권으로 행사되거나 미디어에 의해 조정된다. 천사가 신의 모든 행위들을 대신 수행하듯 현대 민주주의의 천사의 가면을 쓴 이들 통치자는 미디어의 스펙타클이라는 후광을 받으며 민의를 짓밟고 통치를 이어간다. 거대 미디어기업들과 족벌들과 사법권력의 연결등이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아감벤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의 근원에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가 있다. 아감벤에게 오이코노미아는 자본주의와 미디어에 조정당하는 현대 민주주의 통치에서의 비어있는 주권과 민중의 자리를 채우는 통치 패러다임이다.

아감벤의 『왕국과 영광』은 서구 정치신학 속 오이코노미아와 영광(glory)이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통한 서구 정치 속 권력(power)에 대한 계보학적이고 고고학적 연구를 담고 있다. 서구 정치에서 권력은 일반적인 논의대로 주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이코노미아와 통치의 패러다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아감벤의 주장이다. 『왕국과 영광』은 근원적으로

칼 슈미츠(Karl Schmitt)의 정치신학과 푸코의 생명관리정치 그리고 기 드보르의 ‘스펙타클 사회’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오이코노미아를 통해 풀어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어떻게 서구 정치신학에서 생명관리정치가 오이코노미아와 통치의 형태로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파악한다. 오이코노미아는 현대 영어에 쓰이는 “경제”(economy)의 어원이 되지만 고대부터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녔다.¹⁾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경제가 세속화의 과정을 통해 신학적 경제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not that political economy derives from theological economy through a process of secularization) (Watkin 215). 아감벤은 정치신학으로 정치가 신학적이 된 것이 아니라 신학 자체가 세속화된 신학적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형성되었고 이 신학적 패러다임으로 오이코노미아를 지목한다. 이렇게 보자면 서구 신학은 애초부터 오이코노미아의 패러다임으로 형성되었다. 논의의 첫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오이코노미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가정의 경영”(administration of the house)를 의미했다(Agamben 17).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oikos)의 통치 혹은 경영으로서의 오이코노미아는 도시인 폴리스의 정치와 다른 것으로 여겨졌다. 가정 내에 주인과 노예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위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오이코스를 운영하는 오이코노미아는 수직적 상하관계를 통한 통치의 개념이 되고 자유로운 시민들의 정치의 장인 폴리스의 정치(politica)와 다른 개념이 된다. 고대 그리스 시대를 거쳐 한동안 수사법의 일종을 여겨지던 오이코노미아가 새롭게 조명받게 된 첫 번째 계기는 기독교 신학에서였다. 오이코노미아는 “새로운 의미의 장으로 확장된다”(extension into new areas of denotation)(Watkin 217). 바울은 오이코노미아를 메시아적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구조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용어로 사용했고 이후 기독교에서 오이코노미아는 ‘구원의 신성한 계획’을 의미한다(20). 또한 오이코노미아는 유일신과 삼위일체의 모순을 초월하는 용어가 된다. 오이코노미아는 ‘배치,’ ‘결합’ 뿐 아니라 ‘분리’를 모두 포함하고 초월하는 신비로운 단어이다. 오이코노미아는 신의 존재와 통치를 ‘분리’시키기도 한다. 신은 오이코노미아를 통해 존재와 행위가 구분되면서도 하나가 되듯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셋이 함께 배치되며 삼위일체를 이룬다.

기독교에서 오이코노미아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담아낸 신의 섭리를 의미한다. 오이코노미아를 통한 섭리와 신비의 연결은 초월적인 신과 세속의 통치의 화합을 이루고 인간 역사 속 통치를 신비의 대상으로 만든다. 신은 단일한 일자로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고 배치되어 통치를 한다. 이러한 존재와 행위의 결합이 초기 신학자들에게는 신비와 영광에 해당하며 신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존재로서의 신이 아나키의 상태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영광을 드러낸다면 또다른 신의 오이코노미아는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경영과 통치를 한다. 이 실천으로서의 신은 질서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 밖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배치하는 신이 된다. 신학적 오이코노미아는 구원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구원을 수행하는 통치와 정치적 의미마저 지니게 된다. 오이코노미아는 통치의 실천(praxis)의 근원이 된다(Abbot 31). 오이코노미아는 정치와 신학과 경제와 수사법등 속 일면 모순되는 존재론적인 것과 실천론적인 패러다임을 모두 아우르는 표징(signature)이 된다.

존재로서의 신과 실천의 신 사이의 분리와 초월적 결합으로서의 오이코노미아는 군주제의

1) oikonomia에서 oikos는 가정을 의미하고 nemein는 경영을 의미한다.

통치방식에 이용된다. 로마시대 이후 군주제에서 ‘왕국’(kingdom)’은 신의 존재와 같이 ‘autocritas’ 즉 행위가 없는 권위로서의 권력과 민중이 부여한 실질적인 권력으로서의 ‘통치’(government)로서의 ‘protestas’로 나뉘었다. 통치는 왕국이나 주권의 권력으로 가능하지만 왕국이나 주권 그 자체는 통치를 수행할 수 없다. 반대로 통치는 주권의 무위(inoperativity)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주권은 통치의 중지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상호배제를 통해 오이코노미아는 이율배반적인 통치와 권력의 이분화를 가능케 했다. 즉 왕은 신처럼 존재와 행위가 분리되어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는 않는 군주가 된다. 오이코노미아는 섭리와 구원, 존재와 실천, 군림과 통치, 아나키와 모나키의 이분법들과 그안에서 작동하는 모호하며 이상한 상호배제와 통합의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군주제의 모순된 이분법은 민주제에도 해당된다. 오이코노미아는 통치 기계이다. 통치와 왕국, 통치와 민주주의가 분리되면서 통치 기계는 중심이 비게 된다. 민주주의를 예로 들자면 주권을 지닌 ‘국민’은 민주주의 통치 기계에서 배제된다. 민주주의 통치 속에서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통치를 할 수 없고 통치를 하는 정부는 국민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위임받지만, 국민이 통치의 중심에 서지 못해야 해야만 통치할 수 있다.²⁾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중, 데모스’가 사라져야 통치는 가능하다. 통치 기계의 중심은 ‘무위’의 공간이다. 아감벤은 신학적 오이코노미아가 어떻게 민주주의 통치에서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로 미국을 든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가장 균형잡힌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보듯 민심이 정권을 선택하기보다 선거인단의 구성과 정치적 개리맨더링이 정권과 의회 권력을 선출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와 통치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리가니스탄에서의 전쟁으로 기존 그 국가들에 있던 여러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군사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제도로서 작동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그 국가의 주권을 지닌 국민이 아니고 주권을 가지지 못한 미국이 통치한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존재만 하는 신을 대신하여 통치만 하는 신의 이중적 모습과 군주제에서 군림하지 않지만 통치하는 통치세력의 모습과 상통한다. 물론 그 결과들은 대부분 파국이었다.

아감벤은 통치기계의 작동을 이해하고 통치 기계의 이중성을 연구하기 위해 영광에 대한 고고학을 시도한다. 영광은 이 빈 중심을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비어있는 중심이 보이지 않게 만든다. 신학에서 신의 영광은 신도들의 찬양과 찬양가로 채워진다. 신학은 성찬식을 통해 물질화되고 이 성찬식에서 영광송과 환호송은 정치와 신학의 분리불가능 지점인 일종의 문지방으로 작동하게 된다. 영광을 통해 오이코노미아는 신의 존재와 실천, 왕국과 통치를 묶을 수 있게 한다. 오이코노미아는 영광이 되고 영광은 오이코노미아가 된다. 그러나 이 영광송 역시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무위의 상태가 된다. 즉 신학과 정치 모두에서 영광은 권력이 사라진 공간 혹은 권력의 무위의 빈공간에서 발생한다. 영광이 드러나는 공간에서 왕국 혹은 정치체제와 통치는 서로 소통한다. 영광은 노래와 구호와 제식의 스펙타클로서 권력의

2) 근대 이후 정치신학에서 신과 주권이 초월적으로 형성된 반면 오이코노미아는 폴리스의 문제가 아니면서 인간과 신의 권력 배치와 형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패러다임들이다. 정치철학과 근대 주권 이론이 첫 번째 패러다임이라면 현대 생명관리정치와 경제가 정치를 압도하는 현상은 두 번째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이 두 패러다임, 즉 주권과 정치, 경제와 생명관리정치의 패러다임들은 서로 상호의존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군주제, 현대 정치 속 통치의 삼위일체는 존재로서의 신/왕국/주권, 행동하는 신(천사)/정부(government), 오이코노미아/경제의 구성으로 형성되었다.

비어있는 중심을 채운다.

아감벤이 보았을 때 폴리스의 정치는 오이코노미아의 안에 들어가 있고 비어있는 중심에는 스펙타클만 가득하다. 영광이 성찬식에서 찬양의 노래로 가득 채워지듯 나치의 정치집회에는 구호와 제식과 군가로 가득하다. 정치집회에서 정치는 사라지고 구호와 노래와 승리의 영광에 대한 믿음의 스펙타클이 대신한다. 아감벤은 영광이 파시즘에서 ‘하이 히틀러’등으로 변화되었고 현대에 대중 여론과 미디어로 변화되었다고 본다. 이 영광과 찬양의 정치신학적 모습인 스펙타클은 현대 정치에서 미디어의 영상들이 되었다. 대신은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각종 언론기업의 대규모 기사들과 TV 토론회와 선거 광고들로 채워진다. 그러나 스펙타클은 “허무주의의 신성화와 인간 경험의 파괴를 재현한다”(represents the apotheosis of nihilism and the destruction of human experience)(Abbot 28). 스펙타클로 통치 기계가 화려해질수록 통치의 실체는 공허하며 인간의 정치적 경험은 이데올로기의 환영에 갇힌다. 스펙타클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중심 현상이며 “현대 자유민주주의에서 미디어와 의견과 합의의 스펙타클적 기능은”(spectacular function of media, opinion and consensus in contemporary liberal democracies) 민주주의 통치 실현의 중심이 된다(Abbot 36). 민주주의에서 민중은 민주주의에서 주권을 지닌 중심이지만 사실상 통치에서 배제되었고 이 빈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 정당집회에 모인 집단의 구호와 여론조사등의 숫자에 불과하다. 미디어는 온통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연설과 선동을 보여주지만 실제 그들이 호소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오이코노미아의 통치는 결국 정치신학의 중심에 경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정치적 행위가 제거된 통치의 빈공간에 경제가 들어갔고 자본이 작동한다. 이러한 통치의 가장 현대적 예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자본의 논리를 극대화한다. 더구나 푸코가 논하듯 신자유주의의 통치는 생명관리정치를 활용한다. 민중은 자본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되고 통치는 생산력으로서의 인구의 숫자와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소비중심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가 소비자가 된다. 자본은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고 토지등 모든 사물들은 자본의 가치를 지닌다. 정치는 실종되고 민의는 사라지고 구호와 각종 미디어, 소셜 미디어의 스펙타클만 가득하다. 스펙타클 안에서 민중은 더 많은 노동력을 생산하도록 강요받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하도록 교육받는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정치의 실종 속에서 영광으로서의 스펙타클과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가족중심의 위계와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케네디나 트럼프 가문이나 부시 가족 내부의 오이코노미아가 실제로 국가 통치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아봇(Abbot)은 스펙타클이 가진 긍정적 요소 역시 아감벤은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아감벤은 스펙타클을 통해 우리 존재 자체가 근본을 상실했고 역사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생물학적 운명 따위가 없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스펙타클을 오히려 완성시킴으로서 새로운 시작의 잠재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스펙타클을 통해 정치는 통치에 대한 참여 요구를 제거하지만 반면 스펙타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정치와 경제에 대해 사유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미 스펙타클 자체이다. 민중이 스펙타클을 걷어내는 것은 기술문명에서 기술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에 있는 민중 권력의 공허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오히려 스펙타클을 완성시키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스펙타클의 완성은 아감벤 철학의 목적인 ‘무위’(inoperativity)의 실현이다. 아감벤의 이러한 무위의 실천에 대한 논의는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이론

과도 일맥상통한다. 시뮬라시옹의 제거는 불가능하다. 시뮬라시옹은 현대 사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증상을 즐기듯 시뮬라시옹을 깨닫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다. 지적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가로지르고 새로운 실천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현실적 대책이다. 영광의 매카니즘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영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역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위의 실현은 무엇일까? 아감벤은 무위의 실현을 행복과 연결시킨다. 무위의 실현은 ‘하지 않은 잠재성의 발견’에서 비롯된다. 스펙타클의 패러다임과 정치의 허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과 삶을 올곧이 사색하는 시간에서 무위의 실천이 일어난다. 무엇이든 하지 않을 잠재성을 선택하는 바틀비의 반자본주의적 선택이 무위의 실천이다. 『민주주의』 속 이네즈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선택의 한 예이다. 목적과 스펙타클과 행위들로 가득한 민주주의의 전쟁터에 이네즈는 간헐 살다가 결국 행위가 아닌 존재가 중요한 순간과 공간을 발견한다.

III. 포스트모던적 글쓰기와 스펙타클

조안 디디언의 『민주주의』는 “태평양에서의 실험들이 일어날 때 여명의 불빛은 정말 장관이었지”(The light at dawn during those Pacific tests was something to see)라는 구절로 시작한다(11). 1975년 봄 이네즈 빅터(Inez Victor)의 60대 정부이자 CIA요원인 잭 로벳(Jack Lovett)이 1952년과 1953년에 있었던 핵실험을 묘사하며 상원의원 해리 빅터(Harry Victor)의 아내인 이네즈에게 당시의 “하늘은 어떤 화가도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핑크색이었어”(The sky was this pink no painter could approximate)라고 묘사한다(11).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핑크색이 사실은 핵폭발로 인한 발생한 파괴의 색이라는 점에서 작품이 지닌 현실과 환상 사이의 간극과 환상의 뒷면에 감추어진 추악한 현실을 잘 드러낸다. 더구나 잭이 이 장면을 설명하는 그 시점에 그들이 머무는 하와이 호놀룰루의 반대편에서는 베트남전쟁이 한참 일어나면서 사이공에서 전폭기들이 밤새 폭격을 하고 있다(14). 역사적 상황들 속에서 이들 인물들의 삶들은 말 그대로 스펙타클에 지나지 않는다. 핵폭발의 스펙타클이 아름답지만 치명적이듯 이들 인물들의 삶들 역시 화려한 스펙타클로 가려져 있으며 그 안에는 소음과 분노만 가득하다.

역설적 스펙타클은 작품을 지배하며 작품의 창작 방식과도 연결된다. 포스트모던 기법을 사용하는 이 작품은 메타픽션, 자기반조성(self-reflexivity), 탈중심화(ex-centricity), 역사기술법(historiography), 나레이터와 작가의 끝없는 간섭등을 보여준다. 포스트모던 소설담체 일종의 모자이크방식으로 쓰여진 에피소드 형식의 글에서 작중 화자는 저자인 존 디디언이라는 이름의 작가이자 기자로 작품 초반에 나타나 스스로를 “관찰자”(observer)라고 묘사한다(12). “나를 작가라고 불러라”(Call me the author)라는 화자의 독백은 『모비딕』(Mobydick)의 첫 문장인 “나를 이슈마엘로 불러다오”(Call me Ishmael)을 떠올리게 한다. 화자는 자신이 소설가로서 가진 재능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고백한다(17). 작중 화자인 디디언은 인물들의 삶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문서 저장소에 있는 자료들을 보듯 전체 이야기는 모자이크처럼 각각의 조각들이 얽혀 있고 시간 순서가 복잡하게 엮여진 에피소드들로 제시된다.

자기반조성(self-reflexivity) 기법 역시 사용된다. 이야기가 산만해지는 지점이 되면 저자

이자 관찰자이며 텍스트상의 편집자이자 실제 등장인물로서 화자인 디디언(이후 화자라고 칭함)이 등장해 이야기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앞의 사건을 다시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가령 화자는 2장의 자신의 작법과 글쓰기의 혼란을 고백한 이후 3장에서 “소설은 일인칭으로 나의 어머니가 춤추는 장면을 상상하라라고 시작했다. 일인칭 화자는 이네즈이지만 이후에 삼인칭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Imagine my mother dancing, that novel began, in the first person. The first person was Inez, and was later abandoned in favor of the third)라고 시점의 변화를 설명한다(21). 또한 독자들에게 직접 말을 걸면서 “독자인 당신이 그렇다는 것을 아는 한가지 이유는 내가 이전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One reason you know it is because I said so, early on)라며 독자들의 기억을 일깨우기도 한다(160). 또한 사건을 설명하다 갑자기 “네러티브의 중심은 어떤 계산된 생략으로서 독자가 놀라거나 놀라게 되도록 하는 저자와의 묵언의 계약”the heart of narrative is a certain calculated ellipsis, a tacit contract between writer and reader to surprise and be surprised”이라며 마치 영화처럼 사건의 설명을 건너 뛰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기도 한다(162). 그리고 네러티브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나올 때 “네러티브 경보”(A narrative alert)를 울리기도 한다(164). 이와 같이 독자와 텍스트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사건들이 표면적일 뿐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디디언은 메타픽션의 또다른 형식으로 여러 역사 자료를 소설에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포스트모던 역사자료수법(historiography)기법을 활용한다. 디디언은 1975년 실제 역사 속 각종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한다. 자료들은 작품의 형식처럼 대립된 이미지들이 뒤섞여 있다. 가령 실제 1975년 4월 21일자 뉴스위크지에 실린 존 군터 딘(John Gunther Dean) 미국 대사가 국기를 팔에 끼고 캄보디아의 프놈펜(Phnom Penh)을 떠나는 장면과 그 밑에 쓰여진 “꺼져”(Getting Out)이라는 문구의 옆에 가상인물을 넣음으로써 실제 역사와 허구를 뒤섞는다(108). 이 사진들 옆에 디디언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호놀룰루에 머물면서 빌린 집과 그 옆에 있는 부서진 무지개 사진을 함께 둔다. 이러한 이미지들의 풀라주는 일종의 브리콜라주형태의 소설의 형식과 조응된다(109). 디디언은 이러한 이미지들에 대해 “1975년 여름...나는 이러한 버전들을 모으고 맞추어보는데 시간을 보냈는데 많은 것들이 대립적이고 대부분의 것들은 자기충족적이었다”(In the summer of 1975...I spent the summer collecting and collating these versions, many of them conflicting, most of them self-serving)라고 표현한다(110). 모순된 표피적 이미지들의 모임은 일종의 기호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메타픽션 형식은 작품 내용과 조응을 이룬다. 메타픽션적 형식은 스펙타클만이 있고 대립적이고 모순된 이미지들이 섞여 있을 뿐 의미가 배제된 후기산업사회 민주주의 통치와 조응을 이룬다. 그리고 저자인 디디언은 텍스트에 참여하면서 사건들을 희화화하고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섞음으로써 독자의 현대사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해체한다. 또한 이러한 작품의 구조는 권력의 속성인 오이코노미아와도 조응한다. 오이코노미아는 대립의 초월적 합일이다. 저자가 보여주는 파편적인 인물들의 삶과 이야기, 그리고 각 인물의 외양과 내면은 서로 대립된다. 이네즈는 남편과 불화에 시달리지만, 미디어에는 이상적인 정치인의 아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이상적인 모습만 비춰지고 이들의 자녀들 역시 겉으로는 이상적인 자녀들로 보이지만 실상은 위선적이거나 위악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네즈의 내연남인 잭은 스파이로서 베트남전과 관련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작전들을 수행하고 있고 자넷과 그녀의 남편은 서로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살갑게 지내려

한다. 파괴된 오이코스 즉 가정은 파괴된 폴리스 즉 정치공동체를 대변한다. 권력은 모순을 융합하지만 내부는 협잡과 위선과 위약으로 넘쳐난다. 민주주의는 작품에서 사라진 민중들의 세계가 아니라 몇몇 정치인들의 스펙타클에 의존하고 있다. 민중은 단지 투표에서 표의 숫자로만 민주주의 안에서 기능한다.

정리하자면 디디언의 포스트모던적 글쓰기는 일종의 스펙타클로서의 글쓰기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네즈와 그녀와 관련된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는 가장 알맞은 글쓰기 형식이다. 『민주주의』 속 인물들의 삶은 스펙타클만 가득차 있고 본질은 사라졌다. 그들의 삶을 본질을 투영하고 재현하는 사실주의나 모더니즘 방식으로 재현할 수 없다. 그들의 껍질만 남은 삶은 오히려 포스트모던적 기법으로만 보여줄 수 있으며 이것이 작품의 내용인 현대 민주주의의 현실과 합당하게 맞는다. 그렇다면 이제 작품의 내용으로 들어가 어떻게 오이코노미아가 권력의 통치로 작동하고 스펙타클이 중심을 이루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오이코스과 폴리스

『민주주의』는 가족소설이다. 실제로 미국 정치는 가족이야기의 구조를 갖는다. 케네디 가문의 존 F. 케네디와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의 복잡한 관계와 그들의 암살은 미국 정치의 어두운 면이면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야기이다. 부시 가문이나 트럼프 가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국에서도 다이애나 왕비의 삶과 죽음은 왕실 전체의 스캔들이 된다. 현대 정치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체계화된 국가들에서 가문과 그들의 스캔들이 가장 대중적인 정치적 사건들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민주주의』에서도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과 미국의 정치가 놓여 있지만 실제로 내용은 크리스천 가문 사람들과 빅터 가족 그리고 한 스파이의 삶이 제시된다. 아감벤이 논하듯 가족의 그리스어인 오이코스는 고대 그리스 시절에 폴리스와 분리되었다. 폴리스의 영역이 공적 담론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토론 장이라면 오이코스는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노예에 대한 경영과 부모와 자식의 착취구조, 남녀간의 차별 구조를 담고 있는 통치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이코스가 폴리스의 중심이 된다. 미국 상원의원인 빅터가족의 삶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언론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핀다. 여기서부터 오이코노미아의 패러다임이 작동한다. 작품 전체에서 통치하는 세력과 통치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보이는 것은 각 개인들이 오이코노미아의 배치된 통치수단으로 움직이면서 벌이는 행동들이고 이 행동들의 근원에 있는 경제논리이다.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자본주의의 총아들이며 비즈니스가 일상인 인물들이다. 이중 이네즈가 속한 크리스천 가문은 대대로 하와이에서 큰 사업을 해온 부르주아이자 속물들이며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삼촌인 드와이트 크리스천은 건설업자로서 골프를 취미로 즐기며 사업에 빠져 산다. 전형적인 마초이자 배금주의자인 드와이트는 『포춘』(*Fortune*)지와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에 실릴 정도로 잘 나가는 사업가로서 키에르케고 르나 라신(Racine)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속물이며 하와이 정재계의 거물이다. 이네즈의 어머니인 캐롤은 어릴 적 모델일도 하다가 1934년 폴 크리스천(Paul Christian)과 결혼해서 하와이에 정착해 산다. 캐롤은 남편의 가문에 종속되어 산다. 그러던 캐롤은 어느날 삶에 환멸을 느끼고 남편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샌프란시스코로 떠난다. 폴은 “로맨틱한 탕자”(romantic outcast)이다(26). 반항기가 넘치는 폴은 자신이 속한 가문을 비웃으면

서도 가진 돈으로 평생 자기 맘대로 산다. 그러나 아내가 그를 떠난 후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게 된다. 풀은 가족을 모두 버리고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다니며 신비주의에 심취하기도 하고 이상한 음모 이론을 믿기도 한다.

이네즈와 자넷은 고아들처럼 삼촌 드와이트와 할머니의 손에서 크다. 삼촌과 할머니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가문을 이끌고 두 아이들은 부유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러나 이네즈와 자넷은 성향이 다르다. 가령 어머니가 떠난 이후 자넷은 너무 울어서 소아과 병원에 가서 진정제를 맞았지만 이네즈는 절대 울지 않았다(69). 자넷은 엄마가 보내준 엽서들을 실내등 옆에 세워두고 캐롤의 손글씨를 따라 써보기도 하지만 이네즈는 어떤 것에도 애착을 가지지 않는 차가운 성격을 보여준다. 성인이 된 제넷은 결과 속이 다른 다소 위선적인 인물이 되고 남편인 딕 지글러(Dick Ziegler)는 홍콩에서 부동산업으로 돈을 벌지만 드와이트 삼촌으로 인해 그 돈을 하와이 오아후(Oahu)의 개발사업에서 다 잃었다. 캐롤은 이후 로스엔젤레스에서 유명인들의 라디오쇼 예약을 잡는 일 같은 다양한 일을 하다가 자넷의 결혼식에 나타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빈다(155). 그러나 자넷의 결혼이 있고 19일만에 캐롤은 레노(Reno) 근처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는다.

크리스천 가문의 일원인 이네즈는 평생 누군가의 조카나 딸이나 아내로 살아 올 뿐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해왔다. 가령 어린시절 이네즈는 드와이트의 조카로 알려졌을 뿐이다. 또한 1955년 해리와 결혼한 이네즈는 해리 빅터의 아내로만 인식된다. 이네즈의 내면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3인칭 시점을 통해 화자는 마치 카메라 앵글에 잡힌 피사체의 모습만을 그려내는 객관적 서술기법으로 이네즈의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담길 뿐 그녀의 생각은 행위와 말로만 드러난다. 법무부에서 2년 정도 일한 해리는 법률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후 다양한 시위들에 참여하며 정의로운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 한다. 이후 해리는 정치현장에서 입지를 갖추고 1964년부터 하원의원을 지내다가 1969년에 사망한 상원의원 자리를 3년간 대신한다. 이네즈 역시 결혼 했을 때에는 박물관에서 도슨트로 일을 했지만 쌍둥이가 태어나고부터 한동안 일을 그만둔다. 해리의 아내로 살면서 이네즈는 정치인부인들이 할만한 소일거리와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 그녀는 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해리의 정치 컨설턴트이자 일종의 집사인 빌리 딜런(Billy dillon)의 만류로 결국 미국 대사관에 걸리는 그림들에 대해 상담하는 한가한 직업을 갖는다. 이후 해리는 무수한 선거들과 기금모금등을 거쳐 1972년에 대선 경선에 나서지만 실패한다.

이네즈의 삶은 스펙타클의 삶이다. 그녀가 딸 제시(Jessie)와 아들 애들레이(Adlai)를 낳은 이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뉴스거리가 된다. 이네즈의 삶 자체가 스펙타클이 되고 이네즈 자신의 삶은 뒤로 숨는다. 이네즈 스스로도 늘 카메라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표정을 짓고 행동을 한다. 이에 대해 화자는 “(이네즈가 당시에 상상하기에) 그녀의 아버지와 드와이트 삼촌과 그녀의 동생 자넷의 삶에서 그렇듯 카메라 범위를 벗어난 삶은 이네즈에게 너무나 먼 개념이었고 그녀가 알고는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다”라고 논평한다(Life outside camera range, life as it was lived by (Inez imagined then) her father and her Uncle Dwight and her sister Janet, had become for Inez only a remote idea, something she knew about but did not entirely comprehend)(66). 연합뉴스(Associated Press)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네즈에게 공적인 삶에서의 “가장 크게 치룬 댓가”(Major cost)가 무엇인지 묻자 이네즈는 “기억”(Memory)이라고 답한다(50-1). 이네즈는 또한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 삶이 사라지면서 개성의 가장 근원인 기억마저 마치 충격요법이라도 받은

것처럼 사라지게 되었다고 답한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만 신경쓰게 되었고 결국 “길을 잃었다”(lose track)고 설명한다(51-2). 이네즈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권태로부터 태어난 가식으로서의 수동적 고립”(passive detachment as an affectation born of boredom)에 빠진 것 같지만 화자는 그녀의 삶에서 기억이 남아있다고 말한다(70). 기억은 이네즈의 스펙타클에 가려진 그녀의 진짜 모습이다. 이네즈는 해리가 잠시 정치에서 물러나 버클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개성과 더불어 사라졌던 기억을 되살린다. 기억 속에서 이네즈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 때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현재 이네즈의 가족은 위기에 있고 그녀는 기억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들 애들레이는 사고를 쳐서 한 여성의 눈 한쪽과 콩팥 한 개를 잃게 했으며 이네즈는 딸인 제시가 마약을 하고 자신의 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60).

이네즈의 삶의 텅빈 공허 속에 해리는 권력의 화신으로 모든 것을 통제한다. 해리는 가부장적이다. 해리에게 가정은 공적 정치세계의 축소판이다. 해리의 오이코스(오이코노미아, 즉 통치와 섭리가 동일하게 작동하는 공간이다. 해리는 전형적인 미국 정치인이다. 해리는 현대 민주주의가 통치 기계에 의해 조정당하는 의미없이 공허한 개념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해리에게 민주주의란 자신이 가정에서 갖게 되는 권력과 힘을 국가 통치 차원으로 넓히는 것에 불과하다. 해리에게 가정에서의 권력과 정치에서의 권력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현실 정치에서는 선거가 가장 중요하며 선거를 위해서는 돈과 지지자와 스펙타클이 필요하다는 점뿐이다. 통치 기계의 중심인 오이코노미아가 경제라는 의미를 지니듯 돈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 미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며 각종 미디어 광고에 얼마를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의 기금을 모으는지가 가장 중요한 선거의 요건이다. 수억 달러에 이르는 돈이 선거에 쓰이며 이 돈은 대부분 지지자들이나 고액 기금 모금이 가능한 슈퍼팩(Super PAC)을 통해 로비단체들 혹은 대기업들로부터 충당된다. 가령 해리는 지지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 제도를 위한 연합”(Allian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을 동원해 기금을 모은다(110). 그러나 이들 기증자들 중에서 “이념적 불화”(ideological rift)가 발생하고 조직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기금 마련은 더 어렵게 되었고 미국 국세청 역시 기증자들의 세금면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해리의 대선행은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동력을 잃게 된다. 해리의 가부장적 통치는 가정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청소년 제시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뿐 아니라 성적도 하락하면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애들레이 역시 학업을 충족하지 못해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대학을 가지 않으면 징집으로 끌려갈 우려 때문에 여름학기 수업을 듣고 대학에 뒷문으로라도 들어가려 한다.

V. 미디어와 스펙타클

작품의 또하나의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다. 베트남 전쟁은 이네즈 가족이 보여줄 희비극의 국제적 배경이 되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인 오이코스(오이코노미아)와 정치 영역인 폴리스 사이의 내전 관계에 대한 은유로도 작용한다. 베트남 전쟁은 크리스천 가문의

비극과 연결된다. 아감벤은 그의 『내전』(*Stasis*)에서 대부분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내전이라고 본다. 실제로 미국 내전인 남북전쟁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쟁은 내전이며 베트남전과 한국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과 같은 현대전 역시 대부분 외세가 개입한 내전이었다. 아감벤은 고대 그리스 시절에 내전이 지금은 영어로 정체라는 의미를 지닌 스타시스(*stasis*)라고 표기한 것에 주목한다. 아감벤은 이 용어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를 통해 내전으로서의 스타시스가 오이코스과 폴리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로 쓰임을 밝혀낸다. 한 민족의 내전은 기본적으로 한 가정의 내전이기도 하다. 가정인 오이코스는 내전의 원천이면서 또한 화해의 원천이 된다. 내전은 오이코스에서 내재적이면서 폴리스의 질서를 와해시키지만 한 민족의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처럼 여겨지면서 화해 역시 가능해진다. 그러나 내전으로 인하여 오이코스과 폴리스는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아감벤의 이러한 내전의 해석은 전지구적으로도 넓힐 수 있다. 아감벤은 현대전의 상당부분이 내전으로 발생하며 푸코가 말하는 생명관리정치의 한 예라고 본다. 내전의 특징은 전쟁의 목적이 폴리스나 정치의 영역인 정의의 실현보다는 가정에서의 복수처럼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말살을 위해 일어난다는 점에서 서로의 생명을 겨누는 잔인한 전쟁이다. 베트남 전쟁 역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과 제국주의 척결을 내세운 북베트남 사이의 전쟁이었지만 결국 이 내전은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쟁이 되고 처절한 살육전이 된다.

내전의 또다른 형태는 테러이다. 테러는 가족내의 살육처럼 더 끔찍하게 더 많이 죽이는 복수의 형태를 지닌다. 테러는 일반적으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같은 편에 있는 이들도 예외 없이 죽인다. 베트남 전쟁은 테러와도 연결되고 테러는 작품의 또 다른 배경이 된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인 당시 자카르타를 방문한 해리가 대학에서 리셉션을 가진 다음날 저녁 미국 대사관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난다. 수류탄 사건으로 해리 일행은 모두 책의 선도아래 푼착(Puncak)의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지만 실제로 이 테러로 죽은 이는 인도네시아 운전사 한명 뿐이었다. 해리는 이 사건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혼란”(the normal turbulence of a nascent democracy)이라고 규정하며 제3세계 국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 치부한다(103). 이러한 미국인의 태도는 미국 정치가 테러를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만적인 국가의 자연스러운 내전 현상으로 보는 관점을 잘 보여준다. 책은 이러한 해리에 대해 “당신은 당신 앞에 일어나는 일을 잘 보지 못합니다. 만일 신문에서 읽기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정말로 그런 걸 보지 못하죠. 뉴욕타임즈 정도에서 기사가 실려야 이야기를 하고 수사를 하라고 연설도 하죠”(You don't actually see what's happening in front of you. You don't see it unless you read it. You have to read it in the *New York Times*, then you start talking about it. Give a speech. Call for an investigation)이라고 힐난한다(100-1). 국제정치는 오이코스의 문제로 화한다. 강대국들은 각각의 국가들이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장이라는 폴리스적 정신은 상실하고 테러나 각종 분쟁을 단지 제3세계라는 거대한 타자들의 야만적인 가족에서 일어나는 내전으로 볼 뿐이다.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대조는 계속된다. 명목은 내전이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전쟁인 베트남전쟁이 미국의 패배로 끝나가는 와중에 오이코스의 비극은 계속 일어난다. 디디언은 신문 헤드라인에 풀이 저지른 살인 사건 기사를 접한다. 화자는 사건의 경찰 사건보고서를 3쪽에 걸쳐 제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살해당한 웬델 오무라(Wendell Omura)는 일본계 하와이 2세 출신으로서 지난 20년간 정치인으로 일해왔다. 풀은 1975년 3월 25일 아침에 남편인

딕이 팔에 있는 사이에 자넷의 집에서 함께 있던 오무라를 총으로 쏘 죽이고 같이 있던 자넷 역시 총으로 쏜 후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응급상황을 알린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YMCA에 가서 수영하고 아침을 먹고는 짐이 들어간 박스에 내용물 목록을 다 적어 둔다. 그리고 자신이 총으로 쏜 딸인 자넷을 비롯한 몇몇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우편으로 보낸 후 경찰에 자수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내의 살해 소식을 들었음에도 딕은 집으로 오는 것을 망설일 정도로 딕과 자넷의 사이는 틀어진 상태이며 아마도 오무라와 자넷이 불륜 상대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폴이 오무라와 자넷을 쏜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딸과 형에 대한 분노가 근원에 있다. 아내를 잃은 폴이 전 세계를 돌다 마지막으로 머문 튀니스에서 하와이로 돌아 온 후 YMCA에 있는 방에서 머문다. 폴은 자신이 밑바닥에 왔다고 하면서 극도의 우울감을 표시한다. 실제로 자넷과 드와이트가 매일 골프를 치고 특권층으로 살지만 폴은 무시받고 가난하게 산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폴 자신의 선택이기도 했다. 그는 특권층의 삶이 “속물적인 걸치레”(vulgar extravagance)라며 거부하고 비행기 티켓과 함께 온 초대장 역시 거부한다. 드와이트가 여는 연례 댄스 파티에도 참석을 거부하며 이러한 화려한 연회를 캄보디아에 있는 고아들의 관점에서 보기를 바란다고 말한다(132). 그러던 폴이 가족회사인 크리스콵(Chriscorp)의 연례회의에 참석해 회사경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지만 다른 가족 멤버들의 거부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된다. 오무라 가문은 크리스천 가문만큼 하와이에서 오래되고 기득권을 지닌 가문으로서 드와이트 역시 오무라와 사업을 하고 있었다. 오무라는 딕의 씨메도우(Sea Meadow)개발 사업을 막는 법안을 상정해 두었고 이 법안은 실제로 딕에게는 불이익이지만 드와이트에게는 도움이 되는 법안이었다. 드와이트와 오무라는 자넷과 몰래 짜고 딕의 사업이 잘 안되도록 만든다. 폴은 딕을 위해서 한다면 자신의 딸 자넷과 오무라의 관계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할 것이라 말한다. 폴은 아마도 자신의 사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자신의 형과 불륜을 저지르는 딸에게 정의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벌였을 것이다. 이네즈는 빌리와 함께 감옥으로 폴을 만나러 가지만 폴은 자신이 자넷을 죽인 것이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며 자신은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고 말한다(142).

비보를 들은 이네즈는 바로 호놀룰루로 날아간다. 혼수상태의 자넷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병원을 나서며 이네즈는 자신의 목소리가 “육체에서 벗어나 불분명해”(disembodied, inappropriate) 졌음을 깨닫는다. 가면으로만 가려졌던 그녀의 내면은 일그러져갔다. 자넷이 죽지 않았음에도 드와이트는 장례식을 준비한다. 자넷의 죽음마저 정치와 사업의 일환이 되는 현실에 이네즈는 점점 분노한다. 이네즈는 드와이트에게 그 사진을 당장 치우라고 소리친다. 드와이트의 행위는 현대 민주주의가 공허한 통치 기계를 오이코노미아의 현대적 모습인 자본주의가 채우고 있으며 오이코노미아의 원래 출발지인 가정마저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신의 섭리가 초월적으로 모든 모순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듯 현대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는 모든 모순들을 해결한 것처럼 보인다. 생산력으로서의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들에게 소비자로 존재하게 되고 자본은 인간의 욕망을 먹고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듯한 체제가 되었다. 전쟁 역시 자본의 문제이다. 베트남전은 냉전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미국의 시장지배권을 위한 전쟁이기도 하다. 모든 가치가 자본화되어 있고 인간의 삶마저 자본이 지배한다. 실제적 통치는 자본이 하고 있다.

VI. 오이코노미아와 푸코의 통치 그리고 제시의 저항

아감벤의 오이코노미아 이론의 근원 중 하나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이다. 푸코는 이미 꼴레쥬 드 프랑스에서 행한 강의들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푸코는 권력에 대한 기존 이론의 기반인 주권개념이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정치권력은 기본적으로 전쟁 담론의 연장에 있다고 본다. 푸코가 보기에 근대 이후 정치권력은 법과 주권이라는 표면적 담론이 아니라 타민족, 타인종, 타종교, 타이념 세력과 같은 내부의 타자들을 끝없이 상정하고 그 세력과의 전쟁상황을 근원으로 성립되었다. 삼권분립과 인민의 평등과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사실상 정파들, 종교세력들, 인종들, 민족들을 대변하는 정당들간의 전쟁상황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통치 혹은 통치기계는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인구의 통치를 중심에 두게 된다. 즉 초자본주의의 환경 아래 피임교육과 같은 출산관리와 교육과 위생과 병원과 복지 등등의 이슈를 통해 국민(people)을 인구(population)라는 개념으로 치환해 생산력의 극대화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개념을 공고화한다.

여기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안전’(security)이다.³⁾ 안전은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누군가의 안전은 누군가의 배제를 전제로 가능해진다. 가령 안전 담론에서 백인의 안전은 아시아인의 배제나 흑인의 배제로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역시 이 담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무능력하거나 장애가 있는 이들은 미리 배제함으로써 저항을 원천에서 끊는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감옥 등을 수익 모델로 만들고 민간화함으로써 범죄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약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범죄자를 늘린다.⁴⁾ 더불어 신자유주의 통치에서 인간은 인적자본(human capital)로 여겨지고 개인의 모든 문화적 역량등이 문화자본등으로 치장한다. 각종 자기개발등을 통해 개인들은 자신을 개발해야 할 자본으로 여기게 된다. 아감벤의 오이코노미아는 푸코의 안전과 통치의 문제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지만 다른 그의 저서들에서 호모 사케르나 수용소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신자유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민주주의의 허울에 가려진 배제를 근간으로 한 통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본의 근원적 지배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정치적 삶이 오이코노미아의 초월적 공허함 속에서 자본과 신자유주의 논리에 휘둘리게 되는지 아감벤은 곳곳에서 지적한다.

디디언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인간의 생명을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거나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득의 계산으로 편취하는 당시 미국의 부패한 정치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이코노미아의 세계로부터의 저항은 가능할까? 디디언의 『민주주의』는 이네스와 딸 제시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오이코노미아의 기본인 가정의 경영으로서의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푸코가 논한 ‘자기-통치’(self-governmentality)의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우선 제시의 상황을 살펴보자. 제시는 어떠한 통치의 맥락에서도 벗어나 버리는 대담한 탈주를 통해 오

3) 푸코는 강의들에서 각각의 에피스테메 즉 시기들을 고대 그리스 사회, 초기 그리스도교 시기와 사목권력, 중세의 사목권력과 저항, 13-15세기 통치, 16세기 이후의 국가이성론에 따른 통치, 18세기 이후의 자유주의와 안전장치,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 미국의 신자유주의로 나눈다.

4) 이에 대해서는 여러 증언들이 있다. 가령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수정헌법 13조>(13th)는 이러한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레이건시절부터 역대 미국 정권들이 어떻게 감옥을 민영화하고 감옥의 숫자를 늘렸으며 국민들, 특히 흑인과 같은 계층들을 마약과의 전쟁을 빌미로 감옥에 가두고 수감자의 숫자를 늘렸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코노미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 해리의 가족 누구도 제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마약에 찌들었다가 마약중독치료과정을 계속 밟고 있는 제시는 가족과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한다. 제시를 방문한 해리와 대화에서 제시는 마약 프로그램을 다시 받으라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라는 해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시는 이네즈에게는 미군이 철수하는 베트남에서 직업을 얻는 것이 자신의 계획이라고 밝힌다. 미군들이 다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 베트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는 것을 아는 모든 이들이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제시는 이러한 선택을 정치적 저항으로 생각하며 “그녀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정치일 뿐이라고 여기고 정치란 멍청이들에게나 해당된다고 느껴면서 절대로 회피하지 않겠다고”(she believed that whatever went on there was only politics and that politics was for assholes she would have remained undeflected) 생각한다(176). 그리고 해리와 애들레이가 호놀룰루로 떠난 지 3시간 후에 제시는 마약중독치료 클리닉을 빠져 나와 사이공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탄다. 18살의 그녀는 여권도 없이 예전에 라이프지 기자가 만들어준 가짜 기자증을 들고 사이공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른다. 당시 사이공은 아비귀환의 상태였다. 미 해병대가 건물을 지킨 상태에서 비행기가 미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을 나르고 공항 활주로에는 신발들과 부서진 장난감들이 나뒹구는 “선명한 환영”(lurid phantasmagoria)같았다(178).

이네즈와 해리는 제시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사이공에 내린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전달받는다. 그러나 이 소식에 해리와 빌리는 오직 이 사건이 미칠 정치적 파장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해리에게 실망한 이네즈는 책과 함께 부화절 일요일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타고 홍콩에 도착해 제시를 구출하려 한다. 이네즈는 화자에게 이 비행기로 가는 길이 “죽는 것이 딱 이러기를 희망했던 바대로”(exactly the way she hoped dying would be)였다고 말한다(188). 책은 이네즈를 홍콩에 두고 제시를 구하기 위해 사이공으로 들어간다. 책은 사이공에 가자마자 미군 술집(American Legion club)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제시를 바로 발견한다. 제시는 책의 속임수에 빠져 강제로 미군 수송기에 실려 광을 거쳐 4월 15일 로스엔젤레스로 돌아오게 된다. 같은 달 12일에 미국 대사관이 문을 닫았고 17일에는 크메르 루즈 군이 들어왔으며 4월 28일부터 사이공은 완전히 베트남에게 넘어가게 된다. 해리는 이네즈가 제시 때문에 자넷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을 거부한다(192). 해리에게 자기 오이코스 즉 가정의 모든 일은 그저 정치의 한 단면이 뿐이기에 통치의 차원으로 관리할 뿐이다. 그러나 제시의 이러한 탈주는 결국 제시를 그녀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했던 아버지의 세계인 오이코스과 이 세계의 확장판인 미국의 오이코노미아 즉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제시는 이후 멕시코에서 소설가가 된다. 그녀는 아버지의 오이코스과 미국의 오이코노미아를 떠나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한다.

이네즈 역시 해리와 크리스천 가문으로부터 탈주한다. 4부에서 화자는 이네즈의 내면을 투영하며 “역사, 가지는 이들과 가지지 않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반대물결, 그 안에 있는 개인의 노력으로 크게 영향받지 않는 세계의 격동, 이네즈의 경험은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history, the particular undertow of having and not having, the convulsions of a world largely unaffected by the individual efforts of anyone in it, that Inez’s experience had tended to deny)라고 말한다(211). 오이코노미아와 내전의 역사는 미국 민주주의를 제국주의로 만들었고 세계는 격동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의 삶은 이 세

계적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민중의 몫은 민주주의 안에서 사라지고 통치는 자본과 스펙타클로 이루어진다. 이네즈는 지금껏 남편인 해리와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표들에 대한 “확신”(conviction)아래 살았다(211). 그러나 제시를 구출한 이후 이네즈는 이 모든 것에 안녕을 고한다. 그녀는 자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잭과 함께 쿠알라룸프로 떠난다. 그 사이 잭이 베트남 전쟁등에서 벌인 일들은 미국 의회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의회는 잭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잭이 언론의 중심이 되고 이네즈가 춤을 추었던 동영상은 뉴스를 통해 여러 매체를 통해 등장하게 된다. 이네즈는 다시 한번 언론의 스펙타클이 된다.

이네즈는 잭의 이름이 그가 수행한 무기매매와 마약밀매와 같은 비밀스러운 사업들로 인하여 여러 신문지상에 오르기 시작하자 디디언에게 자신이 있는 쿠알라룸프로에 와달라고 부탁한다(217). 잭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면서 누구에게나 수상스러운 일들을 해왔다. 가령 남베트남에 버려진 미국 무기들을 파는 런던의 무기 매매상을 돕기도 했다. 잭은 미국 제국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어두운 일들을 처리했다. 잭과 같은 이들이 있었기에 미국은 자신의 정의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전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다. 미국의 오이코노미아의 한 부분에는 잭과 같은 스파이들이 있었다. 디디언은 이네즈가 잭을 변명하기 위해 잭과의 만남을 주선한다고 생각하고 쿠알라룸프로 가지만 이네즈는 잭이 8월에 자카르타의 한 호텔의 수영장에서 11시에 죽었으며 자신이 잭의 시신을 호놀룰루에 있는 자신과 잭이 처음 만났던 쇼필드(Schofield) 막사 근처에 묻었다고 밝힌다(221).

그리고 몇주 지나 워싱턴 포스트는 잭이 죽었다고 보도한다. 이후 이네즈는 쿠알라룸프로에 있는 난민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고 더 이상의 어떤 인터뷰도 거부한다. 오이코노미아와 스펙타클의 망에서 벗어나면서 이네즈는 빌리에게 “색깔들, 습기, 열기, 대기 중의 충분한 푸른색, 네가지 망할 이유들. 사랑해요. 이네즈”(Colors, moisture, heat, enough blue in the air. Four fucking reasons. Love, Inez)라고 쓰여진 편지를 보내 더 이상 해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232). 결론에서 빌리는 또다른 나사 출신의 국회의원의 정치보좌관으로 일을 하게 된다. 해리 빅터는 부르셀(Brussels)에서 유럽공동시장의 특별사절단으로 일을 하게 된다. 애들레이는 법원에서 연방판사 밑에서 사무관으로 일을 하게 된다. 이네즈는 쿠알라룸프로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제시에게 편지를 쓰고 가끔 아들레인에게 연락을 하고 해리에게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다. 이네즈는 말레이시아대학에서 미국 문학도 가르치지만 주로 난민 캠프에서 일을 한다. 이네즈는 마지막 난민이 자신의 국적을 찾을 때까지 쿠알라룸프로에 머물겠다고 말한다. 이네즈는 어떤 의미에서 정신적 난민을 선택함으로써 해리와 미국의 오이코노미아를 벗어나 자기-통치가 가능한 자유인이 된다.

VII. 결론: 자기-통치와 소설가의 탄생

오이코스과 폴리스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내전은 폭력적 통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베트남전이 그 예이고 해리와 크리스천 가문은 그 축약판이다. 오이코노미아를 벗어나기 위해 제시가 소설가가 되는 것은 디디언이 이 소설을 통해 스스로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바이다. 제시와 이네즈의 극단적인 탈주는 오이코노미아에서 벗어난 자기 형성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선택이 가능했기에 제시는 소설가가 될 수 있었고 디디언은 자신의 현재를 이러한 메타픽션방식으로 풀어쓰면서 자기 형성이 가능했을 것이다. 현대의 오이코노미아는 SNS와 인공지능을 통해 더욱 스펙타클한 방식으로 그 통치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민주주의

는 여론이라는 틀 속에서 진실과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라는 스펙타클로 치장된 오이코노미아의 장이 되었다. 디디언의 민주주의가 현대적이라면 초현대적 세계가 펼쳐진 21세기에 오이코노미아는 우리 삶 그 자체가 되었다. 각종 여론전에 동원된 대중들은 선거만을 바라고 움직이는 통치기계의 부속처럼 작동하고 표로서만 자신의 현전을 알린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는 공허한 민중의 권력이라는 표징과 스펙타클의 세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치는 바로 이 스펙타클들 속에 숨겨져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이들이 통합되지 않고 불화를 이룰 때 오히려 민주주의는 강해진다. 적어도 잠재적으로 그렇다.

참고문헌

- Agamben, Giorgio. *The Kingdom and the Glory: For a Theological Genealogy of Economy and Government (Homo Sacer II, 2)*. Trans. Lorenzo Chiesa, Matteo Mandarini. Stanford: Stanford UP, 2007.
- . *Stasis: Civil War as a Political Paradigm (Homo Sacer II,2)*. Trans. Nicholas Heron. Stanford: Stanford UP, 2015.
- Didion, Joan. *Democracy*.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1984.

The Poethics of Nostalgia in Thomas Pynchon's *Bleeding Edge*

류승구
(강릉원주대)

In his latest novel *Bleeding Edge*, Thomas Pynchon explores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significances of 9/11 in conjunction with the increasingly ubiquitous dominance of the Internet on every aspect of American life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story begins when Maxine Tarnow, who runs a fraud-investigating agency named Tail 'Em and Nail 'Em, walks her two sons to school at the first day of Spring 2001, and ends exactly one year after when she comes back to her apartment on New York's Upper West Side to see them to school from an unlikely journey tangled up with extremely quirky activities such as using an electromagnetic pulse weapon with elements of ex-Russian mafia to destroy a secret server farm owned by her archenemy, Gabriel Ice, founder of a computer security firm called hashslingrz suspected of being involved in a series of unrevealed plots to muddle and manage people's sense of reality toward perhaps the most extraordinary and surreal event in recent history, 9/11. If this bare outline indicates anything about the novel's overall structure and theme, it is just that Pynchon in *Bleeding Edge* envelops the kind of writerly pyrotechnics and witty narrative rollercoaster laden with grave historical, polit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that Pynchon aficionados expect from him within a story of family.

Not known for giving much attention to the idea of family in his earlier years, Pynchon has provided very "little in the way of families for his characters" (Cowart 108). But this tendency changes dramatically with his long-awaited novel *Vineland* (1990), published 17 years after *Gravity's Rainbow* (1973). Notably dedicated to the author's parents, *Vineland* is by and large a story of family reunion with a hitherto unprecedented Hollywood-style happy ending that endorses "a comedic vision of family wholeness" (Cowart 109). This new interest in family continues, though more or less attenuated, in his next California novel, *Inherent Vice* (2009), where Pynchon attempts to imagine ways to reconcile with history for those who have gone through the Psychedelic Sixties' failed aspirations for utopian communality and memories of betrayal and guilt. If, in *Vineland* and *Inherent Vice*, family functions as a shamelessly neat and overly sentimental poetic invention that readers may let slide for the sake of individual victims of history to negotiate a possibility of personal redemption or vindication, in *Bleeding Edge*, family emerges as an enduring bastion of human connectivity and freedom up against the post-9/11 techno-political order that increasingly preempts any dissenting or oppositional envisioning of historical reality. In his interrogation of cyberspace as a potential sanctuary in *Bleeding Edge*, Pynchon tends to thematize his

vision of liberation and communality focusing on the idea of home or homecoming. This essay attempts to delve into this particularly curious disjunction between *Bleeding Edge*'s counter-cultural vision of the Internet often associated with progressive politics and the novel's misty-eyed nostalgia toward family and home, a problematic sentiment routinely stigmatized as a reactionary empathy for the imagined past, which allegedly indicates an abdication of critical thinking for emotional fallacy, and ultimately, an ethical, as well as aesthetic, failure. *Bleeding Edge*, I will conclude, embraces all too human sense of nostalgia not as an escapist longing for the lost home but as "a strategy of a survival, a way of making sense of the impossibility of homecoming" (Boym xvii).

Bleeding Edge investigates whether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stead of being another instrument for social control and surveillance, could serve as an effective vehicle for social change and liberation. As characterized by Maxine's old lefty friend March, who runs a muckraker weblog called "tabloidofthedamned.com" (114), the Internet becomes a new battleground between young idealists who, like their hippie predecessors in the Sixties, "are out to change the world," believing that "Information has to be free" (116) and the nexus of greedy dotcomers and government apparatus bent on controlling the flow of information for the techno-political power they have maintained. Recently emigrated from California to New York after the dotcom crash, Internet idealists Justin and Lucas create a web application called DeepArcher which, due to its much coveted cutting-edge security code, not only allows those invited to safely navigate the Deep Web without the fear of being traced and indexed by corporate and government web-crawlers, but also helps to build alternative virtual communities on the basis of collective participation and individual freedom, "a virtual sanctuary to escape from the many varieties of real-world discomfort," "a grand-scale motel for the afflicted, a destination reachable by virtual midnight express from anyplace with a keyboard" (74). Through this essentially precarious window of Internet idealism called DeepArcher, Maxine seeks to find a semblance of utopian communality in cyberspace, while witnessing her hometown New York collapsing to the terror and conformity of "Ground Zero," "a Cold War term taken from the scenarios of nuclear war" endlessly repeated by the mainstream media and the Bush administration in order to "get people cranked up," "scared, and helpless" (328).

Maxine's hacker friend and IT genius named Eric Outfield, who spends much time seeking for Gabriel Ice's secrets in the Deep Web, presents a less idealistic view on the idea of virtual sanctuary, predicting that it is just a matter of time for whatever sanctuary people can build deep in cyberspace to be "suburbanized" and brought under total control once those who run the surface world get down to colonize the Deep Web completely (241). This debate about the possibility of virtual sanctuary clear of capitalist exploitation and government intrusion acquires an additional urgency with the advent of the so-called War on Terror immediately after the September 11 attacks. After 9/11, the

Internet, once “the real one, the dream, the promise” as recalled nostalgically by hacktivist Eric (432), is suddenly in danger of becoming another mundane space of capitalist control and government surveillance. DeepArcher’s defense system, an ultimate symbol of virtual refuge in the novel, mysteriously stops working for a couple of days leading up to 9/11, probably allowing “somebody—Gabriel Ice, the feds, fed sympathizers, other forces unknown who’ve had their eye on the site—to install a backdoor” to violate its security (355). Against the mainstream media that incessantly propagates the homogeneous message about 9/11 that “New York City, like the nation, united in sorrow and shock, has risen to the challenge of global jihadism, joining a righteous crusade Bush’s people are now calling the War on Terror,” Maxine maintains her belief in “the vast undefined anarchism of cyberspace” where “among the billions of self-resonant fantasies, dark possibilities are beginning to emerge” (327). Trying to curb her overly naïve and sanguine belief that though maybe “a little commercialized,” the Internet is still “the freedom” and “the promise,” “empowering all these billions of people” (420), Maxine’s father Ernie points out to her that what she currently believes to be an “online paradise” was, in fact, “conceived in sin” during the Cold War and “carrying in its heart a bitter-cold death wish for the planet,” will ultimately lead to “a total Web of surveillance” or “worldwide martial law” (419–20). This clash between Maxine’s utopian expectations toward cyberspace and Ernie’s fatalistic view on the Internet ultimately remains unresolved to the very end of the novel.

Bleeding Edge is not, however, merely or mainly about “a spurious choice between the techno-utopian faith in cyber-sanctuary and the permanent paranoia about cyber-surveillance” (Lew 121). To be sure, Pynchon never completely endorses a naïve optimism toward the Internet that Maxine wishfully succumbs to, nor does he entirely abandon the possibility that a new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works for the powerless. Rejecting “both the techno-utopian faith in the Internet as an instrument of liberation and the possibilities of withdrawal in an age of pervasive surveillance” (Maguire 96), *Bleeding Edge* foregrounds the idea of family as an enduring form of human connectivity and freedom.

Works Cited

- Bonnett, Alastair. *Left in the Past: Radicalism and the Politics of Nostalgia*. New York: Continuum, 2010.
- Boym, Svetlana.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2001.
- Carswell, Sean. *Occupy Pynchon: Politics after Gravity’s Rainbow*. Athens: U of Georgia P, 2017.
- Cowart, David. *Thomas Pynchon and the Dark Passages of History*. Athens: U of Georgia P, 2011.
- Freer, Joanna. *Thomas Pynchon and American Counterculture*. New York: Cambridge

- UP, 2014.
- Lew, Seunggu. “‘Sinning against Technology’: The Politics of the Luddite Imagination in Thomas Pynchon’s *Bleeding Edge*.” *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2.1 (2020): 109-29.
- Maguire, Michael P. “September 11 and the Question of Innocence in Thomas Pynchon’s *Against the Day* and *Bleeding Edge*.”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58.2 (2017): 95-107.
- McClintock, Scott. “The Origins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of California in Pynchon’s Fiction.” *Pynchon’s California*. Ed. Scott McClintock and John Miller. Iowa City: U of Iowa P, 2014. 91-111.
- Natali, Marcos Piason. “History and the Politics of Nostalgia.” *Iowa Journal of Cultural Studies* 5 (Fall 2004): 10-25.
- Pynchon, Thomas. *Vineland*. Boston: Little, Brown, 1990.
- . *Inherent Vice*. New York: Penguin, 2009.
- . *Bleeding Edge*. New York: Penguin, 2013.
- Sandberg, Eric. “‘Remembering Is the Essence of What I Am’: Thomas Pynchon and the Politics of Nostalgia.”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60.4 (2019): 475-486.
- Schaub, Thomas Hill. “*The Crying of Lot 49* and other California Novels.”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omas Pynchon*. Eds. Inger H. Dalsgaard and others. Cambridge: Cambridge UP, 2012. 30-43.
- Thomas, Samuel. *Pynchon and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2007.

민족적 알레고리로서의 하진의 『광인』

정은숙
(중앙대학교)

I.

본명이 진취페이(Jin Xuefei)인 중국계 이민 작가 하 진(Ha Jin, 1956~)은 지난 몇 십 년에 걸쳐 미국 문학의 장에서 첫 장편소설 『기다림』(Waiting, 1999)으로 전미 도서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상들을 수상하면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시아계 작가 중 한 사람이다. 미국에 망명한 중국인 작가로서 진은 비교적 낮은 나이에 작가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미국예술원(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 회원으로 선출되는 등 중국어가 아닌 제 2언어인 영어로 작품을 써서 성공한 작가이다. 그런 점에서 벨린다 콩(Belinda Kong)도 지적하듯이 진은 미국문학의 장에서 “이민하여 성공한 전형적인 인물이자 초국적인 횡단과 이중 언어의 상상을 통해 문화적 재탄생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세계 문학의 새 혈통을 예고하는 역할”(Tiananmen Fictions 86)을 한다.

본 발표에서 다룬 진의 『광인』(The Crazy, 2002)은 1989년 봄부터 1989년 6월 천안문(Tiananmen) 광장에서 시위가 발생할 때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설의 서사는 뇌출혈로 쓰러진 양셴민(Yang Shenmin) 교수와 그가 아끼는 제자이자 그의 딸 메이메이(Meimei)와 약혼한 학생인 완지안(Wan Jian)이 몇 달간에 걸쳐 양 교수가 사망할 때까지 양 교수를 보살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방대학의 “문학과의 대들보”(The Crazy 3)인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양 교수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한 채 환각과 환상을 오고간다. 양 교수의 아내는 1년 예정으로 티베트로 과견을 간 상태여서 지안은 또 다른 학생과 함께 자신의 멘토이자 예비 장인을 보살피는 일을 학교 당국으로부터 명을 받고 양 교수의 병간호에 몰두한다. 소설의 대부분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과대망상에 빠진 양 교수는 점차 광인이 되어가면서 중얼거리고, 시를 읊조리고, 황설수설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과거를 재현한다. 양 교수는 정신착란 속에서 자신의 헛소리를 통해 문화혁명기 자신에게 가해진 고문, 성취하지 못한 낭만적인 사랑, 학문세계의 부패와 학과 내 권력 다툼, 대학이 자신에게 가한 악의에 찬 계획과 응졸한 정치공작, 중국 공산당의 부패, 양 교수의 개인적 문제와 비밀, 학자로서의 삶 등을 단편적으로 발설한다. 『광인』은 서사구조에 있어 양 교수의 뇌출혈이 악화되는 과정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천안문 광장의 정치적 소요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함께 병치되어 진행되어진다.

본 발표는 『광인』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양 교수의 뇌출혈과 천안문 사태를 병치시켜 양 교수가 뇌출혈로 인해 광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자신의 유명한 논문 「다국적 자본주의시대에 제3세계문학」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1986)에서 했던 진술인 “제3세계의 모든 텍스트들은 “필연적으로 민족적 알레고리의 형식으로 정치적 차원을 투사”(69)한다는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광인』의 민족적 알레고리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edia Britannica)에서 “알레고리(allegory)”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알레고리는 서사에서 표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허구적 서사”로서 “인물들,

서사, 혹은 묘사된 세부 사항은 독자에게 문학적 이야기 밖의 어떤 것에 대한 정교한 메타포”로서 특히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재현하는데 이용되어진다. 즉 수사적으로 볼 때 알레고리는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기’라는 의미를 지닌 서술기법으로, 시나 산문에서 인물, 행위, 때로는 배경 등이 일차적 의미(표면적 의미)에 있어 일관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그 내면에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개념의 이차적 의미(이면적 의미)도 지니고 있는 이중구조의 이야기이다. 본 발표는 하 진을 제3세계 작가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개인의 경험이 궁극적으로 집단성의 경험 그 자체의 전체적이고 힘겨운 이야기”(Jameson 86)로 바뀌는지, 즉 한 개인의 서사가 어떤 방식으로 한 민족 혹은 한 국가의 서사로 치환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임슨은 「다국적 자본주의시대에 제3세계문학」에서 자신이 이 글을 쓴 목적 중 하나를 “제1세계 문화의 가치와 전형들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그 동안 무시당해온 문학들의 가치와 흥미를 일깨우려는 의도”(68)라고 밝히고 있다. 제임슨은 또한 제3세계 문화 생산과 제1세계의 문화 형식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제3세계의 모든 텍스트들은 필연적으로 알레고리적이라는 것을, 그것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알레고리적임을 주장하고 싶다. 즉 제3세계의 텍스트들은 심지어 그 형식이 소설과 같이 명백히 서구적 재현장치로부터 발전했을 때조차, 아니 특히 그러했을 때, 내가 장차 민족적 알레고리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구분은 극도로 단순한 방식으로 말해보도록 하자. 자본주의 문화의 결정 요인들 중 하나, 즉 서구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소설의 문화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성과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온 것과 계급, 경제적인 것, 세속적인 정치권력과 같은 공공영역이라고 생각해온 것 간의 급격한 분열, 즉 프로이트와 마르크스 간의 급격한 분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69)

All third-world texts are necessarily, I want to argue, allegorical, and in a very specific way: they are to be read as what I will call national allegories, even when, or perhaps I should say, particularly when their forms develop out of predominantly western machineries of representation, such as the novel. Let me try to state this distinction in a grossly oversimplified way: one of the determinants of capitalist culture, that is, the culture of the western realist and modernist novel, is a radical split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between the poetic and the political, between what we have come to think of as the domain of sexuality and the unconscious and that of the public world of classes, of the economic, and of secular political power: in other words, Freud versus Marx. (69)

제임슨은 “제3세계 문학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글을 보면 제임슨은 제3세계 문학을 읽는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제임슨은 제1세계문학과 제3세계 문학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제1세계문학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분열을 보이고 있다면, 제3세계 문학의 경우 “사적인 개

인 운명의 이야기가 항상 공적인 제3세계 문화와 사회의 전투적 상황의 알레고리”의 형식으로 “정치적 차원을 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69).

하 진은 사라 페이(Sara Fay)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결코 내 글이 정치적이기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인물들은 정치적 구조 속에 존재한다. 특히 중국에서 정치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Art”)라고 밝히고 있다. 찰스 존슨(Charles C. Johnson)도 “하 진은 브랜다이스(Brandeis) 대학에서 미국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1985년 중국을 떠난 후 중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하 진은 결코 실제로 중국을 떠난 적이 없었다. 중국은 그의 소설의 가장 큰 몸체이다”(77)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 자신도 자신의 문학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대변인과 민족」 (“The Spokesman and the Tribe”)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저는 제 자신을 탄압받는 중국인들을 대표하여 영어로 글을 쓰는 중국인 작가라 생각합니다”(3)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진이 자신의 작품들에서 중국을 주장하는 데는 그의 전기적인 사항들과도 연관된다. 1985년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과정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온다. 진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박사학위를 받은 후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는 진의 계획을 바꾸어버린다. 인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들었던 군대가 천안문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았을 때, 진은 중국 정부의 잔인성에 좌절한다. 인민해방군의 군인이기도 했던 진은 그 때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교수 혹은 공무원이 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에 봉사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나는 텔레비전에 나온 천안문 광장의 대학살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 . . 나는 중국으로 되돌아가서, 정직하게 글을 쓰고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중국인민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인민군이였다. 이제 모든 것은 뒤바뀌었고, 그들은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중국에 대한 나의 모든 이미지는 변했다. 나는 분명히 생각할 수 없는 혼미한 상태 속에서 몇 주를 보냈다. (Rightmyer)

I was devastated watching the Tiananmen massacre on television. . . . I knew it would be impossible to go back to China and write and teach honestly. I had once served in the Chinese army. It was a people's army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civilians, and now the whole thing was reversed and they were attacking civilians. My whole image of China was changed. I spent many weeks in a fog where I couldn't think clearly. (qtd. in Rightmyer)

진은 또한 페이와의 인터뷰에서 천안문 대학살이 그의 인생에 끼친 영향에 대해 “대학살로 인해 내게 국가는 일종이 폭력적인 환영의 징후가 되었다. 국가는 괴물과 같았다”(“Art”)라고 밝히고 있다. 진은 천안문 사태로 인해 정치적 망명을 결정하고 미국에 남는다. 따라서 민족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진이 자신의 작품에서 윤리적인 임무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의 허점에 대해 적고, 검열당하고, 침묵당한 사람들의 삶을 가시적이게 하는 역할을 떠맡은 제3세계 작가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은 완전히 예견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은 『침묵들 사이에서』 (*Between Silences*)라는 그의 시집의 서문에서 “운 좋은 사람으로서 나는 삶의 밑바닥에서 고통을 받고, 인내하고 죽어갔던 불운한 사람들, 역사를 창

조했고 동시에 역사에 의해 바보 취급받거나 망가진 사람들을 대변하고자 한다”(2)라고 민족 대변인으로서 글을 쓰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진에게도 그가 글을 쓰는 목적은 고통 받고, 인내하고, 혹은 죽어갔던 억압받는 중국인들의 삶에 가해진 고통에 대한 목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진의 주장을 염두에 둔다면 『광인』에 나타난 “민족적 알레고리”의 성격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작가 자신의 글쓰기 자체(사적 영역)가 고통 받는 민족을 위한 글쓰기(공적영역)라는 목적이 그 기저에 깔려 있고, 또한 작품 속에서 개인의 사적인 서사가 개인을 넘어선 커다란 집단의 문제, 즉 민족 혹은 국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의 북 리뷰에서 루스 프랭클린 (Ruth Franklin)도 “진의 소설들은 사회소설들이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회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치적이다. . . . 그의 모든 작품은 억압적이고 부패한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가한 고난을 조심스럽게 묘사한다. 이런 고난은 『광인』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7)라고 주장한다.

III.

진의 『광인』은 “민족적 알레고리”로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광인』의 서사는 화자 지안의 스승인 양 교수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지안이 병실에서 스승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양 교수의 뇌출혈은 우연히도 베이징에서의 민주화 시위 발발과 일치한다. 콩은 “민족적 알레고리”의 차원에서 “양 교수는 중국의 지식인의 전형일 뿐 아니라 동시에 1989년 중국 자체의 표상”(Tiananmen Fictions 94)이라고 주장한다. 즉, 진은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양 교수의 뇌의 “혈전(blood clot)”의 “막힘”(13)과 소설의 후반부의 “붕쇄된”(301) 거리를 서로 병치시킴으로써, 양 교수의 몸이 점차 쇠약해지고, 통제를 벗어나서 서서히 부패해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은 엘리트 지식인들의 균열 및 부패뿐 아니라 국가 정치 조직의 부패의 강력한 이중적 알레고리를 제공한다.

진은 양 교수의 몸이 “왼쪽 어깨뼈 아래쪽에 팔알만 한 종기가 굼아가는” 것에서부터, “이곳저곳에 퀘양이 나고 조금씩 피가 나는 상한 잇몸”과 “심하게 백태가 낀 혀”(59), “손가락들이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균으로 감염된 각피층”(123), 머리를 감길 때 그의 입에서 나는 “썩은 냄새”(60)에 이르기까지 부패해가는 세부 사항들을 지나치게 꼼꼼히 묘사한다. 양 교수의 몸의 이런 부패는 소설 전반에 걸쳐 진이 1980년대 후반 중국을 안팎에서 썩어가는 기이한 몸으로 비유하게 하는 알레고리로 작용한다.

양 교수의 쇠락해가는 몸 뿐 아니라 양 교수의 광기를 통해 나오는 헛소리, 황설수설하는 목소리는 한 개인의 정신질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광기의 힘을 빌어 궁극적으로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이자 광란으로 치달는 중국 공산당 정부 그 자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양 교수의 몸과 목소리는 모두 부패해가는 가는 중국의 병적 상황을 드러내는 알레고리로서 작용한다. 양 교수는 뇌졸중이 발생한 이후 그가 하는 두서없는 말에서 중국에 대한 냉소적인 비유를 분출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중국을 “관”(203) 혹은 “피클통”(206)에 비유하고 있고, 중국인들을 “도마 위의 고기조각”(220) 혹은 “절인 야채”(206)에 비유한다. 양 교수는 지안에게 “그런 피클 통 속에서 들어가면 돌조차 절여져서 그것의 본래 색깔을 잃고 악취가 풍기기 시작하지”(206)라고 말하면서 부패해가는 중국 혹은 타락해가는 지식인들과 공산당을 묘사한다.

양 교수는 더욱 영감을 받은 순간 전체주의적 통치 하에서 정신이 질식해가는 지식인의 삶의 또 다른 불길한 우화를 내뿜는다. 양 교수의 다음의 말은 1980년대의 중국에 대한 더욱 분명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는 늘 모든 걸 어떻게 끝장낼지 생각하고 있었지. 사무직 일을 끝장내고, 엄하고 노쇠한 부모를 끝장내고, 바가지를 긁어대는 마누라와 버릇없는 아이들을 끝장내고, 애인 칠라를 끝장내고, . . . 매일매일 계속되는 삶의 끝없는 걱정과 비참함을 끝장내고, 별건 대낮의 악몽들을 끝장내고, 간단히 얘기해서, 자신을 끝장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말이야. . . . 하지만 그 자는 문도 없고, 창도 없고, 가구도 없는 방에 살고 있지. 그러한 감방에 갇혀 자신의 목숨을 끝장내야 하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직면한 거야. . . . 설상가상으로 그 방이 어디 있는지, 도시에 있는지, 시골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알 수 없어. 그런 상황에서 그는 살 수 밖에 없어. . . . 그러므로 그는 파괴할 수 없는 고치에 갇힌 벌레처럼, 계속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 거지.” (16-18; 필자 강조)⁵⁾

“All the time he has been thinking how to end everything, to be done with his clerical work, done with his senile, exacting parents, done with his nagging wife and spoiled children, done with his mistress Chilla. . . [how to] be done with the endless worry and misery of everyday life, down with the nightmare in broad daylight—in short, to terminate himself so that he can quit this world. . . But he lives in a room without a door or a window and without any furniture inside. Confined in such a cell, he faces the insurmountable difficulty of how to end his life. . . . What’s worse, he cannot figure out where the room is, whether it’s in a city or in the countryside, and whether it’s in a house or underground. In such a condition he is preserved to live. . . . He’s thus doomed to live on, caged in an indestructible cocoon like a worm.” (16-18)

이 비유적인 “감방”과 “파괴할 수 없는 고치”의 함축적인 알레고리는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이다. 1980년대 정치적으로 느슨한 풍토 속에서 이 이야기의 남성은 부모와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무원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서양식 이름의 애인을 둘 수 있고, 더구나 가죽 벨트를 가질 수도 있다. 외적인 모든 상황으로 보자면 중국은 자본주의화되고 있고 그 남성은 부르주아적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양 교수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현재의 상황은 문화혁명기보다 더 교활하게 사람들의 힘을 빼앗고 있다. 적어도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과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양 교수의 얘기처럼 “자신의 목숨을 끝낼” 힘도 자기결정권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 더 이상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 사이에 어떤 감지할만한 차이는 없다. 전에 중요한 모든 지정학적 차이는 현대 시대의 균일성의 관점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다. 모든 것은 안락해졌고, 모든 것은 단지 “살도록 보호되어진다”(18). 양 교수의 몸과 비슷한 고치/감방은 여러 의미를 함축한다. 개인적으로 “고치/감방은 양 교수의 병실”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거시적 수준에서 중국을 비유하고, 동시에 『광인』의 배경이 되는 지방과 양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을 상기시킨다”(Kong, *Tiananmen* 96). 그 병실에서 양 교수는 표면상 미래 “국가의 보물”(7)로 간주되면서 국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밝은 대낮에” 악화되도록 거

5) 이 발표문에서 『광인』에 대한 번역은 필자의 번역이기는 하지만 왕은철 번역 (시공사, 2007)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의 방치된다(7). 양 교수는 필사적으로 지안에게 “어떻게 내가 이 질식시키는 방, 파괴할 수 없는 고치, 이 절대적인 관에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나는 벌레처럼 죽고 싶지는 않아”(203)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의 모습은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 채, 발가벗겨진 지식인의 모습이다.

양 교수가 입원한 샨닝 병원(Shanning Hospital)의 병실을 같은 과 동료교수가 방문하여 양 교수에게 그가 평소 말았던 일이 그가 부재한 동안 다른 교수들에게 적절하게 재배치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양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인 임무를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사무원의 일”로 목살하면서 중국에서 진정한 지식추구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한다.

“중국에서 누가 지식인이란 말이오? 우습지. 대학교육을 받은 누구라도 지식인이란 것이. 사실 인문학 분야의 모든 사람들은 사무원들이고, 과학 분야의 모든 사람들은 기술자들이오. 누가 진짜 독립적인 지식인이며,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진실을 얘기하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소. 우리는 모두, 국가의 관리를 받는 병어리 일꾼이자 퇴행적인 종이오.”

“그럼 당신은 학자가 아니란 말이오?”

“얘기했잖소. 나는 그저 사무원에 불과하고, 혁명이라는 기계의 나사 하나에 지나지 않소. . . . 우리는 똑같은 부류이고, 같은 운명에 처해있고, 모두는 야만성과 비겁함에 빠지고 있어. 이제 이 나사는 다 닳았으니 다른 나사로 교체해야만 해. 그러니 날 없는 것으로 쳐.”(153)

“Who is an intellectual in China? Ridiculous, anyone with a college education is called an intellectual. The truth is that all people in the humanities are clerks and all people in the sciences are technicians. Tell me, who is a really independent intellectual, has original ideas and speaks the truth? None that I know of. We're all dumb laborers kept by the state—a retrograde species.”

“So you're not a scholar?”

“I told you, I'm just a clerk, a screw in the machine of the revolution. . . . We are of the same ilk and have the same fate, all having relapsed into savagery and cowardice. Now this screw is worn out and has to be replaced, so write me off as a loss.” (153)

이에 동료 교수가 지안과 같은 젊은 세대의 학자들이 “개선할” 것이고 “우리[노인들]의 실수와 상실에서 배울 것”이라고 주장할 때 양 교수는 냉소적으로 “지안은 기껏해야 고위 사무원이 될 뿐이야”(154)라고 반박한다. 양 교수는 지식인을 “국가에 관리를 받는 병어리 일꾼”이자 기계의 “나사” 부품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오쩌둥 이후 시대에도 계속해서 국가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지식인의 현실을 비판한다.

지안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양 교수의 마지막 유언은 그의 삶의 축적된 비통함을 증언한다. 양 교수는 “기억하고, 내 복수를 해다오, 그리고 . . . 그들 중 아무도 용서하지 마. 그들 모두를 죽여 버려!”(260)이다. 양 교수는 외국 시를 번역했던 것 때문에 문화혁명기 동안 “악마-괴물”(73)로 낙인찍히고, 공개적으로 비난당하고, 아내 및 어린 딸과 헤어져 몇 년 동안 시골에서 재교육을 받도록 추방되어진다. 또한 양 교수는 젊은 대학원생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 때문에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고(217), 펑잉(Peng Ying) 서기의 조카가 양 교수와는 전공이 전혀 다른데도, 그 조카가 캐나다로 유학 가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를 쓰라는 당 서기 펑잉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216), 동료 교수들의 견제와 암투 때문에

캐나다 학회에 다녀온 뒤 당에서 지원받은 학회비를 모두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219). 양 교수는 과거의 고통에 심하게 시달리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가정 및 직업 생활 모두에서 지성인으로 느끼는 무력감과 자기혐오 속에서 생을 마감한다. 진은 양 교수의 실패는 도덕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정치적 관심과 물질적 이익에 굴하지 않고 진심으로 문학 연구에 몰두했지만 결국 양 교수가 실패하는 것은 그의 세대가 중국의 황폐한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에서 유래하고, 순수지식을 쫓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이에 맞춰 살 수 없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그런 점에서 양 교수는 비유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과 폭력에 희생된 개인이자 지식인으로 읽혀진다. 따라서 양 교수를 통해 드러나듯이 『광인』에서 공산주의의 역사는 이상을 뒤로 한 채 육체와 정신 모두를 효과적으로 잠식해왔고, 치명적으로 저절로 붕괴해가는 한 남성, 한 국가의 외피만을 남긴다.

양 교수의 뇌출혈은 그의 평생의 고통이 뒤늦게 나타난 징후이듯이 1989년 천안문 사태는 마오시대 이후 계속되어온 국민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폭발한 결과이고, 그런 점에서 중국의 정치적 병증에 대한 알레고리를 드러낸다. 지안은 스승의 죽음을 보면서 환멸을 느낀 후 베이징으로 향한다. 양 교수의 뇌출혈과 천안문 사태가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안이 베이징으로 가서 시위에 합류하겠다는 결정은 혁명가로서 숨은 “어떤 대의명분이나 민주주의 혹은 자유에 대한 꿈”(295)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약혼녀의 파혼 통보와 양 교수의 죽음이 계기가 된 “주로 개인적인”(295) 이유이다. 지안은 “절망과 분노와 광기와 어리석음”에 내몰린 채 “메이메이에게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베이징으로 간다(295). 진은 『광인』에서 양 교수의 이야기가 그랬듯이, 지안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전략적으로 천안문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이야기를 피해간다. 그러나 제임슨이 제3세계문학에서 “개인의 이야기 및 경험을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집단성의 경험 그 자체의 전체적이고 힘겨운 이야기와 연관될 수밖에”(86) 없다고 주장하듯이, 진은 주인공이자 화자인 지안으로 하여금 천안문 사태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지안의 이야기는 공적인 정치서사로 바뀐다.

지안과 그의 동료 학생들은 6월 3일 저녁에 베이징 시에 도착한 후 천안문 광장 밖의 거리들이 “모두 봉쇄되어진(all blocked up)”(301)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광인』의 제 1장에서 양 교수의 뇌 혈전의 “폐색(blockage)”(14)을 연상시킨다. 지안은 곧 밀려드는 인파로 인해 자신의 동료들과 헤어지고 예상치도 못하게 국가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는 증인이 된다. 광장으로 이끄는 거리들 중 한 곳에서 한 대학생은 광장진입을 막는 군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정부에 의해 속임”(302)을 당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설득하려 한다. 지안이 군인들과 이 학생이 대면하는 것을 좀 더 가까이 보기위해 이동하는데 성공했을 때, 한 대령이 권총을 꺼내 한 마디의 경고도 없이 학생의 머리를 쏜다. 그 학생의 뇌가 “아스팔트위에 으깨진 두부처럼 흩어진”(303) 것을 묘사하는 부분은 끔찍하게도 양 교수의 죽음을 초래했던 두 번째 치명적인 “뇌진탕과 뇌출혈”(257)을 반향시킨다. 지안이 6월4일 이른 새벽 병원에서 본 풍경은 군인들의 폭력과 시민들의 충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병원은 충격으로 “정신착란이 된 젊은 여자,”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울부짖는 노부부”와 “다친 사람들로 만원이다”(309). 넘쳐나는 시체로 시체보관소에서 수용이 불가능하자, 병원 주차장이 임시 시체보관소로 변해있고, 그곳에서 지안은 “남녀를 불문하고 약 스무 구의 시체가 도살당한 돼지들

처럼 포개져”(309)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 “첫조각, 피 웅덩이, 불에 탄 트럭들과 병력수송차들이 어지럽게 널린 거리는 전쟁터”(310)를 연상시키고, “시민들이 아무 무기도 없이 그렇게 많은 군용차들을 못 쓰게 만들었다”(310-11)는 사실에 지안은 놀란다. 결국 “병든 심장 베이징”(295) 혹은 “타락한 정부”(299)로 묘사된 부패해가는 억압적인 중국은 양 교수의 뇌출혈처럼, 총에 맞은 학생의 “으깨진”(303) 뇌처럼, 결국 “안전밸브가 막혀버렸는데도 끊임없이 열이 가해지는 압력밥솥”(12)처럼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이처럼 민족적 알레고리의 관점에서 볼 때 양 교수의 뇌출혈과 죽음은 천안문 사태의 군중들의 폭발과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과 병치를 이루면서, 양 교수의 광기는 지안의 “광기”(295)를 넘어 “방해하는 놈은 모두 사살하라”고 외치는 “미친” “군인들”(305), “미친 용”(302) 바로 중국의 광기로 치환된다. 그런 점에서 양 교수와 지안의 광기는 곧 개인의 광기를 넘어 역사적으로 문화대혁명시기에서 천안문 사태로 이어지는 광기의 시대를 의미하는 민족적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다.

“개인적인” 이유로 베이징에 다녀온 지안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체포” 명령인데, 명목상의 이유는 “반혁명주의자(counterrevolutionary)”라는 죄목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이번 기회에” 지안을 “영원히 제거해버리려는” 당 서기 펑잉의 책략으로, 그녀는 지안을 “감옥” 혹은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운다(316). “황부학장의 협력자”(293)인 펑 서기로서는 혹시라도 지안의 옛 약혼녀 “메이메이가 황 부학장의 아들과 잘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안과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런 “모략”을 황부학장과 함께 꾀한 것이다(320). 전혀 시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지안이 감옥 혹은 정신병원 행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결국 중국 전체가 질식시키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의 알레고리로서 지안의 위기는 곧 중국인들 혹은 중국의 국가 위기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임슨은 알레고리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의미화”의 “일차원적 관점”에서 벗어나 “등가관계가 텍스트의 매순간 영원한 현재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변형을” 겪는 “다층적 다의미성”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73), 양 교수와 지안을 괴롭히는 펑 서기와 같은 공산당 간부나 아니면 “사무원”이 되어버린 다른 교수들 역시 계층구조에서 더 열악하고 더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는 알레고리적인 의미에서 서로를 감시하며 서로를 잡아먹느라 “인간적인 품위”와 “일말의 존엄성”(319)마저 완전히 잃어가는 야만적인, “광란의” “중국”(305)인 것이다. 『광인』의 결말은 어떤 정권이 광란으로 만들어질 때 그 핵심의 질병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광인』의 끝부분에 진은 막 미쳐가는 화자 지안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현대 중국사회를 비난하게 한다.

돌아가는 기차를 탄 후 줄곧 끔찍한 상상이 나를 괴롭혔다. 내 눈에는 중국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식들을 잡아먹는 노쇠한 미치광이 노파로 보였다. 만족할 줄 모르는 노파는 전에도 많은 어린 자식들을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살과 피를 먹고 있으며, 앞으로 더 잡아먹을 게 분명했다. 이 끔찍한 생각을 억누르지 못하고 나는 하루 종일 혼잣말을 했다. “중국은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늙은 암캐야!” 머리가 지끈지끈 쑤시고 가슴이 너무 고통스러워 몸서리 쳐졌다. 이틀 밤 전의 소동이 아직도 귀에 들렸다. 나는 내가 정신줄을 놓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 (315)

Ever since I boarded the train back, a terrible vision had tormented me. I saw China in the form of an old hag so decrepit and brainsick that she would devour her children to

sustain herself. Insatiable, she had eaten many tender lives before, was gobbling new flesh and blood now, and would surely swallow more. Unable to suppress the horrible vision, all day I said to myself, “China is an old bitch that eats her own puppies!” How my head throbbed, and how my heart writhed and shuddered! With the commotion of two nights ago still in my ears, I feared I was going to lose my mind. (315)

진은 이 부분에서 천안문 사태를 목격한 후 막 미쳐가는 지안의 목소리를 빌어 양교수처럼 지안으로 하여금 현대 중국사회를 비난하게 한다. 양 교수의 죽음 후 천안문 사태를 목격한 지안은 양교수처럼 깊은 통찰에 이르고 있고, 지안은 중국을 국민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노쇠한 미치광이 노파” 혹은 “늙은 암캐”라는 민족적 알레고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진은 양교수와 지안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지식인의 진정한 지식 추구는 중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소설의 앞부분에서 양 교수가 지안에게 “서양에서 학자들은 훨씬 더 지식인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넌 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에서] 실제 지식인의 삶을 살 수 있어”(104-5)라고 조언했던 것처럼, 지안은 스승이 걸었던 “예정된 운명에 도전”하여 “자유인”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321). 이런 깨달음의 순간 지안은 이제 중국을 영원히 떠나 우선 “홍콩”으로, 그런 뒤 아마 “캐나다나 미국 아니면 호주, 아니면 중국어가 널리 사용되는 남동 아시아의 어떤 곳”(332)으로 갈 결심을 한다. 진은 『광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양 교수로 대변되는 과거 지식인의 길에서 벗어난 다른 지식인의 길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을 떠나는 길이다. 이제 지안에게 망명의 자유, 중국이 아닌 해외에서 민족의 대변인이자 지식인으로 돌아갈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IV.

이상과 같이 본 발표는 진의 『광인』을 민족적 알레고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진의 작품에서 주인공 광인의 이야기는 정신질환을 앓는 개인의 사적 이야기인 것 같지만 중국의 문화대혁명시기부터 마오쩌둥 이후, 중국의 천안문 사태로 이어지는 시기의 중국의 병적 상황을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진의 『광인』은 제임슨이 말한 민족적 알레고리 구조를 가진 작품으로 읽기에 적절하다. 여러 면에서 『광인』의 양 교수와 지안은 모두 작가 진을 재현하고 있다. 만일 진이 중국에 남아있다면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사무원”으로서 양 교수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혁명이라는 기계의 나사 하나”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 다른 삶은 바로 지안의 삶으로서 현재 작가 진의 삶처럼 중국을 떠나는 삶이다. 그런 점에서 『광인』은 작가 진의 사적인 삶의 견지에서 보자면 두 주인공을 빌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진 자신이 천안문 사태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듯이, 지안은 천안문 사태로 인해 중국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안이 중국을 떠나는 것은 작가 진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자 변명으로 읽힌다.

쿵은 진을 디아스포라 작가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태어난 나라와 동일시하는”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조국을 다시 쓰려는 디아스포라적 윤리”가 있고, 따라서 “자신의 조국의 역사를 서술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Theorizing” 147)고 진과 같은 이민 작가들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한다. 쿵의 주장은 하진의 『광인』에 관한 한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광인』은 서구의 독자들에게 공산주의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동안 그리고 마오쩌둥 이후 시기 동안에도 여전히 고통 받는 지식인들의 이야기, 공산주의 정부 하에서 손상된 인간관계와 정치적 억압의 이야기는 서구의 많은 독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왔고, 그 자체로 서구의 독자들에게는 민족적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다. 또한 진이 천안문을 주제로 선택한 것은 전체주의적 국가 권력에 명백히 대립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권력에 희생된 사람으로서 진을 드러내게 할 뿐 아니라 서양에서 천안문에 대한 글을 쓰는 행위는 공산주의 정권의 검열을 도전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되고, 서구의 민주주의가 제공하는 표현의 자유를 함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된다. 그런 점에서 진의 『광인』은 중국 밖에서 중국의 병증과 위기를 드러내는 민족적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다.

Works Cited

-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2019. "Allegory: Art and Literature" n. pag. Web. 14 January 2019.
- Fay, Sara. "The Art of Fiction No. 202." *Paris Review* 191 (2009). n. pag. Web. 20 Aug. 2018.
- Franklin, Ruth. "A Real-World Education." *New York Times Book Review*. Oct 27, 2002, 7. Print
- Jameson, Fredric.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15 (Fall 1986): 65-88. Print.
- Jin, Ha. Preface. *Between Silences: A Voice from China*. Chicago: U of Chicago P, 1990. 1-2. Print.
- _____. *The Crazyed*. New York: Vintage, 2002. Print.
- _____. "The Spokesman and the Tribe." *The Writer as Migrant*. Chicago: U of Chicago P, 2008. 3-30. Print.
- Johnson, Charles C. "Ha Jin's China." *The New Criterion*. (March 2012): 77-80. Print.
- Kong, Belinda. "Theorizing the Hyphen's Afterlife in Post-Tiananmen Asian-America." *Modern Fiction Studies* 56.1. (Spring 2010): 136-59. Print.
- _____. *Tiananmen Fictions Outside the Square*. Philadelphia: Temple UP, 2012. Print.
- Rightmyer, Jack. "Author Ha Jin to Read, Talk at U Albany on Life in China." *The Daily Gazette*. 21 Sept. 2003. n. pag. Web. 21 Aug. 2018.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에 나타난 여성의 글쓰기

안동현
(서울신학대학교)

I. 들어가며

『작은 아씨들』(Little Women)은 1권이 1868년에, 2권은 그 이듬해에 출판된 당대의 베스트셀러 소설이었다. 저자인 루이자 메이 올콧(Lousia May Alcott, 1832-1888)에게 출판업자인 토마스 나일즈(Thomas Niles)가 ‘소녀들을 위한 이야기’를 써 줄 것을 요청했고, 작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마치(March) 가족의 네 딸이 1년간 겪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썼다(*Selected Letters* 118). 당대에 유행한 ‘소녀들의 이야기’는 “자율성이나 모험이 아니라 유순함, 결혼, 순종을 장려하는 이야기”로, “미래의 아내와 어머니에게 필요한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도록” 의도된 장르이다(Showalter xv). 이 작품은 이런 의도에 맞춰 마치(March)가 네 딸들이 순종적이며 인내하는 여성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남북전쟁으로 집을 비운 아버지 마치 씨의 표현에 따르면 딸들이 “어머니에게 사랑스런 딸이 되고,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며, 마음속의 적들과 용감하게 싸워 멋지게 그 적들을 정복해서, 내가 돌아갈 때에는 나의 작은 아씨들을 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Little Women 8. 이하 작품 인용은 페이지만 표시함)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다. 과연 이 작품에는 자매들이 각각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자기부정과 인내를 통해 ‘작은 아씨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이 작품에서 그러한 자기부정과 인내를 통한 여성의 도덕적 성장에 반대하는 전복적인 대항서사(counternarrative)를 읽어낸다. 대표적으로 머피(A.B. Murphy)는 이 작품에는 자기부정에 대한 강조, 여성 예술가에 대한 양가적인 묘사, 가정적 여성성에 대한 추구 등 반여성적/보수적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여성공동체의 이미지, 이상적이고 사랑이 많은 모성, 예술적 성취에 대한 소녀적 꿈에 대한 이야기가 공존한다고 주장한다(Murphy 564). 이 작품은 양가적인 의미를 가진 다층적인 텍스트이다. 여성의 자기표현과 성취의 가치가 강조되지만, 그 의미를 약화시키는 장치가 함께 들어있다. 예를 들어 마미(Marmee)는 뉴욕으로 가서 작가가 되겠다는 조(Jo)의 선택을 지지하고,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글을 써보라고 권하는 지지자이지만, 동시에 결혼이 여성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전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조는 여동생 베스의 유언에 따라 집안 일을 맡아 하면서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키겠다고 결심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가를 토로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양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어떤 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보수적인 혹은 여성주의적인 텍스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조 마치는 작가인 올콧을 반영하는 인물이다(작가와 주인공 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Englund의 글 참조). 당대의 조신한 소녀의 전형을 깨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정직한 자기표현을 하는 조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 특히 소녀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실수투성이 사고뭉치이며 자매들이 가르쳐보려 해도 듣지 않고 남자아이처럼 행동하지만 그

녀가 보여주는 자유의 추구, 권위에 대한 저항, 활력과 상상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조는 글쓰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단지 조의 모습에 작가인 올콧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글쓰기가 조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조를 중심으로 읽는다면 조의 작가로서의 성장/변화의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책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는 글을 써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꿈이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문과 잡지에 글을 투고하고 돈을 번다. 글을 써서 돈을 벌기 위해 그녀는 선정소설(sensational stories)을 쓰기도 하는데, 후에 남편이 된 바에르 교수의 통해 이 ‘저속한’ 글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결국 자기가 쓴 글을 태우기까지 하며 더 나은 글을 쓰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그녀가 쓴 교훈적인 글은 출판업자가 사주지 않는다. 그녀가 죽은 여동생 베스의 유언에 따라 작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가정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있을 때, 다른 독자들은 신경쓰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 진실된 글을 써보라는 어머니의 충고를 따라 새롭게 글을 썼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켜 그녀는 성공하는 작가가 된다. 결말 장면의 조는 헌신적인 교육사업가로 남편과 함께 소외된 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글을 쓰지 않고 있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좋은 작가가 되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작가로서의 조의 ‘성장’은 조의 여성으로서의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만약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작품에 보수적 여성관과 페미니즘적 가치가 공존한다면 그것과 조의 글쓰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본고는 작품에 드러난 조의 글쓰기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19세기 중반 당시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던 이상인 <진정한 여성성>과 여성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그 맥락에서 조가 보여주는 글쓰기에 대한 갈망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조가 ‘극복’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선정소설의 의미에 대해 살핀다. 조가 선정소설을 쓴 것은 작가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의 작가 올콧과 인물 조가 쓴 선정소설의 의미를 비교해 본다. 이후 성공한 작가로서 작가가 도달했다고 언급되는 ‘진실한 글쓰기’란 무엇인지 다룬다. 과연 바람직한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바람직한 여성 작가는 어떤 여성인가? 조는 마지막 부분에서 바람직한 작가가 되는 길에 더 가까이 간 것일까, 아니면 작가의 길을 포기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19세기 중반 당대의 여성 문학의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다.

II. ‘진정한 여성성’(True Womanhood)과 여성의 글쓰기의 의미

19세기 중반 미국의 여성 문학은 <진정한 여성성>의 가치를 중시하고 여성을 <집안의 천사>로 이상화했다. 웰터(Barbara Welter)는 1820년에서 1860년까지의 여러 문헌들을 분석하여, 당시 사회가 4개의 중요한 가치, 즉 경건함, 순결, 순종성, 가정적인 자질을 이상적인 여성성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Welter 152). 여성에게 적절한 공간은 남성들의 공적인 영역과 분리되어 있었으며,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었다. 당시의 도덕 지침서(conduct book)들은 기독교적인 가르침 하에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는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보았다. 19세기 중반에 유행한 감상주의 소설들(sentimental novels)은 대체로 이러한 진정한 여성성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감상주의 소설은 당시 미국 문학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 여성 독자의 기호에 맞추어 가정적인 가치

와 기독교적인 경건성을 다루며 주로 여성 가정 소설 작가들에 의해 쓰여졌다(박연옥 73). 『작은 아씨들』은 바로 이런 감상주의 소설의 전통에 서 있다.

이 작품은 감상주의 가정 소설의 전통 위에 서 있지만, 남북전쟁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남북전쟁으로 인해 남부는 물론 북부에서도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불가피했고, 전장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해서 여성들이 가정의 주도권을 잡는 경우도 많았다. 작품 속의 마치 부인과 딸들은 부재중인 남편을 대신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자선과 구제 등 사회적인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작가 올콧 자신도 남북전쟁에 간호병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녀는 당대의 진보적 지식인이자 초월주의자 그룹의 중요한 일원이었던 아버지 브론슨 올콧(Bronson Alcott) 덕에 에머슨, 소로, 마가렛 풀러 등과 교류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영역을 집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는 틈이 날 때마다 사과 한 바구니와 책을 들고 자기만의 공간인 다락에서 독서 삼매경에 빠진다(23). 당시에는 즐거움을 위한 독서는 젊은 여성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여겨졌다. 조가 이렇게 독서에 빠져 있는 모습은, 그녀의 사내아이 같은 행동과 함께, 주어진 성역할을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치 가의 자매들과 로리가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조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다음 대목은 주목을 요한다.

I'd have a stable full of Arabian steeds, rooms piled with books, and I'd write out of a magic inkstand, so that my works should be as famous as Laurie's music. I want to do something splendid before I go into my castle—something heroic, or wonderful—that won't be forgotten after I'm dead. I don't know what, but I'm on the watch for it, and mean to astonish you all, some day. I think I shall write books, and get rich and famous; that would suit me, so that is my favorite dream(143).

이 장면은 조가 가지고 있는 활기와 창조성에 대한 갈망, 의미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젊은 이다운 열망을 보여준다. 그녀는 가고 싶은 곳으로 맘껏 달려갈 수 있도록 말들로 마굿간을 가득 채우고, 방에는 책들이 쌓여 있으며, 마술처럼 멋지게 글을 쓰는 자신을 상상한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멋진 일, 영웅적인 일,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그녀는 가지고 있다. 이와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녀는 책을 써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겠다는 구체적인 꿈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조의 자매들이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고 디킨스의 소설을 모델로 픽윅 클럽(Pickwick Club)을 만들어 회의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 조가 놀이와 자기표현의 방법으로 글쓰기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작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글을 써서 신문사에 기고하기도 한다. 친구 로리(Laurie)는 매일 발표되는 형편없는 글들과 비교하면 조의 글을 셰익스피어처럼 훌륭하다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는데(151), 이는 적어도 주변 인물들은 조를 작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녀의 훌륭한 글솜씨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조는 어떤 글을 쓸 것인가? 당대에는 진정한 여성성을 보여주는 감상소설들이 유행했다는 점을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과연 그런 유형의 소설들이 조가 보여주는 생명력과 창조성을 작품에 담아낼 수 있을까. 여성들에게 부과되던 행동의 양식과 여성들이 쓰는 글의 유형이 정해져 있는 당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녀가 가진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III. 선정소설(sensational stories)과 여성 작가의 표현의 자유

조가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특성은 자유로운 상상력에 있다. 일찍이 조가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가족 크리스마스 연극 「마녀의 저주」는 동방박사 이야기 같은,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경건한 내용이 아니다. 이야기는 뒤죽박죽이고 개연성이 없어 보이며, 도덕적인 교훈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작품이 출판된 후 주일학교 사서들이 내용이 건전하지 않다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저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Showalter xix). 현실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엉뚱한 연극은 독자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연극의 제목이 「마녀의 저주」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올콧이 자신의 글쓰기를 마법과 연결시켰고, 상상력을 모든 기억과 경험이 들어가는 마녀의 가마솥(caldron)으로 묘사했기 때문이다(Showalter xi).

그런 맥락에서 집을 떠나 뉴욕에서 지내는 동안 조가 쓰는 선정소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된 독자가 중산층 기독교 여성이었던 감상소설과 달리, 당시의 선정소설은 하층계급의 남성들이 일차원적인 재미를 위해 찾던 소설이었다. 1830년에서 1860년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출판된 소설의 57 퍼센트는 대체로 하류 계층의 남성 독자들을 염두에 둔 남성 작가들의 선정적인 소설이 점유했으며 (감상소설은 23 퍼센트의 점유율로 선정소설 다음으로 큰 문학 시장 점유율을 가졌다) 근친상간과 살인, 그리고 자살과 같은 선정적인 플롯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박연옥 70, 73). 작품에서 조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종류의 글을 썼다고 나온다. 그녀는 소재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뒤져 사람들을 자극할 이야기거리를 찾기도 한다(349).

선정소설을 쓴 것은 작가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다. 실제로 올콧은 익명으로 혹은 바너드(A.M. Barnard)라는 가명으로 몇 편의 선정소설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의 올콧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런 소설들을 쓴 것일까?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돈만을 위해 그런 글을 썼다면 작가로서의 성공을 거둔 후에는 더이상 그런 글을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작가는 그 이후에도 비슷한 주제의 스틸러 소설을 썼다는 것이다(Bernstein 25). 다음으로는 실제로 올콧이 쓴 (엄격히 말하면 20세기 중반에야 그녀의 것으로 밝혀진) 소설들은 그런 주제를 다루면서도 나름의 훌륭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다른 장르의 틀 속에서 다룰 수 없었던 정신의 조작, 권력 암투, 성적인 암시 등을 작품 속에서 다룰 수 있었다. 머피가 주장하는 대로 올콧의 선정소설에는 육감적이고 강력한 여성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 『작은 아씨들』의 주인공인 무성적(sexless)이고 희생적인 자매들과 대조를 이룬다(Murphy 580). 그렇다면 선정소설을 단순히 돈을 위해 쓴 저급한 소설이라는 부정적인 몇 마디로 정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의 상상력과 표현의 영역이 확장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머피는 만약 조가 이 소설에서 쓴 선정소설이 실제 올콧이 쓴 소설과 같은 것이었다면, 여성의 힘의 대안적 이미지를 탐색하는 이 작업은 그녀가 고통스럽게 가르침을 받았던 여성의 역할의 특징을 침범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이것을 계속했다면 여성들이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한, 새로운 종류의 픽션에 대한 흥미가 생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Murphy 583).

그런데 왜 조는 바에르 교수(Professor Bhaer)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알게 되자 부끄러

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태워버리기까지 하는가? 왜 작가 올콧은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내지 못하고 끝까지 익명 혹은 가명으로 작품을 발표한 것일까? 그것은 도덕적인 글을 써야 한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자기검열 때문이다. 자신의 원고를 태운 후 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I think I haven’t done much harm yet, and may keep this to pay for my time,’ she said, after a long meditation, adding impatiently, ‘I almost wish I hadn’t any conscience, it’s so inconvenient. If I didn’t care about doing right, and didn’t feel uncomfortable when doing wrong, I should get on capitably. I can’t help wishing sometimes, that Mother and Father hadn’t been so particular about such things.’(356)

그녀는 부모님 몰래 이런 글을 쓴 것에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번 돈을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것이 자신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므로 챙길 수 있다는 핑곗거리를 찾기도 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여성다운 속성을 잃게 하기 때문인데(“She thought she was prospering finely, but unconsciously she was beginning to desecrate some of the womanliest attributes of a woman’s character.” 349), 여기서 여성다움은 더 높은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이런 글을 읽지 말아야 하고, 쓰는 것은 더더욱 나쁘다는 당대의 인식이다. 현대의 비평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조의 도덕적 각성을 드러낸다고 보다는 오히려 여성 작가가 가질 수 있는 내적인 제약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행동에서 실제의 올콧은 작품 속의 조와 다르다. 조는 이 깨달음 후에 개과천선하고 교훈적인 글을 쓰기에 매진하지만 올콧은 이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비밀스럽게 이런 종류의 글을 쓴다. 아마도 올콧의 아버지와 그 지인들의 점잖은 모임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런 종류의 글을 발표하지 못하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콧은 ‘소녀들을 위한 책’ 말고 다른 장르의 글에 매혹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작은 아씨들』은 1868년 1권의 성공의 여세를 몰아 다음 해에 2권이 나왔고, 이어지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져 8권까지 나왔다. 어떤 점에서 이 책이야말로 올콧이 돈을 위해 쓴 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올콧은 이 작품의 2권을 쓰는 것도 내키지 않아 했지만 출판업자의 요구에 따라 썼으며, 매우 신속히 완성했다고 한다(*Selected Letters* 125).

IV. 조가 도달하는 좋은 소설-열정과 미덕

선정소설에 대한 자기검열의 과정을 거친 후 원고를 불태운 조는 Mrs. Sherwood, Miss Edgeworth, and Hannah More 등 선배 여성작가들의 예를 따라 아이들을 위한 도덕적인 교훈서를 쓰는 시도를 한다. 이들의 글이 소위 여성들에게 맞는 글쓰기의 모범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이야기는 팔리지 않는다(356). 대중은 지루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는 부도덕한 선정소설과 잘 안 팔리는 지루한 소설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다. 이제 그녀는 잘 팔리면서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내용을 찾아 작품을 써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조의 착한 여동생 베스는 죽으면서 조에게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유언한다. 그녀

는 “훌륭한 책을 쓰는 일이나 온 세상을 다 보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여 조를 집안에 묶는다(418). 42장 “All Alone”에서 조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는 그 자체로 보상인 즐거운 일이 있는데(글쓰기를 말함) 도대체 어디에서 그 일을 대신할 유익하고 행복한 일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자문하고 있다. 베스와 약속을 지켜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반발심은 어쩔 수가 없다. 그녀는 즐거움은 줄어들고 짐만 늘어났다고 생각하며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우울감에 빠진 그녀가 이런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가족들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으면서 삶이 더 참을 만하다고 느낀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활력, 순종하는 마음을 되살릴 수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실망과 불신 없이 삶을 받아들이고 삶의 아름다운 기회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친다(433-4). 물론 이것으로 조가 갈등 없이 성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조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뭔가 굉장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제 그 대단한 일이란 “부모님이 지금까지 집을 행복하게 해준 것만큼 자신도 집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애쓰면서 부모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되었고 그것이 즐겁고 자발적으로 해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되었기에 더욱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조에게 어머니는 다시 글을 써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 내키지 않을 뿐 아니라 누가 내 글에 관심이 있겠느냐는 그녀의 말에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가족만을 독자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라고 권한다. 이렇게 쓴 글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 성공의 이유를 조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조의 글에 진실이 들어 있어서라고 말해준다. 명성이나 돈을 생각하지 않고 진심 어린 마음을 쏟아부었기에 그런 글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좋은 글이 나온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가족을 위한 희생과 도덕적인 성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공이다. 조 자신도 자신의 글에 뭔가 좋거나 진실된 것이 있다면 그건 모두 부모님과 베스 덕이라고 말한다(436).

그렇다면 우리가 앞 부분에서 보았던 조의 상상력과 창조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27장 앞 부분에서 글쓰기에 몰두한 조는 소용돌이 속에 빠진(‘fall into a vortex’) 것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소설을 끝내기 전에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기에 마음과 영혼을 다해 소설을 써 내려간다. 그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영감이 떠올랐는지(‘Does genius burn, Jo?’) 묻기조차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265).

She did not think herself a genius by any means, but when the writing fit came on, she gave herself up to it with entire abandon, and led a blissful life, unconscious of want, care, or bad weather, while she sat safe and happy in an imaginary world, full of friends almost as real and dear to her as any in the flesh. Sleep forsook her eyes, meals stood untasted, day and night were all too short to enjoy the happiness which blessed her only at such times, and made these hours worth living, even if they bore no other fruit. The devine afflatus usually lasted a week or two, and then she emerged from her ‘vortex’, hungry, sleepy, cross, or despondent(267-8).

이 부분에서 조의 글쓰기에 대한 몰입은 ‘발작’에 비유된다. 그 상태의 조는 현실의 모든 걱정, 근심거리는 물론 식욕과 수면욕 같은 육체적 필요 조차를 잊고 상상의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조가 빠져 있는 이 ‘소용돌이’는 의식의 경계를 넘어 거의 무의식에 닿아있

다고 생각될 정도이다. 번스타인은 이 상태가 프랑스 페미니스트 식수(Helene Cixous)의 글 쓰기에 대한 설명을 연상시킨다고 말한다(Bernstein 35).

그런데 위에서 조가 쓰는 ‘바람직한 글’은 이런 불타오르는 영감의 산물로 보이지 않는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수입을 탐하지 않고, 또한 교훈을 문학적 가공 없이 전달한 것이 아니라, “유머와 페이소스가 가득한 생기있는 문체로 삶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어 독자의 흥미를 자아내면서도, 삶의 진실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436) 아버지의 입을 빌어 작가는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성공은 작가로서의 조의 열정을 희생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패털리(Judith Fetterley)의 표현대로 조의 성공은 야심이나 심지어 열정의 산물이 아니다.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도 않고 사적인 고통에 대한 위안을 찾는 정신의 산물이고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불타는 천재성을 가졌던 조는 이제 자신이 쓴 것도 아버지 어머니 베스의 공으로 돌리는 상태가 된 것이다(Fetterley 374). 조의 작가로서의 성공은 조가 인간적으로 성숙하여 가족의 가치를 알고 순종의 미덕을 받아들일 때 왔다고 올콧은 주장하는 것 같다.

사실 이 작품은 조의 작가로서의 열정을 제어해야 할 어떤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의 초반 8장에서 에이미가 자신을 연극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조의 원고를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난다. 오랜 시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하나밖에 없는 원본이었기 때문에 조는 너무나 화가 나서 에이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화가 난 조는 강으로 스케이트를 타러 가면서 에이미가 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얼음이 녹은 것을 경고하지 않는데, 이로 인해 에이미는 거의 죽을뻔한다. 이 사건 후 조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고 에이미를 용서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조의 분노는 다스려야 할 악마 아폴리온에 비유된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원고가 회복 불가능하게 불태워진 상태에서 마땅히 느낄 수 있는 정당한 분노가,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감정으로 언급되고(76), 이것을 기회로 어머니는 자신이 매일 분노를 참는다며 자신을 따라 배우라고 권면한다(79). 욕망을 조절하고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여성의 성취에 필수적이라고 작가는 주장하는 것 같다. 여기서 가족에 의해 조의 원고가 태워지는 것과, 자신의 선정소설을 스스로 불태우는 것은 조의 상상력을 제어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V. 나가며

마지막 장에서 독자가 만나는 조는 남편과 함께 학생들을 돌보는 어머니같은 선생님의 모습이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의 이러한 경험이 더 나은 작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한다(489). 그녀에게서 명작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굿간을 힘찬 말들로 채워놓고 마술의 잉크병에 펜을 담가 글을 쓰고 싶었던 어린 시절 생명력있는 조와, 창작의 과정에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무아지경의 희열에 빠진 조, 인간의 저열한 욕망과 비틀어진 관계의 밑바닥까지를 인간의 모든 면을 탐색하고자 했던 젊은 작가 조가 가진 작가로서의 열정과 힘이 그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을 것인가.

서론에서 이 작품에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보수적인 메시지와 이를 전복하는 요소가 함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조의 글쓰기를 고찰하였다. 조가 작가로서 성공하는 과정은 활력을 잃고 여성작가에게 부과되던 프로토타입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잃는 것이 무엇인지가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이 조라는 전도양양한 소설가가 “지배문화의 바람직한 여성상에 맞추어 창조적 욕구를 희생한 이야기”(Showalter viii)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 여성이 어떤 창조적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욕구를 희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생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의미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Works Cited

- 박연옥.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남성 작가들의 불안 : 19세기 미국소설 연구」. 『영미어문학』 (2005.6): 61-84. Print.
- Alcott, Louisa May. *Little Women*. 1868, 1869. London: Penguin, 1989. Print.
- . *The Selected Letters of Louisa May Alcott*. Ed. Joel Myerson and Daniel Shealy. Athens, GA: U of Georgia P, 1987. Print.
- Bernstein, Susan Naomi. “Writing and *Little Women*: Alcott’s Rhetoric of Subversion.” *ATQ: American Transcendental Quarterly* 7.1 (1993): 25-43. Print.
- Englund, Sheryl A. “Reading the Author in *Little Women*: A Biography of a Book.” *ATQ: American Transcendental Quarterly* 12.3 (1998): 199-219. Print.
- Fetterly, Judith. “*Little Women*: Alcott’s Civil War.” *Feminist Studies* 5.2 (1979): 369-83. Print.
- Murphy, Ann B. “The Borders of Ethical, Erotic, and Artistic Possibilities in *Little Women*.” *Signs* 15.3 (1990): 562-85. Print.
- Showalter, Elaine. “Introduction.” *Little Women*. London: Penguin, 1989. Print.
- Welter, Barbara. “The Cult of True Womanhood: 1820-1860.” *American Quarterly* 18.2 (1966) 151-74. Print.

보드리야르의 시물라크르로써의 마크 트웨인의 시물라시옹 - 『신비한 소년 44호』를 중심으로-

김효실
(강원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의 사후작인 『신비한 소년 44호』(*No. 44, The Mysterious Stranger*, 1969)에서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의 이론인 ‘시물라시옹’(simulation)의 요소를 고찰하여, 20세기 초반에 집필한 트웨인의 소설이 21세기의 현대인들의 사유와 인식의 흐름을 이미 가시화 시켜놓은 작품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시물라시옹이란 개념은 보드리야르가 1981년에 출판한 저서 『시물라크르와 시물라시옹』(*Simulacra and Simulation*)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인간 제반사에 관련된 사회현상에 지고의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의 사회 철학자는 ‘시물라시옹’의 작용으로 생성된 ‘시물라크르’의 미혹된 세상에서 인간이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실, 상징,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시물라시옹의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물라시옹이란 개념을 트웨인의 소설에 비교·대입·분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재’(reality) 또는 ‘존재’(existence)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 위한 선지식들이 충돌하고 융합되어 보드리야르의 의식 속에서 시물라시옹으로 새롭게 착안되었는데, 이 시물라시옹의 요소들이 트웨인이 세상을 마감하기 8여 년 전부터 집필해 온 『신비한 소년 44호』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난해한 전개 구조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시간·공간적 배경이 매우 복잡하게 설정되었다는 점은 이 소설이 혹평을 받아온 원인이 되어왔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트웨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작가의 인생철학이 이 소설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사회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글로 옮겨왔던 트웨인의 통찰력이 실제적인 것과 가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 등을 파헤치기 위해 더 과감한 시도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트웨인의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필력이 70여 년 후에 시물라시옹의 태동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설득력 있게 진행하기 위해 먼저 트웨인이 시물라시옹적 시각으로 세상을 응시한 동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웨인은 제국주의, 인종주의 등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작품을 집필해 왔다. 그중에서도 그가 종교에서 비롯된 부조리한 현상을 놓치지 않고 글로 옮기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인 미국에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식이 녹아든 그의 작품은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트웨인은 잘못된 종교적 통념을 바로 잡기 위한 투혼을 『신비한 소년 44호』에 쏟아 내었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꿈이나 환상으로 설정하여 44호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종교의 부조리를 가감 없이 고발하는 서술에서 독자들의 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한 트웨인의 절실한 회원을 읽을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귀속하는 종교에 대한 물음은 결국 신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해 트웨인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존

재하지 않는 ‘무’(nothing)라고 단정을 내림으로써 신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선언은 트웨인의 허무주의적 세계관이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는데 인간이 그 사라짐에 미혹되어 있다’라고 말한 보드리야르의 주장의 시물라크르였음을 방증(circumstantial evidence)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

따라서 본 논문은 『신비한 소년 44호』를 집필한 트웨인의 창작 동인과 보드리야르의 시물라시옹의 개념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추출하여 이 두 명의 지성인들이 사회에 반응하는 심리적 메카니즘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소설에서 보드리야르의 시물라시옹의 시물라크르로서의 기능이 함유된 문학적 특색을 찾아 시대를 앞선 트웨인의 문학적 창의성을 논하고자 한다.

II. 시물라시옹을 잉태한 심리적 메카니즘

트웨인의 작품들은 종교단체의 검열을 받아왔다(Murray, 189). 국교가 기독교인 미국에서 종교적 부조리를 폭로하는 트웨인의 소설들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독자들의 의식에 스며들기를 기대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거센 비난이 쏟아질지라도 트웨인은 잘못된 종교적 관행이나 관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을 각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며, 중국에는 부조리를 양산하는 종교를 아예 해체해 버리려는 경향까지 보인다. 포레스트 로빈슨(Forrest G. Robinson)이 “혼돈에 빠진 세계에게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시급한 욕구에 트웨인이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18)라는 언급은 『신비한 소년 44호』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트웨인의 심리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다.

트웨인이 「무엇이 인간인가?» (“What is man?” 1906)에서도 인간은 태생적으로 영혼(spirit)이 만족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듯이(27) 그는 작가의 정의로운 소명의식을 다하기 위해 혹독한 비난은 무시한 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에도 직접 가담하여 선봉에서 일한 바 있다. 반제국주의연맹의 부의장이었던 트웨인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려는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여성 노동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면 후인 학생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등 행동하는 개혁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개혁을 외쳤던 트웨인이었지만 기독교의 모순적 관행을 비판하는 일은 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기독교 교리와는 상반된 기독교인

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1년에 김봉은 선생이 트웨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출간한 작품인 『스톰필드 선장의 천국 방문기』(*Extract From Captain Stormfield's Visit to Heaven*, 1909)를 이미 시물라시옹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천국과 미국이 모사로 투사되었다는 점에서 시물라시옹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봉은 선생의 논문은 본 연구가 살펴볼 연구대상과 범위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신비한 소년 44호』와 관련된 논문은 전태은 선생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신비한 소년 44호』 두 텍스트를 중심으로 꿈의 문제를 연구한 석사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신비한 소년 44호』를 토대로 미국적 딜레마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가브리엘 노아 브라함(Gabriel Noah Brahm)과 포레스트 로빈슨(Forrest G. Robinson)이 니체의 철학과 트웨인의 문학철학의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 『신비한 소년 44호』에 대해 거론(141)한 논문이 있으며, 조셉 시실라(Joseph Csicsila)와 찰드 로만(Chad Rohman)가 초국가주의, 교차 문화주의, 그리고 철학적 역설 등과 같은 광범위한 관점으로 분석한 13편의 에세이를 모아 편집한 『마크 트웨인의 『신비한 소년 44호』 대한 100주년 회고』(*Centenary Reflections on Mark Twain's No. 44, the mysterious stranger*, 2009) 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보드리야르의 시물라시옹 현상을 『신비한 소년 44호』에서 찾아본 논문은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창의성을 논할 수 있겠다.

들의 빛나간 관행에 아이러니를 느끼며 비통함을 느끼게 된 계기는 트웨인이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읽고 외웠던(Bush 57) 경험에서 비롯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인종차별주의가 횡행하던 사회적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트웨인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예민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듯 보인다. 『톰소여의 모험』(*The Adventures of Tom Sawyer*, 1876)이나 『허클베리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1885)에서 트웨인이 기독교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을 폭로하기 위해 비유와 풍자를 이용하여 예들러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어려서부터 배운 기독교적 가치관과 부조리에 침묵하지 못하는 작가로서의 소명의식 사이에서 그가 얼마나 갈등하고 고뇌했을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트웨인은 “자신을 둘러싼 금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무능함”(“an incapacity for defying the taboos which surrounded him,” Mencken 222-3)을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타하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 온 종교적 가치관을 초월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치 트웨인의 탄식은 그대로 보드리야르의 지배담론으로 전도된 듯 보인다. 베트남 전쟁을 비판하는 바이스(Peter Ulrich Weiss)의 회곡을 프랑스로 번역하면서 반전사상이 고조된 보드리야르는 미국이 베트남을 식민지화 시키려는 현상을 ‘소비’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즉 강대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의약품과 군사 기술을 개발도상국으로 떠넘기는 방식”을 지적한다(“the ways in which outmoded medicine and military technologies are offloaded to the developing world” Lane 27). 이와 더불어, 모순적 사회적 시스템에 반기를 든 1968년 5월에 봉기된 대중항쟁에 참여한 보드리야르는 이 혁명을 심도 있게 조망한다. 그중에서 “미디어가 청중 또는 “참가자” 응답을 “모사”하는 시뮬레이션의 개념”(“the notion of simulation, where the media are “simulating” audience or “participant” response” Lane 24)은 기술 인종이나 이념적 전투 지원이 창출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론으로써 가상과 실재의 경계를 허무는 시뮬라시옹 이론의 초석이 된다. 물론, 보드리야르도 사회의 문제점을 포스트모더니즘적으로 분석한 이론들로 인해 신랄한 비난(vitriolic criticism, Lane, 1)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독특한 이론이 현대 4차 산업혁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의 안목과 식견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트웨인과 보드리야르의 공통점은 진실을 추구하는 탐구자로서 그릇된 사회 시스템에 필력으로 일침을 가하는 적극적인 행동주의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신비한 소년 44호』의 중심 주제인 종교는 인간 제반사에서 트웨인이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보드리야르 또한 종교에 얽매인 가치 추구로 인해 인간 존재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철학적으로 통찰한 보드리야르는 존재하는 주체를 의심하면서 “모든 신적인 창조를 의심하게 만든다”(SIM, 129)라고 언급한다. 수십 세기 동안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 왔던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보드리야르는 자신이 ‘허무주의자’(SIM, 160)라고 선언하면서 인간 삶에 부여된 의미들은 중국에는 ‘사라짐’으로 귀속된다고 언급한다(SIM, 160). 아마 오랜 시간을 걸쳐 각인되어 온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지금의 삶이 진정한 실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한 순간 느껴지는 허무한 감정

7) 1968년 보드리야르가 바이스의 회곡을 프랑스로 번역하였다. 프랑스로 된 책의 제목은 *Discours sur la genèse et le déroulement de la très longue guerre de libération du Vietnam*이고 영어로는 *Discourse on Vietnam*(translated by Geoffrey Skelton in 1970)로 잘 알려져 있다(Lane 19)

을 보드리야르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허무함을 초월하기 위해 보드리야르는 현실의 억압과 부도덕성 등을 은폐하기 위해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낸다. 사회의 부조리와 부도덕한 실체에 주목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시스템을 관찰해온 보드리야르가 착안한 시뮬라시옹 현상들이 20세기 초반에 집필된 트웨인의 사후작에 깊숙이 스며들어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III. 트웨인의 시뮬라시옹

『신비한 소년 44호』에서 사제 아돌프(Father Adolf)가 히틀러에게 영감을 준 칼 루에거(Karl Lueger)의 화신으로 등장하여 온갖 악행을 일삼는다. 기독교의 권력을 악용하는 아돌프의 위선을 제압하기 위해 작가가 현실 세계의 사람이 아닌 44호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이 소설을 특색있게 만들었다. 44호는 어거스트 펠드너(August Feldner)에게 가상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여주면서 펠드너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전형적인 가치관의 모순에 대해 인식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44호가 인쇄소 사람들에게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평범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느 추운 날, 인쇄소에 무척 허름하고 위축이 된 15-6살 정도의 소년이 문간에 앉아있었다. 인쇄소의 안주인인 프라우 슈타인(Frau Stein) 부인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소년을 쫓아내자고 우기지만 인쇄소 주인인 하인리크 슈타인(Heinrich Stein)과 신뢰를 쌓고 있는 건장한 가정부인 카트리나(Katrina)가 44호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주인이 소년의 이름을 묻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뉴 시리즈 864,962, 44호”(“Number 44, New Series 864,962.”²⁰)라고 소개하고 사람들은 그 불쌍한 소년을 ‘44호’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트웨인이 시간의 경계를 해체하기 위한 시도로써 등장시킨 44호는 펠드너와 함께 종교의 진실을 파헤치고 인간의 진정한 삶에 대해 논하고자 가상의 세계를 오고 가면서 대화를 나눈다. 이들의 대화는 마치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백인 소년 허크와 흑인 노예 짐의 대화를 연상시킨다. 허크는 세상 이치에 밝지만 짐은 허크의 세속적인 지식을 초월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허크에게 가르쳐준다. 이들이 『신비한 소년 44호』에서 부활한 듯 보인다. 펠드너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인간 삶에서 행해지는 사건 속에 감춰진 진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44호는 짐처럼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존재하는 진실을 알고 있다. ‘44호’는 펠드너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기 위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직접 목격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이들이 과거의 세계에서 나눈 대화나 행동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낯설지는 않다.

보드리야르가 “현실의 원칙이 장악하는 세상에서 상상은 실제의 알리바이였다”(Sim, 122)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가 존재하는 지금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는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체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 상상은 과거의 인식을 바탕으로 펼쳐진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은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44호가 펠드너에게 아돌프 신부의 만행과 그를 맹목적으로 믿는 신자들의 광신적인 행동을 직접 보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아돌프가 30살이었을 때 어느 추운 겨울에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요한 브링커

(Johann Brinker)라는 20살 된 젊은 청년이 그를 구해준 일이 있다. 그러나 화가로 전도유망했던 요한은 그날 얼음물에 들어갔던 것이 화근이 되어 엄마와 누이들의 간호를 받으면서 평생 누워지내야만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요한의 희생은 아돌프가 파렴치한 악덕을 쌓는데 일조한 것이고 중국에는 그의 어머니까지 화형대로 내몰아 처참히 사형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당시 44호가 진짜 인쇄공들과 완전히 닮은 복사관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 일을 마법사가 한 일이라고 여겼고 아돌프에게 이런 이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하지만 아돌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마술적인 일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사탄을 여러 번 대면한 일이 있었다며 거짓말을 스스로 떠벌리고 다녔던 아돌프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희생양이 필요했다. 종교 재판장인 아돌프는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요한의 어머니를 화형대에 세웠고 위선적인 아돌프의 말을 진적으로 신뢰하는 군중들은 화형장으로 몰려들어 요한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들 중에 한 남자가 불길에 휩싸여 죽어가는 여인의 모습이 잘 보이도록 자신의 어린 딸에게 목마를 태워주는 장면은(*MS*, 109) 독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성직자라는 직위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아돌프의 위선에 동참하는 군중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의심하거나 어떠한 검증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저 인간의 내재된 잔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44호가 부조리한 종교 재판이 벌어진 과거의 상황을 펠드너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재현하는 매체들을 지지하려는 교육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을 향한 보드리야르의 일침으로 이어진 듯하다. 보드리야르는 “학살의 망각도 학살의 일부”(“Forgetting extermination is part of extermination,”라고 언급하면서 문제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im*, 49). 마치 보드리야르의 철학이 트웨인의 의식을 복사한 것처럼 보인다. 이들의 이러한 인식은 라틴어로 ‘진실’의 반대말이 ‘거짓’이 아니고 왜 ‘망각’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상기시킴으로써 똑같은 잘못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시뮬라시옹의 개념이 잘 반영된 부분은 인간을 단순한 기계로 취급하는 44호가 인쇄공들과 똑같은 복사관들을 만들어내는 장면이다. 놀랍게도 복제된 복사관들은 인공지능 로봇처럼 사람들의 일을 더 정교하고 신속하게 잘 수행한다. 복사관들의 놀라운 작업과정을 지켜본 인쇄공들은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전문적인 일들을 복사관들이 쉽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한다(*MS*, 89). 그들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사관들은 더 나아가 인쇄공들보다 더 정열적이고 열정적으로 아가씨들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진짜들은 점점 더 찬밥신세가 되면서(*Ms*, 99) 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다.

복사관들은 진짜 직공들의 실재가 아니다. 그들은 직공들의 외양을 지닌 또 다른 객체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실재의 인위적 대체물인 복사관은 ‘시뮬라크르’이며, 직공들은 시뮬라크르인 복사관들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 두려움은 복사관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파생 실재로써 완전히 독립된 또 다른 실재가 될 수 있기에 진짜 실재인 직공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보드리야르의 다음 언급은 직공들의 걱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휘어짐이 더 이상 실재나 진실의 휘어짐이 아닌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시뮬라시옹의 시대가 열리고 모든 지시대상은 소멸되어 버린다: 이내 사라져버린 지시대상들이 기호 체계 속에서 인위적으로 부활하여, 의미보다 더 유연한 물질, 지시대상이 모든 등가적 시스템, 이원적인 반대, 조합 대수학에 그 자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⁸⁾

By crossing into a space whose curvature is no longer that of the real, nor that of truth, the era of simulation is inaugurated by a liquidation of all referentials—worse: with their artificial resurrection in the systems of signs, a material more malleable than meaning, in that it lends itself to all systems of equivalences, to all binary oppositions, to all combinatory algebra.(*SIM*, 2)

트웨인의 복사판은 보드리야르의 분신(double)으로 시뮬라크르가 된다. 보드리야르는 복제된 분신은 영혼이나 그림자 또는 거울 속의 이미지와 같이 어떤 주체가 유령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주체는 자신이지만 절대로 닮지 않는 또 다른 것이라고 설명한다(*Sim*, 95). 트웨인의 복사판이 진짜보다 더욱 인정을 받으며 진짜의 위치를 대체하면서 파생실재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시뮬라시옹을 실현한다. 시뮬라크르인 복제는 실재인 진짜보다 더욱 진짜처럼 보이면서 “참과 거짓,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문다”(“that shattered every ideal distinction between true and false, good and evil”*Sim*, 22). 트웨인은 인간 복제나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의 출현 가능성과 그것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인간을 대체하는 복사판들은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으며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파업을 단행한 진짜 인쇄공들의 자리를 점령해 나갈 뿐이다(*MS*, 88-9). 기계문명이 발전하면서 생겨날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해내는 트웨인의 직관력은 보드리야르의 전자 문명 및 미디어 문명에 관한 고찰로 전위 된 듯하다. 사회현상을 시뮬라시옹의 시각으로 관찰한 철학자는 정보, 모델, 정보통신학적 게임 위에 세워진 시뮬라크르들은 기계들의 차이를 대체하면서 슈퍼-로봇이나 초능력이 있는 기계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Sim*, 126). 전자 문명의 상징인 미디어로 인한 “시뮬라시옹의 무한한 연쇄적 재연”(“this indefinite recurrence of simulation,” *Sim*, 21)은 현실을 갈취하는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의 세상을 만들어내어 인간의 고유한 사유를 쓸모없는 기능으로 전락시키고 중국에는 인류를 ‘사라짐’의 위기에 봉착하도록 만든다. 이 “사라짐”에 강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보드리야르는 결국 자신은 허무주의자라고 천명(*Sim*, 162)하는데 이러한 보드리야르의 의식은 트웨인의 생각과 유사하다.

부조리한 종교적 관행으로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트웨인이 인간에 대한 물음을 초월하여 신의 존재 자체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주인공 ‘44호’가 수십 세기 동안 인간의 의식 속에 견고한 주체였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무엇이든 신성으로 뭉뚱그려 신을 숭배하라고 종용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사람들이 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44호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상상력이 빚어낸 창작물이라고 일축한다(*MS*, 187). 신을 해체하려는 트웨인의 시도는 보드리야르의

8) 다시 설명하면, 사라져버린 지시대상들이 기호 체계 속에서 인위적으로 부활한 더욱 강화된 시뮬라시옹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에 관한 언급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보드리야르는 단도직입적으로 “신은 없다”(“God never existed,” *Sim*, 4)고 단정을 내린다. 그는 시물라시옹은 의학이나 군대 문제 이전에 종교와 신성의 영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언급하면서(*Sim*, 4) 하나님도 시물라크르라고 말한다. 성화상(icon) 파괴주의자들이 성화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단언하고 성화상을 금기하고 파괴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보드리야르는 성상 파괴주의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시물라크르의 힘이며 신을 인간의 의식에서 지워버리는 기능이라고 말한다(*Sim*, 4). 트웨인이 히틀러의 롤모델인 루에거의 이미지를 아돌프에게 부여해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권력자들의 잘못된 악행을 지적하고 있듯이 보드리야르는 권력의 현현 속에서 신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바로크적 이미지 뒤에는 정치의 앞잡이들이 숨어있다고 말한다.

—권력의 현현으로 인한 신의 소멸은—초월성의 종말이며, 이러한 현상은 영향력과 징후가 전혀 없는 전략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할 뿐이다. 이미지의 바로크성 뒤에는 정치에 탁월한 사람들의 음흉함이 숨어 있다.

—the evanescence of God in the epiphany of power—the end of transcendence, which now only serves as an alibi for a strategy altogether free of influences and signs. Behind baroqueness of images hides the eminence grise of politics. (*Sim*, 5)

트웨인과 보드리야르가 활동한 시대도 다르고 그들의 활동 분야도 다르지만 그들이 세상을 관조하는 방식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어떠한 비난을 받을지라도 사회의 부조리를 묵인하지 않는 정의로운 지성인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신비한 소년 44호』는 종교로 빚어진 부조리나 잘못된 통념 그리고 권력자들의 정치적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없었던 트웨인의 호소력 있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인간 존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하여 신의 존재에도 의문을 던지면서 종교의 진실을 알고자 했지만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을 파헤치는 것은 여전히 무모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에 대한 결과는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과거를 가상현실에 대입해 봄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타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트웨인의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 소설이 시물라시옹적 가상현실의 태동이었음을 규명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트웨인과 비슷한 의식을 지닌 보드리야르가 사회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시선으로 시물라시옹을 탄생시켰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았다.

IV. 결론

트웨인의 『신비한 소년 44호』에서 기술한 표현들이 보드리야르가 『시물라크르와 시물라시옹』에서 언급한 현상과 많이 중첩되어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종교의 모순적 관행과 제국주의의 만행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글로 형상화된 그들의 문학과 사회철학은 궁극적으로 인문학이 추구하는 계몽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트웨인과 보드리야르는 인간

의 존엄성이 우선시 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동력이 되어 부조리한 시대를 거부하며 모순적인 관행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쟁점화시키고자 했던 지성인들의 의식으로부터 발현된 시뮬라시옹은 아마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트웨인의 『신비한 소년 44호』에서 드러나는 시뮬라시옹의 특징은 가상 인물인 주인공 44호가 히틀러의 롤모델이었던 칼 루에거의 화신인 아돌프를 제압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복사판이 ‘진짜’인 인쇄공들을 압도하는 현상은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하이퍼리얼리티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뮬라시옹이 과잉된 세상은 실재를 앞지르는 가상의 시뮬라크르로 인해 참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 시뮬라크르의 연쇄적 출현으로 인해 모든 것은 ‘사라짐’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보드리야르의 주장과 일치한다.

시뮬라크르 현상은 신을 인간의 인식에서 지워버리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면서 실재적인 신은 사라지고 신의 이미지만 남겨진 세상에서 권력자들은 신의 이미지 뒤에 숨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온갖 악행을 정당화시킨다. 종교를 악용하여 거짓된 행보를 일삼는 기독교인들의 행보를 추적 관찰하면서 트웨인과 보드리야르는 결국 신의 존재까지 부정하기에 이른다. 이는 진리의 외피를 두른 채 거짓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미혹하는 종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의 모순적 관행과 부조리한 현상을 가상현실을 도입하여 고발하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실을 찾고자 했던 트웨인의 창의적인 반응을 보드리야르의 철학의 시뮬라크르로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한 소년 44호』는 하이퍼리얼리티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의 필독서이다.

참고문헌

- Baudrillard, Jean. *Simulacra and Simulation*. Trans. Sheila Faria Glaser. Michigan UP. 1994.
- Brahm, Gabriel Noah, and Forest G. Robinson. "The Jester and the Sage: Twain and Nietzsche"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California UP, 60.2 (September 2005): 137-62.
- Kim, Bong Eun. "Simulations of America in Mark Twain's Extract from *Captain Stormfield's Visit to Heave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7.4 (2001): 1211-25.
- Csicsila, Joseph. "Religious Satire to Tragedy of Consciousness: The Evolution of Theme in Mark Twain's "Mysterious Stranger" Manuscripts" *Essays in Arts and Sciences*. University of New Haven. Vol.27. (1998): 53-7.
- Bush, Harold K. "A Moralism in Disguise": Mark Twain and American Religion in *A Historical Guide to Mark Twain*. Edited. Shelley Fisher Fishkin. New York: Oxford UP. 2002.
- Curtis, Diana. "Two Samuels of Hartford: Clemens, Colt, and the Unification of a Disjointed Mysterious Ending" In *Studies in American Fiction*, 34, no. 1 (Spring 2006), pp. 69-85.
- Fulton, Joe B. *Mark Twain Under Fire: Reception and Reputation, Criticism and*

- Controversy, 1851-2015*. New York: Camden House. 2018.
- Lane, Richard. J. *Jean Baudrillar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 Mencken, H. L. "Puritanism as a Literary Force." In *A book of Prefaces*. New York: Garden City Publishing Company, 1917. 197-283.
- Murray, Stuart. *The Library: An Illustrated History*. New York: Skyhorse Publishing, 2012.
- Robinson, Forrest G. "Mark Twain 1835-1910: A Brief Biography" In *A Historical Guide to Mark Twain*, 2002, p. 13-51
- Twain, Mark. *No. 44, The Mysterious Stranger*. Ed. William M. Gibson. Berkeley, Los Angeles, London: California UP. 1982.
- _____"What Is Man?" In *Mark Twain What Is Man? and Other Essays*. Mineola &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2019
- _____"The War Prayer"<https://www.people.vcu.edu/~toggel/prayer.pdf>. 2021. 8.

기후소설로 본 바바라 킹솔버의 『비상』

이영애
(한라대학교)

“문학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Eagleton 3)는 사회적 역할의 관점에서 기후소설(Cli-fi, Climate Fiction)은 폭우, 가뭄, 이상 기온 등 환경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전 지구적 문제를 문학적 재현을 통해 다룬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요하다. 기후소설이란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문제를 주로 다루는 문학작품”(Wikipedia no page)을 가리킨다. 기후변화소설이라고도 불리는 기후소설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다루는 특징을 보이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 혹은 가까운 미래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상과학소설(science fiction)도 포함한다.

공상과학소설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미래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룬다면, 기후소설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와 연관된 복잡한 과학기술 이론과 논의에 문학적 상상력을 덧대는 과학과 예술의 균형있는 공존”(신두호 2019, 46)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감수성으로 읽어내는 장르가 소설임을 고려할 때”(이영현 127) 기후소설은 “환경변화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과 심각성을 부각시키는데 적절한 문학형식”(Clode and Stasiak 29)으로 문학적 재현을 이용하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및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재앙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 기후소설은 “기후변화에 대한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D’Avanzo 1) 인간의 모든 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같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등장인물들과의 공감을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장르로 자리매김”(이영현 121)하고 있다.

1960년대 마가렛 애트우드(Margaret Atwood, 1939~), 옥타비아 버틀러(Octavia Butler, 1947~2006), J. G. 발라드(J. G. Ballard, 1930~2009)와 같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기후소설이라는 장르가 등장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내러티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소설에 대해 비평가 에이미 브래디(Amy Brady)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를 꺾는 디스토피아적인 구조를 갖지만 기후변화로 초래된 위기를 모두가 함께 해결한다는 것”(37)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장르는 “사람들을 지식, 감정, 상상적인 측면에서 소통시킬 수 있는 하나의 형태로 기존 과학자들이 하지 못한 일”(Clode and Stasiak 20)을 읽는 행동을 통해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현재 혹은 미래 시나리오에 독자 스스로가 몰입하는 효과를 준다.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술과 과학은 반드시 공조”(Goodbody 95)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문학적 상상력이 독자들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소설은 재앙이 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절망적일 수 있는 미래를 예견하기도 하지만, 하나가 된 인류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작품 속 등장인물들과의 공감을 통해 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요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에코페미니즘 작가인 바바라 킹솔버(Barbara Kingsolver, 1955~)의 작품들은 인류가 처한 환경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킹솔버는 소설

이라는 장르가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의 머리 속으로 들어와 작가의 시점으로 삶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공감을 불러일으키는”(D’Avanzo 재인용 1-2) 특징을 지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생물학을 전공한 소설가로서 킹솔버는 공감을 이용하여 자연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재해석한다.

자연의 법칙이야말로 내가 신봉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 . 나는 내가 다른 생명체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내가 들이쉬는 이 공기는 나뭇잎이 만든 것이고, 내가 먹는 모든 것들은 생존과 번식에 온 힘을 기울인, 한 때는 생명이 있던 것들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있건, 혹은 글을 쓰기위해 앉아있건 이 세상과 나 사이에는 상당한 점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Wilkinson 재인용 42-3)

인간은 결코 자연보다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킹솔버는 “화려한 문장”(Browning 13)으로 독자들을 그녀의 세계로 이끈다. 특히 2012년도에 출판된 『비상』 (*Flight Behavior*)은 킹솔버의 작품들 중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Wagner-Martin xii), 다시 말해서 작품을 통해 독자들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아 직접 실천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비상』은 “한 여성, 한 가족,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소하지만 거대한 사건”(Browning 13)을 다루는 “미래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재앙을 예견하는 소설”(Jacobson 6)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상』이 기후소설로써 주인공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의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잘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스토피아적인 현실 속에 주인공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그로 인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킹솔버가 픽션이라는 장르를 이용하여 독자들의 삶과 연계하여 문제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지도록 함으로써 재앙에 가까운 환경과피에 대한 문학적 재현의 힘을 반추해보고자 한다.

킹솔버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과학적, 역사적, 인류학적인 사실을 그녀가 창조해낸 허구적 인물들과 적절히 잘 조화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비상』 작품의 말미 ‘작가의 말’에서 킹솔버는 “2010년 2월 전례없는 폭우로 산사태와 재앙에 가까운 홍수가 났었던 멕시코의 앙간게오(Anganguero) 마을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⁹⁾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Flight Behavior 435)¹⁰⁾고 밝힌바 있다. 특히 『비상』은 기후소설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독자를 향한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신두호 2019, 45) 지구온난화로 인해 환경 위기에 처한 가상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실과 허구의 절묘한 묘사로 전개된다. 애팔래치아(Appalachia) 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의 배경에 있어서 “마법과 같거나 신비로운 점은 전혀 찾을 수 없으며”(Wagner-Martin 189) 시간적인 배경도 2010년을 배경으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집권하던 시기 전례없는 ‘폭우’가 내리는 세계”(Jacobson 7)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9)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앙간게오 마을은 광산과 제왕나비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18세기 후반에 광산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었으나, 광산업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끝이 났고, 그 이후 제왕나비의 서식지로 유명해져 관광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Wikipedia no page). 이 마을은 2010년 2월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로 3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킹솔버는 이 역사적 사실에 자신의 상상력을 더하여 작품을 집필하였다.

10) 이하 작품 인용 시 괄호 안에 숫자만 표기함.

“환경문제에 기반한 사실과 허구 그 사이에 위치한”(Bush 40) 『비상』은 해마다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 제왕나비(Monarch butterfly)가 기후이상으로 애팔래치아 산맥에 위치한 패더타운(Feathertown)이라는 작은 마을의 숲에 안착하는데서 시작한다. 고등학교 시절 임신으로 일찍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 델라로비아 턴보우(Dellarobia Turnbow)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수입도 얼마 안 되는 가정의 안주인, 그녀 자신은 물론, 남편, 시어머니로부터 소외된”(Sandronsky 61) 삶으로 권태로워 한다. 턴보우 가족은 “가슴 아프게도 조각조각난 가족”(9)으로 델라로비아는 “할 줄 아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그저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내”(9)에 불과하다.

델라로비아가 자신의 권태로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한 것은 다른 남성과의 불륜이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을 만나기 위해 산을 오르던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될 존재를 우연히 만난다.

숲은 숲 자체의 불꽃으로 활활 타올랐다. “세상에” 그녀가 말했다. . . . 태양은 대지 위에 따스함을 남긴 채 저 멀리 미끄러지듯 사라지고 있었고, 산은 빛으로 폭발할 듯 보였다. 강렬하게 밝은 빛이 마차 호수의 물결치는 표면처럼 찰랑찰랑 잔물결을 일으키며 계곡에서 움직였다. 모든 나뭇가지가 오랜지색으로 빛났다. “세상에”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녀에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무는 불덩어리에서 불타오르는 풀숲으로 변했다. 모세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잡고 있던 에스겔서 성서의 문구가 떠올랐다. *불타는 불덩어리가 살아 있는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Italics are original. 14)

제왕나비와 델라로비아의 만남은 나비의 날개 색깔만큼이나 강렬하다. “천국과 같은 아름다움, 영광의 비전, 그녀 내면 깊숙이 자리한 기쁨, 빛의 계곡, 천상의 바람”(15-6)의 모습을 한 나비군락은 그녀의 일탈을 멈추게 함으로써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임을 암시한다. 델라로비아와 제왕나비의 우연한 만남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매우 유사하게도, 둘 모두에게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라는 긴 터널 끝에 만난 빛”(Sandronsky 62)의 역할을 한다.

제왕나비의 전례없는 이주는 아주 짧은 시간동안 멕시코에 있는 나비의 서식지가 “지난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폭풍과 홍수”(227)로 사라지게 되면서 이곳 애팔래치아까지 오게 된 것이었으나, 기후변화는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은 패더타운 지역의 이상 기후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프리스턴(Preston)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에게 산타가 배를 타고 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지를 물었다. 그들이 겪고 있는 12월이 바로 그러했다. 비는 더 이상 정상적인 비가 아니라 마치 양동이로 들이 붓는 것처럼 창문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 때때로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고 땅에서 거센 바람이 일어 소용돌이치듯 호우가 쏟아졌다. 모든 곳에서 땅속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123)

델라로비아의 어린 아들인 프리스턴에게 눈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안겨준 애팔래치아 산에 내린 폭우는 “계절에 대한 감각이 사라질”(49) 정도로 퍼부었으며 이러한 기후 변화의 문제는 비단 멕시코에서만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상기후와 함께 제왕나비의 등장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전혀 믿지 않고 있었던”(Browning 13) 델라로

비아는 “나비가 이곳을 찾아온 것처럼 그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지. 나비들은 일종의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징조”(171)와 같다고 여긴다.

나비의 이상행동에 대한 궁금증은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텔라로비아 앞마당에 캠프를 마련한 오비드 바이런(Ovid Byron) 교수와 그의 팀들을 통해 풀린다. 기후소설의 특징이기도 한 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의 전달, 사실에 근거한 원인 규명, 그로 인한 미래 예측 등은 모두 오비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킹솔버는 “과학자의 입을 통해 기후변화의 실상을 설명하고 전달해줌으로써 독자에게 이 주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신두호 2015, 147) 효과를 노린다.

작품 속에서 오비드 바이런 교수와 그의 팀원들은 텔라로비아가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오비드와 텔라로비아는 ‘멘토와 멘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오비드는 텔라로비아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 오비드는 텔라로비아에게 멘토로서 “점들을 이어서 두 개의 선을 그어 이번 달의 높고 낮은 온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만드는 법과 제왕나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온도 영역”(247)과 같이 구체적인 과학 지식을 전달한다. 오비드 교수와 그의 팀원들을 통해 텔라로비아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생물, 화학, 환경 등에 대해 알게 되는데, 이를 통해 독자들도 함께 지식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킹솔버는 글을 통한 리터러시의 향상을 꾀한다. 이는 전형적인 기후소설의 특징으로 다음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위기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 있어요. 극지방의 얼음 손실처럼요. 흰색의 얼음은 태양의 열을 직접적으로 우주로 반사하죠. 그러나 그 얼음이 녹아버리면, 땅과 그 밑에 있는 물이 열을 흡수하게 돼요. 얼었던 땅이 녹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죠. 이러한 악순환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죠. (279)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빙하가 녹으면서 나타나게 되는 환경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으로 이 글을 읽음으로써 독자들이 하여금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 조금 더 진지하게 다가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상』에서 제왕나비는 “거대한 생물학적인 악성종양의 증세”(386)를 상징한다. 텔라로비아는 숲 속에서 죽어가는 나비들을 보며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한다.

텔라로비아는 이 날 갑자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괴로워했다. 그녀는 빗속으로 뛰어 들어가 간신히 살아있는 나비 하나를 집어 들어 지붕 아래로 가져왔다. 그녀는 얼굴 가까이 나비를 들어올렸다. 암컷이었다. 그 나비는 벨벳으로 덮인 날렵한 복부와 커다란 검은 눈 그리고 괴로운 모습을 한 귀부인 같았다. (319)

나비의 생존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같으므로 텔라로비아는 한 마리의 나비라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나비가 살아갈 세상은 텔라로비아와 그녀의 아이들도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이다.

킹솔버는 “『비상』은 공상과학소설도, 매직 리얼리즘도 아닌, 실제 과학에 근거한 사실주의에 기반한다. 이 작품의 내용은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관한 것이다”(Wagner-Martin 재인용 195)라고 밝힌 바 있다. 작가는 가까운 시간 내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불길한 미래가 단순히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물

이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임을 텔라로비아의 절실함을 통해 공감하기를 원한다.

잘못된 시작으로 턴보우 가족이 된 텔라로비아는 제왕나비 군락을 우연히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아내, 며느리,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제한되어있던 텔라로비아는 제왕나비와 이를 연구하는 오비드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내면의 가능성에 눈을 뜬다. 오비드로부터 과학적 지식을 배우고, 환경문제의 심각성, 제왕나비의 잘못된 이주습성의 원인을 알아가면서 텔라로비아는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찾는다. 오비드 역시 텔라로비아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의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부심과 이로 인하여 결국 언론에 지구의 환경 위기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다. 텔라로비아와 오비드의 관계에서와 같이 킹솔버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 변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며, 비록 환경파괴로 인한 생존위협에 처해있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관된 운명을 지녔음을 강조한다. 『비상』을 통해 킹솔버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불러일으킨다. 이는 기후소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이며 킹솔버는 이를 성공적으로 보여준다.

인용문헌

- 이영현. 「인류세환경론과 타자성 재고: 여성과 유색인종, 자연의 동인으로서의 물성인식」. 『문학과 환경』 19:4 (2020): 121-40.
- 신두호. 「기후변화 담론으로서의 소설의 수사학-마바라 킹솔버의 『도피습성』」. 『현대 영어영문학』 59:1 (2015): 129-57.
- 신두호. 「실재/허구 탈경계와 리얼리티의 문학적 재현: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기후변화 소설」. 『문학과 환경』 18:4 (2019): 25-58.
- “Anganguéo.” Wikipedia. 22nd Sept. 2021.
<<https://en.wikipedia.org/wiki/Anganguéo>>.
- Brady, Amy. “Confronting the Climate Crisis through Fiction.” *In These Times* 43:7 (2019): 35-7.
- Browning, Dominique. “The Butterfly Effect.” *New York Times Book Review*. Nov. 11 (2012): 13.
- Bush, Trudy. “Flight Behavior.” *The Christian Century* 130:10 (2013): 39-40.
- “Climate fiction.” Wikipedia. 2nd Sept. 2021
<https://en.wikipedia.org/wiki/Climate_fiction>.
- Clode, Danielle and Monika Stasiak. “Fictional Depictions of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e Change: Impacts & Responses* 5:4 (2014): 19-29.
- D’Avanzo, Charlene. “Climate Fiction as Environmental Education.” *Bulletin of the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99:4 (2018): 1-3.
- Eagleton, Terry.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Minneapolis: U of Minnesota, 1996.
- Goodbody, Alex. “Melting Ice and the Paradoxes of Zeno: Didactic Impulses and Aesthetic Distanciation in German Climate Change Fiction.” *Ecozone* 4:1 (2013): 92-102.
- Jacobson, Kristin J. “Radical Homemaking in Contemporary American Environmental

- Fiction.” *C21 Literature: Journal of 21st-century Writings* 6:1 (2018): 1-33.
- Kingsolver, Barbara. *Flight Behavior*. New York: Harper, 2012.
- Sandronsky, Seth. “Flying Patterns.” *Monthly Review* 66:4 (2014): 61-2.
- Wagner-Martin, Linda. *Barbara Kingsolver’s World*. New York: Bloomsbury, 2014.
- Wilkinson, Crystal. “Barbara Kingsolver.” *An Appalachian Heritage* Fall (2014): 38-47.

Session 2

드라마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쪽수
13:10- 13:40	채수경	강릉 원주대	『시련』에 나타난 악의 문제	91
13:40- 14:10	이용희	강원대	인스 최(Ins Choi)의 Kim's Convenience: 한국계 캐나다인 작가의 작품의 세계적 보편성	101
14:10- 14:40	한광석	강원대	『폭풍』에 나타난 프로스페로의 “중용”적 비전	109
14:40- 15:10	우승정	조선대	페미니즘을 위한 두 편의 영화 『작은 아씨들』	121

『시련』에 나타난 악의 문제

채수경
(강릉원주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대표작 『시련』(*The Crucible*, 1953)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사건 중의 하나인 마녀사냥의 광풍을 다룬 희곡이다. 이 작품에서 재현된 마녀사냥은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세일럼(Salem) 마을에서 발생한 실화사건을 근거로 각색된 것이다. 이 당시의 마녀사냥 광풍으로 인해 140여명의 주민이 체포되었고 한 명은 고문 중 압사 당했고 19명이 처형되었다. 유럽에서도 마녀사냥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지만 17세기 말에는 거의 그 광풍이 잠잠해진 시기였다. 이러한 때 세일럼의 청교도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 잘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서로를 마녀라고 고발하며 해묵은 증오와 원한을 투사시킨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간주된다.

작가 자신이 이 희곡에 붙인 ‘작가 노트’에는 그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는 “독자들이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괴이하고 또 가장 무서운 사건들 중 하나가 갖는 본질적 특성을 찾아내길”¹¹⁾ 바라는 의도로 이 작품을 창작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사회와 인간 내면에 도사린 어두운 면인, 악과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밀러는 이 희곡의 제목을 ‘The Crucible’이란 단어로 정했다. 이 단어는 쇠물을 녹이는 그릇인 ‘도가니’와 ‘호된 시련’이란 이중의 의미를 갖지만 궁극적으로 이 둘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의 제목은 세일럼 주민들이 마녀사냥의 광풍에 휘말려 마치 도가니 속에서 쇠를 녹이는 것 같은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악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세일럼의 마녀사냥이 우리의 도덕적 가치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한 악행이라는 점에 있어서 『시련』이 악을 다룬 작품임은 분명하다. 밀러는 1막의 ‘서곡’(Overt)에서 1692년의 세일럼 마을에서 악행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사회적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들어 설명한다. 그는 “사회는 개인 안에 있고 개인은 사회 안에 있다”(The Theater Essays, 185)라고 주장한 사회극작가로서, 개인이 겪는 고통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사회의 이념과 체제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속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밀러는 사회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개인의 고통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가 ‘서곡’에서 세일럼의 마녀사냥 사건에서 드러난 악의 문제를 청교도 사회의 문제와 개인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련』에서 재현된 악의 양상을 사회체제에 내재된 악의 문제와 인간 개인의 내면에 잠재된 악의 문제로 나눠 살펴보고자 하며, 이와 함께 악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11) Arthur Miller, *The Crucible* (New York: Penguin Books, 1995), 2. 앞으로 이 책을 인용할 때는 쪽수만 표시하기로 함.

II. 사회체제로부터 발생하는 악의 문제

사회적 환경이 그 속에서 사는 거주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밀러 역시 『시련』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고통이 청교도 사회라고 하는 환경과 무관치 않음을 그의 작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작품의 1막이 시작되기 전에 붙여진 ‘서곡’에서는 1692년의 세일럼 마을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배경설명이 제시된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할 시점에서 세일럼 마을은 설립된 지 사십 여년이 되었다. 그들의 조상은 영국에서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었다. 초기 이주민들은 유럽 본토에서보다 더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한 청교도들로서 그들이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 정착했을 때 삶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밀러는 이들의 금욕주의적 환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그들 가운데 소설가라고는 없었던 것이다. 만약에 소설책이 있었다라도 그걸 읽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생활신조는 극장을 비롯하여 ‘헛된 향락’이라 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용납지 않았다. 그들은 성탄절에도 즐기지 않았다. 게다가 일을 쉬는 날이란 더욱더 기도에 몰두해야 하는 날을 의미했다.

No one can really know what their lives were like. They had no novelists—and would not have permitted anyone to read a novel if one were handy. Their creed forbade anything resembling a theater or “vain enjoyment.” They did not celebrate Christmas, and a holiday from work meant only that they must concentrate even more upon prayer. (4)

밀러는 계속해서 세일럼 마을사람들의 “엄격하고 음울한 생활방식”(4)과 “가혹한 노동”(4)과 나태한 인간들을 감시하기 위해 결성된 “2인조 순찰조”(4)에 덧붙여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의 성향이 “앞으로 닥쳐올 광란을 부추기게 될 많은 의심을 만들어냈다”(4)고 서술한다. 밀러의 묘사는 폐쇄된 종교 공동체에서라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욕망과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하는 체제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 세일럼 마을에서도 겉으로는 종교적 방식을 따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종기가 끓듯 악이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체제에서는 어두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쉽다. 유대인 출신의 정치사상가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인류의 가장 어두운 사건들이었던 파시즘과 나치즘의 만행을 낱말이 과해졌다. 그녀는 “공적 영역이 신뢰성을 상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와 노출시키지 않고 은폐하는 언어, 오래된 진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진실을 의미 없는 사소한 것으로 폄하하는 도덕적인 또는 다른 형태의 권고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될 때 어둠은 찾아왔다”(9)라고 말함으로써 체제나 이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아렌트의 경고는 세일럼 마을의 신정체제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작품은 시종일관, 마을사람들의 합의 하에 선택된 청교도의 신정체제가 얼마나 이 공동체를 억압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악한 영향을 주는지를 묘사한다. 청교주의(Puritanism)이란 용어는 “종교 혹은 도덕에 있어서 극히 엄격하고 정확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이용된다”(Kehl 5 재인용). 이 공동체에서 종교는 매

우 중요한 요소이며 마을사람들의 신앙은 그들을 함께 뭉치게 한다. 하지만 회곡의 초반부터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마녀사냥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미 이 마을에서는 청교주의의 엄격한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엄격한 신정체제 이외에도 이 청교도 공동체에서는 악마와 악마의 유혹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원죄를 안고 태어났으므로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악마에게 설득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Fremon 27). 성서 중심의 엄격하고 금욕적인 개신교의 믿음과 악마와 주술에 대한 미신이 섞인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생활방식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즘)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신정체제는 노예 여인 티투바(Tituba)와 어린 소녀들의 주술행위를 악마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몰아갔고 세일럼 마을 전체를 마녀사냥 광풍에 휩싸이게 만든다.

체제나 이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작금의 이슬람 ICS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체제 혹은 공동체는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는 전제 하에 폭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이것은 폭력을 이즘이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스럽게 포장한 것일 뿐 실상은 체제나 개인 내면의 악을 타인이나 세상에 투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상심리의 결과이다. ‘그림자’ 이론은 칼 융(Karl Jung)의 것으로 “그림자는 우리의 의식으로 적절하게 통합되지 않은 부분이며 우리가 멸시하는 부분이다”(존슨 18-19). 이 그림자는 집단에도 생기는데, 개인에게 국가, 공동체, 파벌, 소모임, 등의 집단정신과의 동일시가 요구되므로, “그 집단에 특유한 집단적 그림자(collective shadow)가 생기고 이런 그림자의 집단적 투사는 다시금 집단적인 편견을 강화시켜 집단으로 하여금 결속하게 한다”(이부영 74). 세일럼 마을의 신정정치 역시 청교주의라는 종교의 성스런 포장 밑에서 집단적 그림자를 만들었고 종교적 편견의 강화됨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감정, 욕망을 희생시켰다. 그 결과 개인들의 내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쌓였고 그 어두운 그림자가 폭발한 결과가 마녀사냥의 광기라고 할 수 있다. 억압적인 신정체제 하에서 개인의 내면에 억압된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한 사건은 르네 지라르(René Girard)가 말하는 “희생제의적 배출구의 부재”(15)로 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세일럼 마을의 신정체제는 그 억압적 구조상 폭력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폭력을 속일 수 있는 희생대체가 없는 사회적 구조, 즉 “희생제의적 배출구의 부재” 속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흑인노예인 티투바(Tituba), 거지노파인 세라 굿(Sarah Good), 산파인 오즈 번(Osburn)과 같은 사회 최하위층 여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티투바, 세라 굿, 오즈번의 공통점은 힘이 돼줄 가족이 없는 여성들이라는 것인데, 이처럼 공동체의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인류 역사에서 항상 존재해왔던 현상이다. 이는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의 지적대로 “대부분의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구성원 중 한 사람을 왕따로 만들어 그로 하여금 공동체의 어두움을 혼자 감내하게 만드는 문화”(48)를 나타낸다. 처음에는 공동체의 약자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이 폭력은 점차로 강화되어 마을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 프로क्टर(John Proctor)나 레베카(Rebecca)와 같은 인물들로 확대된다. 이것이 매카시즘이나 세일럼 마을의 마녀사냥과 같은 집단 광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세일럼의 신정정치는 문제의 마녀사냥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외적으로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가까운 사이끼리의 분쟁, 경쟁 상태, 질투심과 언쟁 등의 내부의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희생제제가 필요했던 상태이고, 사회의 약자가 그 희생물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공동체가 신봉하는 이즘이나 종교 혹은 정치적 체제는 그 주민들에게 악으로 작용하여 그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세일럼의 신정체제를 대표하는 인물은 부지사 덴포스(Danforth)이다. 이 마을의 마녀재판을 지휘하기 위해 온 그는 권력지향적인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사형을 언도한 사람들의 숫자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며, 마녀재판에서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의 권위유지이지 마녀로 고발된 사람들의 진위여부가 아니다. 그러기에 이 마녀재판에서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을 확인하는 유일한 증거는 십대 여자아이들의 증언 외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마을 유지의 한 사람인 프랜시스(Francis)가 자신의 아내인 레베카의 구명을 위해 마을사람들에게서 받아온 서명서를 제출하자, 덴포스는 서명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명령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 법정을 지지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요. 그 중간 입장은 있을 수 없소”(87)라고 말한다. 밀러는 이 작품에서 덴포스의 악을 좀 더 강하게 나타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아쉬워했으며, 이 세상에는 악에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비뚤어진 예가 없다면 우리가 선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Bigsby 195에서 재인용). 이 극에서 재현된 덴포스는 본인이 신의 판결자이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가차 없이 희생시키는 아집과 편견으로 가득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신정체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1막의 ‘서곡’에서 “억압 없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며, 규율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은 충돌하게 마련이다”(6)라고 기술함으로써, 사회와 그 구성원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규율과 개인의 자유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1692년의 세일럼 마을의 신정체제의 억압이 커지면서 그 주민들은 점점 그 억압을 견딜 수 없게 되었고 구성원들의 자유에 대한 갈구가 커질수록 신정체제와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마녀사냥이란 형태를 띤 것이다. 이 희곡의 막이 내린 후에 붙여진 ‘복도에서 들리는 메아리’(Echoes down the Corridor)편에서 작가는 마녀사냥과 마녀재판의 광기가 사라진 후 세일럼 마을과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실제적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신정정치의 권력은 몰락했다”(135)라고 끝맺음을 한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폭력사회를 양산하는 사회체제들인 공산주의, 파시즘, 독재주의 체제들은 대부분 몰락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악으로 작용하는 사회체제는 끊임없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다.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나치즘, 폴 포트의 공산주의 체제는 몰락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체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볼 때, 악은 인간세계 도처에 뿌리내리고 있고 인간은 직접 악한 것을 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온갖 악한 형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세상에 투사시켜왔다. 특히 세일럼의 마녀재판과 같은 사건에서는 표면적으로 종교적 선을 내세웠기 때문에 악이 선의 얼굴을 하고 있어 특히 위험하다. 악이 악 자체로 전혀 인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한 경험에서 체제나 이즘에서 비롯된 악이 완벽하게 우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음을 안다. 그런 이유로 사회극 작가로서의 밀러는 이 작품을 통해 개인에게 크나큰 악영향을 주며 개인의 삶을 비극적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만드는 사회체제의 위험성을 전달하고 있다.

III. 개인 악의 문제

『시련』에서는 사회체제뿐 아니라 인간 개인의 내면심리와 악의 문제도 매우 상세하게 재현되고 있다. 밀러는 ‘서곡’에서 세일럼 마을사람들이 이웃을 마녀로 고발함으로써 “이웃에게 품어 온 오랜 증오심, 땅 욕심, 해묵은 원한, 행복한 자들을 향해 불행한 자들이 품었던 의심과 질시”(7)가 투사된 “보복행위”(7) 등의 개인적 악을 “도덕적으로 승격되고, 하느님과 악마의 대결이라는 천상의 차원”(7)으로 승격된 “정의감”(7)을 맛볼 수 있는 차원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음을 밝힌다. 이렇게 마녀사냥이 개인 내면의 악을 투사시킨 사건임에도 진면에 공동체의 정의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를 내세워 정당화시키는 행위, 즉 선의 가면을 쓴 악의 행위는 “우리 영혼의 심연에 그에 호응할 사악한 성향이 숨어 있음을 의미한다”(부케티츠 38). 즉 마녀사냥의 이면에는 “인간 내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파괴적 행동의 동인, 남을 처벌하고 싶어 하는 파괴적 소망”(부케티츠 39)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동네에 사는 이웃이 다른 이웃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가능한 것은 사람의 내면에는 선과 악, 정상과 비정상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정의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마녀사냥, 마녀재판과 공개처형은 인간 내면에 잠재된 악이 발현된 것임을 작가는 강조하고 있다.

청교주의는 밀러가 언급한 인간 내면에 잠재된 악의 성향들인 “증오심, 복수, 땅 욕심, 해묵은 원한,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을 향해 품었던 의심과 질시”뿐 아니라, 개인의 오락을 즐기고자 하는 감정, 원초적 욕망, 자유까지도 억압하는 종교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원초적 성향이므로 이러한 것들이 억압되면 그것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구석에 쌓여 그림자로 작용한다. 이 억압된 그림자가 너무 커져 버리면 자아와 그림자와의 균형이 깨지면서 투사기제가 발동한다. 우리 중 이 투사기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의 무의식에 그림자가 쌓이면 우리는 외부의 ‘그들’이나 ‘타자’에게 투사하게 되며 그 결과는 끔찍한 파괴로 나타난다. 1692년의 세일럼 마을사람들이 벌인 마녀사냥이 바로 이러한 억눌린 그림자의 투사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악에 이끌리는 이유를 탐구한 진화생물학자인 프란츠 부케티츠(Franz Wuketits)는 “일상의 악은 한 인간이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생존, 혹은 정신적·사회적 생존까지 위태롭게 하는 곳에서 변환을 일으키며, 그곳에서는 실제의 악이 비롯된다”(68)라고 설명한다. 세일럼 마을에서도 모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일상의 악이 타인에게 투사되며 실제의 악으로 발전한다. 이 일상의 악은 홀로코스트 연구자인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할러 64)이라는 표현과도 유사하다. 즉 평범한 사람들도 홀로코스트나 마녀사냥과 같은 악한 행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건이나 환경만 주어지면 사람들의 내부에 잠자고 있는 악의 본성이 깨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희곡에서 마녀사냥의 계기가 된 사건도 마을 농부인 프록터와 그의 집 하녀였던 애비게일(Abigail)의 부적절한 관계, 즉 일상의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프록터의 아내 엘리자베스(Elizabeth)에게 들켜 그 집에서 쫓겨난 애비게일이 프록터와의 관계를 단념했다면 그들의 불륜은 엘리자베스에게만 상처를 준 채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애비게일이 프록터의 아내자리에 욕심을 내고 엘리자베스에게 저주를 걸기 위해 흑인노예인 티투바를 설득해 마을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숲에서 주술을 벌이게 되면서 마녀사냥의 계기를 만들게 된다. 이 마을의 목사이며 애비게일의 삼촌인 패리스(Parris) 목사가 이 주술행위를 목격하게 되자 그의 딸 베티(Betty)와 이 마을의 유지인 토마스 퍼트넘(Thomas Putnam) 부부의 딸인 루스(Ruth)가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아픈 척 하게 된다. 아이들을 “나이어린 성인”(3) 취급하는 청교도들이 아이들이 아픈 것을 악마와 마녀의 소행이라고 해석하고 거짓말에 천부적 소질을 지닌 애비게일이 티투바를 마녀라고 지적한다. 겁을 먹은 티투바는 패리스와 퍼트넘 부인의 암시대로 마을의 힘없는 여자들을 마녀라고 지적한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애비게일이 영감을 얻어 다른 마을여자들을 마녀로 고발하면서 마녀사냥의 광기에 불이 붙게 된다. 이처럼 세일럼 마을의 마녀사냥이 시작된 계기는 성욕이나 소유욕과 같은 원초적인 욕망과 어린소녀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면의 두려움이나 거짓을 남에게 투사한, 우리들 모두의 내면에 도사린 평범한 악의 속성이다.

엄격한 어른들의 체벌이 두려워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로 거짓고발 하는 어린소녀들의 이기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녀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른들의 행태이다. 작품 내에서 또 다른 악의 뿌리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다. 안네마리 피퍼(Annemarie Pieper)의 지적대로 악은 분명 과도한 욕망과 결합되어 생겨나며 악을 원하는 자들은 자신의 주변사람들의 안녕과 행복 따위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개인주의자들이다(7). 세일럼 마을의 마녀사냥에 불을 붙인 주범은 마을 유지이며 재력가인 퍼트넘인데, 이 인물은 땅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자 타인의 고통 따위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딸 루스를 이용해서 땅주인들을 마녀로 모는 악을 저지른다. 작가는 마을사람의 하나인 자일스(Giles) 영감의 입을 빌려 퍼트넘(Thomas Putnam)이 이웃을 마녀로 고발한 의도가 땅 욕심임을 밝힌다.

자일스: 제이콥스가 마법 혐의로 교수형을 당하면 그의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토지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퍼트넘 뿐입니다. 이 자는 이웃의 땅을 차지하려고 이웃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Giles: If Jacobs hangs for a witch he forfeit up his property—that's law! And there is none but Putnam with the coin to buy so great a piece. This man is killing his neighbors for their land! (89)

4막 후반에 가서 마녀로 몰린 자일스 영감이 자신의 농장을 지켜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다가 압사 당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자일스 영감의 스토리는 마녀사냥의 본질에는 남의 재산을 노리고 무고한 타인을 마녀로 몰았던 사악한 인간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세일럼 마을의 교구목사인 패리스조차도 물질에 대한 탐욕을 보인다. 프록터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패리스의 탐욕은 교회 제단에 올려놓을 황금 촛대를 요구한다든지, 목사 월급 이외에도 장작 비용을 요구하는 그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 패리스라는 인물은 목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해치는 마녀사냥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탐욕 역시 마녀사냥이란 악을 촉발시킨 동기이다.

내면에 쌓인 어둠을 타인에게 투사한 대표적 인물은 퍼트넘 부인이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신의 일곱 아이들의 죽음의 탓을 돌릴 ‘누구가’가 필요했었는데, 마침 마녀사냥 광풍을 이용해 번창한 자손을 둔 레베카를 자신의 아기들을 초자연적 방법으로 살해한 마녀라고 고발한다. 퍼트넘 부인은 자식들의 죽음으로 인해 내면에 쌓인, 결코 인정하기 싫은 자기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와 레베카에 대한 질투심을 그녀에게 투사함으로써 자신이 견뎌내

야 할 고통을 회피하고 투사라고 하는 더 쉬운 길을 선택한다.

이 작품에서 또 하나의 악의 토대는 분노와 원한이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기회가 되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세일럼 공동체는 엄격한 신정정치를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사소한 원한이 생겨도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종교라는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의 원한을 억눌러야 했다. 내면의 원한을 외부의 타자에게 투사한 인물로 애비게일을 들 수 있다. 애비게일은 프록터의 집에서 쫓겨난 일에 대한 앙심으로 엘리자베스에게 수술을 걸려고 했을 뿐 아니라, 결국 엘리자베스를 마녀로 고발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창녀라고 폭로한 프록터까지 마녀라고 고발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애비게일은 이 극에서 매우 사악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그녀는 처음에는 숲에서의 수술행위를 벌인 데 대한 어른들의 체벌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거짓된 성품을 지닌 그녀는 점차로 마을어른들의 악마에 대한 공포와 마녀의 마술에 관한 광기를 이용해서 자신을 성녀로 만들기까지 한다. 밀러가 그녀를 가리켜 “거짓말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매우 아름다운 소녀”(8)로 묘사한 점 역시 마녀사냥의 본질이 인간의 욕망과 거짓됨으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해묵은 원한을 마녀사냥을 빌어 복수한 또 다른 예는 자일스의 아내인 마사(Martha)가 고발된 경우이다. 사오년 전에 마사가 이웃사람인 월콧(Walcott)에게 돼지 한 마리를 팔았는데 그 돼지가 죽어버리자 월콧이 환불해달라고 했다. 이 때 마사가 그에게 “월콧 씨, 돼지 한 마리 제대로 키우는 지해도 없다면 돼지를 많이 치기는 글렀어요”(68)라고 말했고, 월콧은 마사에 대한 보복으로 그녀가 마법을 걸어서 지금까지 돼지를 4주 이상 키우지 못했다고 그녀를 마녀로 고발한 것이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투사기제로서 자신의 어두운 면이나 잘못된 점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그 탓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인간의 어두운 내면심리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신정체제의 권력구조와 개인적인 원한과 탐욕이 야합하여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거대한 악을 만들어낸 사건을 그려내고 있다. 작품의 제목이 상징하듯, 마녀사냥의 광기에 휘말린 사람들은 용광로에서 쇠가 녹듯이 그 광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고통을 겪게 된다. 이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는 악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세상 도처에 뿌리내린 일상의 악이다. 우리에게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에 이끌리는 기질이 있으며 설령 악을 실행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실제적으로 실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내면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만 되면 실제의 악으로 변할 수 있는 기질을 내면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일럼의 마녀사냥과 같은 집단적 광기에 휘말려 이웃을 고발하고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악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우리가 악에 어떤 모습을 부여하든 상관없이 악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선의 가면을 쓴 악의 모습이나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둔감함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마녀사냥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악한 사건들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마녀라고 고발하면 처형될 줄 알면서도 이웃을 죽음으로 내몬 세일럼 사람들의 내면에 도사린 악의성에 대한 심층심리학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것이 밀러가 이 희곡을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이다.

IV. 나가는 말

2막의 프록터의 집 장면에서 자일스와 프랜시스가 찾아와 자신들의 아내들이 마녀로 고발당하고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외친다: “다들 분명히 미쳐 버렸어요”(67). 이 대사는 마녀사냥의 광기를 언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이웃들끼리 증오와 탐욕을 드러내며 서로를 고발하고 해치는 상황은 비단 1692년의 세일럼 마을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서로를 향해 악의를 품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다. 범정신의 학박사인 라인하르트 할러(Reinhard Haller)의 말을 빌리자면, “악은 태초부터 인간과 동행했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현재적이면서 시간을 초월한다”(29). 즉 인류 역사상 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던 시대나 장소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일럼에서 벌어진 폭력의 광기는 우리들 모두가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이다. 악은 히틀러, 폴 포트, 스탈린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극악한 범죄자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일럼 마을사람들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내면에도 악은 존재하며 악의 얼굴은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 특히 세상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내편’과 ‘남의 편’이 분명하므로 내게 이득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으로 간주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덴포스처럼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이념이나 종교가 다를 때 테러나 전쟁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악의 성향이다.

세일럼 마을은 인간의 내면에 탐욕, 어리석음, 투사기제 등의 잠재적 악이 내재하고 있는 한 언제든 본질은 같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만 다른, 수많은 마녀사냥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우리 역시 내 안의 악의 어두운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투사기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교육의 영향, 삶의 경험, 외부환경에 따라 폭력의 희생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시련』의 주인공 프록터의 정신승리가 돋보인다. 극의 말미에서 프록터는 자신이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거짓자백을 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대가로 이웃을 마녀로 고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주저한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명예와 양심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처형장으로 떠난다. 프록터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면의 악을 지니고 있지만 그의 자유의지는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한다. 프록터라는 인물은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천적인 교화를 통한 선의 강화를 주장한 순자의 이론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세일럼 마을의 마녀사냥으로 발현된 악의 모습이 제 2, 제 3의 마녀사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내면의 악을 인지하고 양심과 선을 향한 윤리적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Works Cited

-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6. Print.
- 부케티츠, 프란츠. 『왜 우리는 악에 끌리는가』. (*Warum uns das Böse fasziniert*).
염정용 역. 파주: 21세기북스, 2009. Print.
- 아렌트, 한나.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Men in Dark Times*). 홍원표 역. 서울: 한길사,
2019. Print.
- 존슨, 로버트 A..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Owning Your Own Shadow: Understanding the Dark Side of the Psyche*). 고혜경 역. 서울: 에코의 서재, 2007.
Print.
- 지라르, 르네. 『폭력과 성스러움』. (*La Violence Et Le Sacre*). 김진식·박무호 역. 서울:
민음사, 1972. Print.
- 피퍼, 안네마리. 『선과 악』. (*Good and Evil*). 이재황 역. 서울: 이끌리오, 2002. Print.
- 할러, 라인하르트. 『아주 정상적인 악』. (*Das Ganz Normale Böse*). 신혜원 역. 서울: 지
식의 숲, 2012. Print.
- Bigsby, C. W. E.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Drama*
2. Cambridge: Cambridge, 1984. Print.
- Fremon, David K. *The Salem Witchcraft Trials in American History*. NT: Enslow,
1999. Print.
- Kehl, Anika. *Arthur Miller's "The Crucible": A Portrayal of a Puritan Society*.
Norderstedt Germany: Grin Verlag GmbH, 2010. Print.
- Miller, Arthur. *The Theater Essays of Arthur Miller*. New York: Viking, 1978. Print.
_____. *The Crucible*. New York: Penguin Books, 1995. Print.

인스 최(Ins Choi)의 *Kim's Convenience*: 한국계 캐나다인 작가의 작품의 세계적 보편성

이용희
(강원대학교)

I. 들어가며

그간 한국계 미국 극작가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희소한 연구이긴 해도 소수인종/민족 이슈나 다문화주의, 탈식민주의의 영향으로 1990년대부터 두각을 나타낸 한국계 미국 극작가들의 동향이 우리 국내 연구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영미 희곡 분야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관심 밖의 나라이자 지역이 캐나다인 것 같다. 캐나다로 한 살에 이민 가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2011년 『김씨네 편의점』 (*Kim's Convenience*)라는 작품으로 토론토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best new play상을 거머쥔 인스 최(Ins Choi)는 국내 드라마 연구¹²⁾에서 거의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작가이다. 인스 최의 희곡 『김씨네 편의점』은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 텔레비전에서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 시즌에 걸쳐 성황리에 방송된 시트콤으로 재탄생¹³⁾된다. 이에 어떠한 점에서 1세대 한국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가 캐나다의 공영 텔레비전 채널에 방송될 만큼의 보편성과 대중성을 지녔는지, 디아스포라적 소재와 인종/민족의 특수성을 초월한 이 희곡의 의미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동시에 한국계 미국 극작가에 치중되어 있었던 국내 희곡 연구에 조금이나마 다른 지평과 관점을 시사하길 기대한다.

『김씨네 편의점』에서 주인공은 극작가 인스 최(Ins Choi)가 직접 연기한 “정”(Jung)이 아니라 “아빠”(Appa)다. 이민 2세대에 해당하는 인스 최가 재현하고 싶었던 것은 캐나다가 모국으로 살아온 2세대 젊은이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낯선 땅에 정착하여 삶을 일구어낸 1세대 아빠와 엄마의 이야기인 것이다. 인스 최는 작가의 노트(author's note)에서 “『김씨네 편의점』은 캐나다를 자신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나의 부모님과 같은 모두 1세대 이민자분들께 보내는 사랑편지이다”(Kim's Convenience is my love letter to my parents and to all first-generation immigrants who call Canada their home. 1)라고 고백한다. 한국계 캐나다인 극작가가 창작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김씨네 편의점』을 이민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 쉽다. 이미원은 한국계 미국 대표극작가의 작품세계 경향을 “1세대처럼 한국의 문화나 경험을 직접 묘사했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미국인으로서 성장배경에서 체험했던 한국문화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했기에 한국인이 갖는 성공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나 남아선호사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나타나며, 한인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고발도 강”하다고 분석한다(14). 인스 최 또한 2세대에 해당하는 한국계 캐나다인 극작가로서 자신이 체험했던 캐나다 한인 사회 속 한국문화 및 전통을 묘사하면서 극 중 “아빠”의 딸인 재닛(Janet)을 통하여 “아빠”가 지닌 혐일 감정이나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 및

12) 2021년 나은하의 “보이지 않는 하얀 손에 대항하여: 연극 『김씨네 편의점』의 한흑관계 다시 쓰기”와 2019년 심영아의 “『김씨네 편의점』에 나타난 인종 스테레오타입 해체 양상 연구,” 그리고 김시우의 석사학위 논문 『미주지역 한인들의 세대갈등 연구』 (2018)가 필자가 21년 8월에 검색해서 나온 논문들이다. 이 중 심영아의 논문은 연극이 아닌 티비 시트콤 시즌 1, 2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13) 21년 시즌 5를 중영으로 현재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다.

문화차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인스 최의 작품 의도는 2세대로서 이민 1 세대의 모순을 비판해제하려는 것이 아닌, 헌신과 희생을 보여준 부모세대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하는 것¹⁴⁾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김씨네 편의점』은 가족극으로서의 보편성을 확립하여 한국계 캐나다인 가족의 이야기가 범세계적, 대중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II. 보편 서사로의 가족 희극

나온하는 연극 『김씨네 편의점』이 북미지역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탈인종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적 타자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을 일상에서 수행해야 하는 데 대한 대중의 보이지 않는 피로도를 반증한다“(119)고 주장한다. 그만큼 이 작품은 대표적인 사회적 타자인 “아빠”가 정치적 올바름의 수위를 자기식으로 넘나드는 행태를 희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대다수의 관객들에게 불편함이 아닌,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 가벼운 웃음을 제공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작가의 의도가 이민자들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하지만, 이 작품 내에는 다양한 층위의 소재가 다루어진다. 조나단 맨델(Jonathan Mandell) 또한 언급하듯이 “이 작품은 우스운 대사가 많이 있지만, 부모·자식 간의 갈등이라는 보편적인 이슈부터 이민자의 정체성이라는 국가적인 이슈,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지역적 이슈까지 (가볍게) 다루고 있다“(It offers many laugh lines, but also (lightly) touches on issues ranging from the universal(the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o the national(immigrant identity) to the local(gentrification.)¹⁵⁾). 비록 기본적인 소재 및 작품의 배경은 디아스포라적 소재인 이민 생활이지만 인종/민족의 특수성을 초월하여 친밀감 및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 또한 의미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그 요소로 장르 희극의 사용과 가족 중심 플롯,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전형(archetype)의 재현을 들면서 이 작품의 보편 서사의 특징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1) 희극 장르

원작 『김씨네 편의점』 공연을 본 많은 연극 비평가들이 “깊이가 있는 시트콤/희극”(sitcom/comedy with depth)이라고 공통적으로 평한다. 실제로 이 연극은 티비 시트콤으로 재생산될 만큼 원작이 내재한 시트콤적인 요소가 농후하다. 켈라 네스트럭(J. Kelly Nestruck)은 “짧고 분명한 재담과 가벼운 슬랩스틱 그리고 간헐적 소량의 감성을 지닌”(with snappy one-liners, light slapstick and intermittent doses of sentimentality¹⁶⁾) 시트콤의 스타일에 이 작품을 비유한다. 극작가 인스 최 또한 “극작가로서 난 관객들을 웃게 하고 싶어요. 난 그들을 울게 하는 것보다 웃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관객들을 동시에 울게도 웃게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합니다”(As a playwright, I want to make people laugh. I'd rather have them laugh than cry, but if you can do

14) “My dream is to play this show in every city in the world where there’s a Koreans community, to honour all the Koreans who made so many sacrifices so that our live today could happen.”

<https://www.thestar.com/entertainment/2012/01/12/the_big_interview_playwright_ins_choi_makes_it_big_with_kims_convenience.html>

15) <https://newyorktheater.me/2017/07/05/kims-convenience-review-immigrant-korean-story-via-canada/>

16) <https://www.thecanadianencyclopedia.ca/en/article/kims-convenience>

both, that's great too¹⁷.)라고 원작의 의도된 희극성을 피력한다.

사회 속 다양한 층위들을 한 특정 소수민족/인종의 관점에서 경험케 하는 『김씨네 편의점』은 불편한 상황을 희극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관객과 독자들에게 웃음과 생각의 여지를 제공한다. 인스 최는 희극 장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희극이라는 영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정치는 정말 많은 나뉘/분리가 있습니다. 희극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서로 다르지만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르라 생각합니다”(In the realm of comedy, it allows people to understand that we are all one, humankind. There is so much division in the world today and politics. Comedy can show that we are different but we can get along¹⁸). David Bell)라고 강조한다. 『김씨네 가족』의 인종적 특수성은 희극이라는 장르 안에서 우리 모두 똑같은 인간이라는 공통점으로 초월할 수 있으며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다름을 타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2) 가족 중심 플롯

테릴 라일리(Darryl Reilly)는 『김씨네 편의점』에 대해 “시츄에이션 코미디 요소가 감동적인 가족극으로 발전한다¹⁹”(The situation comedy elements evolve into a moving family drama.)고 평한다. 지젤 랜달(Giselle Randall) 또한 “상이한 두 문화의 흥미로운 충돌이라기보다 이 작품은 사랑하면서도 분열된 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스토리“([M]ore than an entertaining collision of cultures, it's a heartfelt story about a loving but fractured family²⁰.)라고 언급한다. 『오타와 시티즌』은 인스 최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이 특정 이민 가족에 포커스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캐나다 토박이 관객들이 작품에서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극작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당신들의 선조 역사를 거슬러 찾아본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가 캐나다에 온 이민자일 것입니다. 공연이 끝나자 백발의 백인 할머니께서 내가 다가오시더니, “[등장인물 아빠]가 바로 우리 할아버지였어요”라고 말해주더군요. 이 작품은 이민자의 경험에 대한 것이지만, 작품을 이끌어 가는 건 세대간의 갈등과 서로 다른 가치관 간의 타협,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티비 프로그램인 『싸우스 파크』나 『심슨 가족』 같은 일상 속 편의점 유머에 관객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Everyone's an immigrant in Canada if you go back far enough. I've had a white-haired Caucasian grandmother come up to me after the show and say, 'That was my grandfather.' It's about the immigrant experience, but **driving it is the story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negotiating a different set of values and how to show love.** Also it's the everyday convenience store humor of (television's) *South Park* or *The Simpsons* [...], and people relate to that.²¹(지자 강조)

대부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극의 핵심적인 갈등은 부모와 자식 간에서 발생한다. 『김씨네 편

17) https://www.thestar.com/entertainment/2012/01/12/the_big_interview_playwright_ins_choi_makes_it_big_with_kims_convenience.html

18) <https://www.cbc.ca/news/canada/calgary/ins-choi-kims-convenience-1.4889951>

19) <https://www.show-score.com/off-broadway-shows/kim-s-convenience>

20) <https://salvationist.ca/articles/son-of-a-preacher-man-kims-convenience/>

21) <https://ottawacitizen.com/entertainment/a-convenient-solution>

의점』을 상연한 Soulepper 극장의 예술감독 알버트 슈츠(Albert Schultz)는 『김씨네 편의점』을 처음 접했을 때, 세대 간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두 대표적인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과 『태양 속의 건포도』가 연상되었다고 토로한다: “이 작품에서 윌리와 비프 로만의 흔적들을 느낀다. 마치 한스베리의 성공작처럼 『김씨네 편의점』은 예술적 경지와 주요한 문화 이벤트로서 인정받는 위치에 도달한 것이다”(We feel the ghosts of Willy and Biff Loman in this play [...]. Like Hansberry’s breakthrough play, *Kim’s Convenience* arrives as both an artistic triumph and a major cultural event. Choi 4-5). 로버트 쿠쉬먼(Robert Cushman) 또한 『김씨네 편의점』을 “근심이 덜한 『세일즈맨의 죽음』”(a lighter-hearted *Death of a Salesman*²²⁾)에 비유한다. 『세일즈맨의 죽음』처럼 부자간의 세대 갈등이 존재하지만, “연결할 수 있는”(bridgeable) 정도의 간극이라고 설명하면서 『김씨네 편의점』이 코믹한 요소와 진실된 감정들을 훌륭히 엮어낸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마크 로빈스(Mark Robins)는 201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상연된 연극 『김씨네 편의점』 리뷰에서 2016년부터 방송된 티비 시리즈 『김씨네 편의점』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연극 『김씨네 편의점』의 차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무대 버전은 티비 버전의 『김씨네 편의점』에 몇 가지 필수적인 맥락과 의외의 어두운 측면을 제공한다”(Stage version provides some necessary context and a surprisingly dark underbelly to its television counterpart.). 하지만 로빈스는 리뷰 말미에 끊이지 않는 웃음 속에서 약간의 어두운 면모 정도는 “현실의 가족처럼” 대면하기 두려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관객들의 관람을 독려한다. 인스 최 또한 “아빠”네 가족들이 문제가 좀 있지 않냐는 인터뷰 질문에 “모든 가족들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거기엔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족이 어떤 면에서 다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관객들이 이 작품에 마음이 가는 이유가 되겠지요”(Every family has its functions and dysfunctions. There are communication hurdles but I think it’s like every family in a way and that’s why people are drawn to it²³⁾.)라며 김씨네 가족들이 어찌보면 가장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을 재현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호응하는 것 같다고 대답한다.

3)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전형

배우이기도 한 인스 최는 연극계에 본격적으로 몸담기 시작했을 무렵, 아시아계 캐나다인에게 부여되는 등장인물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정형화된 것 밖에 없음²⁴⁾을 개탄하였다고 한다. 이 작품이 자신의 연기를 위한 작품을 써야겠다는 창작동기에서 출발했음을 밝힌다. 이 작품에 대한 뉴욕 타임즈의 한 리뷰는 『김씨네 편의점』이 “과장된 스테레오타입들’에 의존해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많은 관객들이 세대간 긴장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곤 결론짓는다“(A New York Times review criticized the show’s reliance on “exaggerated stereotypes,” but concluded that many viewers were likely to see themselves in the show’s story of generational strain²⁵⁾.) 어떤 과장된 스테레오타입들에 의존해있는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 눈이 찢어지고 지나칠 정도로 근면성실하고 자식들에게 엄격한 가부장이 서양 문학 및 문화 속 한국인 아버지의 스테레오타입이라면, 『김씨네 편의점』의 “아빠”는 그러한 단편적인 요소들

22) <https://nationalpost.com/entertainment/theatre-review-kims-convenience-shows-the-depth-of-a-salesman>

23) <https://ottawacitizen.com/entertainment/a-convenient-solution>

24) <https://salvationist.ca/articles/son-of-a-preacher-man-kims-convenience/>

25) <https://www.thecanadianencyclopedia.ca/en/article/kims-convenience>

만을 재현한 한국인 아버지가 아니다. ”아빠“에 대해 많은 연극 리뷰가들²⁶⁾은 미국의 가족시트콤 *All in the Family*의 아치 벙커²⁷⁾(Archie Bunker)가 연상된다고 언급한다. 가족 중심의 시트콤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아치 벙커의 고집불통이면서 자기주장이 강하지만, 사랑스럽고 괜찮게 봐 줄만하다는 점이 ”아빠“와 일치한다. 즉 『김씨네 편의점』의 ”아빠“는 특정 인종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등장인물이 아닌, 오히려 보편적인 아버지 이미지를 지닌 전형(archetype)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단순히 강한 액센트를 지닌 이민자 가게주인에 대한 재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게주인의 고국에 대한 자부심, 자녀에 대한 기대와 사랑, 노후에 대한 걱정, 특정 인종에 대한 ”생존법“이라고 부르는 자기 나름의 편견이 작품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진다. 심영아는 아빠에 대한 재현을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간주하면서 아빠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 나가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소수인종으로서 살아가는 일종의 방어책이자 자신에게 차별적 시선을 던지는 사회를 모방하는 것“(171-2)이다. 아빠의 어떠한 면이 아시아계 이민자 가부장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인지 심영아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공감하기 힘들지만, 아빠가 다른 소수그룹에 대한 고정관념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아빠의 black, white, brown, Asian 및 게이와 레지비언의 외형적 조건으로 흠칠 자와 안 흠칠 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다수의 백인들에 의해 분류되는 아시아계 이민자 또한 타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형화시키는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티비 시트콤 버전과 연극 버전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겠지만, 인스 최가 생각하는 ”아빠“ 캐릭터는 스테레오타입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아버지의 전형으로 소수 민족의 개성이 돋보이는 입체적 등장인물로 보여진다.

등장인물 중 주인공인 아빠가 특정 인종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오히려 전형에 가깝듯이, 『김씨네 편의점』의 결말 부분은 일반적으로 가족극의 전형에서 볼 수 있는 탕자 아들의 귀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자주 비교해왔던 『세일즈맨의 죽음』의 경우 아들 비프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상황이었듯이 이 작품에서 아들 정(Jung)은 극이 끝날 무렵 집으로 귀환하여 아빠와 대면하게 된다. 아빠를 통해 묘사되는 정의 유망했던 과거는 비프를 연상시키기 충분하다:

Appa: You was very smart kid. Good looking. Natural leader. Lots of girl like you. Good at sports, music, lots of thing. You was so full of...

26) Jonathan Mandell은 “*Kim’s Convenience*’ by Ins Choi has less in common with any these authentic feeling glimpses into the life of new immigrants than it does with “All in the Family,” the 1970s TV series about a[n] argumentative family headed by the loveable bigot Archie Bunker[...].” 라고 평한다. 맨델은 『김씨네 편의점』을 특정 민족의 이민서사가 아닌 보편적인 가족서사가 중심이 된 극으로 간주한다. Elyse Sommer는 “Like that old cit-com curmudgeon 괴팍한 노인 Archie Bunker, Mr. Kim’s Appa tends to give voice to some outrageously politically incorrect attitudes, especially towards his feisty unmarried daughter Janet.” 숨머는 ”아빠“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특히 게이나 다른 소수 민족 및 인종들에 대해, 언급들이 한국인의 특수성에서 의거한 것이 아닌, 고집센 구세대의 모습으로 간주한다.

27)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아치 벙커에 대한 성격은 다음과 같다: “Frequently called a “lovable bigot”, Archie was an assertively prejudiced blue-collar worker. A World War II veteran, Archie longs for better times when people sharing his viewpoint were in charge, as evidenced by the nostalgic theme song “Those Were the Days” (also the show’s original title). Despite his bigotry, he is portrayed as loving and decent, as well as a man who is simply struggling to adapt to the constantly changing world, rather than someone motivated by hateful racism or prejudice. His ignorance and stubbornness seem to cause his malapropism-filled arguments to self-destruct.”

Jung: Potential.

Appa: Yah, potential. Could be best, I always dream like that. Could be best. But that is my dream. (Beat.) If Sonam don't become NHL superstar, don't get angry, it's okay. You can still be proud of him. You understand? (100)

아빠: 넌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 아주 잘 생겼었고. 천성이 리더였지. 정말 많은 여자아이들이 널 좋아했지. 스포츠나 음악 말고도 많은 것들을 잘했지. 넌 진짜 그게 많은 아이였어.

정: 잠재력이요.

아빠: 그래, 잠재력. 최고가 될 수 있었지. 난 항상 그걸 꿈꿔왔어. [넌] 최고가 될 수 있을거라고. 그런데, 그건 내 꿈이었지. (사이) 만약 소남이가 NHL 슈퍼스타가 안되더라도, 화내지 말아라. 팬찮은 거야. 넌 여전히 소남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 이해하지?

손자인 소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키워라라고 정에게 충고하면서 간접적으로 정에 대한 자신의 지속적인 사랑을 전달하는 아빠의 대사는 희극적 장면 속에서 감동적으로 와닿는다. 윌리가 여전히 비프가 자신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생명보험금을 기꺼이 “몰려 주려는” 마음처럼 아빠 또한 현재나 과거의 정이 어떤 모습이었던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부성애를 전달한다. 그러면서 윌리의 생명 보험금처럼 아빠는 정에게 자신의 전부였던 편의점을 물려준다. 가브리엘라 스타인버그(Gabriella Steinberg)는 『김씨네 편의점』의 핵심을 바로 “친숙함”(familiarity)으로 든다:

It's a hearty family story, with a patriarch holding court over the community that he surveys, the daughter he's less than proud of at face value, his kind wife who takes the lead in looking out for her children, and his absent son desperate to start again. [...] Grounded in joy, *Kim's Convenience* embraces the familiar in the form of hilarity. Choi has crafted a story particular to his upbringing that doesn't require his audience to understand the Korean-North American or immigrant experience firsthand. [...] This is the beauty of *Kim's Convenience* –you don't need anything but a family for this play to resonate, for it relies on family dynamics to drive its dramatic conflict²⁸⁾.

이 작품은 따뜻한 가족 이야기이며 자신이 살피는 공동체를 압도하는 가부장, 가부장 아빠가 액면가대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딸,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는데 솔선을 다하는 다정한 엄마, 그리고 필사적으로 인생의 새출발을 찾고 있는, 부재한 아들의 이야기이다.[...] 즐거움을 바탕으로 『김씨네 편의점』은 유쾌의 형식을 통해 익숙한 것들을 포용한다. 극작가 최는 한국계 북미 아메리카인이나 이민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 자신의 양육과정에 특별한 이야기를 창작해냈다. [...] 이게 바로 『김씨네 편의점』의 묘미다—이 작품의 울림을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뿐이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극적 갈등을 몰고 가는 것이 바로 가족 간의 역학관계이기 때문이다.

한국계 캐나다인의 특정 경험이 아닌, 친숙한 가족의 역학관계가 중심축이 된 희극이다보니, 아빠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일본에 대한 혐오, 타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이 특정 민족의 특성으로 보여지기 보다는, 아빠라는 주인공에게 입체적 성격을 제공한다. 그동안 소수인종의 극 중 등장인물 대부분이 인종 스테레오타입에 집중해 있었다면, 『김씨네 편의점』의 경우 소수민족의 특수성은 등장인물의 개성으로 전환되어 깊이있고 입체적인 동양인 캐릭터가 만들어

28) <http://www.theasy.com/Reviews/2017/K/kimsconvenience.php>

졌다. 한국계 이민자인 아빠가 소수인종의 대변자로 안 읽혀진 이유는 동서양을 초월하여 친숙한 가족극의 전형 속 가부장 아버지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친근함 속 소수민족의 특수성을 기교있고 재미나게 엮은 인스 최의 극작술에 기인한다.

『폭풍』에 나타난 프로스페로의 중용적 비전

한광석
(강원대학교)

I

『폭풍』은 그의 37편 작품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작품이지만 그 내용과 사유의 웅혼한 스케일로 말하자면 그의 37편 작품의 세계가 모두 포괄된 가장 거대한 작품이다. “셰익스피어 비전의 정점을 이루는”(Langbaum 1537) 이 작품은 이성적 질서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를 극복한 심미적인 우주관과 질서관을 바탕으로 인간사회와 역사에 의미와 목적,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서구적 이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작품이다.

셰익스피어가 400년 전 영국 르네상스 절정기에 『폭풍』을 통해 문명의 문제들을 희비극적 비전과 관련된 인본주의 시각에서 조망해 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문명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를 맞아 서구적 시각을 포괄하는 동방의 인문주의 시각에서 다시 그의 작품을 재조명해 보는 것은 필요하고 시의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도는 이 작품에 대한 서구적 또는 기독교 중심적인 이해의 틀에서 벗어나 그가 제시하는 심미적 우주관과 질서관, 그리고 탈 인간중심주의를 조망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특별히 셰익스피어 작품의 총결이라 할 수 있는 『폭풍』은 유·불·도의 사유가 혼효되어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천하의 큰 근본”(大本)인 “중”(中)과 “천하가 달성해야 할 도”(達道)인 “화”(和)의 사유를 근간으로 우주의 본질이자 실재(reality)인 “성”(誠)을 우주론의 체계로 집대성한 유가 사상의 핵심인 『중용』의 사유가 짙게 깔려 있다. 따라서 중용의 시각에서 이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 프로스페로의 비전을 천착해 보는 것은 오늘날 시대적 당위로 요청되는 새로운 우주관과 질서를 구축하는데 유효하리라 판단된다.

II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읽는 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준다. 희극작품을 압축시켜 말하면 “당신은 누구인가?”를 일깨우고, 비극작품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 준다. 셰익스피어는 오랫동안 희극과 비극의 저술을 통해 얻은 인간에 대한 심원한 이해를 바탕으로 르네상스의 새로운 인간상을 나름대로 깊이 모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마지막 작품인 이 극에서 최종적으로 주인공 프로스페로를 르네상스 시대는 물론 다가올 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상이자 군주상으로 내어놓는다. 그는 이미 희극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서 여주인공 포오샤(Portia)를 『중용』이 지향하는 인간상인 군자와 유사성을 갖는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 놓고 있듯이, 프로스페로 역시 『중용』의 “세 가지 보편적인 덕”(三達德)과 “신독”(身讀)의 덕성을 구현하는 군자와 좀 더 가까운 인물로 그려 놓는다.

『중용』은 내면에 “신독”(慎獨)의 덕성을 쌓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한다. 수신을 통해 꾸준히 주체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을 군자의 첫 번째 중요한 덕목으로 권면한다. 왜냐하면 『중용』의 군자는 수신을 통해 나와 인간을 알고 하늘을 아는 데까지 이르러 최종적으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중용』에 따르면, “자기 몸을 닦을 것을 생각하면

아버이를 섬기지 않을 수 없다. 아버이를 섬길 것을 생각하면 사람을 알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을 알 것을 생각하면 하느님[하늘]을 알지 않을 수 없다”(思脩身, 不可以不事親; 思事親, 不可以不知人; 思知人, 不可以不知天. 『중용』 20장). 나의 몸과 부모와 인간과 하늘은 하나의 연속체를 이룬다. 이 연속체 전체를 일관하는 하나의 추상적 가치 개념이 바로 성(誠)이며 (김용옥 486), 성은 우주의 실재(reality)로 여겨진다. 인간과 하늘은 성(誠)을 동일한 실재로 지니며 성은 사람이 하늘과 동일하게 되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어준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의 진실이자 실재인 나의 성(誠)을 발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늘의 성과 나의 성을 합치시켜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이루고자 하는 수신의 과정이다. “성 그 자체는 하늘의 도이고, 성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20장)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천지와 완전히 합일할 가능성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성해지려고 하는 수신의 노력은 이미 우주론적인 의미를 갖는다(뚜웨이밍 342).

공자는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지(知), 인(仁), 용(勇), 세 가지 덕성을 알고 축적해야 한다고 한다. 인간 세상에는 사람들이 달성해야만 하는 “다섯 가지 보편적인 길”(五達道)이 있고 이 다섯 가지의 길을 행하게 만드는 “삼달덕”(三達德)이 있다. “오달도”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길, 남편과 부인 사이의 길, 형과 동생 사이의 길, 봉우간의 사권의 길이고, “삼달덕”은 지(知), 인(仁), 용(勇)이다. 공자는 삼달덕에 대해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에 가깝고, 힘써 행하는 것은 인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에 가깝다”(好學近乎知, 力行近乎仁, 知恥近乎勇)고 설명한다. 덧붙여 지, 인, 용 “이 세 가지를 알면 과연 내 몸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알게 되고 내 몸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알게 되면 타인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알게 되며, 타인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알게 되면 천하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알게 된다”(知斯三者, 則知所以脩身; 知所以脩身, 則知所以治人; 知所以治人, 則知所以治天下國家矣) (『중용』 20장)고 역설한다. 수신은 삼달덕을 함양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바로 수신이 근본이라는 것이다. 즉, 수신이 없이는 치인과 치국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폭풍』의 주인공 프로스페로는 12년간 추방된 삶을 살면서 원한을 갚으려 준비해 온 모습이 아니라 『베니스의 상인』의 여주인공 포오샤처럼 『중용』의 “삼달덕”인 지·인·용을 내면화한 군자의 면모를 보인다. 먼저 그는 12년 전 섬으로 추방되기 이전에 이미 왕국을 동생 안토니오에게 맡기고 학문에만 전념하던 ‘호학’(好學)의 인물이다. 그 당시 그는 “공작의 으뜸”이었고, “서재 하나가 영토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인물”(1.2.109-110)이었다. 이러한 그의 학문심취로 인해 국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용』의 시각에서 보면 진정한 지도력은 현존하는 문명에 대한 도덕적 각성을 수반해야 하고 “덕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반드시 학문을 통하여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27장)이기에 그의 호학의 자세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이상을 실현해야 하는 군주에게 전제되는 으뜸 덕목으로 긍정된다.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정도로 삼는 『중용』에서 수기(修己)를 이루는 ‘삼달덕’의 첫째 요건이 바로 호학(好學)인 것이다.

학문이 “비견할 자가 없을 만큼”(1.2.74) 진정으로 깊어지면 실천이 뒤따르게 된다. 프로스페로는 이 극 전체를 통해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학문을 사회적 실천으로 옮기는 “인”(仁)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우리는 그가 그 섬에서 책을 읽는데 몰두하는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한다. 우리가 무대 위에서 보는 것이라고는 모두 행동에 옮겨지고 있는 그의 마술(art)이다. 부단한 배움의 노력과 진지한 실천이 결합된 모습이다. 이러한 ‘호학역행’(好學力行)의 모습은 모든 지식은 사회적 실천과 분리 될 수 없으며 지식은 절대적일 수 없고 실천을 통해서만 그 타당성을 갖게 됨을 보여준다.

프로스페로가 학문을 통해 상달(上達)한 경지는 섬을 지나가던 알론조 일행을 마술로 폭풍을 일으켜 그 섬으로 불러들일만큼 전지전능한 수준에 있다. 첫 장면의 폭풍은 프로스페로의 내적인 “고동치는 마음”(4.1.163)이 외화된 것이다. 12년이란 세월은 엔토니오와 세바스찬의 야심, 악습, 그리고 반역의 근성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프로스페로는 그러한 적들의 “큰 잘못들”(5.1.24)에 대해 에어리얼을 통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붙게 만들어 “슬픔과 절망”의 고통을 가한다.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그를] 괴롭힌 자들”(5.1.25)에게 그 정도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을 터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로스페로가 적들의 숨통을 틀어 쥔 그 순간 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프로스페로가 적들을 용서하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의 딸 미란다와 알론조의 아들 페르디난드를 부부로 맺어주고자 하는 목적 때문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프로스페로가 그들을 용서하는 배면엔 같은 종류의 인간으로서 타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이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에어리얼이 프로스페로에게 마술에 걸려 있는 “죄 많은” 적들에 대해 “제가 인간이라면 불쌍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5.1.19)라고 대답하자 프로스페로는 한참 공기에 지나지 않는 정령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불쌍함을 느끼는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과 같이 뼈아픈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너보다도 동정심이 없을 수야 있겠느냐?”(5.1.21-24)라며 용서하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프로스페로가 적들을 용서하면서 뺏속까지 시키면 동생 엔토니오를 심히 꾸짖는 것은 그가 과거에 형에게 저지른 찬탈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길 줄 모르고 더구나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다시 세바스찬을 부추켜 그의 형인 알론조를 시해하도록 만드는 거리낌과 두려움이 없는 “무기탄”(無忌憚)(『중용』 2장)의 뻔뻔하고 수치스러운 행위 때문이다. 엔토니오는 같은 인간인 타자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할 줄 아는 서(恕)의 마음이 철저히 차단된 인간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勇)에 가깝고”(『중용』 20장)고 “용기의 동기가 되는 것은 부끄러움”(아리스토텔레스 117)이다. 프로스페로의 감정의 절제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앞으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를 강하고 용기 있는 인물로 만들어 준다.

프로스페로가 그의 학문과 특히 12년간의 고독을 통해 도달한 경지는 바로 『중용』의 신독사상이 귀착되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엔토니오가 개변이 불가능한 악인으로서 “양심이 스무 개라도”(2.1.279) 결코 찬탈의 야심을 접지 않을 인물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국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에게 “사악한 본성을 불러일으켜 놓았다”(1.2.93)고 반추하며 엔토니오와 알론조의 악을 부화시켜 놓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임을 통렬히 자각한다. 그는 12년 전의 추방을 결코 동생 안토니오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작품 전체를 통해 12년 전의 추방사건에 대해 하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은 결코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동생 안토니오의 악행에 대한 계도적인 질책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중용』의 “신독”이 지향하는 “무원”(無怨)의 인간은 결코 이성적 인간이 아니다. 『중용』의 첫 장을 보면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중中이라 일컫고, 그것이 발현되어 상황의 절도節에 들어맞는 것을 화和라고 일컫는다. 중中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大本이요, 화和라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달성해야만 할 길達道이다.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1장). 『중용』이 추구하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수학적 합리성의 인간이 아니다. 『중용』은 인간을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의 복합체로 바라보며 그 감정들의 발현을 상황에 따라 조화로이 다스릴 줄 아는 자를 군자로 여긴다. 군자가 이렇게大本인 중을 지키고 달도인 화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중中과 화和를 지극한 경지에까지 밀고 나가면, 천天和과 지地가 바

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만물萬物이 잘 자라나게 된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1장)고 보기 때문이다.

『폭풍』은 극 전체를 통해 프로스페로가 내면에서 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을 조절하여 화(和)를 지극한 경지 까지 밀고가 사악한 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천지의 질서가 바르게 자리 잡고 만물이 조화로이 생성하도록 돕는 모습을 보이는 극이다. 사실 폭풍은 이 극의 첫 장면에서만 있을 뿐 극 전체는 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극의 제목은 폭풍이라기 보다는 섬이어야 더 적절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첫 장면의 폭풍은 심지어 에필로그까지 포함하여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도와 형태를 달리하여 나타나면서 이 극 전체에 편재해 있다. 『폭풍』은 극 전체를 통해 디미뉴엔도(diminuendo)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극 마지막 구절의 “미소 짓는 폭풍”과 에필로그의 “따뜻한 입김”으로 완화되어 간다. 이 극은 그가 내면의 감정의 폭풍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스려 감으로써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달도(達道)의 과정을 극화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프로스페로는 한때 “최고의 군주”였으며 동시에 “공작의 지위”보다 그의 서재를 더 소중히 했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 그의 서재는 충분히 거대한 공국”(1.2.110)이 되어주는 학자였다는 것은 좀 더 주목될 필요가 있다. “학문의 권위에서나 인문학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평판”을 받은 학자의 핵심적 관심은 “진리”를 찾아 “그 진리를 전하는”(1.2.100) 것이다. 언어의 출현과 함께 인간은 문명을 건설해야 했고 리어왕의 “지적인 정교함”(“sophistication”)과 같이 문명의 인위성은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추구하도록 만들어 왔다. 그러나 화이트헤드(Whitehead)가 주장했듯이, “진리란 현상(appearance)에만 적용되는 면허이다. 실재(reality)는 단지 그 자체일 뿐이다. 그리고 실재가 진실이나 거짓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넌센스다. 진리란 현상과 실재의 합치인 것이다. 이러한 합치는 과불급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따라서 진리는 다양한 정도와 양식을 지니는 특질이다”(Adventure 241).

진리를 추구해 오면서 모든 인문학은 실재의 본질적인 속성을 찾아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왜냐하면 문명의 구조는 실재(reality)의 구조에 인위적인 현상의 구조가 합치되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이다. 현상이 합치해야 하는 이러한 궁극적인 실재를 프로스페로는 결국 우주 생명의 기운인 “얇은 대기”(thin air)로 보고 있고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가면극에서 『중용』과 상통하는 심미적 코스몰로지를 제시한다.

이들 배우들은

내가 전에 말했듯이, 모두 정령들이었지. 그리고
대기 속으로, 희미한 대기 속으로 용해되어 버렸단다.
또한 너희들 눈에 비친 정령들의 모습들이 바탕 없는 구성물이듯이
구름을 모자로 쓴 탐들, 찬연한 궁궐들,
장엄한 사원들, 거대한 지구 자체,
그렇지, 지구가 담고 있는 일체는 용해되어
막 사라진 실체가 없는 연극 장면처럼
구름 한 점 뒤에 남겨 놓지 않게 될게야.
우리 인간은 꿈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있고
우리네 짧은 인생은 한바탕의 잠으로 끝난다네.

These our actors
As I foretold you, were all spirits and
Are melted into air, into thin air;
And, like the baseless fabric of this vision,
The cloud-capped towers, the gorgeous palaces,
The solemn temples, the great globe itself,
Yea, all which it inherit, shall dissolve,
And, like this insubstantial pageant faded,
Leave not a rack behind. We are such stuff
As dreams are made on, and our little life
Is rounded with a sleep. (4.1.148-58)

프로스페로는 “얽은 대기”를 현상세계의 궁극적인 실재(reality)로, 즉 우주의 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근원적인 실체로서 이해하고 있다. 일체의 만물이 용해되어 들어가는 우주의 “얽은 대기”는 그 형태만 달리할 뿐 영원히 생성과정에 있는 그 무엇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일체는 “얽은 대기”의 끊임없는 취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몸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일체는 하나의 시공연속체 (one space-time continuum)이며 주관과 객관의 구분을 허용치 아니한다. 우주는 일체의 구성 요소들이 우주의 생명력인 “대기”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미분화된 심미적 시공연속체”(“undifferentiated aesthetic continuum”) (Northrop 335)로서 대기의 다양한 층차들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있는 하나의 유기적 통합체이다.

프로스페로가 “얽은 대기”를 우주의 생명력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라 우주를 하나의 시공연속체로 직관할 때 그 연속체를 일관하는 “대기”는 『중용』의 언어를 빌리면 성(誠)이라 할 수 있다. 『중용』은 현상세계의 궁극적인 실재이자 끊임없이 창조하는 우주 생성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성(誠)이라고 규정한다. 『중용』에서 성(誠)은 천지자연의 실상이며 만물을 포괄하는 시공연속체다. 『중용』의 세계관에서처럼 프로스페로의 우주의 실상에 대한 심미적 비전에서는 나와 우주는 하나의 몸을 이루며 모든 존재 양식은 우주에 편재하는 “얽은 대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우주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 생명력의 항구적인 흐름의 일부가 된다.

결혼 가면극은 우리를 천지 대자연에 대한 일상적인 비전에서 새롭고 고양된 비전으로 이끌어 간다(Frye, Introduction 18).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매크로 하게 보면 『중용』이 제시하는 심미적 코스몰로지를 보여준다. 프라이(Frye)가 제시하였듯이, “그 가면극은 다산적인 대지와 무지개 신에 의해 소개되는 자비로운 하늘과의 만남을 보여 주며 가을 추수를 나타내는 추수인들과 봄비를 나타내는 님프들이 어우러지는 춤으로 이어진다”(Introduction 18). 그 가면극에서 하늘과 땅, 즉 쥬노와 시어리즈는 페르난드와 미란다의 결합을 축하하고 그들의 성적 결합이 “창생 하는 위대한 자연”(“great creating Nature” 『겨울 이야기』 4.4.89)의 풍요로운 다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난다. 이러한 축복은 하늘과 땅의 유기적 결합인 천지는 우주 생명의 궁극적인 패러다임이며 천지는 생명을 진화시켜온 “신성한 대기”(solemn air)(5.1.57)의 친화체계라는 것을 나타낸다.

천지의 감각적 교섭은 자연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을 낳는다. 천지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eco-system)이며, 창조적 충동이 감각적인 느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유기적인

몸이다. 화이트헤드가 주장하듯이, “창조적 과정은 창조적 에로스(Eros)의 작용에 의해 이상(ideals) 및 기대(anticipation)와의 새로운 통합으로 진행되어 들어간다”(Whitehead, *Adventures* 276). 이극에서 우주의 이러한 “창조적 에로스”는 미란다와 페르디난드의 사랑과 동일시되며 이들 사랑은 에어리얼의 노래가 암시하듯이(1.2.376-82), “거친 파도”를 달래고 모든 등장인물들을 “일상적인 기쁨을 넘어선 환희”와 “멋진 신세계”에 이르게 하는 화해로운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앞으로 전개되는 미란다와 페르디난드의 행복한 결혼을 이루어 주기 위한 프로스페로의 모든 노력은 천지의 창조적 과정을 돕는 조화로운 참여이다.

『폭풍』의 시적 비전에 나타나는 생성은 『중용』의 성(誠)이라 할 수 있다. 자사는 우주 생성의 법칙을 성(誠)으로 보았고 또한 성(誠)을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시공연속체로서 파악하였다. 우주는 성(誠)의 자연스러운 자기전개이며 “성(誠)은 물의 끝과 시작이다. 성(誠)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25장). 만물을 생성시키는 바로 그 근원이 성(誠)이기 때문에 성이 없으면 만물은 생성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성(誠)의 세계관에서는 끝과 시작은 연속성을 지닌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중용』과 『폭풍』에서 생성의 시작은 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파괴는 곧 건설이다. 이러한 “끝”(end)은 창조에 선행하는 “카오스”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끝은 모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사실 『폭풍』은 끝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프로스페로와 미란다의 12년간의 추방생활이 끝나며, 미란다와 페르디난드의 독신의 삶이 끝나며, 엔토니오의 공작으로서의 지위가 끝나며, 에어리얼과 켈리번의 속박이 끝나며, 나폴리와 밀라노의 반목이 끝나는 것으로 극이 시작된다. 모든 이러한 종결은 폭풍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폭풍은 구질서를 파괴하고 새 질서를 도래시키는 거대한 창조적 카오스를 불러일으킨다.

폭풍이 끝나고 그 난파당한 사람들은 페르디난드, 왕족 그룹, 스테파노와 트링쿨로 이렇게 세 무리로 나뉘어 흩어진다. 프로스페로는 모든 규율과 구속을 없앤 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기위해 섬에다 그들을 분산시켜 놓는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공상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일종의 임상적 상황을 창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스페로의 마술(Art)은 각 인물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첫 장면의 폭풍이 프로스페로의 내적인 “고동치는 마음”이 외화된 격정이듯이, 그 궁정의 무리들이 섬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벌이는 언쟁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자신들의 정신적 상태의 반영으로서 인지하고 있음을 예증한다.

난파당한 사람들에게 그 섬 자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엔토니오가 그 본성이 메마르고 타락하여 그 섬을 황갈색의 세계로 바라보는데 반해 곤잘로는 성품이 밝고 온후하여 같은 세계를 건강하고 싱싱한 세계로 바라다본다. 곤잘로는 그 장면이 시작되자 “경이롭게 감미로운 음악”(3.3.19)을 듣는데 반해 나머지 인물들은 단지 불쾌한 방해물 보고 있을 뿐이다. 곤잘로는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이상을 나타내는데 고무되어 “황금시대를 능가할 그런 완전함으로 통치할” 유토피아의 세계를 꿈꾼다:

저는 어떠한 장사고 허락치 않으려 합니다.
어떤 관리도 없을 것이며 문자는 알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 가난뱅이, 그리고 병역도 없을 것입니다.
계약, 상속, 경계, 토지의 구분, 경작, 포도밭,
이런 것들은 없애겠습니다.

어떤 직업도 없으며, 모든 남자들은 한가히 쉬고
여성들 역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소박하지요.
어떤 군주도 없는 것이지요.

I'th' commonwealth I woul by contraries
Execute all things. For no kind of traffic
Would I admit; no name of magistrate;
Letters should not be known; riches, poverty,
And use of service, none; contract, succession,
Bourn, boudn of land, tilth, vineyard, none;
No use of metal, corn, or wine, or oil;
No occupation; all men idle, all;
And women too, but innocent and pure;
No sovereignty. (2.1.152-61)

곤잘로의 유토피아적 계획의 중요한 점은 폭풍에 의해서 무너진 구세계의 파멸위에 새로운 세계를 머리 속에 건설하는 아나키한 담론 (anarchic discourse)을 건네고 있는 것이다. 그의 담론은 동아시아 사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문명의 인위성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과 상통한다. 노자는 말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 받는데,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을 뿐이로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25장). 노자에게 있어서 도는 스스로 창생하는 생명의 원리로서 인간이 인위적인 작위를 버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무위에 처하면 우주는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며(無爲而無不爲. 48장), 또한 무위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爲無爲, 則無不治. 3장). 분별과 차별, 욕심과 명예, 부조화와 불평등을 야기하는 유위를 최소화하고 무위적 삶을 주창하며 반 문명주의를 표방하는 노자와 마찬가지로 곤잘로의 이상국은 “신성한 자연”의 자생적 질서에 대한 인식과 확신 위에 건설되어 있다: “보통 자연에서 만물은 땀과 노력 없이 생산합니다. . . 자연은 모든 풍성함을 가져와 소박한 나의 백성을 먹여 살리게 되지요”(2.1.164-68).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로맨스 극에 나타나는 “창생 하는 위대한 자연”에 대한 찬양이다. 노자와 마찬가지로 곤잘로의 유토피아적 비전은 사회비판 철학이다. 그의 목적은 계급구조적인 사회의 구 체제를 해체하고 심지어 남녀의 사회적 불평등마저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 “모든 남자들은 한가히 쉬며 여성들 역시 그러합니다.” 달리 말하면, 곤잘로의 유토피아적인 의도는 노자와 마찬가지로 인간 문명의 모순과 해악을 최소화 해 보고자 함이다.

『중용』에 따르면, “성에서 명으로 구현되어 나아가는 것을 성이라 일컫고, 명에서부터 성으로 구현되어 나아가는 것을 교라고 일컫는다. 성하면 곧 명해지고, 명하면 곧 성해진다”(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 明則誠. 21장). 성은 스스로 그러한 카오스의 자연세계이고 명은 문명의 코스모스 세계이다. 카오스 세계로부터 코스모스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성이라하고 코스모스의 세계에서 카오스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교라고 한다. 이것은 자연의 세계에서 문명의 세계로의 진행은 본성적인 것으로 문명의 교육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프로스페로가 그 섬에 당도할 때까지는 자유로운 자연적 상태가 방해받지 않았던 예전의 캘리번에게도 문명은 정도가 다소 덜 하긴 해

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프로스페로가 그에게 “문명화 된”(civilized)말을 가르치기 전에조차도 캘리번은 자기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한 인간이 언어적 의식을 갖게 되면 그는 언어습득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문명은 언어의 조작을 통해 점점 복잡성을 띠면서 자연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 따라서 자연으로부터 문명으로 나아가는 진행이 있으면 역으로 문명에서 자연으로의 되돌아가는 진행도 있어야 한다. 문명의 밝음에서 자연의 성으로, 즉 문명을 자연으로 되돌려 자연과 문명의 거리를 좁혀 주어야 하는 것이다. 문명과 자연의 간극을 좁혀 주는 것, 이것을 중용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명과 자연의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 질수록 인간의 삶은 진리치에 가까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즉명”(誠則明)하고 “명즉성”(明則誠)이 되는 『중용』의 세계는 바로 실재와 현상이 합치되는 진리가 구현되는 삶을 추구한다. 가면극 장면은 프로스페로가 장차 나폴리와 밀란의 왕과 왕비가 되어 미래를 이끌어 갈 페르디난드와 미란다에게 자연에서 떨어진 문명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문명과 자연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새로운 문명을 위한 교육의 담론이다.

인간은 언어 속에 거주하는 문명의 존재라는 이러한 인식은 문명을 이루어 가면서 야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숙고해보게 한다. 결혼 축하 가면극(masque)에서 프로스페로는 여전히 평화주의적인 아나키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견지하면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으로 가져온다. 다시 말해, 프로스페로는 곤잘로의 노자적 비전을 자신의 중용적 비전으로 현실화 한다. 제임스 블랙 (James Black)은 곤잘로의 이상국과 관련하여 그 가면극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급한다:

곤잘로의 전원적인 삶에 대한 이 극의 최고의 논평은 가면극이다. 그 가면극에선 곤잘로가 거부하고자 했던 용어나 가치들이 사실상 재 보증되고 있다. 곤잘로의 이상국이 계약, 상속, 소유, 재산 그리고 노동을 폐지시키려 하는데 반해 가면극은 이러한 요소들을 축복으로 나타내 보인다. 특별히 다채로운 곡물, 가지를 친 포도밭, 겨울의 마초, 잘 관리되고 있는 강, 그리고 태양에 그늘린 풀 베는 일꾼의 땀 흘림 등 농사짓는 일의 결실을 예찬한다. 유유자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패러다이스는 만일 그것이 패러다이스라면 아담식의 노동에 의해 건설되었거나 재건된 것이다. (“Commonwealth” 35)

곤잘로의 유토피아적인 계획이 계급구조적인 사회의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왕 알론조와 칸탈자 엔토니오에게 해 주는 일종의 노자적인 해체 담론(deconstructing discourse)인데 반해, 이 가면극은 프로스페로가 장차 왕과 왕비가 될 페르디난드와 미란다에게 해 주는 중용적인 재구성의 담론 (re-constructing discourse)이다. 가면극에서 프로스페로는 곤잘로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마술(Art) 혹은 인간의 문명적 행위와 유사한 “아담식의 노동”(“adamic labour”)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이나 인위성에 대한 프로스페로의 인정은 그가 문명의 발달 그 자체가 곧 행복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문명의 직선성과 복잡성은 프로스페로가 천지라는 유기적 에코-코스모스에서 실현되는 자연의 순환과 성(誠)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프로스페로가 그 가면극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아담식의 일이나 인위성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아담식의 노동이 패러다이스 건설에 쓰여 지는 방식이다.

쥬노: 영예, 풍요, 결혼의 축복,

긴 영속성 그리고 증가 . . .

세레스: 대지의 증진, 넉넉함.

곡간과 창고는 비어있지 않네.

포도덩굴이 무성히 자라나고

식물은 훌륭한 작업 속에 자라고

봄은 추수가 바로 끝나면서 그대에게 다가오네

부족과 결핍은 그대를 피해가고

세레스의 축복은 그대에게 있네. (4.1.106-117)

『중용』의 우주는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우주다. 『중용』은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의 약동과 약진의 힘을 묘사하기 위해 “솔개는 치솟아 하늘에 다다르고, 고기는 연못에서 뛰어 오른다”는 『시경』의 시를 인용한다. 이것은 우주의 생명력이 위와 아래에 찬란하게 드러남을 은유한다. 『중용』의 우주는 또한 ‘군자지도’(君子之道)의 세계다. 부부의 결합 자체가 하늘과 땅의 만남이며 부부의 관계가 지극하면 그 조화의 기운이 천지에 가득 차기 때문이다: “군자의 도는 부부간의 평범한 삶에서 발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지극함에 이르게 되면 하늘과 땅에 꼭 들어차 빛나는 것이다”(君子之道, 造端乎夫婦, 及其至也, 察乎天地). 12장).

마찬가지로, 이 결혼 가면극에선 하늘과 땅 사이의 조화가 흐르고 있다: 위로는 창조적인 양의 힘이 아래는 음의 번식작용이 충만하고 만물을 양육한다. 생명은 끊임없이 조화로운 변환의 상태에 있으며 이것을 일치시키려는 듯 음악이 그 가면극에 수반된다. 대지의 생명력은 위로 상승하고 하늘의 생명력은 아래로 하강한다. 이들은 리듬 있는 율동 속에 서로 교섭하게 되고 하늘과 땅은 서로에게 작용한다. 자연의 감응적인 교섭은 사계절에 의해 진행되고 변화와 성장의 순환과정은 왕성하고도 조화롭게 진행된다. 이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나타내기위해 음악이 제공되고 원을 그리며 흥겹게 추는 살아있는 “정령들”(spirits)의 “아름다운 춤”(graceful dance)이 있게 되는 것이다. 『중용』이 천지대자연의 생명력을 예찬하듯이,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원하고 놀라운 우주의 생명력에 대한 “찬미”(celebrating)다. 이 가면극에서 아담류의 노동은 결코 자연의 순환적 조화에 역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의 생성적인 힘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 가면극에서 “천국”(paradise)이 “재건”(rebuilt)되고 그 아름다움이 인지되는 것은 바로 아담적인 노동(작위)이 천지의 창조적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면극은 프로스페로가 천지와 하나로 감응하여 “천지의 화육”(『중용』 22장)에 ‘공동-창조자’(cocreator)로서 참여하기 위해 그의 마술(art)을 사용하고 있는 “장엄한 비전”(majestic vision)(4.1.118)이다. 그의 비전속에서 인간과 문명은 천지라는 유기적 틀 위에서만 구성될 수 있으며 가면극은 문명의 목적(telos)에 극적인 시각화를 부여해주고 있다. 모든 인위성(Art)은 반드시 목적을 지니며 그것이 목적을 지향하는 한 문명은 천지의 모습처럼 아름다워야 한다. 그것이 아름답지 않으면 구 사회의 문명적 결과를 상징하는 폭풍에서 보듯이 일체의 파멸을 자초할 뿐이다. 가면극에서 보여 지는 조화로운 패러다이스는 프로스페로가 그의 왕국(명의 세계)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실제 세계(誠의 세계)이며, 패러다이스가 아담식의 작업에 의해 재건되었듯이 그러한 합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멋진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바로 그의 작위(art)에 의한 것이다.

실제세계와 현상세계의 합치가 가져오는 프로스페로의 우주적 하나 됨에 대한 형이상학적

인식은 전체를 강조하여 개체성을 말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적 하나라는 심미적 비전에서 프로스페로가 달성하는 것은 개체적 자아를 우주적 자아로 확대시킴으로써 (5.1.108,159) 개체적 자아의 존엄성을 신의 위치로 격상 시키는 것이다. 일체 만물이 “얽은 대기”의 취산과정에서 생멸하고 우주는 하나의 시공연속체이기 때문에 참 자아는 세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이다. 천지대자연과 인간은 개념적으로는 분리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주관과 객관의 이원적 구분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프로스페로가 세상과 존재를 사랑과 경탄, 존중심으로 바라다 볼 수 있고 그의 적들을 용서하고 하나의 가족으로 묶을 수 있는 - 로맨스 극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 - 우주적 인간 (cosmic man)인 일종의 신격화된 인간 (apotheosized man)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주적 하나 됨에 대한 그의 중용적인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III

수신을 통한 주체의 심화와 “배워 깨달은 자비심” (“learned charity” *Pericles* 5.3.93)이 발현되는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르면 곤잘로는 프로스페로의 마술이 “신성한 자연”의 창조적 과정을 가장 성공적으로 도와 왔다고 자신도 모르면서 선포한다: “그대 신들이시여! 바라보소서! 여기 이 한 쌍에 축복의 관을 내리소서! 이 길을 마련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5.1.201-4). 곤잘로는 프로스페로의 마술이 이러한 현상을 창출해 왔음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프로스페로는 자기 자신을 그 궁정 인물에게 그가 지금까지 마술 인으로서가 아니라 밀란의 공작으로 나타내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 수는 없었지만, 프로스페로는 천지의 창조과정에 천지와 함께 ‘공동-창조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경탄하는 곤잘로에 의해 재확인된다:

밀라노는 그의 자손이 나폴리의 왕들이 되게 하려고
밀라노에서 축출되었나? 오! 일상의 기쁨을 넘어 환희로세.
그리고 그것을 굳건한 기둥에 돌로 새겨 놓으세나.
한 항해에서 클라리벨은 튜니스에서 그녀의 남편을 얻었고,
그녀의 동생 페르디난드는 자신마저 잃은 곳에서 부인을 얻었네 그려.
프로스페로는 이 초라한 섬에서 그의 공국을 찾았고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아닐 때에
자기 자신들을 되찾았으니.

Was Milan thrust from Milan that his issue
Should become kings of Naples? O, rejoice
Beyond a common joy, and set it down
With gold on lasting pillars. In one voyage
Did Claribel her husband find at Tunis,
And Ferdinand her brother found a wife
Where he himself was lost; Prospero his dukedom
In a poor isle; and all of us ourselves
When no man was his own. (5.1.205-13)

잘 하면서도 결코 다투지 않은 프로스페로는 만물에 이로움을 주면서도 다치게 함이 없는 천지의 길을 구현한다. 그의 마술(art)은 구세대의 증오와 악을 페르디난드와 미란다라는 신세대의 사랑과 선으로 전환시키는 “창조적인 위대한 자연”(“great creating Nature”)의 신비스러운 힘을 도와왔다. 프로스페로가 한 일에 대해 곤잘로가 평범한 기쁨을 넘어 ”환호“하는 것은 가면극에서 프로스페로가 보여준 것에 대한 페르디난드의 절대적인 경탄에 상응한다: ”나를 여기에 영원히 살게 해 주었으면! 더 없이 훌륭하고 현명한 아버지께서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4.1.123-25). 프로스페로의 이상국과 현실세계는 이 기쁜 순간에는 동일시된다. 다시 말해, 성(誠)의 세계와 명(明)의 세계가 하나로 동일시된다.

프로스페로는 최종적으로 그의 신적인 힘을 버리고 인간의 위치로 복귀해 밀라노로 되돌아가면서 우리 관객으로 하여금 세상을 원망과 부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이 세상자체를 지상의 천국(heaven on earth)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물론 “미란다가 멋진 신세계라고 외치는 데 대한 프로스페로의 반응이 제시하듯이, 그는 너무 현실주의자이다. . . 그는 미란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여전히 새 것인 결혼 하례복 내부에는 도무지 변한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Black “Commonwealth”). 그러나 미란다와 페르디난드 간의 혼약에 의해 상징되는 천지의 조화와 회복된 사회적 질서의 견지에서 보자면 인간과 세계는 미란다 스스로 경탄하듯이, 있는 그대로 정당화 되는 것이다: “어머나! 놀라워라 . . .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담고 있는 멋진 신세계구나! (5.1.1822-85). 프라이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멋진 신세계에 대한 비전은 바로 세상 그 자체가 된다”(Perspective 159). 『폭풍』에서 눈부신 현현(epiphany)은 우리의 세상 그 자체가 바로 “경이로운 신세계”요, 심지어 ”폭풍조차 친절하고 짠 파도마저 사랑 속에 신성한”(Twelfth Night 3.4.384) 패러다이스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중용』이 궁극적으로 성(誠)을 법칙으로 움직이는 인간과 우주를 신성한 경외감으로 바라보게 하듯이, 이 세상 자체를 천지창조의 새 아침처럼 “경이로운 신세계”(brave new world)로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된다.

Works Cited

- 김용옥. 『중용 한글역주』. 서울: 통나무, 2011. Print.
_____. 『중용 인간의 맛』. 서울: 통나무, 2012. Print.
_____. 『논어 한글역주』 1,2,3권. 서울: 통나무, 2008. Print.
뚜 웨이밍. 정용환 역. 『뚜 웨이밍의 유학강의』. 화성: 청계, 2001. Print.
블룸, 앨런. & 자파, 해리. 강성학 역. 『셰익스피어의 정치철학』. 서울: 집문당, 1983. Print.
하라리, 유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전병근 옮김. 파주: 김영사, 2019. Print.
한광석. 「『중용』의 시각에서 본 『베니스의 상인』」. 『영어영문학』 60.2 (2018): 163-183. Print.
Black, James. “The Latter End of Prospero’s Commonwealth.” *Shakespeare Survey* 43 (1991): 29-41. Print
Frye, Northrop. Introduction. *The Tempest*. By William Shakespeare. Harmondsworth: Pelican, 1988. Print.

- Langbaum, Robert. Introduction. *The Complete Signet Classic Shakespeare*. ed. Sylvan Barnet.
New York: Harcourt, 1972: 1537-1542. Print.
- Northrop, F.S.C. *The Meeting of East and West: An Inquiry Concerning World
Understanding*. Woodbridge: Ox Bow, 1979. Print.
- Shakespeare, William. *The Complete Signet Classic Shakespeare*. ed. Sylvan Barnet.
New York: Harcourt, 1972. Print.
- Suzuki, D.T., Fromm, Erich. and Martino, R.D. *Zen Buddhism and Psychoanalysis*.
New York: Harper, 1970. Print.
- Whitehead, Alfred N.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Macmillan, 1967. Print.

멜로드라마와 페미니즘의 제휴: 1994년 영화 「작은 아씨들」

우승정
(조선대학교)

I. 서론

1994년 여성 감독에 의해 재탄생한 『작은 아씨들』은 루이자 메이 올컷(Louisa May Alcott)의 원작 소설이나 이전 영화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전 영화들은 원작 소설의 표면적 교훈과 스토리를 충실하게 반영했다면 두 영화 작품은 작가 올컷이 당대에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행간에 숨긴 “변형된 메시지” 혹은 “대안 메시지”(Fetterley)를 찾아내 그것을 조명하는 데 집중한다. 앤 머피(Ann B. Murphy)는 책이 담고 있는 “긴장과 모호성” 속의 메시지가 당대의 젊은 여성들이 이 소설을 열렬히 환영받은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여성성의 기쁨을 옹호하기보다 앞에 놓인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여성적 존재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공”(175)하다고 설명한다.

이 영화는 소설의 진보적인 면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페미니즘 문학의 특징을 영화에 사용한다. 페미니즘 문학 비평은 독자에게 작품의 메시지에 저항하며 언어나 이미지들이 함축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상태로 텍스트를 읽도록 강조한다. 왜냐하면 저항성 없는 독자는 작가가 작품에 사용한 서사적 관점을 통해 인간과 삶의 조건에 대한 진리를 배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적 관점은 독자가 의식하기도 전에 텍스트가 전하는 가치들에 공감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Morris 58)이다. 3인칭 시점을 통해 전개되는 『작은 아씨들』은 19세기 감상소설이 지닌 가부장적 전통을 여성들에게 주입하는 교훈소설로 여겨졌고 특히 어린이 교육을 위한 문고판 소설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와서 소설 속 자매들이 지닌 현실 여성 인물들의 특성 때문에 페미니스트 연구가들에게 주목을 받아왔다. 저항하는 독자들과는 작품 속 여성 인물에 대한 모순적이고 중의적 면모로 인해 진보적 독서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1994년 영화 감독 암스트롱(Gillian Armstrong)은 원작 소설에 저항하는 독자로서 작품의 서사 관점을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주인공 조(Jo)의 시점으로 바꾸어 스토리를 전개한다. 영화에서 시점의 변화는 원작 교훈과는 달리 네 자매의 상황을 여성의 시각에서 봄으로 그것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을 전달한다.

또한 이 영화는 페미니즘의 메시지를 멜로드라마의 형식에 담아 전달한다. 멜로드라마라는 용어가 영화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들의 눈물을 짜내는 연극의 특성을 할리우드 영화가 빌려오던 1910년대이다. 『작은 아씨들』이 처음으로 영화로 만들어진 때가 1917년으로 당대의 멜로드라마는 할리우드 영화의 인기 있는 표현양식이었다. 그 당시 멜로드라마는 “공감을 일으키는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잘못된 사랑과 결혼의 장애 혹은 인습의 편협함과 가부장적 구조에 직면한 여성 자립의 어려움과 존엄성”(Singer 65)을 다뤘다. 멜로드라마에 자주 따라붙는 ‘과잉’ 혹은 ‘지나친’과 같은 용어는 멜로드라마가 조성하는 강한 감정적 에너지를 적절하게 설명한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은 지배적인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요구 때문에 그들의 욕망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고 억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억압은 스토리 내의 다양한 면에서 드러나고 결국 사회의 규범이 요구하는 행위 안에서 조화될 수 없어 다른 것

으로 전환된다. 이런 멜로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억압된 감정을 배우의 전형화된 과장 연기로 전달하게 되고 관객은 주인공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감정에 압도된다. 페미니즘 비평가들은 울컷이 이 극을 도덕 설교집으로 꾸미기보다 일부러 “과잉 멜로드라마”(MacDoald 15)로 만들어 전복적 메시지를 표면 아래에 숨겼다고 보았다. 암스트롱 감독은 영화에 멜로드라마의 요소를 도입하였는데 바로 예술적 창조성이 있는 여성이 사회적 제도와 인습에 부딪혀 펼치지 못하는 꿈과 열망에 집중함으로써 그렇게 하였다.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시련들은 관객을 울게 만드는 강력한 파토스(pathos)를 일으킬 뿐 아니라 그녀가 겪는 불공정, 불합리함 때문에 관객들은 흥분하거나 감정적 격분을 경험한다. 이런 파토스는 드라마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관객이 느끼는 동일시 혹은 자기연민에서 나온다. 감독은 관객들이 주인공 내러티브에 자신들의 것을 “오버랩하는 연상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멜로드라마를 재현”(Bentley, Singer 75 재인용)하는 효과를 의도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여성의 자립과 주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가슴 절절한 멜로드라마로 탈바꿈했다.

본 연구는 암스트롱 감독의 1994년 작 『작은 아씨들』이 페미니즘과 멜로드라마 양식을 접목한 점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 드라마는 관객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깨어 있고 그것을 실천한 의지를 촉구하도록 브레히트의 낯설게하기 양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페미니즘과 멜로드라마가 제휴한 결과 평단의 찬사와 상업적 성공을 모두 거두었다. 본 연구는 이 페미니즘 영화가 거둔 성공의 원인이 서사적 관점을 바꾸고 멜로드라마 양식을 사용한 데 있다고 본다. 이 서사적 관점의 변화는 원작 소설이나 1994년 이전의 영화와 구별되는 요인이며 연구 대상인 두 편의 영화에서조차도 확연히 다르다. 서사적 관점의 전환은 특히 2019년 작품처럼 스토리를 재배치하고 새로운 플롯을 엮는 일을 가능하게 하여 훨씬 현대적인 소재로 탈바꿈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관점의 『작은 아씨들』이 탄생할 길을 열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멜로드라마 양식을 채택한 이유와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본 연구가 페미니즘을 표방한 1994년 작 『작은 아씨들』에 대한 다른 영화 연구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흥미롭게도 페미니즘 연구에서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기존 작품 속의 여성을 다시 보는 것이다. 그들이 작품 속에서 숨어 말하는 항변, 그들의 창조성과 가능성을 알아내어 여성들의 글쓰기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 지금까지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고 이뤄온 업적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이미 정전이 되어버린 『작은 아씨들』을 창의적인 각색자가 20세기 후반 여성에 관한 이야기로 어떻게 바꿨는지를 알아보는 데 문학 속 여성의 글쓰기 전통 발견을 주장한 팸 모리스(Pam Morris)의 페미니즘 문학 이론을 빌려올 것이다. 또한 벤 싱어(Ben Singer)의 멜로드라마와 할리우드 영화와의 관계에 관한 정리와 역시 본 연구의 주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II. 본론

여성들이 자신을 읽어내는 남성의 관점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들의 왜곡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가 즉 저항성 없는 독자가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모리스는 “텍스트의 서사 전략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도록 독자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데 있다”(56)고 대답한다. 이 전략을 주디스 패털리(Judith Fetterley)는 “소설을 읽는 여성독자들은 자신들이 배제된 경험에 참여”(12)하기 때문에 남성과 동일시해야 서사의 경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독자로서 여성들은 남성의 시점으로 텍스트를 읽으며 그리하여 남성의 관점과 감정에 공감할 때 텍스트의 진리에 참여한다. 문제는 그런 공감에 여성혐오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문학 텍스트의 서사구조를 바꾸는 것은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이 타고난 운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 『오디세이』(*Odyssey*)의 이야기를 아내인 페넬로페(*Penelope*)의 입장에서 쓰거나,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에서 심술궂은 여성들, 예를 들어 결혼한 심술쟁이 조 부인(*Mrs. Jeo*)이나 결혼하지 않은 마녀 허비섬(*Miss Havisham*)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분명 다른 서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전들 속에서 그런 여성들을 위한 서사 공간은 없다. 따라서 서사적 위치를 재편하는 것은 독자들이 텍스트에서 흡수하는 지배적인 여성 이미지나 성에 대한 가정들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과거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쓸 때 난제는 여성만의 글쓰기 전통이 없다는 점이었다. 여성들은 교육, 돈, 기회의 부족에 더해 남성 작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작품의 전통이 없어 남성적 글쓰기 방식을 빌려 써야 하기 때문에 여성을 제대로 재현하기 어려웠다. 과거 여성작가들이 발전시켜 온 소설기법들이 없지 않았음에도 여성문학의 발달과정에 대한 전통을 찾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여성의 글쓰기가 갖는 연속성이나 여성작가의 실제 삶과 여성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위치의 변화과정 사이에서 생성되는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Showalter 7*) 그들의 작품들은 체계화된 전통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한 작가의 개별적 특징으로 구별될 뿐이었다. 그들은 남성의 언어체계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재현하고 남성적 양식으로 모방해야 했다.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 장치와 기술들은 남성들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여성들의 눈과 이해력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소위 보편적 삶의 가치가 갖는 오류를 발견하고 도전하여 재편하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여성문학의 서사 전통을 찾으려는 노력은 1970년대가 되면서 결실을 보게 된다. 엘렌 모어스(*Ellen Moers*)의 『여성 문학인들』(*Literary Women*)은 여성이 가진 창조적 전통을 드러내는 선구적 작품이 되었다. 여기에 여성작가들이 서로에게 미친 영향을 일레인 쇼왈터(*Elain Showalter*)는 『그들만의 문학』(*A Literature of Their Own*)에서 기술하는데 그녀는 19세기 초반부터 여성작가들이 발전시켜 온 풍요로운 소설기법을 소개하면서 그것들이 여성문학에 하나의 전통을 형성했다고 설명한다. 샌드라 길버트(*Sandra Gilbert*)와 수전 구바(*Susna Gubar*)는 쇼왈터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19세기 여성작가들이 걸으로는 가부장문학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9세기와 20세기의 여성 소설들은 길버트와 구바가 강조한 것처럼 미친 여자들을 등장시켜 남성중심 서사에 여성을 악녀나 타락한 여성 혹은 여신으로 구현하는 관행을 대치한다. 남성작가의 마녀나 타락한 여성을 대치하는 여성작가의 미친 여자는 여성작가의 자기분열을 감추는 기술일 뿐 아니라 남성 플롯을 전유하여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여성만의 글쓰기 방식으로 발전하는 길을 열었다. 그점을 제인 스펜서(*Jane Spencer*)의 『여성소설가의 출현』(*The Rise of the Woman Novelist*)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스펜서에 따르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광기 있는 여주인공이 인습을 거부하는 태도나 여성답지 못한 생각이 잘못임을 깨닫고 뉘우치는 과정을 그린 교훈 서사가 “언뜻 보기에는 가부장적 권위에 협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도덕적 보수주의를 공공연히 드러내어 와해”(Spencer 177)시키는 역할을 한다. 흔히 여성 주인공의 “도덕적 성장소설”(Spencer 178)이라 불리는 이 소설들은 여주인공이 복잡하

고 예리하며 분별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하는 심리적 사실주의를 특징으로 하여 여성의 정신 능력이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책임 있는 일을 맡을 자격이 부족하다는 가정들을 뒤집었다. 올컷을 비롯하여 제인 오스틴(Jane Austen),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조지 엘리엇(George Eliot)과 같은 작가들의 소설은 미친 여자를 창조적으로 전유하여 유별나지만 독특한 상상력과 삶의 에너지를 갖춘 여성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아이러니컬하게 묘사한다.

여성 작가들이 독특한 여주인공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서사 관점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남성 작품들이 사용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일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여성의 차별과 고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여성들이 갖는 능력을 찬양하며 남성 위주의 문학세계에 목소리를 내었다. 많은 여성작가들이 “자서전적인 서사나 일인칭 서사를 이용한다는 사실은 읽기과정을 상호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이해했음”(Morrison 113)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런 상호작용은 남성중심적 정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자신들이 가진 천부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느끼는 고립감이나 무력감을 공감하며 문학에 형상화된 그들의 감정에 연대 의식을 가졌다. 여성작가들이 자서전적인 서사나 일인칭 서사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여성작가와 독자 모두 “다른 여성의 목소리에서 자신의 소리인 듯한 것을 발견하고 난 뒤의 특별한 감정”(Moers 43)이 존재했음을 증명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남성작가들이 전지적 시선으로 여성들을 판단하고 여성들간의 관계를 라이벌이나 배신 관계로 엮어가는 서사 방식에 도전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의사소통하고 우정과 신의를 나누는 공동체로 결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광적인 에너지와 능력을 가진 여성은 19세기 소설을 거쳐 20세기 영화 산업에 주요한 등장인물이었다. 20세기 초까지 활발한 논의를 거쳐온 여성의 참정권 문제가 여러나라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인기 있는 대중매체인 영화는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립 가능한 여성,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활발하게 차용했다. 이는 여성들을 주요 구매자로 만드는 도시 소비경제가 출현하고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노동시장으로 여성이 대거 유입되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영화산업은 여성들이 지닌 욕망 즉 가부장적 권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여성을 서사의 중심에 놓아 여성 관객을 끌어들이었다.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시리얼 퀸 멜로드라마(Serial Queen Meledrama)는 전통적으로 남성적 속성들을 용맹스러운 젊은 여성 주인공에 부여하여 어머니 세대의 세계관과 차별화되기를 열망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이 있었다.

여성성에 대한 세대의 변화는 19세기 여성작가 소설 속의 미친 여자가 20세기 초 영화의 ‘신여성’이라고 지칭되는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리얼 퀸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은 “여러 남성적 속성, 역량, 특권을 전유함으로써 전통적인 젠더 위치를 자의적을 해체시키고 때로는 완전히 역전”(Singer 340)시킴으로 여성 독립과 지배력을 핵심 주제로 삼았다. 또한 이 멜로드라마의 ‘신여성’은 자립심과 추진력을 가지고 세상에 직접 뛰어들어 자신만의 판단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쟁취하여 세상의 불합리함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에 대한 문화적 이미지를 바꿨다. 페미니즘 담론과 제휴한 시리얼 퀸 드라마는 전통적 젠더 이데올로기가 동요하고 있음을 반영하면서 여성들이 근대 사회의 규범들을 긍정적으로 바꿔 갈 여성서사의 주체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암스트롱의 영화 『작은 아씨들』은 여성문학 전통의 맥락 속에서 여성 서사 관점과 미친 여자를 잘 활용한 멜로드라마다. 먼저 소녀들을 위한 도덕 교과서로서의 원작이 지닌 전지

적 서사 방식을 주인공 여성의 시선인 1인칭으로 바꿨다. 암스트롱의 영화는 원작에서 딸들에게 정숙한 작은 아씨들이 되어달라는 설교조의 아버지의 편지 대신 “전쟁으로 연료와 등잔 기름이 부족하게 되었다. 하지만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마치 가족은 자신의 불빛을 밝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원작을 충실하게 반영하지만 플롯은 조의 시작 내레이션이 알려주는 것처럼 어두운 시대를 헤쳐가는 어머니와 네 자매의 이야기다.

조에 의한 1인칭 서사로 인해 마미를 시대를 앞선 시리얼 킥 멜로드라마의 신여성으로 묘사하기에 적합하게 되었다. 마미는 남녀 평등론자였으며, 열성적인 여성 참정권자였고 진보적인 교육론자였으며 초기 페미니스트인 올컷의 모습이 온전히 투영된 존재다. 남북전쟁이 한창인 시대에 마미의 사고는 너무도 급진적이어서 동시대인들을 당황스럽게 할 정도다. 예를 들어 마미는 로리를 교육하고 있는 브룩(John Brook) 선생에게 “내 생각에는 운동이 필요한 데는 여자와 남자가 차이가 없는데 여자애들이 몸이 약해지고 쓰러지는 것은 코르셋을 입고 바느질을 하면서 집에만 머무르게만 하기 때문이죠”라고 거리낌 없이 말한다. 그녀의 말에 브룩과 딸 메그(Meg)는 얼굴을 붉힐 정도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에이미(Amy)가 학교 선생님에게 부당하게 매를 맞고 집에 오자 선생님에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기에 아이를 때리고 모욕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폭력과 모욕뿐”이라는 편지를 쓰고 학교를 그만두게 한다. 그녀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선구적인 여성해방론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암스트롱의 영화에서는 특히 마미와 조의 강인한 에너지를 부각시켜 단순히 성깔 있는 여성 정도가 아니라 리더와 개척자, 모험가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여성의 삶의 역사를 바꿔온 인물로 묘사한다. 마미는 다음 세대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도록 길을 열어주는 선구자로서 미친 여자를 전유한다. 영화에서 그녀는 “강력한 여성 대리인”으로 “가족 전체를 보호하고 사건의 경위를 지시하고 가족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는”(Karen Hollinger & Teresa Winterhalter 178) 인물이다. 그녀는 조가 자신들과는 달리 로리는 파티에서 여자들과 희롱거리도 왜 괜찮은지 궁금해하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지. 로리는 남자이기 때문이야. 그런 이유로 투표도 할 수 있고 재산도,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있는거야. 그것이 그를 지켜주는 거야”(43:20~25)라고 대답한다. 딸들에게 남자에게 호의적인 사회 규범이 허용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이 변화시킬 수 있음을 교훈한다. 그녀는 딸들에게 내면의 힘을 키우고 생각을 변화시켜야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전달한다.

마미의 예언자적 미친 여자의 전통은 조에게 좀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 신여성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조는 넘치는 에너지와 예술의 열정으로 미친 여자의 이미지를 전유한다. 그녀는 야생마처럼 자유롭고 무모하며 다혈질을 가진 인물 여성해방을 구현하는 신여성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떠나는 엄마를 위해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 돈을 마련하는 모습은 조의 무모할 정도의 열정을 잘 보여준다.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긴 머리칼은 여성에게 미를 상징하고 순종을 겸비한 여성성을 대변한다. 하지만 조의 행동은 여성은 긴 머리를 하라는 성경 명령에 도전하는 것이며 자신의 여성성을 스스로 거세한 광적인 행동이다. 원작이 조의 겸손하고 희생적인 여성성에 강조를 두었다면 영화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고 재화의 수단으로 바꾼 소년같은 미소의 위노라 라이더의 얼굴을 부각시키면서 투지 있는 여성으로 변모시킨다.

조라는 신여성은 현재가 주는 불안으로 인해 세상에 반항하지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인물로 제시된다. 영화는 조가 에이미가 학교에서 매를 맞고 오거나 그녀의 원고를 불태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자기를 대신에 마치 고모를 따라 유럽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자매들과는 화를 내고 방안에서 왔다갔다하며 소리를 지르고 뛰는 모습을 부각한다. 그녀의 미숙한 광기는 여성이 받는 세상 속의 불공정에 대한 저항을 거칠게 표출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나타낸다. 그녀의 충동과 광분하는 기질을 제어하여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는 마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의 원고를 태운 것에 대한 복수로 조가 에이미를 언 강물에 빠지게 내버려 둔 사건 이후 마미는 조의 분노에 이해심을 보인다. 그리고 조에게 원작처럼 긴 훈계가 아니라 에이미를 용서하고 자매애를 보이도록 짙막하게 교훈한다. 에이미가 자신을 대신해 유럽에 가게 되자 큰 실망을 하며 자신이 나쁜 아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자책하는 조에게 “너에게는 재능이 많아. 넌 평범하게 살지 않을 거야. 너도 독립할 때가 됐으니 네가 유용한 곳으로 가서 자유를 찾아라. 그리고 다가올 멋진 것들을 보거라”라고 격려한다. 조는 뉴욕으로 떠나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불같은 기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녀는 남성들의 정치모임에 참여하며 여성참정권에 대해 소신 있고 확고한 목소리를 낸다. 그녀의 여성참정권에 대한 옹호는 단순히 여성의 목소리 내기를 금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여성의 권리를 예언하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그녀의 광적인 기질은 결국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로 창의적 결실을 맺는다.

III. 결론

20세기에 들어 여성들이 문학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여성작가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준 선배 여성작가들을 어머니 세대로 부르며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길버트와 구바는 후배 작가들이 선배 작가들에게 ‘제휴 콤플렉스’(affiliation complex)를 느꼈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20세기 여성작가들이 19세기 여성작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그들의 자율성에 기가 꺾여 괴로워하는, 경쟁심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Morris 71)을 일컫는다. 20세기 후배 작가들은 선배 작가를 대상으로 제휴 콤플렉스를 느끼면서 그것을 극복할 필요를 느꼈다. 그들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선배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창조적으로 전유하기 위해 오독, 혹은 왜곡, 재구성하는 것이다.

암스트롱은 19세기 소설 『작은 아씨들』을 창조적으로 오독 혹은 왜곡하여 선배작가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분열이나 적대감을 지닌 여성인물의 이중성이나 이탈적인 행동과 주장을 멜로드라마 속 신여성으로 구현해 내었다. 또한 그 모습을 현실화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비밀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바로 시점을 전환한 것이다. 암스트롱은 주인공 조의 1인칭 시점으로 영화를 재구성하면서 시대를 앞선 페미니스트였던 작가 울컷이 “여주인공을 창조해 내면서 텍스트를 통해 자신을 정의”(Gardiner 357)하는 숨은 전략을 파악했다. 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마미와 네 딸의 관계는 19세기 여성작가들이 다른 여성작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우며 이해하는 감정이입과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연대가 가져오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부각시켰다.

페미니즘과 멜로드라마가 제휴한 1994년 작 『작은 아씨들』은 여성문학의 전통을 잇는 또다른 『작은 아씨들』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 울컷이 자신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을 말한다고 한 것처럼 여성들이 고통스런 현실을 전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주제가 생기면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문화 개념과 제휴하여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시간에 따라 여성 예술가들이 이뤄온 업적을 짚어본다면 새로운 『작은 아

씨들』은 여성문학의 전통을 담보하면서 기존의 사고 층위에 시대적 불안을 극복하는 훌륭한 여성 이야기가 될 것이다.

Works Cited

- Alcott, Louisa May. *Little Women*. N.Y: Abrams, 2019. print.
- Aston, Elaine. *An Introduction to Feminism & Theatre*. London: Routledge, 1995. print.
- Fetterley, Judith. *The Resisting Reader: A Feminist Approach to American Fiction*. Bloomington: Indiana UP, 1978. print.
- Gardiner, Judith Kegan. "On Female Identity and Writing by Women," *Critical Inquiry*. vol. 8(2). Chicago: Chicago UP, 1981. 347-61. print.
- Hollinger, Karen, and Teresa Winterhalter. "A Feminism Romance: Adapting *Little Women* to the Screen." *Tulsa Studies in Women Literature*. 18.2 (1999): 173-192. print.
- Li, Shirley. "Greta Gerwig's *Little Women* Gives Amy March Her Due." *The Atlantic*. n. page. Web. 26 Dec 2019.
- Little Women*. Dir. Gillian Armstrong. Perf. Winona Ryder, Gabriel Byrne, Trini Alvarado, Kristen Dunst, Samantha Mathis, Claire Danes, Christian Bales, Susan Sarandon. DiNovi Pictures. 1994.
- MacDonald, Ruth K. "Louisa May Alcott's *Little Women*: Who is still Reading Miss Alcott and Why," *Touchstone: Reflection on the Best in Children's Literature*. West Lafayette, Indiana: Children's Literature Association, 1985. 1-35. print.
- Mcintyre, Gina. *Little Women: The Official Movie Companion*. N. Y: Abrams books for Young Readers, 2019. print
- Moers, Ellen, *Literary Women*. London: Women's press, 1978. print.
- Morris, Pam. *Literature and Feminism*. Oxford, UK: Blackwell, 1993. Print.
- Spence, Jane. *The Rise of the Woman Novelist: From Aphra Behn to Jane Austen*. Oxford, UK: Blackwell, 1986. print.
-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London: Triad Grafton Book, 1987. print.

Session 3

시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쪽수
13:10- 13:40	권영탁	세명대	이성과 신앙 사이: 프로스트의 천국	131
13:40- 14:10	김연규	강릉 원주대	홉킨스 시에 미친 디킨스의 영향	141
14:10- 14:40	추지형	경상대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 나타난 문학적 명성에 대한 연구	151

이성과 신앙 사이: 프로스트의 천국 (Between Reason and Faith: Robert Frost's Heaven)

권영탁(세명대학교)

I

트릴링(Lionel Trilling)과 제럴(Randall Jarrell)을 비롯한 학계 권위자들의 통찰력에 입각하여 20세기 중반 이후 비평가들은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작품에서 통상적으로 깊은 비관주의, 고딕주의, 회의주의를 발견해 왔다. 시인을 둘러싼 지배적인 비관적 담론은 그의 소박한 지혜와 지역적 매력의 표면 아래에 항상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데, 그의 시는 희망의 포기과 함께 연약한 필멸의 인간과 무심하고 영원한 우주 사이의 냉엄한 대비를 반영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프로스트의 철학적, 미학적 관점은 전통적인 고딕 취향의 읽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훨씬 더 강건하고 정교한 것이다. 프로스트를 운명과 우울의 고딕 시인으로만 분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의 복잡하고 때로는 양면적인 미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다.

언터메이어(Louis Untermeyer)에게 보내는 한 편지에서 그는 “내가 만일 시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면 나는 아마 제유가(提喻家)로 불리어질지 모른다. 나는 시에서 제유, 즉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 부분을 사용하는 비유적 언어를 좋아한다”(Thompson 485)고 했다. 땅 속에 묻힌 것을 알려면 그것에 대해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 드러난 부분을 자세히 살펴야 하듯이, 그는 삶의 형이상학적 영역에 관심을 두고 들여다보되 각종 모순과 상반된 요소들로 가득한 실존세계의 원근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형이상학적 관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천국관을 중심으로 프로스트가 가졌던 영적 자세와 입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프로스트의 천국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전기와 후기의 시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라기보다는 발전이며 그 전환점이 되는 시집은 『더 넓은 지경』(*A Further Range*)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의 태도는 한 마디로 천국을 항상 생각하면서도 현실에 대해 정직 하였던 시기였다. 말하자면 지상과 천국 또는 현실과 꿈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시기이다. 이러한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 가운데서 워렌(R. P. Warren)이 프로스트의 걸작으로 꼽고 있는 「사과를 딴 후에」(“After Apple Picking”)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작품에서 천국은 꿈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워렌은 프로스트가 이 시에서 자신이 원하는 천국 또는 꿈의 세계의 성격과 함께, 그 세계가 현실세계와 가지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사과 따기를 마친 주인공은 백주에 졸음에 빠지게 됨으로써 일종의 꿈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이 꿈의 세계는 현실세계와 겹쳐지게 된다. 노동과 수고의 세계에 대해 보상과 회복, 혹은 안식의 세계라 할 수 있는 이 꿈의 세계는 마치 얼음조각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

고 이상하게 보인다.

오늘 아침 내가 물통에서 걷어낸 유리를
하얗게 썬 풀의 세계에 가져다 대고 보았을 때
내가 느꼈던 이상한 느낌을
내 눈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

I cannot rub the strangeness from my sight
I got from looking through a pane of glass
I skimmed this morning from the drinking trough
And held against the world of hoary grass. (ll. 9-12)

그러나 프로스트는 “나는 나의 꿈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가 경험한 꿈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큼지막해진 사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꼭지 쪽과 꽃 쪽,
그리고 적갈색의 모든 반점들도 뚜렷이 보인다.
내 등근 발바닥은 여전히 아플 뿐 아니라
사닥다리 디딤대의 압력도 받고 있다.

Magnified apples appear and disappear,
Stem end and blossom end,
And every fleck of russet showing clear.
My instep arch not only keeps the ache,
It keeps the pressure of a ladder-round. (ll. 18-22)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꿈의 세계의 사물들이 현실세계의 그것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사다리의 압력은 물론 발바닥의 통증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 마디로 프로스트의 천국 또는 꿈의 세계는 지상 또는 현실세계를 다시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프로스트의 천국은 악도 고통도 수고도 없는 기독교의 천국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위니(John D. Sweeney)도 프로스트가 기독교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사후의 인간의 삶을 동물들의 겨울잠에 비교한 시인의 시구를 증거로 들어 프로스트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통적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74).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프로스트 자신이 원하고 사후(死後)에 있기를 바라는 천국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것을 프로스트의 천국관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며, 또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작품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워렌의 관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 「사과를 딴 후에」에 대한 해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진정으로 영원불멸과 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즉 그가 진정으

로 이 필멸의 삶 이후에 원하고 기대하는 천국을 정의하고자 하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다, 그는 단지 그 이미지를 자신의 의미, 즉 자신의 태도를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But here it may be well to ask ourselves if the poet is really talking about immortality and heaven--if he is really trying to define the heaven he wants and expects after this mortal life. No, he is only using that image as one for his meaning, a way to define his attitude. (445-46)

작품에서 꿈의 이미지는 작자가 바라고 기대하는 천국을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작자의 태도를 설명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말이다. 결국 워렌은 이 시에 나타난 프로스트의 태도를 기초로 하여 이 시가 세 가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첫째, 제대로 된 이상(理想)은 진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또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인간은 노력을 통한 자신의 성취 자체에서 보상을 구해야지 그 노력의 끝에 얻어지는 그 무엇으로서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예술은 진짜의 세상, 즉 인류 공통의 실제 경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워렌은 프로스트를 반 플라톤주의자로 단정하고 다음과 같은 프로스트 자신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인 자신의 인생관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유머로 인해 한 번 재인용할 만하다.

나는 로빈슨 같은 플라톤주의자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플라톤주의자는 우리가 현세에서 가진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의 불완전한 사본이라고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 당신의 여자가 천국이나 다른 사람의 침대에 있는 어떤 여자의 불완전한 사본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많은 사람들, 아니 아마도 그들 모두는 그와 같은 낭만주의자 편에 포함돼 왔다. 나는 철학적으로 한 이졸테는 나의 본캐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졸테는 나의 부캐를 위해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 진정으로 용감한 플라톤주의자는 어떤 여성도 이상화됨이 없이 사용만 되는 상태로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 로빈슨처럼 홀아비로 남을 것이다.

I am not the Platonist Robinson was. By Platonist I mean one who believes what we have here is an imperfect copy of what is in heaven. The woman you have is an imperfect copy of some woman in heaven or in someone else's bed. Many of the world's greatest--maybe all of them--have been ranged on that romantic side. I am philosophically opposed to having one Iseult for my vocation and another for my avocation.... A truly gallant Platonist will remain a bachelor as Robinson did from unwillingness to reduce any woman to the condition of being used without being idealized. (447)

워렌의 이러한 관찰은 물론 프로스트의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밝히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프로스트의 천국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전기와 후기의 시에서 변화되기보다 발전해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프로스트는 대부분 숲의 이미지를 통해 어떤 미지의 세계 혹은 진리의 세계를 지향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미지의 세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기 시에 가서 “거친 지대”(Roughly Zones)로 이어지며 계속되는 미지의 세계는 시종 일관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간에 천국을 향하는 프로스트의 태도는 이와 같이 현실주의적임이 분명하다.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해 결국 행동과 사색 간의 대비를 보여주는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의 경우에도 눈 내리는 아름다운 숲가에서의 사색은 결국 현실의 약속으로 인하여 거부된다. 프로스트는 이 작품에서 “행동을 포기하는 관조적 아름다움”과,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획득된 아름다움”(Warren 436-37 참조)을 대조시켜서 현실에 충실해야 할 것과, 현실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상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나를 찾아서」(“Into My Own”), 「들어오세요」(“Come In”), 「자작나무」(“Birches”), 「황량한 공간」(“Desert Places”)등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프로스트의 현실주의적인 태도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단정적인 언급을 피하는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작품의 예로는 「한 번 살짝, 그리고, 무엇」(“For Once, Then, Something”)의 마지막 행인, “그 하얀 것은 무엇이였을까?/ 진리였을까? 석영 조각이었나? 살짝 한 번, 그리고, 무엇”(What was that whiteness?/ Truth? A pebble of quartz? For once, then, something)에서, 그리고 「사과를 딴 후에」의 끝부분인, “만일 가지 않고 있다면/ 들쥐는 내게 오고 있는 나의 이 잠이/ 자기의 긴 잠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인간의 어떤 잠일 뿐인지 말해 줄 수 있으리라”(Were he not gone,/ The Woodchuck could say whether it's like his/ Long sleep, as I describe its coming on,/ Or just some human sleep)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프로스트의 비난자들에 의해 그의 한계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태도 내지 자기제한의 성격은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현대시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개관하고 있는 『현대 시의 역사』(A History of Modern Poetry)의 저자인 퍼킨스(David Perkins)는 낭만주의자들과는 달리 프로스트가 미의 추구와 어두움의 추구를 거절하는 것은 뉴잉글랜드인들의 성격, 즉 “양키식의 실제적 현실의식”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38-39). 그러나 비록 어느 한 지역과 그 지역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역적 특색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그것은 프로스트 자신의 개인적인 태도이며 나아가서는 그가 택한 자신의 시적 태도인 것이다. 프로스트와 뉴잉글랜드와의 관계를 자세히 분석한 오도넬(W. G. O'donnell)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비록 프로스트가 자연에 나타난 지역적 특색을 진솔하게 투사하는 능력이 크긴 했지만 그것은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의 언어와 함께 작용할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56). 결국 프로스트는 보편적인 의미, 혹은 보편적인 경험의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제한적이고 비 웅변적인 말투를 사용하였다고 하겠고, 따라서 프로스트의 제한적인 태도는 뉴잉글랜드의 토양으로부터 자라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발전시켜낸 하나의 심오한 개인적 성취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프로스트의 시에 항상 여러 가지 범주의 장벽들과 경계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가 초자연적인 존재나 세계에 대해 단정적인 언급을 회피한다는 사실이 과연 그가 불가지론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가? 몽고메리(Marion Montgomery)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프로스트가 초자연적인 주제에 대해 독단적으로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불가지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고 존재의 신비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프로스트's hesitancy in speaking dogmatically on the subject of the supernatural is due more to his acceptance of man's limitations and the acceptance of mystery in existence than to agnosticism. (23)

말하자면 프로스트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최종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은 그가 불가지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한계성을 수용하고 존재에 수반되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프로스트는 계속해서 무자비하고 냉혹한 현실과 함께 인간의 한계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작품, 「수용」(“Acceptance”)에서는 작품, 「장작더미」(“The Wood-Pile”)와 「금빛인 것은 머물 수 없다」(“Nothing Gold Can Stay”)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변화무상하고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저무는 해가 구름 위에 빛줄기를 던지며
아래 바다 속으로 별장게 내리 떨어질 때,
자연 속 어떤 목소리도 크게 외치는 소리 들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새들은 적어도 알고 있으리라
그것이 하늘에서 일어난 어두움으로의 변화라는 것을

기껏해야 그는 생각하거나 나직이 지저귄다, ‘안전해!
이제 밤이 어두워져 내 전부를 감출거야.
밤이 아주 캄캄해져서 내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없게 할 거야. 될 일은 될 대로 될 거야’.

When the spent sun throws up its rays on cloud
And goes down burning in to the gulf below,
No voice in nature is heard to cry aloud
At what has happened. Birds, at least, must know
It is the change to darkness in the sky.

At most he thinks or twitters softly, ‘Safe!
Now let the night be dark for all of me.
Let the night be too dark for me to see
Into the future. Let what will be, be.’ (ll. 1-5, 11-14)

뿐만 아니라 작품, 「가족 장례」(“Home Burial”)에서는 아들의 죽음을 끝내 잊지 못하는 젊은 아내를 통해, 그리고 「산골 아낙네」(“The Hill Wife”)에서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길 없어하는 젊은 여인을 통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당하게 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작품, 「종들의 종」(“A Servant to Servant”)에서는 인간의 숙명을 수용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프로스트는 결코 사후의 세계를 부정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작품, 「시작」

(“The Onset”)의 두 번째 연의 첫 세 줄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표시하고 있고, 작품, 「걱정」(“Misgiving”)에서는 인생의 고행에도 불구하고 삶의 경계 저편에 있는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면서 특히 마지막 연의 3행에서는 소위 “경계 너머의 지역”(further range)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장미 가족」(“The Rose Family”)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현대라는 시대에서도 여전히 절대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작품, 「별 쪼개기」(“The Star-splitter”), 「거친 지대가 있다」(“There Are Roughly Zones”), 「비밀은 앉아서」(“The Secret Sits”)등에서도 인간의 지식 추구의 한계성과 함께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프로스트의 천국관을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가치의 세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보다는 그러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굴드(Jean Gould)가 전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1915년의 늦여름, 프란코니아(Franconia)로 찾아온 콕스(Sidney Cox)와 또 한 사람의 젊은 동료교수는 프로스트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시를 읽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호킹(William Ernest Hocking)이 쓴 『인간 경험에서 신의 의미』(The Meaning of God in Human Experience)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주로 듣기만 하던 프로스트의 부인 엘리너(Elinor)가 자기는 영원불멸, 즉 사후의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말하자 프로스트는 “나도 그렇다. 나는 영원불멸을 마치 만질 수 있는 물체처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깜짝 놀란 젊은 교수가 무슨 증거라도 발견했느냐고 시인에게 묻자 시인은 내용을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81-84 참조). 굴드의 말대로, 정확한 추론이나 논리적 사고체계는 영원불멸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적용할 경우 넌센스라는 사실을 프로스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고용인의 죽음」(“The Death of the Hired Man”), 「검은 오두막」(“The Black Cottage”), 「도끼자루」(“The Ax-Helve”)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에서 프로스트는 세상적 지식과 객관적 지혜를 대비시키면서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유행이나 타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자기식의 삶이 지혜에 이르는 길임을 역설한다. 「검은 오두막」의 노파도 세상의 유행적 가르침이나 피상적 사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함으로써 오히려 옳은 길로 나아갔다. 그녀는 신과 동료인간을 믿었고, 어떤 전문가의 충고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타고난 이성을 좇았던 것이다. 사실 시인 프로스트가 26세의 한창나이에 농부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당시의 출세지향 일변도의 세류를 거슬러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스위니가 작품, 「자작나무」를 해설하면서 말하고 있듯이(40), 우리는 논리나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에 가까이 단순하게 삶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프로스트의 후기시에서 더욱 강해진다. 앞에서 프로스트의 전기시와 후기시의 경계가 되는 시집으로 들었던 『더 넓은 지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즉 작품, 「황량한 공간」과 「멀리도 아니고 깊게도 아닌」(“Neither Out Far Nor In Deep”)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한계성을 인식한 프로스트는 인간의 이해의 능력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프로스트는 인간의 이해력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넓혀갔던 것이다. 거버(Philip Gerber)가 말하는대로(155),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고, 알아낸 한계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같은 시집에 들어 있는 작품, 「거친 지대가 있다」에도 이와 같은 생각은 뚜렷이 나타나 있다.

얼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복숭아나무를 너무 멀리 북쪽으로 옮겨다 심으면서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한계와 투쟁해보려는 인간은 만일 봄에 나무가 죽게 되면 나무에 의해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나무는 잎이 없으며 다시는 잎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몇 달을 기다려 봄이 되어야 알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된다면,
나무는 한계를 모르는 인간의 마음의 특성을 비난할 수 있다.

The tree has no leaves and may never have them again.
We must wait till some months hence in the spring to know.
But if it is destined never again to grow,
It can blame this limitless trait in the hearts of men. (ll. 18-21)

끝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길들여질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비난한 시인은 저 멀리 북쪽 너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친 지대”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의 본성은 이렇게도 늘 가르치기가 어려운가
비록 옳고 그름을 구분할 확정된 경계선은 없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을 가진 거친 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Why is his nature forever so hard to teach
That though there is no fixed line between wrong and right,
There are roughly zones whose laws must be obeyed. (ll. 11-13)

이와 같이 인간의 한계성을 알게 되는 것, 즉 때로는 “어린아이가 난로에 손을 데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발견”(Gerber 156)과 함께 여러 가지 존재론적 역경들이 뒤따르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인은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많은 비평가들의 생각과는 달리 프로스트가 기독교적 신앙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제도화된 기독교를 비판하고 실존적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의 사상을 소개하면서 허벤(William Hubben)은 실존의 의미와 신앙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믿음은 오로지 극도의 영적 고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존재는 예수의 겿세마네 경험이 최고의 예가 되는 이른바 고뇌에 찬 긴장 상태이다. “믿음으로 뛰어드는” 역설만이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다.

Only through extreme spiritual anguish can faith be won. Existence, according to Kierkegaard, is, therefore, a state of anxious suspense for which Jesus' Gethsemane experience is the supreme example. Only the paradoxical “leap into faith” will give man certitude in God.(43)

신에 대한 확신 즉, 신앙은 이성이나 추상으로 이해되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신앙 속으로 뛰어들어 신을 인정하고 경험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경험이 먼저고, 이해는 나중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허벤도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여, 기독교의 신앙은 지니고 살아가야 할 그 무엇이지,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21). 같은 맥락에서 죄라는 것은 신을 알 만한 것이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신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Rome 1: 18-25 참조), 따라서 “죄의 반대는 선(善)이 아니라 믿음”(Hubben 43)인 것이다.

초이성적인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식한 시인은 마침내 신의 자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프로스트의 후기의 두 시극작품인, 『이성의 가면극』(*A Masque of Reason*)과 『자비의 가면극』(*A Masque of Mercy*)은 이러한 시인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이성의 가면극』의 주제는 라이넨(Lynen)이 요약하고 있는 대로, “인간의 이해는 이성만이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즉 인간의 유한한 마음이 이성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신앙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142-43)이다. 지상에서 겪었던 실존적 시련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욕(Job)이 깨달아야 할 것과, 그에 대해 완전한 해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부조리에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the discipline man needed most/ Was to learn his submission to unreason)(ll. 224-25)이라는 사실이다. 구약(舊約)의 가치인 정의가 신약(新約)의 가치인 자비로 변한다는 비유를 담고 있는 『자비의 가면극』에서도 냉소적인 현대의 물질주의자인 키퍼(Keeper)는 나중에 가서 그 태도를 바꾸어 폴(Paul)의 의견에 동의하게 된다. 그는 인간이 오직 신의 자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에게 부족한 것은 용기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용기는 인간의 내면의 공포, 즉 하이데거(Heidegger)가 존재론적으로 인간에게 조건 지어져 있다고 말하는 소위 공허와 무의미를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인 것이다.

나의 실패는 요나의 실패와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 둘 다 가슴속에 용기가 부족하여서
영혼 속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어떤 성취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용기를 필요로 하고 더 필요로 하는 것은
깊은 두려움이 이토록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를 바닥에서 일으켜서
당신이 누이라고 명령하신 십자가 앞에
눕히자고 제가 말한다면, 그것은 동료의식의 발로일 텐데,
그건 마치 제가 말하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요나의 발쪽으로 이동한다*)
자비 말고 불의를 정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My failure is no different from Jonah's.
We both have lacked the courage in the heart
To overcome the fear within the soul

And go ahead to any accomplishment.
Courage is what it takes and takes the more of
Because the deeper fear is so eternal.
And if I say we lift him from the floor
And lay him where you ordered him to lie
Before the cross, it is from fellow feeling,
As if I asked for one more chance myself
To learn to say (*He moves to Jonah's feet*)
Nothing can make injustice just but mercy. (ll. 778-89)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어떤 성취가 아니라 공허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이며, 이러한 믿음이 전체될 때에만 인간의 모종의 성취들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의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도 정의라는 잣대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성”과 “믿음”을 통해 자연과 초자연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진 자는 신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프로스트는 그의 모든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음의 유혹을 뿌리치고 삶을 선택했던 것이며, 끊임없이 삶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추구를 계속해 갔던 것이다.

III

프로스트는 그의 수많은 자연시에서 단순히 자연의 표면적인 아름다움만을 노래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연시라는 틀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다. 비록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즉 경험이 먼저이고 이해는 나중이라는 생각을 확신할 수 없었던 그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충적인 아이러니의 수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이 곧 그가 불가지론자이거나 냉소주의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후기로 가면서 초이성적인 영역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그는 결국 이성으로부터 믿음으로, 그리고 정의로부터 자비로 나아가는 발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천국을 생각한다고 해서 완전히 현실을 무시하기를 원치는 않았으며, 이성의 영역을 초월한 세계에 대한 이해의 방법으로서 부조리에 항복할 수 있는 용기를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현실에 대해 정직한 자세로 삶에 대한 믿음을 노래한 프로스트는 결론적으로 말해 비판적 지성을 갖춘 용기 있는 영적 시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 Cowley, Malcolm. “The Case against Mr. Frost.” James M. Cox,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2. 36-45.
- Frost, Robert. *Complete Poems of Robert Fros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56.
- Gerber, Philip L. *Robert Frost*. New Haven: College & University Press, 1966

- (Twayne's U. S. Authors Series).
- Gould, Jean. *Robert Frost: The Aim Was Song*. New York: Fawcett, 1968.
- Hubben, William. *Dostoevsky, Kierkegaard, Nietzsche, and Kafka*. New York: Macmillan, 1952.
- Lynen, John F. "A Momentary Stay against Confusion." *Robert Frost*. James M. Cox.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2. 177-98.
- Montgomery, Marion. "Robert Frost and His Use of Barriers: Man vs. Nature toward God." James M. Cox.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2. 138-50.
- O'Donnell, W. G. "Robert Frost and New England: A Revaluation." James M. Cox.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2. 46-57.
- Perkins, David. *A History of Modern Poetry: From the 1890s to the High Modernist Mode*. Cambridge: Belknap, 1979.
- Squires, Radcliffe. *The Major Themes of Robert Frost*. Michigan: The U of Michigan P, 1963.
- Sweeney, John D., and James Lindroth. *The Poetry of Robert Frost*. New York: Simon & Schuster, 1965.
- Thompson, Lawrence. *Robert Frost*.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59 (U of Minnesota Pamphlets on American Writers, no. 2).
- . "Robert Frost's Theory of Poetry." James M. Cox.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2. 16-35.
- Warren, R. P. "The Themes of Robert Frost." *Michigan Alumnus Quarterly Review*. 64.10 (1947): 1-11.
- Winters, Yvor. "Robert Frost: Or the Spiritual Drifter as Poet." James M. Cox.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2. 58-82.

홉킨스의 시에 미친 덕슨의 영향

김연규
(강릉원주대학교)

1. 서론

홉킨스의 시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탐색하는 많은 연구는 홉킨스와 시적교류가 없는 사람에서 해답을 찾는다. 예를 들어, 홉킨스의 개체성의 시학에 신학적 토대가 된 것은 중세 철학자 스코투스(Duns Scotus)이고, 예수회 창시자 이냐시오(Ignatius of Loyala)의 묵상이론은 “이나시오적 영성”(Downs 25)의 종교시로 구현되었다. 19세기에도 홉킨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인물은 여럿 언급된다. 범프(Jerome Bump)에 따르면, 홉킨스의 초기 연구들은 “매우 명시적으로 홉킨스에 미친 키츠의 영향을 저평가했다”(33). 러스킨(John Ruskin)은 “종교적 에너지라는 원칙”(Sulloway 81)과 “노동자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과 이상”(김연규 140)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된다. 홉킨스와 같은 삶의 길을 걸었던 뉴먼(John Henry Newman)도 종종 언급된다. 그 결과 홉킨스의 시세계는 동시대와 동떨어진 채 과거의 지적 유산을 받아들이며 숙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홉킨스가 남긴 편지들은 이와 다른 사실을 말해준다. 홉킨스의 편지들은 그가 매우 적극적으로 동료 문인들과 소통하면서 시세계를 발전시켰음을 알려준다.

특히 덕슨은 홉킨스와 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시에 영향을 미친다. 비평이 말하는 것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홉킨스를 위로하고 응원했던 그 편지들은 덕슨이 영시 역사에 준 아주 중요한 간접적 기여라고 인정해야 한다”(Sambrook 120). 이와 더불어 덕슨이 홉킨스의 시세계에 미친 영향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드물게 “덕슨의 시가 홉킨스의 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Boos 315)을 분석한 예가 있으나, 이마저도 두 시인 간의 관계가 홉킨스의 시 세계에 어떤 역동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 이에 홉킨스와 덕슨 사이에 오간 편지들을 모은 『홉킨스와 덕슨의 리처드 왓슨 덕슨의 서간문』(*The Correspondence of Gerard Manley Hopkins and Richard Watson Dixon*, 이후 『서간』이라 함)을 분석 자료로 삼아, 두 시인 간의 상호작용이 홉킨스의 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덕슨이 홉킨스의 시에 미친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고, 홉킨스의 시에 시적 영감의 원천으로써 발휘되었던 덕슨의 영향력을 알아보겠다.

2. 덕슨에게 응답하는 시

홉킨스와 덕슨 사이의 편지왕래가 시작된 것은 1878년 6월이다. 이전까지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은 홉킨스가 소년기를 보낸 하이게이트(the Highgate School)에서 덕슨이 교사로 근무한 잠깐이 전부이다. 덕슨은 1861년 말에 학교에 부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문제로 사임한다”(Sambrook 43). 홉킨스의 표현대로 “약간의 면식”(HD 1)이 있는 정도에 지나

지 않는 관계이다. 그런 디슨의 시를 발견한 후, 홉킨스는 대중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디슨의 초기 시를 매우 좋아한다. 사제라는 삶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디슨 시를 필사해 두었던 것 등이 디슨 시에 대한 열렬한 애호를 증명한다.

이런 이유로 홉킨스는 디슨과 편지를 교환한 후 디슨에게 자신의 시를 보여주고 디슨의 평가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서간』에는 홉킨스가 디슨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시를 고친 예들이 남아있다. 다음은 디슨이 쓴 편지 내용이다.

나는 당신이 보낸 두 개의 소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누구도 그렇게 쓸 수 없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아래 두 행에서

'Nor mouth it, no more mind expressed
But héart héárd of, ghóst guéssed:'

두 번째 행이 [아래처럼] 관습 리듬을 사용한다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But heart heard of it, ghost guessed.

이 시는 매우 중요한, 아주 아름다운, 관념을 전달하는데, 평범함이 부족한 듯 합니다. . . . 그리고, 다른 정말 매력적인 작품에서, 첫 2행은 그 관점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게 진행되죠.

How lovely is the elder brother's
Love, all raced in the other's
Being-

이것이 다음과 같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How lovely is the elder brother
Love, all raced in the other.

이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 비슷한 어떤 것을 당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How lovely in the elder brother
The love, all laced in the other,
Which he bears! I watched this well; &c.

이건 지금 막 떠올라서 제가 써봤습니다. (44-45)

디슨이 언급한 두 편의 시는 「봄과 가을: 어린이에게」 (“Spring and Fall: to a Young Child” *HP* 88-89)와 「형제」 (“Brothers” 87-88)이다. 홉킨스는 디슨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를 수정한다. 현재 「봄과 가을: 어린이에게」에서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떤 말도, 어떤 마음도 표현하지 못하리,
마음이 듣고, 영혼이 짐작하는 것을.

Nor mouth had, no nor mind, expressed
What heart heard of, ghost guessed:

그리고 「형제」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How lovely the elder brother's
Life all laced in the other's,
Love-laced!— . . .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의

삶이 동생의 삶에 완전히 얽힌 것은,
사랑의 얽힘이다!

「형제」는 디슨의 제안과도, 홉킨스의 초안과도, 완벽하게 같지는 않다. 그러나 디슨의 제안이 비중 있게 고려되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홉킨스는 이렇게 완성된 시들은 다시 디슨에게 보낸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홉킨스는 디슨의 시를 가져와 새로운 시로 탄생시킨다. 아래는 디슨의 「자비」(“Mercy” *DP* 116)와 홉킨스의 「리블스데일」(“Ribblesdale” *HP* 90)의 일부이다.

대지, 슬픈 대지, 그대가 방황한다,
밤낮으로,
어둠으로 지친다,
빛으로 지친다.

Earth, sad earth, thou roamest
Through the day and night;
Weary with the darkness,
Weary with the light.

대지, 다정한 대지, 다정한 경관은 몽친 나뭇잎과
고개 숙인 낮은 풀잎으로 하늘에 청원하나,
간청할 입이 없고, 느낄 가슴이 없네,
오로지 존재할 뿐, 그렇게 오래도록 존재할 뿐.

Earth, sweet Earth, sweet landscape, with leavès throng
And louchèd low grass, heaven that dost appeal
To, with no tongue to plead, no heart to feel;
That canst but only be, but dost that long-

전혀 다른 느낌의 시 같지만, 홉킨스의 「리블스데일」은 디슨의 「자비」에 대한 답가이다. 이는 홉킨스가 「리블스데일」을 다 쓴 후 디슨에게 시를 보내면서 한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홉킨스는 디슨에게 “소넷 하나를 보냅니다. “나는 집 하나를 기억하네”로 시작하는 소넷과 짝이라고 생각하며 지은 것입니다. 첫 단어들이 당신의 가사-아마 “대지, 슬픈 대지”였지요-로 시작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라고 말한다(*HD* 108). 홉킨스는 디슨이 “슬픈 대지”라고 부른 것에서 라임과 주제를 가져와 새로운 시를 쓴다. 디슨의 “슬픈 대지”는 현재 고통의 세상을, 홉킨스의 “다정한 대지”는 고통의 세상이 되기 전 상태를 강조한다. 두 사람의 시는 기교와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시인이 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홉킨스의 「리블스데일」이 탄생했음이 분명하다.

3. 디슨에게서 받은 영감의 시

홉킨스는 디슨의 시를 읽으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곧잘 비평한다. 그리고 오래도록 마음에 새겨 자신의 시에 반영한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디슨의 「삶과 죽

음」(“Life and Death” DP 144)과 「먼지와 바람」(“Dust and wind” 164-165)에 대한 홉킨스의 평가와 그것이 반영된 시들이다. 먼저 디슨의 두 편의 시에 대한 홉킨스의 평을 보겠다.

‘삶과 죽음’-저는 죽음이 빛나고 불꽃을 숨기는 것을 죽음에서 개별 존재가 비밀스럽게 보존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먼지와 바람’에서 그러했듯이요). 이에 담긴 매우 미묘하고 창조적인 생각은 자연의 암시를 따르고 있어 초자연적인 설명이 없으며 매우 이교도적인 분위기가 눈에 띕니다. 엠페도클레스 비슷한 어떤 것 그리고 초기 이오니아와 엘레아 학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 . . 산다는 일을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중요해야 합니다. 나는 엠페도클레스나 헤라클레이토스가 좀 더 충격적이라 상상합니다. . . . ‘먼지와 바람’-누군가는 이 시가 생각의 무게로 인해 주저앉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테니슨의 두 목소리(Two Voices)는 훌륭한 리듬, 명석함, 핵심을 가진 철학적 시입니다. 사상은 매우 흥미롭지만, 저는 그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고통을 동반한 즐거움으로 부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생의 교리, 불교의 ‘팔만사천’(Eightyfourthousand), 웨일즈의 우주관(“Abred”)이 이 시와 다른 시에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 . . [‘먼지와 바람’에서] the chilly roses of eve와 archer는 아름다운 이미지군요. 그러나 누군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두 목소리’는 밝은 이미지리를 갖고 있지만, 끝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6페이지가 끝인지, 사라진 페이지가 있는지요? 모티프, 이른바 바람 속의 먼지와 영혼에 의해 영감을 받는 신체와의 유사성은 풍부합니다. 그러나 시가 순수한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HD 61-62)

두 시에 대한 홉킨스의 평가를 요약하자면, 「삶과 죽음」은 첫째, 삶을 지나치게 가볍게 묘사했고, 둘째 초자연적 관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이교도적”이며, 셋째 철학적 관념을 잘못 선택했다. 「먼지와 바람」은 첫째, 테니슨(Alfred Tennyson)의 시를 연상시키고, 둘째, “순수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사실 「먼지와 바람」에 대한 홉킨스의 평은 디슨의 시를 평한 것인지, 테니슨의 시를 평한 것인지 헷갈릴 만큼 글이 우왕좌왕한다. 디슨에게 직접 부정적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 테니슨을 중간중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홉킨스가 결과적으로 들려주고자 한 것은 테니슨의 시가 “환생” “불교,” “웨일즈”와 같은 이교도적 관념을 반영하듯이, 디슨의 「먼지와 바람」도 그렇다는 것이다. 결국 「먼지와 바람」은 홉킨스에게 “순수한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이교도적” 시이다.

홉킨스의 「시빌의 잎이 들려주는 주문」(“Spelt from Sibyl’s Leaves” HP 97-98, 이후 「시빌」이라 함)은 그가 처음 지적했던 삶의 가벼움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삶. 하나를 지키며 도는
별은 불타는 후견인이다.
다른 하나는 내가 마술을 부려
유령으로 만들었다.

Lfe. Round the one on guard
The stars keep burning ward:
The other is made sure
By phantoms I conjure.

. . . 삶의 가장 이른 별, 이른 별들, 중요한 별들이 우리를 굽어본다,
천국을 비추는 불이다. . . .

.

이제 생을 모두 두 무리로, 두 무리로-검은 것, 흰 것으로, 옹고,
그른 것으로, 오직 생각하고, 오직 헤아리고, 마음에 담아라
오직 이 둘이, 오직 이것만 있는 세계를 경계하니, 둘이 말한다,
서로에게,
비틀린 자아, 긴장된 자아가 움츠러들고, 쉴 곳 없는, 생각이
생각과 싸우느라 신음을 내며 갈리는 고문대에 대해.

. . . her earliest stars, earlstars, | stars principal, overbend us,
Fire-featuring heavcn. . . .

.

Now her áll in twó flocks, twó folds-black, white; | right,
wrong; reckon but, reck but, mind
But thése two; wáre of a wórlđ where búť these | twó tell, each
off the óther; of a rack
Where, selfwring, self strung, sheathe- and shelterless, | thoughts
against thoughts in groans grind.

위는 디슨의 「삶과 죽음」 이고, 아래는 「시빌」이다. 홉킨스가 디슨의 시를 엄두에 둔 것은 유사한 이미지리에서도 증명된다. 디슨은 “별”을 “불타는 후견인”이라 칭하고 홉킨스는 “별”을 “불”로 연결한다. 디슨에서 “지키며”의 관념은 홉킨스의 “중요한”과 연결된다.

디슨은 이 시에서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의미적으로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분명하게 구분해 비교적 짧은 1연과 2연은 “삶”(Life)을, 조금 더 긴 3연은 “죽음”(Death)를 이야기한다.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의 형식적 특징을 통해서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홉킨스의 「시빌」은 “산다는 일”이 디슨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기적으로 구분되거나, 삶이 죽음과 비교해 훨씬 더 상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삶 그 자체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삶과 같은 삶, 죽음과 같은 삶이 서로를 “경계”하고 싸운다고 말한다. 그런 세계 속에서 “삶”은 그 자체로 “고문대”에서 “신음을 내며 갈리는” 존재이다. 그 속에서 인간의 “자아” 또한 “신음을 내며 갈”린다.

이상의 설명은 홉킨스가 디슨의 「삶과 죽음」을 두고 철학적 관념을 잘못 선택했다고 한 것으로 이어진다. 홉킨스가 「시빌」에서 말한 이분적으로 대별되는 삶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반영한다.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물들, 그리고 우주 전체는 모두 반대자들의 결합이다. 반대자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 즉 이들은 서로 지향하며, 서로 보완하여 조화를 이룬다. 반면에 전체가 존속하는 것은 오직 반대자들 상호간에 서로 대립하고 배척하는 힘이 유지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바로 이 점에서 그 부분들 상호간의 결합은 온전히 못하며 불협화음이다”(프리도 릭켄 60). 또한 “인식의 두 단계인 감각 경험과 이해는 헤라클레이토스에게는 실재의 두 층에 상응한다”(59). 「시빌」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엠페도클레스나 헤라클레이토스가 좀 더 충격적이라 상상”한 것을 시적으로 구현해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마음에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라는 인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빌」은 홉킨스가 디슨의 시를 두고 제안했던 대로 헤라클레이토스의 관념을 적용했

기에 삶의 이중적 본질이 충분히 드러난다. 이로 인해 어두운 삶과 세계의 본질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에 비해 홉킨스의 특성인 종교성은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를 종교적이라 해석하는 연구는 홉킨스의 직업과 시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얻어내는 추론이다. 이것이 없다면 이 시는 오히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신탁!”(Our tale, O our oracle!)과 같은 시행에서처럼, “이교도적”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 홉킨스의 「저 자연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이며 부활의 위안이다」(“That Nature is a Heraclitean- Fire and of the comfort of the Resurrection” *HP* 105, 이후 「저 자연은」이라 함)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적 관념을 빌려와 “이교도적”이 아닌 시를 창조한 예가 된다.

「저 자연은」이 덕슨으로 인해 비롯된 영감이 지속된 결과라는 것은 홉킨스가 남긴 편지들을 통해서 증명된다.

마지막으로, 나는 언제나 당신의 고답주의가 모든 현대 시인의 고답주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한 가장 고상하다고 믿는) 것이라고, 스타일 측면에서 그 자체로 생생한 아름다움 유일한 것이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HD* 156)

나는 그리스와 라틴 문헌을 좀 읽어야 합니다. 최근에 내가 당신에게 보낸,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에 관한 소넬에는 그리스 초기 철학이 상당히 많이 녹아있습니다. 그러나 응축된 정수는 진정한 그리스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HB* 291)

첫 번째는 홉킨스가 덕슨의 시에 나타난 고답주의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하는 부분이다. 덕슨의 고답주의는 구체적으로 라파엘 전파가 추구하는 중세주의를 말한다. 라파엘 전파는 “자신들을 ‘초기 기독교 예술’의 실행자라고 주창”(티머시 힐턴 58, 재인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자신들의 작품에서 종교성을 배제하기 시작한다. 학창 시절 라파엘 전파에서 시를 시작한 덕슨도 초기시에서는 기독교적 분위기를 강하게 드러냈으나, 후기로 갈수록 종교성을 탈색시킨다. 종교적으로 신성한 분위기를 배제한 채 고답적 분위기를 추구하는 것은 이교도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홉킨스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다. 두 번째 편지는 1888년 7월 덕슨에게 “고답주의”를 지적하고 약 두 달 후의 것으로, 브리지스(Robert Bridges)에게 「저 자연은」에 대한 평을 요청한 것이다. 두 편지는 홉킨스의 너리에 덕슨의 시에 담긴 이교도적 특징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헤라클레이토스와 “이교도적”이 아닌 시의 조합에 대한 열망이 오래도록 지속된 것임을 보여준다.

비교를 위해 먼저 덕슨의 「먼지와 바람」을 보겠다.

원자가 원자로 이루어진 죽음의 세계에서 진존재를 되찾는 것은
삶의 규칙인가? 그러면 삶은 무엇이고, 영혼은 무엇인가
사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힘은 어디로 물러가는가?
눈이 흐려지면 불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

오, 먼지, 그대는 여전히 인간에게, 지상의 종족에게 믿음직하다.
그대의 어둡고 무서운 침묵이 다른 탄생을 막는다.
그래서 그 미래의 탄생은, 이전 것들이 존재하니,
고통을 동반하는 즐거움인 저 부활이 언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오 바람의 무엇이 그대의 많은 것을 들어 올리는가?
그도 역시 지상에, 지상의 불행한 종족에 믿음을 주는가?
바람은 소리 못 내는 먼지의 목소리처럼 숨 쉬는데, 고통을 동반하는
즐거움의 이야기에, 정의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이야기에, 만족하는가?

'tis still the law of things that the atom reseek the whole
In the atom-built world of death: but what of the life, of the soul?
Whither retires the force, that gradualleaves the limb?
Whither returns the fire, when the eye begins to dim?

. . . .

Oh, dust, thou art faithful still to man, to the tribes of earth:
Thy dark and dreadful silence forbiddeth not other birth;
And that future birth shall be, for the former things remain,
Ever that resurrection, which is unto joy with pain.

But now, oh what of the wind, that uplifteth thy multitudes?
Is he too, faithful to earth, and to earth's unhappy broods?
Is the wind content to breathe, like the voiceless voice of the dust,
The story of joy with pain, and of justice made unjust?

이 시에서 “먼지”는 “바람의 형태”를 취하고(“The dust takes form of the wind”) “바람”은 “먼지의 형태”를 취한다(“The wind takes form of the dust”). 이 때문에 “먼지”와 “바람”은 상호의존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먼지”는 형체를 가지고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바람”은 “먼지”가 없다면 형체도 없다. 그래서 “바람”은 인간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디슨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원자”가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삶의 규칙”이라고 말한다.

“원자”와 “규칙”에 관한 생각은 홉킨스가 디슨의 시를 두고 “초자연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19세기 후반 가톨릭은 “원자”를 사물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규정하는 것을 반종교적이라 규정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저항하던 동시대 가톨릭은 “신이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암시하는 모든 이론”을 거부하고 “신이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이 하나이며 같다는 관념”도 인정하지 않는다(Zanielo 87). 이와 연장 선상에서 “어떤 가톨릭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 루크레티우스(Lucretius)를 추종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는 원자론을 주창하는 사람 중의 하나였고, “원자들이 내재적인 세 속성-크기, 무게, 그리고 형태-를 갖고 있다고 분명하게 암시했다”(Deutsch 99). 디슨이 「먼지와 바람」에서 “사지가 무너지기 시작해도, 그 덩어리와 크기는 남는다”(The limb begins to fail, but retains its bulk and size)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관념을 반영한다. 홉킨스가 테니슨을 떠올린 것도 테니슨이 “진지하게 루크레티우스의 윤리학, 과학, 시적 방식의 본질적 특징을 재현”(Wilner 348)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먼지와 바람」은 “바람”과 “먼지”와 “불”을 혼재하면서 이야기를 길게 이어간다. 이는 우주가 공기, 불, 물, 흙의 4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본 엠펬도클레스의 철학을 반영한다. 홉킨스가 이 시를 두고 “순수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고 평한 것은 이처럼 철학적으로 여러 관념이 얽혀 이야기를

명료하게 이끌어가지 못한 것 때문이다. 그로 인해 시가 “이교도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홉킨스에게 “순수”는 언제나 신앙 그 자체로 귀결되는 성질이다.

홉킨스의 「저 자연은」은 디슨처럼 4요소를 사용하나, 훨씬 더 “충격적”이고 “순수한 즐거움”을 안겨주는 종교시가 된다.

활기 넘치는 맑은 바람이 즐겁게, 지난날의 폭풍으로 헐벗은 땅을 휘감고,
썩어지고, 두들겨, 물고랑을 없앤다, 웅덩이와 움푹 팬 표면에 물 마르게 한다
진흙을 흘트려 짜내니, 흙덩이, 마른 흙, 먼지가 된다. . .
.....
인간, 얼마나 빨리 불의 상처가, 맘에 새겨진 표식이 사라지는가!
둘 다 불가해하다, 모두가 어마어마한 어둠 속에
잠겨있다. 오 연민과 분노! 인간의 형상은 빛난다,
순수하게, 인간의 형상은 여러 개 아닌
별 하나로 빛난다, 죽음은 검은색으로 물들인다, 그의 어떤 것도
결국 그렇게 냉혹하게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광막함이 흐려지고, 시간은 균형을 맞추어 박동한다. 충분하다! 부활이다,

delightfully the bright wind boisterous | ropes, wrestles, beats earth bare
Of yestertempest's creases; | in pool and rutpeel parches
Squandering ooze to squeezed | dough, crust, dust;
.....
Man, how fast his firedint, | his mark on mind, is gone!
Both are in an unfathomable, all is in an enormous dark
Drowned. O pity and indig | nation! Manshape, that shone
Sheer off, disseveral, a star, | death blots black out; nor mark
Is any of him at all so stark
But vastness blurs and time | beats level. Enough! the Resurrection,

위의 시행에서 알 수 있듯이, 홉킨스는 “바람,” “흙,” “물,” 그리고 “불”의 4요소를 모두 제시한다. 그러나 4요소는 디슨에서와 달리 흩어지지 않고 “불” 하나의 이미지로 집중된다.

“불”은 헤라클레이토스가 우주 만물의 원질이라 규정한 것이다. 사실 디슨의 시에 담겨 있는 루크레티우스나 엠페도클레스, 홉킨스의 시에 담겨 있는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두 기독교 근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교도적인 것들이다. 그럼에도 굳이 홉킨스가 디슨에게 헤라클레이토스를 추천하고, 또 자신이 헤라클레이토스를 시의 소재로 가져온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짐작된다. 먼저 4요소를 이리저리 오가는 디슨의 시보다 “불” 하나로 이미지를 모아 가는 것이 그의 말대로 시에 좀 더 “충격적”인 효과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 좀 더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a process)로 세계의 관념을 숙고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질서있는 것으로, 그것은 법칙에 의해 통제된다. 세계적 이성, 즉 로고스가 있으며, 그것이 모든 사물을 규정하고 모든 사물을 규율한다. 따라서 우주적 유동의 이해는 영원히 주문하는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야 한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으며, 반대로 영원히 영원한 원칙이다. 모든 변화 가능성에서 영원한 존재를 헤라클레이토스는 불로 상징했다”(Smith 125).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홉킨스가 추구하는 단일하고도 영원한 종교적 상징을 암시하기에 더 적합하다. “불”

은 홉킨스가 믿는 단일하고 영원한 종교적 상징으로 변용되기에 최적이다.

그래서 홉킨스는 덕슨과 마찬가지로 “먼지”와 “바람,” “물”과 “불” 그리고 “부활”을 다름에도, 덕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덕슨에서 “바람”은 인간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부활”은 “원자로 이루어진 세계”의 자연 “법칙”일 뿐이다. 반면 홉킨스에서 “바람”은 진창이 된 대지를 말려주는 “활기찬” 존재이다. “먼지”는 뒤이어 오는 “죽음을 예견하게 하지만”(Mackenzie 494)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적 존재”(What Christ is)가 된다. 형식적으로도 덕슨은 4행 18연의 정형시를 택했지만, 홉킨스는 한 개 연을 택한다. 비록 한 개 연이지만 “스프링리듬과 여러 아웃라이드outrides와 급한 운보, 두 개의 코다”(Mackenzie 493)로 구성해 매우 자유롭고, 분방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는 덕슨의 4행 18연의 단조롭고 지루한 구성보다, 여러 요소가 얽히고설킨 것처럼 보이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계를 암시하기에 적합하다. 그 불규칙성과 자유분방함이 “그리스도적 존재” 하나로 귀결될 때 느껴지는 신선한 충격을 강조하기에도 적합하다. 홉킨스의 「저 자연은」은 덕슨의 시에서 얻은 영감이 없었으면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를 시이다.

4. 결론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과 달리 홉킨스의 시세계는 목상을 통해 홀로 숙성된 것이 아니다. “홉킨스는 젊은 남성 작가들과 시를 교환하는 맥락 속에서 시를 연습했다”(Dellamora 48). 이는 홉킨스가 동료 시인들과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를 서로 교환하고, 서로의 비평에 귀 기울이는 과정을 거치며 시인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갔다는 말이다. 홉킨스의 시가 동료 시인 누구의 것보다 비평으로부터, 대중으로부터, 더 높이 평가받는 것은 그의 남다른 개성과 천재성 때문이다. 그러나 고단하고 치열한 삶을 지나는 동안 여러 번의 절필에도 끝내 시를 중단하지 않게 만든 힘, 새로운 시를 쓰고자 하는 심리적 추동은 문인 동료들에서 일정 부분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덕슨의 시와 덕슨의 시에 대한 홉킨스의 비평, 그리고 그것에서 얻은 영감으로 완성된 홉킨스의 시가 그것을 증명한다.

□ Works Sited

김연규. 「홉킨스의 노동하는 인물과 러스킨」. 『영어영문학 연구』 55.3 (2013): 137-164.

프리도 릭켄. 김성진 역. 『고대 그리스 철학』. 파주: 서광사, 2000.

티머시 힐턴. 나희원 역. 『19세기 복고주의 운동: 라파엘 전파』. 서울: 시공사, 2006.

Boos, Florence S. “Christian Per-Raphaelitism: G. M. Hopkins’ Debt to Richard Watson Dixon.” *Victorian Poetry* 16.4 (1978): 314-322.

Bump, Jerome. “Hopkins and Keats.” *Victorian Poetry* 12.1 (1974): 33-43.

Dellamora, Richard. *Masculine Desire: The Sexual Politics of Victorian Aestheticism*. Chapel Hill and London: U of North Carolina P, 1990.

Deutsch, Rosamond E. The Ancient and Modern Atom. *The Classical Journal*. 41.3 (1945): 97-103.

Dixon, Watson Dixon. *The Collected Poems of Canon Richard Watson Dixon 1833-1900*.

- Eds. Shirley M. C. Johnson and Todd K. Bender. New York: Peter Lang, 1989.
Print. [DP로 표기함]
- Downes, David A. *Gerard Manley Hopkins: A Study of His Ignatian Spirit*. New York:
Bookman Associates, 1959.
- Hopkins, Gerard Manley. *The Correspondence of Gerard Manley Hopkins and Richard
Watson Dixon*. Ed. Claude Colleer Abbot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Print. [HD로 표기함]
- _____. *The Letters of Gerard Manley Hopkins to Robert Bridges*. Ed. Claude Colleer
Abbott. London: Oxford UP, 1955. Print. [HB로 표기함]
- _____. *The Poems of Gerard Manley Hopkins*. Ed. W. H. Gardner and N. H.
Mackenzie. Oxford: Oxford UP, 1984. Print. [HP로 표기함]
- Mackenzie, Norman H. "Commentary." *The Poetical Works of Gerard Manley Hopkins*.
vol. 2. Oxford: Clarendon Press, 1990. 213-513.
- Sambrook, James. *A Poet Hidden: A Life of Richard Watson Dixon 1833-1900*. London:
University of London & The Athrone Press, 1962.
- Smith, Constance I. "Heraclitus and Fir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27.1 (1966):
125-127.
- Suloway, Alice. G. *Gerard Manley Hopkins and the Victorian Temp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 Wilner, Ortha L. "Tennyson and Lucretius." *The Classical Journal* 25.5 (1930): 347-366.
- Zaniello, Tom. *Hopkins in the Age of Darwin*. Iowa : Iowa UP, 1988.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 나타난 문학적 명성에 대한 연구

추지형
(경상대학교)

I.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 1830-1886)은 그녀가 스스로 사회와의 많은 교류를 단절하고 시작 활동을 왕성하게 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왔다. 생전에는 시를 정작 7편 정도 밖에 출판하지 않았으며, 사후에 동생이 1,700여 편이 넘는 시를 발견하고 후에 편집자들에 의해 출판하게 된다(Martin 110). 그래서 사람들은 엠허스트(Amherst)에서 은둔하며 흰옷만 입고 지내고 시작 활동에 몰두했던 디킨슨을 신화적 존재로 만들기도 하고, “뉴잉글랜드 수녀”(a New England Nun)로 부르기도 하였다(Gilbert 23).

본 연구는 이러한 디킨슨의 자발적 고립과 은둔 생활에 있어서 그녀가 가졌던 문학적 명성에 관한 생각은 어떠했을지 디킨슨의 시를 통해서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디킨슨의 시 중 명성(fame)을 소재로 삼고 있는 시를 살펴보면, 명성이라는 소재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디킨슨의 시에서 나타나는 명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디킨슨이 왕성한 시 창작에 몰두했던 만큼, 문학적 명성으로 인식하고 이해해 보고자 한다. 디킨슨은 시인으로서 아주 높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시를 10편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1862년 당시 *Atlantic Monthly*의 편집장이었던 히긴슨(Thomas Wentworth Higginson)이 유망 작가를 향해 쓴 글 “Letter to a Young Contributor”를 읽고 자신의 시 네 편을 보내(Martin 15) 발표하려고 했던 점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명성에 대한 양가감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II.

디킨슨은 히긴슨에게 자신의 시의 시적 화자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그녀의 시들은 많은 면에서 그녀의 경험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그녀의 개인적 상황이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드러난다(Habegger 455). 따라서 명성에 대한 디킨슨의 시를 읽어보고 디킨슨의 명성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떠했을지 사유해보고자 한다.

디킨슨의 「나는 아무도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I’m Nobody! Who are you?” (Fr260)는 알려진다는 것을 선호하기 보다 아무도 되지 않는 것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아무도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도 - 아무도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한 쌍이군요!
말하지 마세요! 그들이 떠들고 다닐 거예요-당신도 알잖아요!

얼마나 따분해요 - 되는 것이 - 누군가가!
얼마나 공공연한가요 - 개구리마냥 -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한다든 것이 - 긴긴 6월 내내 -
찬양하는 습지에게!

I'm Nobody! Who are you?
Are you - Nobody - too?
Then there's a pair of us!
Don't tell! They'd advertise - you know!

How dreary - to be - Somebody!
How public - like a Frog -
To tell one's name - the livelong June -
To an admiring Bog!

디킨슨은 세상에서 누군가가 되어산다는 것은 정말 따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적인 공간 없이 습지의 개구리처럼 너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도 아니다’라고 하며, 자신이 아무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람들은 그 사실을 떠들고 다닐 것이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있다. 이 시를 통해 디킨슨은 “누군가가 된다는 것은 알려지고 작품이 출판되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인데, 그 찬사가 늪에서 온 것이라면 과연 좋은 것인지” 묻고 있다 (Martin 117). 1인칭 대명사인 나는 어느 누구와 같지 않으며, 이 적대적인 그들에 의해 둘러싸여있고, 경멸스러워 보이는 습지에 둘러싸인 “외딴 독립체”(Salska 37)인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자신의 독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Salska 37). 누군가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외침의 시 일 수도 있지만 비평가, 편집자 등 누군가로부터 다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외침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알려진다는 것, 즉 명성에 대한 양가적 마음의 드러남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따분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누군가의 “이름”(name)이 말해지고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admiring)의 부작용 때문에 그걸 맛보기 전에 피하려는 방어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나아가, 디킨슨의 “명성”(fame)에 대한 노래한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명성은 변덕스러운 음식이네」 (“Fame is a fickle food”)(Fr1702)는 명성의 변덕스러움과 위험성을 묘사하면서 명성의 해로운 측면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명성은 변덕스러운 음식이네
움직이는 접시 위에 놓인
한 번은 명성의 테이블이
손님을 위해 차려지지만
두 번째로는 차려지지 않네.

명성의 부스러기를 까마귀들이 세심히 보고
알곶은 까옥까옥 소리로

그것을 지나쳐 날아가며
농부의 옥수수밭으로 가네 -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죽지.

Fame is a fickle food
Upon a shifting plate
Whose table once a
Guest but not
The second time is set.

Whose crumbs the crows inspect
And with ironic caw
Flap past it to the
Farmer's corn
Men eat of it and die.

명성이라는 것은 자리가 정해져 있다기 보다 가변적인 것이며, 한순간에 누군가에게 명성이 주어졌다가도, 나중에 그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법이다. 여기서 인간과 까마귀가 대조를 이루는데, 까마귀는 명성에 관심은 가지나 그냥 지나치고 얻으려 하지 않지만, 농부로 대변되는 인간은 명성을 결국엔 차지하나 죽게 되는 대조적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인간은 명성이 변덕스럽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국에는 명성을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 다른 디킨슨의 시 중 명성에 관한 시 「명성이란 머무르지 않는 것이지 -」(“Fame is the one that does not stay”)(Fr1507)는 명성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 시에서도 역시 명성은 한 곳에 머무르는 존재로 그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앞선 시와 크게 다른 점은 단순히 명성의 부정적인 측면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런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명성을 원한다는 인간의 명성에 대한 양가적 모습을 잘 나타낸다.

명성이란 머무르지 않는 것이지 -
그것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고 말거야.
혹은 평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선
끊임없이 올라갈거야 -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지
초기의 번개 -
전기의 초기 짝
그러나 우리는 불꽃을 원하네

Fame is the one that does not stay -
Its occupant must die
Or out of sight of estimate
Ascend incessantly -

Or be that most insolvent thing
A Lightning in the Germ -
Electrical the embryo
But we demand the Flame

명성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죽거나, 평가가 없을 땐 씬 없이 그 사람의 명성이 올라가거나, 혹은 파산의 지경에 이르러 명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이 될 것이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명성을 가진 자가 “죽는다”고 한 것 과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대조적 의미를 가지며 명성에 대한 양가감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명성을 가지는 것이 해로울지라도 “하지만 우리는 그 불꽃을 원한다”라고 하며 끝을 맺는데 이는 명성이 해로우니 갖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갖고 싶은 모순된 마음이 드러난다.

시의 첫 부분에서 명성은 머무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죽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지만 사람들은 명성을 원한다는 것이 인간의 명성에 대한 양가적 면모를 잘 드러내며, 디킨슨 개인의 상황이 그녀의 시에 솔직하게 드러난다고 했던 하베거(Habegger 455)의 주장처럼, 인간이었던 시인 디킨슨도 명성이 독이 될 것을 알지만 그것을 원하기도 했으리라는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디킨슨은 「명성은 꿀벌이네」 (“Fame is a bee.”)(Fr1788) 시에서도 명성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난다.

명성은 꿀벌이네.
그것은 노래를 가지고 있지 -
그것은 침을 가지고 있지 -
아, 또한, 그것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 -

Fame is a bee.
It has a song -
It has a sting -
Ah, too, it has a wing.

또한 디킨슨은 “명성은 꿀벌이네. / 그것은 노래를 가지고 있지 - / 그것은 침을 가지고 있지 - / 아, 또한, 그것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 -” (Fr1788)라고 표현하며 명성에 대한 양가적이면서도 모순적인 측면을 담아내고 있다. 명성이라는 것은 긍정적 측면으로 대변되는 노래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독이 될 수 있는 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III.

밀러(Miller)가 주장하듯이 디킨슨의 시는 독자로 하여금 그녀의 시를 충분히 이해했다는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 (19). 즉, 디킨슨의 시를 아무리 여러 번 읽고 의미를 알았다고 생각

해도 무언가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알듯 모를듯한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 (Miller 19)같은 존재가 바로 에밀리 디킨슨의 시라는 것이다. 디킨슨의 오랜 친구이자 선생님이었던 히긴슨(Higginson) 또한 에밀리 디킨슨을 “너무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고 했다 (Martin 20). 이처럼 수수께끼 같은 존재인 디킨슨의 시는 독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도 디킨슨의 전기를 바탕으로 “영혼이 [자신의] 사회를 선택”하고, 누군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따분한”일인지 반문한 디킨슨도 “불꽃”같은 명성을 원하는 양가적 혹은 모순적 면모가 있었음을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Works Cited

- Dickinson, Emily. *The Poems of Emily Dickinson: Reader's Edition*. Ed. Ralph W. Franklin.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Harvard UP, 1999. Print.
- Habegger, Alfred. *My Wars Are Laid Away in Book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2. Print.
- Juhasz, Suzanne. *The Undiscovered Continent: Emily Dickinson and the Space of Mind*. Indiana UP, 1983. Print.
- Martin, Wendy.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Emily Dickinson*. Cambridge, Cambridge UP, 2007. Print.
- Miller, Cristanne. *Emily Dickinson: A Poet's Grammar*. Harvard UP, 1987. Print.
- Salska, Agnieszka. *Walt Whitman and Emily Dickinson: Poetry of the Central Consciousness*. U of Pennsylvania Press. 1985. Print.
- Wolosky, Shira. *Emily Dickinson: A Voice of War*. Yale UP, 1984. Print.

Session 4

언어학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쪽수
13:10- 13:45	강남길	극동대	On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A Corpora-based Analysis	159
13:45- 14:20	박준석	세명대	Syntactic Peculiarities of Some Control Constructions	175
14:20- 14:40	휴식			
14:40- 15:15	신성균	강원대	A Diachronic Syntactic Study of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181
15:15- 15:50	이두원	한국 교통대	Negative Island Effects in Sluicing-like Construction	189

A Corpora-based Analysis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Namkil Kang
Far East University

The ultimat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frequency analysis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and the British National Corpus (BNC). A major point to note is that *continue -ing* is the most preferred by Americans, followed by the type *go on -ing*, and the type *carry on -ing*, in that order. A further point to note is that the type *go on -ing* is the most preferred one in the fiction genre, whereas the types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are the most preferable ones among Americans in the blog genre. When it comes to the BNC, the type *go on -ing* is the most preferred by the British, followed by *continue -ing*, and *carry on -ing*, in that order.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go on -ing* is the most frequently used one in the fiction genre of the BNC, that the type *carry on -ing* is the most commonly used one in the spoken genre, and that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most widely used one in the newspaper genre except the misc genre. The COCA clearly indicates that the expression *go on living* is the most preferable one among Americans, followed by *go on being*, *go on doing*, *go on talking*, *go on walking*, *go on fighting*, *go on believing*, *go on making*, *go on thinking*, and *go on pretending*, in that order. The COCA clearly shows, on the other hand, that the expression *carry on doing* is the most preferable one among Americans, followed by *carry on being*, *carry on working*, *carry on living*, *carry on reading*, *carry on using*, *carry on making*, *carry on playing*, *carry on believing*, and *carry on fighting*, in that order. Also, the COCA clearly shows that *continue working* is the most preferable one for Americans, followed by *continue doing*, *continue using*, *continue playing*, *continue making*, *continue being*, *continue reading*, *continue talking*, *continue living*, and *continue taking*, in that order.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types *go on -ing*, *carry on -ing*, *continue -ing*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ir preference and use.

Keywords: corpus, COCA, BNC, type, token, go on -ing, carry on -ing, continue -ing

1. Introducti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frequency analysis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and

the British National Corpus (BNC). As Murphy (2016, 2019) points out, “go on doing something means continue doing the same thing” (Murphy 2019: 112). This paper argues that the three types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are synonymously used, but they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ir preference and use. In this paper, we aim to consider the genre frequency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COCA. More specifically, we consider which one is the most preferred one in the eight genre of the COCA. On the other hand, we aim to observe the genre frequency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BNC. We examine which one is the most preferred one in the seven genre of the BNC. In addition, we compare the results from the COCA and those from the BNC to observe national variation. Finally, we aim to examine the collocations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COCA. We visualize the collocations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by using the software NetMiner, which indicates that these three type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The organizat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n section 2.1, we argue that *continue -ing* is the most preferred by Americans, followed by the type *go on -ing*, and the type *carry on -ing*, in that order. We further argue that the type *go on -ing* is the most preferred one in the fiction genre, whereas the types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are the most preferable ones among Americans in the blog genre. In section 2.2, we contend that the type *go on -ing* is the most preferred by the British, followed by *continue -ing*, and *carry on -ing*, in that order. We maintain that *go on -ing* is the most frequently used one in the fiction genre of the BNC, that the type *carry on -ing* is the most commonly used one in the spoken genre, and that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most widely used one in the newspaper genre except the misc genre. In section 2.3, we provide a collocation analysis of *go on*, *carry on*, and *continue* in the COCA. We argue that the expression *go on living* is the most preferable one among Americans, followed by *go on being*, *go on doing*, *go on talking*, *go on walking*, *go on fighting*, *go on believing*, *go on making*, *go on thinking*, and *go on pretending*, in that order. We further argue, on the other hand, that the expression *carry on doing* is the most preferable one among Americans, followed by *carry on being*, *carry on working*, *carry on living*, *carry on reading*, *carry on using*, *carry on making*, *carry on playing*, *carry on believing*, and *carry on fighting*, in that order. Also, we maintain that *continue working* is the most preferable one for Americans, followed by *continue doing*, *continue using*, *continue playing*, *continue making*, *continue being*, *continue reading*, *continue talking*, *continue living*, and *continue taking*, in that order.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three types *go on -ing*, *carry on -ing*, *continue -ing*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ir preference and use.

2. A Genre Analysis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2.1. A Genre Frequency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COCA

In what follows, we aim to examine the genre frequency of the types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Table 1 indicates the genre frequency of these types in the COCA:

Table 1 Genre Frequency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COCA

Genre	ALL	BLOG	WEB	TV/M	SPOK	FIC	MAG	NEWS	ACAD
Go on -ing									
Carry on -ing	284	96	53	33	42	21	12	10	17
Continue -ing									

An important question that naturally arises is “Which type is the most preferred by Americans?” Table 1 clearly indicates that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most frequently used in America, followed by the type *go on -ing*, and the type *carry on -ing*, in that order. More specifically, the overall frequency of the type *continue -ing* is 11,023 tokens (the highest frequency among three types), that of the type *go on -ing* is 1,912 tokens, and that of the type *carry on -ing* is 284 tokens (the lowest frequency among three types). This in turn suggests that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most preferable one among Americans, followed by the type *go on -ing*, and the type *carry on -ing*, in that order. Thu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se three type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ir preference.

An immediate question is “In which genre is the type *go on -ing* the most widely used one among the eight genres of the COCA? Table 1 clearly shows that the type *go on -ing* is the most commonly used in the fiction genre of the COCA. This may imply that American writers prefer the type *go on -ing* the most. When it comes to the type *carry on -ing*, it is the most frequently used one in the blog genre of the COCA. This in turn indicates that American bloggers prefer the type *carry on -ing* the most. With respect to the type *continue -ing*,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continue -ing* is the most commonly used in the blog genre of the COCA. This indicates that the types *continue -ing* and *carry on -ing* show the same pattern with respect to their frequency in the blog genre (they both show the highest frequency in the blog genre).

From this, it is clear that American bloggers prefer using the types *continue -ing* and *carry on -ing*. It should be pointed out, however, that the type *continue -ing* is preferred over the type *carry on -ing* by American bloggers. To sum up, the type *go on -ing* is the most preferred one in the fiction genre, whereas the types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are the most preferred ones in the blog genre. That is to say,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show the same pattern with respect to the blog genre, whereas *go on -ing* shows a different pattern. This in turn implies that the type *go on-ing*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types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its us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type *go on -ing* is the second most preferred one in the TV/movie genre. More specifically, the frequency of *go on -ing* is 315 tokens in the TV/movie genre. This may imply that American celebs prefer using the type *go on -ing*. On the other hand,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types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are the second most preferred ones in the web genre. Most interestingly, the types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show the same pattern with respect to the web genre of the COCA, but they are sligh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ir preference. That is, the type *continue -ing* is preferred over the type *carry on -ing* by Americans in the web genre of the COCA. More specifically, the frequency of *continue -ing* in the web genre is thirty six times higher than that of *carry on -ing*. This suggests that Americans prefer using *continue -ing* to *carry on -ing* in cyberspace.

It is noteworthy that the type *go on -ing* is the third most preferred one in the web genre. On the other hand, the type *carry on -ing* is the third most preferred one in the spoken genre, whereas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third most preferred one in the newspaper genre. From all of this, it is clear that the type *go on -ing* is much used in cyberspace, that the type *carry on -ing* is the preferred one in daily conversation, and that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preferable one for American journalists. This in turn implies that these three type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ir use. Additionall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three types rank third in the different genres and that American preference towards these three types is different. That these three types rank third in the different genres suggests that they are used differently by Americans. When it comes to American preference,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most preferred by Americans, followed by the type *go on -ing*, and the type *carry on -ing*, in that order.

It is interesting to point out that the type *go on -ing* is the fourth most preferred one in the blog genre. The frequency of *go on -ing* in the blog genre is 223 tokens and accounts for almost 11% of eight genres. This in turn suggests that American bloggers prefer using the type *go on -ing*.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y do not use it as much as the type *continue -ing* in the blog genre. The frequency of *continue -ing* in the blog genre is almost ten times higher than that of *go on -ing*.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type *carry on -ing* is the fourth most preferred one in the TV/movie genre. The frequency of *carry on -ing* in the TV/movie genre is 33 tokens and accounts for 11% of eight genres. This in turn indicates that American celebs like using the type *carry on -ing*. However, they do not use it as much as *go on -ing* and *continue -ing*. The frequency of *continue -ing* in the TV/movie genre is sixteen times higher than that of *carry on -ing*. Interestingly, the frequency of *go on -ing* in the TV/movie genre is nine times higher than that of *carry on -ing*.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fourth most preferred one in the magazine genre. The frequency of *continue -ing* in the magazine genre is 1,695 tokens and accounts for 15% of eight genres. This in turn implies that American journalists are keen on using *continue -ing*. Most importantly,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most preferred by American journalists in the magazine genre, followed by *go on -ing*, and *carry on -ing*, in that order. To sum up, *go on -ing* ranks fourth in the blog genre, *carry on -ing* ranks fourth in the TV/movie genre, and *continue -ing* ranks fourth in the magazine genre. From all of this, it is clear that these three type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ir use.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go on -ing* has the lowest frequency in the academic genre, that *carry on -ing* has the lowest frequency in the newspaper genre, and that *continue -ing* has the lowest frequency in the TV/movie genre. This indicates that they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ir use. Finally, Figure 1, Figure 2, and Figure 3 indicate the percentage of the use of these three types in eight genres:

Figure 1 Percentage of the use of go on -ing in eight gen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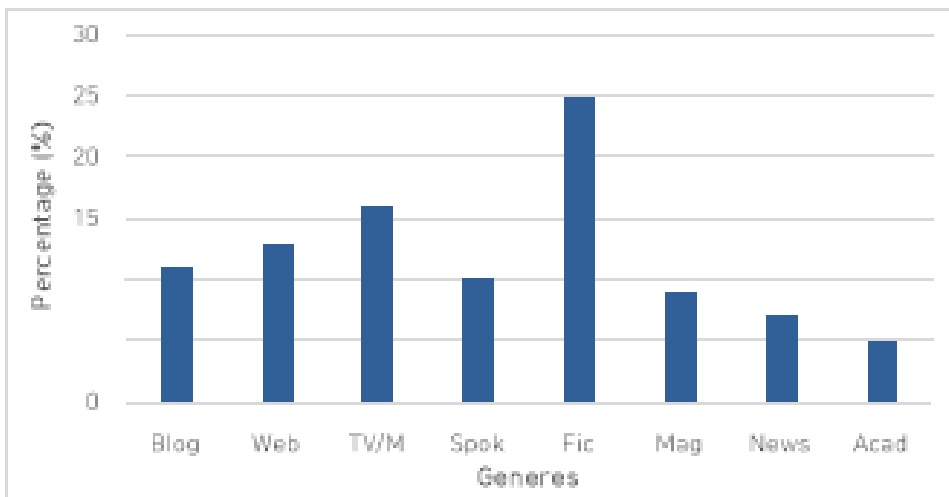


Figure 2 Percentage of the use of carry on -ing in eight gen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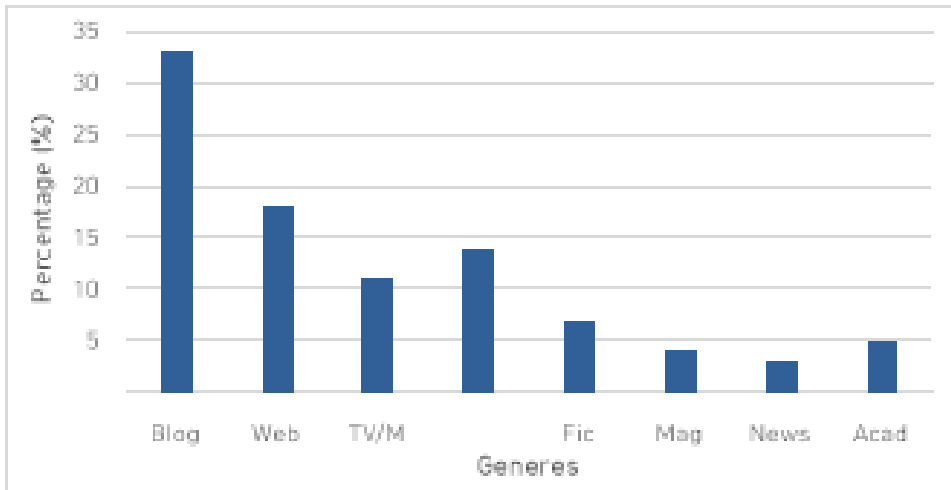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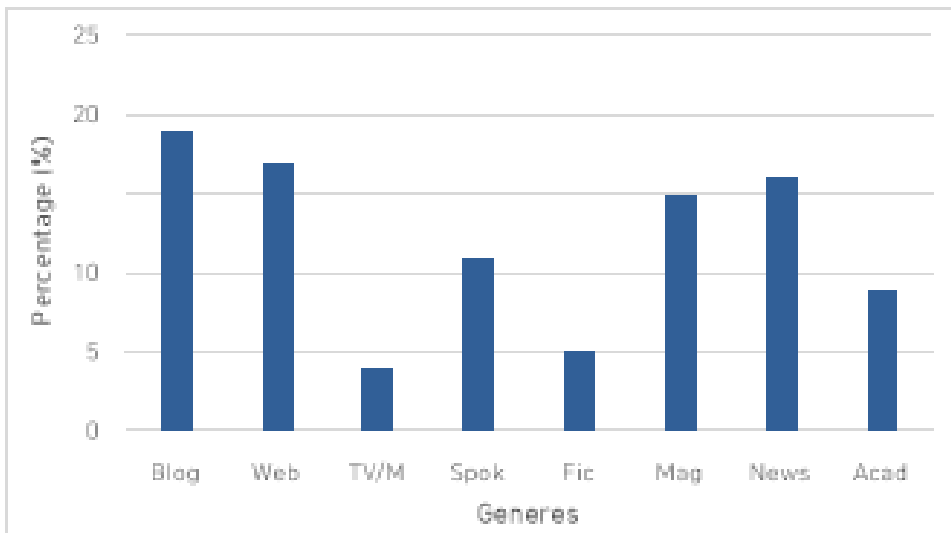


Figure 3 Percentage of the use of continue -ing in eight genres



2.2. A Genre Frequency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BNC

In the following, we examine the genre frequency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British National Corpus.

Table 2 Genre Frequency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BNC

Genre	All	SPOK	FIC	MAG	NEWS	NON-ACAD	ACAD	MISC
Go on -ing								
Carry on -ing	348	75	53	41	74	35	9	61
Continue -ing								

An important question is “Which type is the most preferred by the British?” Table 2 clearly shows that the type *go on -ing* is the most frequently used one in the UK, followed by *continue -ing*, and *carry on -ing*, in that order. This in turn suggests that *go on -ing* is the most preferred by the British, followed by *continue -ing*, and *carry on -ing*, in that order. Interestingly, the British prefer using *go on -ing* the most, whereas Americans prefer using *continue -ing* the most. This suggests that Americans and the British show a different pattern with respect to the use of *go on -ing* and *continue -ing*. It should be noted, on the other hand, that Americans and the British show the same pattern with respect to the use of *carry on -ing*. That is to say, the type *carry on -ing* has the lowest frequency in the COCA and BNC.

Now an immediate question is “In which genre is the type *go on -ing* the most frequently used?” Table 2 clearly indicates that *go on -ing* is the most widely used one in the fiction genre of the BNC. More interestingly, *go on -ing* is the most commonly used one in the fiction genre of the COCA. Thus, Americans and British people show the same pattern with respect to the use of *go on -ing*. It is interesting to point out that *carry on -ing* is the most commonly used one in the spoken genre of the BNC. This in turn suggests that the British prefer *carry on -ing* the most in the spoken genre of the BNC. It is noteworthy that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most widely used one in the newspaper genre except the misc genre. This indicates that American journalists prefer *continue -ing* the most. However, we do not consider the frequency of the misc genre since it is the mixture of all genres. Interestingly,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most preferable one for British journalists, followed by *carry on -ing*, and *go on -ing*, in that order. To sum up, *go on -ing* is the most frequently used one in the fiction genre, *carry on -ing* is the most commonly used one in the spoken genre, and *continue -ing* is the most widely used one in the newspaper genre except the misc genre. This in turn suggests that these three type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ir use.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go on -ing* is the second most preferred one in the misc genre. However, we do not consider why *go on -ing* in the misc genre ranks second. The misc genre is the mixture of all genres, so it is difficult to find the

property of the genre. On the other hand, *carry on -ing* is the second most preferred one in the newspaper genre. More specifically, there is a difference of 1 token between the frequency of *carry on -ing* in the spoken genre and that of *carry on -ing* in the newspaper genre. This may imply that British journalists are keen on using *carry on -ing* in their newspaper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British journalists prefer *continue -ing* the most in their newspapers. More specifically, *continue -ing* is preferred over *go on -ing* and *carry on -ing* by British journalists. It is interesting to point out that *continue -ing* is the second most preferred one in the newspaper genre. Interestingly,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show the same pattern in the newspaper genre.

It is noteworthy that *go on -ing* is the third most preferred one in the non-academic genre. On the other hand, *carry on -ing* is the third most preferred one in the misc genre. When it comes to *continue -ing*, it is the third most preferred one in the non-academic genre. As alluded to in Table 2, *go on -ing* and *continue -ing* show the same pattern in the non-academic genre.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go on -ing* is preferred over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by the British in the non-academic genre.

Finally, it is worthwhile noting that *go on -ing* has the lowest frequency in the academic genre. Likewise, *carry on -ing* has the lowest frequency in the academic genre. When it comes to *continue -ing*, it has the lowest frequency in the spoken genre. From all of this, it is clear that *go on -ing* shows the same pattern as *carry on -ing* in the academic genre, but *continue -ing* shows a different pattern. We thus conclude that these three type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ir use. Now Figure 4, Figure 5, and Figure 6 indicate the percentage of the use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seven genres:

Figure 4 Percentage of the use of *go on -ing* in the seven genres of the B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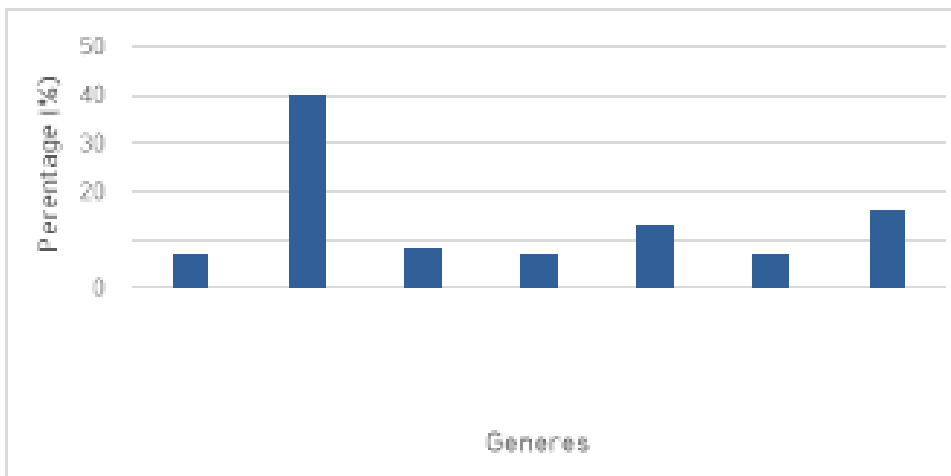


Figure 5 Percentage of the use of carry on -ing in the seven genres of the B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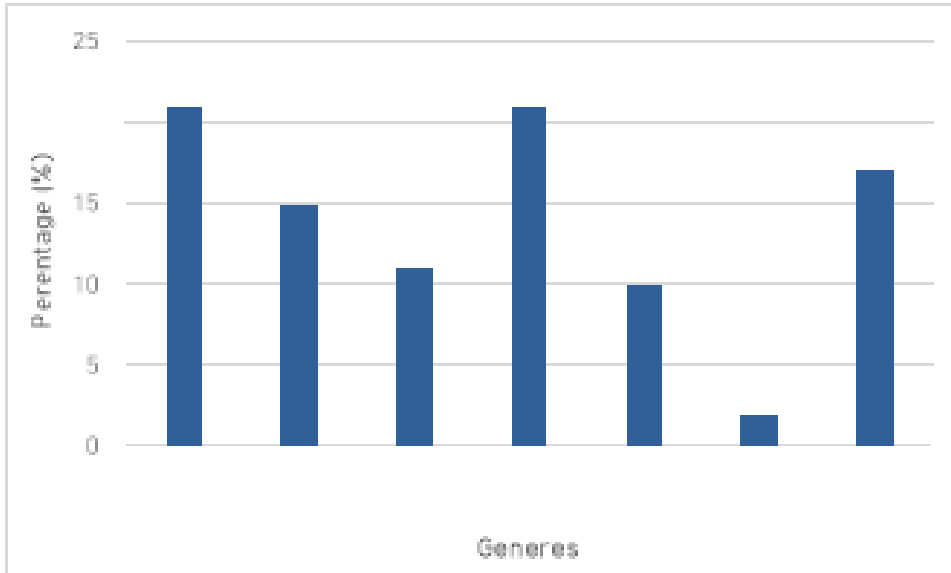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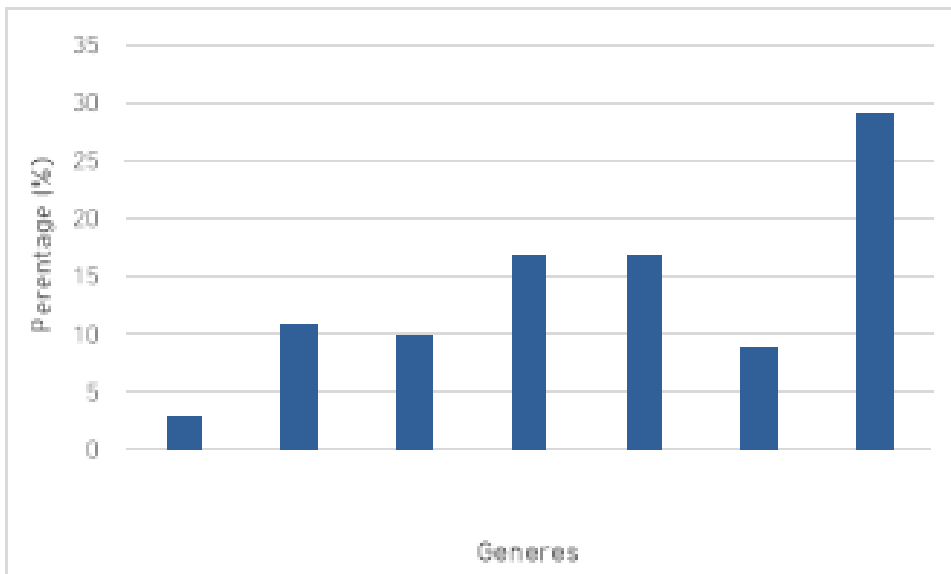


Figure 6 Percentage of the use of continue -ing in the seven genres of the BNC



3. A Collocation Analysis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CO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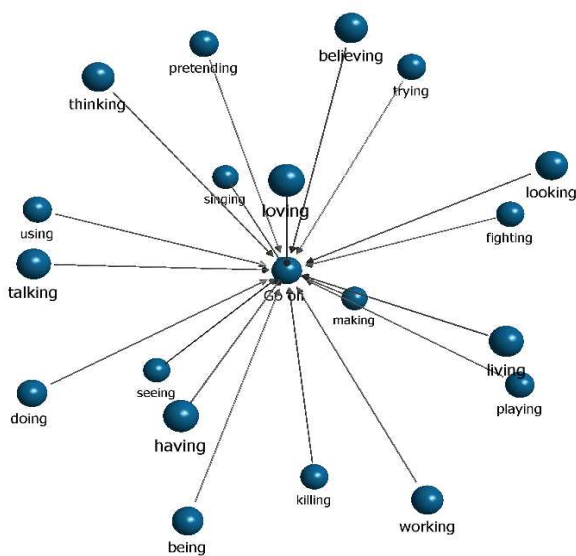
In what follows, we aim to examine the frequency of the collocations of *go on*, *carry on*, and *continue* in the COCA. Table 3 indicates the frequency of the collocation of *go on* in the COCA:

Table 3 Frequency of the collocation of go on in the COCA

Number	Collocation of go on	Frequency
1		
2	Go on being	124
3		
4	Go on talking	56
5		
6	Go on fighting	36
7		
8	Go on making	34
9		
10	Go on pretending	28
11		
12	Go on killing	25
13		
14	Go on having	20
15		
16	Go on using	18
17		
18	Go on seeing	16
19		
20	Go on taking	

An important question is “Which gerund is the most frequently used by Americans along with *go on*?” Table 3 clearly shows that the expression *go on living* is the most commonly used one in America. This in turn implies that *go on living* is the most preferred by Americans. As alluded to in Table 3, the expression *go on living* is the most preferable collocation among Americans, followed by *go on being*, *go on doing*, *go on talking*, *go on walking*, *go on fighting*, *go on believing*, *go on making*, *go on thinking*, and *go on pretending*, in that order. It is interesting to point out that the everyday expression *go on talking* is the fourth most preferred one in America. The everyday idiom *go on walking* is the fifth most preferred one in America. The expression *go on singing* that is used frequently ranks sixteenth in the COCA. Now Figure 7 indicates the collocation of *go on* in the top 20.

Figure 7 Visualization of the collocation of *go on* in the COCA



In Figure 7, twenty gerunds have a collocation relationship with *go on*, which indicates that these gerunds are much used with *go on*. As indicated in Figure 7, twenty gerunds frequently used are linked to *go on*. These 3-D collocations were performed by the software NetMi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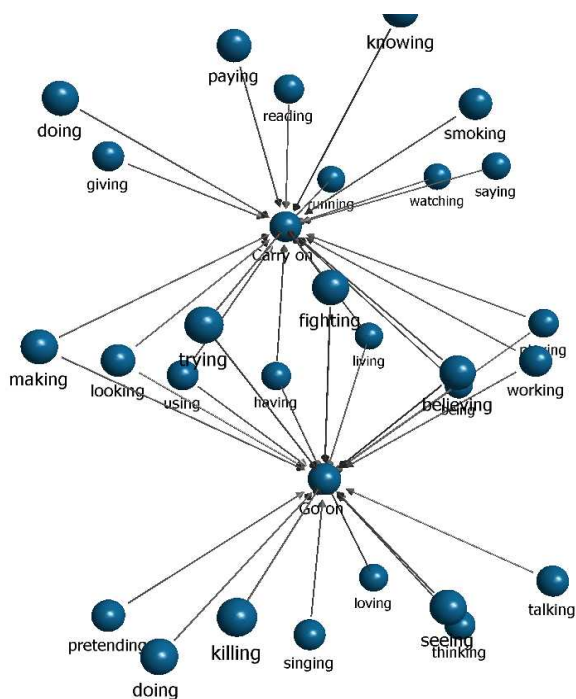
Now attention is paid to the collocation of *carry on* in the COCA. Table 4 indicates the collocation of *carry on* in the top 20:

Table 4 Collocation of *carry on* in the COCA

Number	Collocation of <i>go on</i>	Frequency
1		
2	Carry on being	17
3		
4	Carry on living	9
5		
6	Carry on using	9
7		
8	Carry on playing	8
9		
10	Carry on fighting	5
11		
12	Carry on trying	5
13		
14	Carry on paying	4
15		
16	Carry on running	4
17		
18	Carry on smoking	3
19		
20	Carry on giving	

An immediate question is "Which gerund is the most preferred by Americans?" Table 4 clearly indicates that the expression *carry on doing* is the most widely used one in America. This in turn suggests that *carry on doing* is the most preferred by Americans. As illustrated in Table 4, the expression *carry on doing* is the most preferable one among Americans, followed by *carry on being*, *carry on working*, *carry on living*, *carry on reading*, *carry on using*, *carry on making*, *carry on playing*, *carry on believing*, and *carry on fighting*, in that order. Interestingly, *carry on doing* ranks first in the COCA, whereas *go on doing* ranks third. On the other hand, *carry on working* ranks third in the COCA, whereas *go on working* ranks fifth. The expression *carry on living* ranks fourth in the COCA, whereas *go on living* ranks first. From all of this, it is clear that *carry on -ing* is slightly different from *go on -ing* in its use. It is noteworthy that the everyday idiom *carry on saying* ranks seventeenth in the COCA. Again, noteworthy is that the everyday expression *carry on trying* ranks twelfth in the COCA. Now Figure 8 shows the collocations of *go on* and *carry on*. By using the software NetMiner, we visualized the collocations of *carry on* and *go on* in the COCA:

Figure 8 Visualization of the collocations of *go on* and *carry on* in the COCA



As indicated in Figure 8, there are nine gerunds that are linked to *carry on*, but not linked to *go on*. Conversely, there are nine gerunds that are linked to *go on*, but not linked to *carry 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eleven gerunds that are linked to both *carry on* and *go on*. These gerunds have a collocation relationship with both *carry on* and *go on*. From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carry on -ing* is slightly different from

go on -ing in its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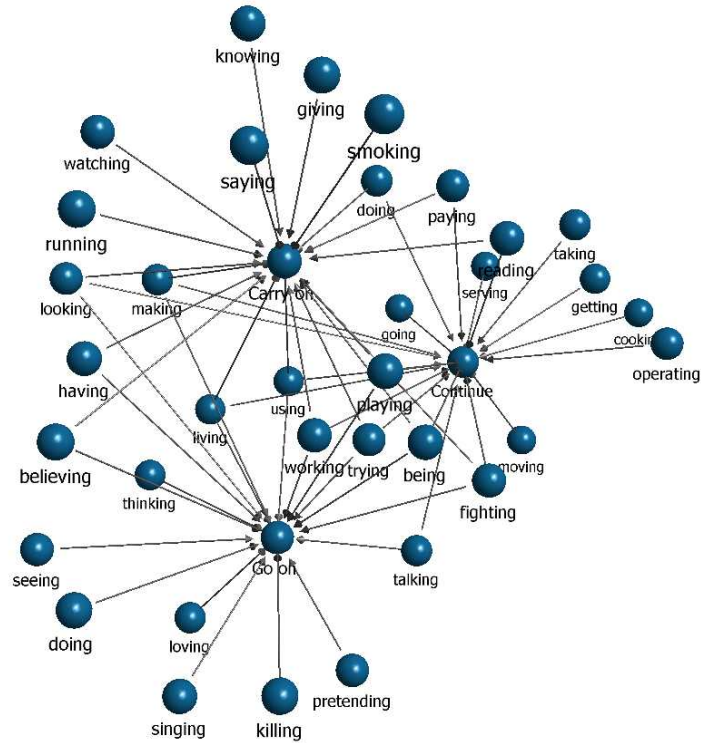
Finally, attention is paid to the collocation of *continue* in the COCA:

Table 5 Collocation of continue in the COCA

Number	Collocation of go on	Frequency
1		
2	Continue doing	527
3		
4	Continue playing	270
5		
6	Continue being	223
7		
8	Continue talking	205
9		
10	Continue taking	147
11		
12	Continue fighting	129
13		
14	Continue trying	120
15		
16	Continue operating	102
17		
18	Continue serving	97
19		
20	Continue looking	

An immediate question is “Which gerund is the most preferred by Americans?” Table 5 clearly indicates that *continue working* is the most frequently used by Americans. This in turn suggests that *continue working* is the most preferred by Americans. As alluded to in Table 5, *continue working* is the most preferable collocation for Americans, followed by *continue doing*, *continue using*, *continue playing*, *continue making*, *continue being*, *continue reading*, *continue talking*, *continue living*, and *continue taking*, in that order. The everyday expression *continue talking* ranks eighth in the COCA, whereas *go on talking* ranks fourth. Interestingly, *continue working* ranks first in the COCA, *go on working* ranks fifth, and *carry on working* ranks third. On the other hand, *continue doing* ranks second in the COCA, *go on doing* ranks third, and *carry on doing* ranks first. In addition, the expression *continue playing* ranks fourth, *go on playing* ranks thirteenth, and *carry on playing* ranks eighth. Thu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ir use. Now Figure 9 shows the visualization of the collocations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COCA:

Figure 9 Visualization of the collocations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COCA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gerunds *looking*, *working*, *trying*, *being*, *fighting*, *using*, *making*, and *living* are all linked to *go on*, *carry on*, and *continue*, which seems to suggest that they are all the collocations of these three types and that they are synonymously used.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gerunds *doing*, *paying*, *doing*, and *reading* are linked to both *carry on* and *continue*. Similarly, the gerunds *having* and *believing* are linked to both *carry on* and *go on*. Most importantly, it is noteworthy that there are many gerunds that are linked to only one type, but not linked to the others. Thus,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types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ir use.

4. Conclusion

To sum up, we have provided a frequency analysis of *go on -ing*,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in the COCA and BNC. In section 2.1, we have argued that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most preferred by Americans, followed by the type *go on -ing*, and the type *carry on -ing*, in that order. We have further argued that the type *go on -ing* is the most preferred one in the fiction genre, whereas the types *carry on -ing*

and *continue -ing* are the most preferred ones in the blog genre. In section 2.2, we have contended that the type *go on -ing* is the most preferred by the British, followed by *continue -ing*, and *carry on -ing*, in that order. We have maintained that *go on -ing* is the most frequently used one in the fiction genre of the BNC, that the type *carry on -ing* is the most commonly used one in the spoken genre, and that the type *continue -ing* is the most widely used one in the newspaper genre except the misc genre. In section 2.3, we have provided a collocation analysis of *go on*, *carry on*, and *continue* in the COCA. We have argued that the expression *go on living* is the most preferable one for Americans, followed by *go on being*, *go on doing*, *go on talking*, *go on walking*, *go on fighting*, *go on believing*, *go on making*, *go on thinking*, and *go on pretending*, in that order. We have further argued, on the other hand, that the expression *carry on doing* is the most preferable one among Americans, followed by *carry on being*, *carry on working*, *carry on living*, *carry on reading*, *carry on using*, *carry on making*, *carry on playing*, *carry on believing*, and *carry on fighting*, in that order. Also, we have maintained that *continue working* is the most preferable one for Americans, followed by *continue doing*, *continue using*, *continue playing*, *continue making*, *continue being*, *continue reading*, *continue talking*, *continue living*, and *continue taking*, in that order.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go on -ing*, *carry on -ing*, *continue -ing*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ir preference and use.

References

- British National Corpus (BNC). 19 August 2021. Online <https://corpus.byu.edu/bnc>.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19 August 2021. Online <https://corpus.byu.edu/coca>.
Murphy, R. (2016). *Grammar in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rphy, R. (2019). *English Grammar in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yntactic Peculiarities of Some Control Constructions

박준석
(세명대학교)

I. PRO-based approach vs A-Movement

The control phenomenon, which was initially viewed as equi-NP deletion, has been, for a decade, accounted for under two major theoretical frameworks, PRO-based approach (Chomsky, 1981, 1993) and A-movement (Hornstein, 1999, 2001, 2010). These two approaches to control have proven to be somewhat instrumental in explaining peculiar aspects of the syntactic patterns of control. Specifically, PRO-based approach is viewed as an all-round approach and, at the same time, an elusive approach which is difficult to prove or refute due to the syntactic nature of PRO whose core aspect is that PRO is syntactically essential in light of theta-theory and still PRO is invisible which, ironically, makes this approach difficult to support or refute. On the other hand, the Movement Theory of Control or the MTC(Hornstein, 1999, 2001, 2010) presents a more clear picture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control construction. An vital theoretical basis for the MTC is that an argument can receive more than one theta-role, if this is necessary.

II. A Date-based approach

a. Quantifier floating

Landau(2003) argues that quantifier floating alone serves as sufficient evidence to distinguish raising from control. But, in most English data, quantifier floating is attested both in the embedded clause of raising and in the embedded clause of control.

- (1) a. John and Sumi seem/appear to be both qualified for the position.
b. John and Sumi seem/appear to have both opted for Michigan State Uni.
c. John and Sumi hope/wish to both opt for Michigan State Uni.
d. John and Sumi hoped/wished to have both opted for Michigan State Uni.

This suggests that, unlike what has been argued by Landau(2003), quantifier stranding does not provide any evidence for the Movement of Theory of Control. Even, PRO is assumed to bind a stranded quantifier, which seriously degrades the merit of quantifier stranding as a syntactic mechanism to support A-Movement.

- (2) a. John and Sumi tried [to PRO both escape the prison]. (PRO binding *both*)
b. John and Sumi seem to have ~~John and Sumi~~ both escaped the prison]
[*John and Sumi* moves, leaving behind *both*, A-movement]

Even, Landau(2013) acknowledges that PRO binds a stranded quantifier.

- (3) They wanted [PRO to all gain something]. (Landau, 2013)

b. Long-distance passivization

LDP or long distance passivization has been viewed to be an idiosyncratic syntactic property of raising construction. But, some control verbs are transparent to long-distance passivization.

- (4) a. The pharmaceutical researchers agreed/proposed/suggested to develop a vaccine.
b. A vaccine was agreed/was proposed/was suggested to be developed.
(5) a. The pharmaceutical researchers claim/argue to have developed a vaccine.
b. A vaccine is claimed/is argued to have been developed.

Still, control constructions which do not allow LDP exist.

- (6) a. The rescue team tried/attempted/intended to rescue all the victims.
b. *All the victims were tried/were attempted/ were intended to be rescued.

This observation renders it compelling to assume that control constructions should be divided into two sub-types.

c. Empirical evidence for PRO

As Landau(2013) points out, secondary predicates require an overt DP to be predicated of. As shown below, implicit objects and implicit agents of passive are not sufficient. Clearly, secondary predicates are acceptable inside control infinitives.

- (7) a. John ate (the meat).
b. John ate *(the meat) raw.
c. He served dinner angry at the guests.
d.*Dinner was served angry at the guests. (Landau, 2013)

There is also another piece of evidence for PRO; some control verbs allow expletive *it* subject to occur in the matrix passivized control.

- (8) a. It was hoped/agreed/attempted to PRO elect John as new president. (NOC PRO)
- b. It was claimed to PRO have *all* passed the test. (NOC PRO)
- cf. *It was claimed to have passed the test.

d. Empirical evidence for A-Movement

It is clear that (9b) undergoes movement of *John*, which is evident from the ungrammaticality of (9a).

- (9) a. *It is claimed to PRO visit his parents every weekend.
- b. John is claimed to ~~John~~ visit his parents every weekend.

III. An Eclectic Approach to control

In this section, I classify control verbs into four sub-types and present empirical evidence for this classification.

1. PRO type 1-try/attempt/want/intend/plan/choose/offer/decline, etc

One of the crucial characteristics of this type of control verbs is that the embedded subject is always co-indexed by the matrix subject, thus disallowing partial or split control.

- (10) a. The students_i try/attempt/intend to PRO_i pass the preliminary exam.
- b. *The students_i try/attempt/intend to PRO_{i+j} pass the preliminary exam.

The fact that this type of control verbs does not allow partial or split control tempts us to assume that the subject moves in control involving this type of verbs. But this possibility is ruled out since this type of verbs does not allow long-distance passivization.

- (11) a. They tried/attempted/intended to premeditate the murder.
- b. *The murder was tried/was attempted/was intended to be premeditated.

One interesting phenomenon exhibited by this type of control verb is that they only take infinitive embedded clauses and cannot take finite embedded clauses.

- (12) *The rescue team tried/attempted/intended/planned/chose/offered that they rescue the victims.

The claim that this type of control verbs require PRO also receives empirical support from the following.

- (13) It was tried/attempted/desired/planned $_{CP}$ [to PRO premeditate the murder].

As to the tense of the infinitive complement of control, Martin identifies [+tense] with irrealis(future-orientend) interpretation.(Landau, 2019)

- (14) Yesterday, John intended/hoped/decided/planned to open the door today.

But this phenomenon is not consistently attested. Lee, Kum Young (2009) notes that the infinitive clause is tenseless, indicating that the following construction is ill-formed.

- (15) *Yesterday, John tried/attempted to open the door today.

2. PRO type 2 - hope/wish/claim/argue

One syntactic property that distinguishes this type of control verbs from PRO type 1 is that this type allows mismatch in the referential scope of the matrix subject and that of the embedded subject. In this light, this type should be one of PRO types.

- (16) Susan hopes/wishes/claims/argues to have *all* passed the test.

In (16), the referential scope of quantifier *all* does not match that of the matrix subject. Semantically, (16) can have two interpretations depending on contexts as below.

- (17) a. Susan_I hopes/wishes/claims/argues to PRO_{I+J} have *all*_{I+J} passed the test.
(Partial control; *all* including Susan)
b. Susan_I hopes/wishes/claims/argues to have *all*_J passed the test.
(NOC PRO; *all* excluding Susan)

Like PRO type 1, this type of control verbs allow expletive *it* matrix subject in matrix passivized constructions as shown below in (18a). But, the same grammaticality is not attested in (18c) which does not have a stranded quantifier in the embedded clause.

- (18) a. It was hoped/wished/claimed/argued to PRO have *all* passed the test.
b. *The test was hoped/wished/claimed/argued to have *all* been passed.

c. *It was hoped/wished/claimed/argued to have passed the test.

The ungrammaticality of (18c) leads to the tentative conclusion that (18c) does not have PRO as the embedded subject.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to stipulate a different syntactic structures for (18c).

3. Pseudo-PRO type - agree/propose/suggest

One of the most notable properties that distinguish this type of control verbs from *try*-type control verbs and *claim/hope*-type control verbs is that this type of control verbs has some self-contradictory syntactic properties.

- (19) a. John_i agreed/proposed/suggested to PRO_{i+j} elect a new CEO.(Partial control)
b. A new CEO was agreed/proposed/suggested to be elected.(LDP allowed)

Partial control which is attested in (19a) is strong evidence that (19a) is a PRO type control construction. In contrast to this, the fact that long-distance passivization is allowed in (19b) strongly suggests that (19b) instantiates A-Movement. In this regard, it is assumed that this type of control verbs can have either the syntactic properties of PRO type control verbs or those of A-Movement type, depending on whether the construction in which these control verbs occur is active or passive.

4. A-Movement type - claim/argue/expect

What makes verbs *claim/argue* in this section different from *claim/argue* discussed in section 2 is that *claim/argue* in this section undergo A-movement.

- (20) a. John and Susan claim to have *both* studied linguistics.
b. *Both* John and Susan claim to have studied linguistics.

In this regard, control constructions which have NOC PRO or partial control should not be classified into this type. Moreover, long-distance passivization is also allowed.

- (21) a. Linguistics is claimed to have been studied by John and Susan.

In this sense, this type of control verbs should be classified as control verbs of A-movement type

IV. Conclusion

As discussed in the previous sections, unlike what is claimed in Landau(2003), quantifier floating is not a reliable syntactic test for distinguishing control verbs into PRO type and A-Movement type, which is due to the stipulation that PRO also binds a stranded quantifier. This study reveals that true and reliable syntactic tests to classify control construction are long-distance passivization; If a control construction allows LDP, the control construction has a high probability of being a A-movement type. However, this is not always the case as attested in control verbs such as *agree/propose/suggest*, which exhibit PRO type in active control constructions. Also, the presence of a stranded quantifier in the embedded clause of the control construction involving *claim/argue* renders the control construction a PRO type whereas the absence of a stranded quantifier in the embedded clause of the control construction involving *claim/argue* renders the control construction a A-movement type.

V. Works Cited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De Gruyter Mouton.
- Chomsky, Noam.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enneth Hale
and Samuel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1 - 52. MIT Press.
- Hornstein, Noam. 1999. Movement and Control. *Linguistic Inquiry* 30, 69-96.
- Hornstein, Norbert. 2001. *Move! A Minimalist Theory of Construal*.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Ltd.
- Hornstein, Norbert. & Maria. Polinsky. 2010. *Movement Theory of Control*.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Idan, Landau. 2003. Obligatory Control Can't be Raising or: Where Hornstein (1999) got
it wrong. *Introduction to Syntax*, 24.951, MIT, Fall 2003
- Idan, Landau. 2013. *Control in Generative Grammar: A research compa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A Diachronic Syntactic Study of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Sungkyun Sh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one of the most frequently referenced and well-known parables, is one of the parables of Jesus in the Bible, appearing in Luke 15:11 - 32. Following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and the parable of the Lost Coin, the Prodigal Son is the third and final parable of a cycle on redemption. Jesus Christ tells the parable to His disciples and the assembled Pharisees, who have accused him of dining with 'sinners'

A father has two sons in the story. The younger son asks for his portion of inheritance from his father, who grants his son's request. This son, however, is prodigal (i.e., wasteful and extravagant), thus squandering his fortune and eventually becoming a pauper. As consequence, he now must return home empty-handed and intend to beg his father to accept him back as a servant. Far from the son's expectation, he is not rejected by his father but is warmly welcomed back with a welcoming party and celebration.

The parable makes the allegory crystal-clear. We have a father (like God the Father) and two sons (we are all, the Bible tells us, children of God), and one wayward son who strays from the path of righteousness before realizing how, through living a dissolute life, he has insulted his father's honour and wronged the love his father bears him. So those who sin and forget God (the prodigal son's haste to leave home for some 'far country' is surely emblematic of the sinner's desire to make God a distant memory in his life) must humble themselves and realize how much they need God after all, and are willing to serve him in any way so that they might be forgiven (once again, symbolically, the prodigal son wishes to return to his father's house as his servant). Jesus is highlighting the fact that sinners who were lost but come back to the fold are to be specially honoured because it is so hard to come back to the righteous path having left it, and winning such people back to the heavenly side is something to be celebrated.²⁹⁾

By comparing the English Bible versions from Anglo-Saxon Version 995A.D. (AS) (Old English (OE) through Wycliffe Version 1389A.D. (Wycliffe) (Middle English (ME)

29) https://interestingliterature.com/2021/07/prodigal-son-parable-summary-analysis/?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prodigal-son-parable-summary-analysis

two sons and the younger said to the father father
 3yue to me the porcioun of substaunce, that byfallith to me.
 give to me the portion of wealth that belongs to me
 And the fadir departide to him the substaunce. 13 And not
 and the father distributed to him wealth 13 and not
 aftir manye dayes, alle thingis gederid to gidre, the 3ongere
 after many days all things gathered to gether the younger
 sone wente in pilgrymage in to a fer cuntree; and there
 son went abroad to a far country and there
 he wastide his substaunce in lyuyng lecherously.
 he wasted his wealth in living wantonly

The above passage includes five main clauses and three subordinate clauses including a relative. The main clauses show the typical ME word order S-V-(O or V). The subordinate clause, as shown in the relative clause *that byfallith to me*, also shows the typical word order S-V-X.

Tyndale of Luke 15: 11 - 13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ENE word order. They include five main clauses and three subordinate clauses including a relative. The main clauses show the typical ENE word order S-V-(O or C). The subordinate clause, as shown in the relative clause *that falleth to me*, also shows the typical word order S-V-X.

(3) Tyndale Luke 15: 11 And hee said, A certain man had two sonnes: 12 And the yonger of them said to his father, Father, giue me the portion of goods that falleth to me. And he divided unto them his liuing. 13 And not many days after, the yonger sonne gathered altogether, and tooke his journey into a farre country, and there wasted his substance with riotous liuing.

NIV of Luke 15: 11 - 13 shows the characteristic word order of PE. They include seven main clauses and two subordinate clauses, which are relative clauses. The main clauses show the typical PE word order S-V-(O or C). The subordinate clause, as shown in the relative clause *who had two sons*, also shows the typical word order S-V-X. It is noted that *there*-construction appeared for the first time.

(4) NIV Luke 15: 11 He said,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12 The younger one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estate.' So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13 "Not long after that, the younger son got together *all he had*, set off for a distant country and there squandered his wealth in wild living.

We can summarize the diachronic changes of English word order in the following table:

<Table 1> Diachronic Changes of English Word Order:

OE (AS): Subordinate Clause: S-X-V	
Main Clause: V-2: The five main clauses show the	typical V-2 (Second)
word order: S-V, Adv-S-V-O,	
X-V-S-Adv, (S)-V-IO-DO, X-V-S-IO-DO.	
ME (Wycliffe): Subordinate Clause: S-V-X	
Main Clause: S-V-X	
ENE (KJB): Subordinate Clause: S-V-X	
Main Clause: S-V-X	
PE (NIV): Subordinate Clause: S-V-X	
Main Clause: S-V-X	

If we explain the diachronic changes from OE to ME within Chomsky's minimalist framework³⁰, parameter is reset from head-final to head-initial from OE to ME. The underlying structure in OE is [TP NP [TP' [NegP [AgrP [VP O V] Agr] ne] Tns]], as it appears in subordinate clauses. This underlying structure is changed to the surface structure via an obligatory movement (internal merge) in main clauses. Since COMP is specified [+Agr_] in OE main clauses, this specification causes the movement of the inflected verb to COMP. This V2 movement thus results in the surface structure [CP NP_i [C' v+Agr+Tnsj [TP ti [AgrP [VP O V] tj] tj]], or [CP NP_i [C' V+Agr+Tnsj [TP ti [AgrP [VP O tj] tj] tj]] depending on whether an auxiliary verb appears or not.

A set of parameters is introduced in this section in order to account for the word order of OE: strong or weak Agr in raising of the verb to Agr; rightward or leftward direction of Case and theta-role assignment; head-initial or head-final parameter of Head Position Parameter, and the feature of C [+ or -Agr_] in V2 movement to COMP. We will see, in the following sections, how these parameters are reset in later stages of English, causing English word order to be rearranged.

As an explanation for the change from SOV(Neg)v to Sv(Neg)VO, we suggested parameter-resetting followed by restructuring. Due to the verb movement to COMP in main clauses, the surface structure word order became SvOV or SVO (when auxiliaries did not appear). This order in main clauses was interpreted as underlying structure word order by parameter-resetting from OV to VO, which gradually extended to subordinate clauses, resulting in restructuring.

Given this knowledge of ME word order, the principal changes that English had gone through from OE to ME were explained by parameter-resetting. These kinds of parameter-resetting might affect other change. For example, the parameter was reset from head-final to head-initial according to Head Position Parameter. This shows that the parameter of the Head Position Parameter is reset.

Another change is the loss of the "V2 constraint", which is the result of parameter-resetting. ME

30) See Shin (1992; 2017) for more information.

COMP came to be specified [-Agr_]. This resetting of the parameter made the V2 movement non-obligatory. Regarding the parameter of strong/weak Agr, if we look at the ME literature, we find ME allows the verb to move to Tense regardless of kinds of verbs, such as *be*, *have*, modals.

2. Impersonal Constructions

In AS Luke 15: 32, we encounter OE impersonal construction, showing that OE is a Null-subject parameter language:

(5) AS Luke 15:32 Ʒe gebyrede gewistfullian ond geblissian, for
to you befitted to feast and to rejoice for
Ʒam Ʒes Ʒin broðor wæs dead, ond he geedcwicode; he
this your brother was dead and he revived he
forwearð, and he is gemett.
was lost and he is found

In Wycliffe Luke 15: 32, we encounter OE impersonal construction is replaced by ME *it* construction, as a result of parameter-resetting from OE + Null-Subject to ME - Null-Subject parameter.

(6) Wycliffe Luke 15:32 Forsothe it bihofte to ete plenteuously, and for to ioie ; for this thi brother was deed, and lyuede a3eyn ; he peryschide, and he is founden.

In Tyndale Luke 15: 32 of ENE, we find ME *it* construction continues to employ the same *it* construction, as a result of parameter-resetting from OE +Null-Subject to ME -Null-Subject parameter and ENE - Null-Subject parameter.

(7) Tyndale Luke 15:32 It was meete that we should make merry, and be glad: for this thy brother was dead, and is aliue againe; and was lost, and is found.

In NIV Luke 15: 32 of PE, we find ME *it* and ENE *it* construction continue to have the subject, as a result of parameter-resetting from OE +Null-Subject to ME -Null-Subject parameter, ENE - Null-Subject parameter, and PE - Null-Subject parameter.

(8) NIV Luke 15: 32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

<Table 2> Diachronic Change of Impersonal Construction (Null-Subject Parameter)

OE (AS):	Ðe gebyrede gewistfullian ond geblissian
ME (Wycliffe):	Forsothe it bihofte to ete plenteuously, and for to ioye
ENE (KJB):	It was meete that we should make merry, and be glad
PE (NIV):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According to Shin (1992; 2001), parameter-resetting can explain the diachronic changes of impersonal constructions with the null-subject parameter, and it is observed that null-subject parameter occurred by Shakespearian period (ENE) as follows, Shin (2001: 141):

<Table 3> Null-Subject Parameter-Resetting

	OE	ME	ENE	PE
EPP	weak	weak	strong	strong
TN	weak	weak	strong	strong
AN	strong	strong	weak	weak

Here, it is observed that the diachronic change in English with respect to the Null-subject parameter can be explained by parameter-resetting. As the features EPP and TN changed from weak to strong, whereas AN changed from strong to weak, the subject is required as in PE, resulting in null-subject parameter-resetting.

3. Conclusion

If we explain the diachronic changes from OE to ME within Chomsky's minimalist framework, parameter is reset from head-final to head-initial from OE to ME. The underlying structure in OE is $[_{TP} NP [_{TP} [_{NegP} [_{AgrP} [VP O V] Agr] ne] Tns]]$, as it appears in subordinate clauses. This underlying structure is changed to the surface structure via an obligatory movement (internal merge) in main clauses. Since COMP is specified [+Agr_] in OE main clauses, this specification causes the movement of the inflected verb to COMP. This V2 movement thus results in the surface structure $[_{CP} NP_i [_{C'} v+Agr+Tns_j [_{TP} t_i [_{AgrP} [VP O V] t_j] t_j]]$, or $[_{CP} NP_i [_{C'} V+Agr+Tns_j [_{TP} t_i [_{AgrP} [VP O t_j] t_j] t_j]]$ depending on whether an auxiliary verb appears or not.

As an explanation for the change from SOV(Neg)v to Sv(Neg)VO, we suggested parameter-resetting followed by restructuring. Due to the verb movement to COMP in main clauses, the surface structure word order became SvOV or SVO (when auxiliaries did not appear). This order in main clauses was interpreted as underlying structure word order by parameter-resetting from OV to VO, which gradually extended to subordinate clauses, resulting in restructuring.

Given this knowledge of ME word order, the principal changes that English had gone through from

OE to ME were explained by parameter-resetting. These kinds of parameter-resetting might affect other change. For example, the parameter was reset from head-final to head-initial according to Head Position Parameter. This shows that the parameter of the Head Position Parameter is reset.

Another change is the loss of the "V2 constraint", which is the result of parameter-resetting. ME COMP came to be specified [-Agr_]. This resetting of the parameter made the V2 movement non-obligatory. Regarding the parameter of strong/weak Agr, if we look at the ME literature, we find ME allows the verb to move to Tense regardless of kinds of verbs, such as *be*, *have*, modals.

Here, it is observed that the diachronic change in English with respect to the Null-subject parameter can be explained by parameter-resetting. As the features EPP and TN changed from weak to strong, whereas AN changed from strong to weak, the subject is required as in PE, resulting in null-subject parameter-resetting.

Works Cited

- Lehaci, Aurel Onisim. 2017.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A Cognitive Linguistic Analysis. Centrul de Studii Biblico-Filologice, MonumentaLinguae Dacoromanorum, "Asociatia de Filologie si Hermeneutica Biblica din Romania: Receptarea Sfintei Scripturi între filologie, hermeneutică și traductologie, 2017
- Aitchison, J. 1980. Review of Lightfoot (1979), *Linguistics* 18, 137-46.
- Anderson, Henning. 1973. Abductive and Deductive Change. *Language* 49: 765-93.
- Bacquet, P. 1962. *La Structure de la Phrase Verbale a L'époque Alfrédiene*. Paris: L'université de Strasbourg.
- Bosworth, Joseph. 1907. *The Gospels: Gothic, Anglo-Saxon, Wycliffe and Tyndale Versions*. London: Gibbings and Company.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oam.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Denison, David. 1993. *English Historical Syntax: Verbal Construction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Gelderen, Elly Van. 2009. Language change and survive. Towards a Derivational Syntax: Survive-minimalism. ed. by Michael T. Putnam.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Jespersen, O. 1909-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I-VII. London/Copenhagen: Allen and Unwin.
- Kemenade, A. Van. 1985. Old English infinitival complements and West-Germanic V-raising. In Eaton et al. (1985), pp. 73-84.
- Kemenade, A. Van. 1987. *Syntactic Case and Morphological Case in the History of English*. PhD dissertation, Utrecht.. Foris, Dordrecht.
- Kim, Haelee. 2011. *Old English: History, Grammar, and Texts*. Seoul: Hankookmunhwasa.
- Kroch, Anthony. 1989. Reflexes of Grammar in Patterns of Language Change. *Language*

- Variation and Change* 1: 199–244.
- Kroch, Anthony. 1994. Morphological Variation. In K. Beals et al. eds. *Papers from the 30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Parasession on Variation and Linguistic Theory*, 180–201.
- Kroch, Anthony. 2000. Syntactic Change. In M. Baltin and C. Collins (eds.),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yntactic Theory*. Oxford: Blackwell.
- Lee, Pil-Hwan. 2007. *English Syntactic Change: Negation, Pronouns and Infinitives*. Seoul: Hankookmunhwasa.
- Lee, Pil-Hwan. 2009. *The History and Linguistic Change of English*. Seoul: Hankookmunhwasa.
- Lightfoot, David. 1979. *Principles of Diachronic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ghtfoot, David. 1991. *How to Set Parameters: Arguments from Language Change*. Cambridge, Mass.: MIT Press.
- Lightfoot, David. 1999. *The Development of Language*. Oxford: Blackwell.
- Lightfoot, David. 2002. Grammatical approaches to syntactic chang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edited by R. Janda & B. Joseph, Oxford: Blackwell.
- Lightfoot, David. 2002. *Syntactic effects of morphological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s, Bettelou. 2005. *The Rise of the to-infini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s, Bettelou. 2015. *A Historical Syntax of English*.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itchell, Bruce. 1985. *Old English Syntax*, 2 vols, Oxford: Clarendon Press.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Radford, Andrew. 2009. *Analysing English Sentences: A Minimalist Approa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erts, Ian. 2007. *Diachronic Synta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in, Sungkyun. 1992. *Parameter-Resetting in the Diachronic Syntax of English*.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Shin, Sungkyun. 2006. A Minimalist Approach to the Diachronic Study of English Modal.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221–238.
- Shin, Sungkyun. 2019. Parameter-Resetting and Diachronic Changes of English Negation. *Studies in Linguistics* 51: 89–107. The Joongwo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 Visser, F. 1963–73. *An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Leiden: Brill.
- https://interestingliterature.com/2021/07/prodigal-son-parable-summary-analysis/?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prodigal-son-parable-summary-analysis

유사수문구문의 내포절 부정섭효과

(Negative Island Effects in Sluicing-like Constructions of Embedded Clauses)

이두원
(한국교통대학교)

1. 서론

수문구문(slueicing)은 선행절의 연관어 유무에 따라, 병합(merger)과 발아(sprouting) 유형으로 나뉜다(S. Lee, 2020). Ross(1969)에 의해 처음 분석된 수문구문은 (2)에서 보듯, 의문사가 이동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생략된다. 다음 (1)은 영어의 수문구문의 예시이다. (1a)-(1c)는 Ross(1969)에서, (1d)는 Merchant(2001)로부터 인용하였다. (1a)와 (1b)는 연관어(correlate) 유무의 차이이고 (1c)는 전치사 좌초를 허용하고 (1d)에는 의문부가어가 쓰인다. (1b)와 (1d)는 선행절에 비가시적으로 내포된 연관어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수문구문은 Merchant(2001, 2004)의 이동과 IP-생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사가 관여되는 분열문이다. 이것을 유사수문구문(slueicing-like construct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사수문구문은 그 자체가 섭제약이 없는 구조이다(Kim, 1997; Choi, 2015; Park, 2015; S. Lee, 2020, 2021).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S. Lee(2020, 2021)의 한국어 유사수문구문의 구체적인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는 다음 (3)과 (4)와 같다. ‘그게’는 의미적으로 선행절의 정보를 화제(topic)로 만들어 주는 일종의 변항(variable)이며, 그에 대한 답(value)을 구하는 wh-의문사구가 초점 위치(focus position)에 온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다(Higgins(1979)와 Hong(2017) 참조). (4a)의 내포절 의미로 유사수문구문을 사용한다면, 그 구조는 (4b)와 같기 때문에, 부가어섭제약(adjunct island condition)을 보이지 않는다.

- (1) a. The cats are eating something, but we're not sure [what _].
 b. The cats are eating, but we're not sure [what _].
 c. She's talking, but we don't know [to who _].
 d. Jack called, but I don't know {when/how/why/where from}.
- (2) a. John ate something, but I don't know what [~~John-ate~~].
 b. A: He bought a camcorder.
 B: Why [~~did he buy a camcorder~~]?
- (3) a. 영화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b. [CP ... 부정대응어누군가 ...], [CP [그게답화대명사 의문명사(구)-이-T] C] ... (부정대응어=그게)
 화제(topic) 초점(focus)
- (4) a. 영화가 [e 영화를 보기 전에]_섭 신문을 읽었는데, 그게_{변항} 언젠지 모르겠다. (내포절)
 b. [CP ... [CP ...] ...], [CP [그게변항 의문사-이-T] C] ... (내포절 CP=그게)
 화제 초점

그럼에도 (6B, B')에서처럼, 왜 의문부가어 '어떻게/언제/어디서'의 유사수문구문은 부정섬 효과를 보인다. 본고는 이것을 규명할 것이다. 유사수문구문의 의문사는 원위치에서 LF상 의문자질이 인허된다. 그러나 (6B)와는 달리, (7B)는 문법적인 유사수문구문이다. 조동사(modality)나 담화효과가 나타나는 (7B')와 같은 문장에서는 부정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본고는 그 이유와 (8a, b)의 문법성 대조를 밝힐 것이다. 나아가 병합 유형의 유사수문구문이 부정섬 효과를 무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 (5) A: 철수가 빨리/오전에/충주에서 차를 고쳤어.
 B: 그게 왜/어떻게/언제/어디서-인지 모르겠어.
- (6) A: 철수가 빨리/오전에/충주에서 차를 고치지 않았어.
 B: 그게 왜/*어떻게/*언제/*어디서-인지 모르겠어.
 B': 그게 왜/*어떻게/*언제/*어디서 아닌지 모르겠어.
- (7) A: 철수가 빨리(는)/오전에(는)/충주에서(는) 차를 고칠 수 없었어.
 B: 그게 왜/어떻게/언제/어디서-인지 모르겠어.
 B': 철수가 어떻게(는)/언제(는)/어디서(는) 차를 고칠 수 없었니?
- (8) a. *어떻게 John이/John이 *어떻게 행동하지 않았니?
 b. 어떻게 John이/John이 어떻게 (한국에서) 행동하지 않아야 하니?/합니까?³¹⁾

2. 유사수문구문

2.1 유사수문구문의 구조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의 유사수문구문은 Merchant(2001, 2004)의 이동과 IP-생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사가 관여되는 분열문이다. 즉 (2a)와 (2b)와 같이 도출되지 않는다. 한국어의 유사수문구문이 내포절 해석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그 유사수문구문은 그 자체가 섬제약이 없는 구조이다. 본고에서는 (3), (4) 및 (9)에서 제시된 S. Lee(2020, 2021)의 한국어 유사수문구문 구조를 따른다. 발아 유형의 유사수문구문의 의미적 (또는 화용론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wh-내포절의 주어 '그게'이다. 본 논문은 '그게'가 선행절에 주어진 정보를 후행절로 연결하여 분열구문의 구조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 '그게'는 의미적으로 선행절의 정보를 화제로 만들어 주는 일종의 변항이며,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wh-의문사구가 초점 위치에 쓰인다. '그게'는 선행절 전체만이 아니라 그 일부만을 화제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4b)와 같이 섬제약 효과와 무관한 경우이다.

- (3) a. 영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b. 병합 유형 구조
 [CP ... 부정대응어_{누군가} ...], [CP [그게_{담화대명사} 의문명사(구)- 이-T] C] ... (부정대응어=그게)

31) 앞으로 (60b)에서 언급할 것처럼, 미국인인 John이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올 때, 그는 한국에서 무례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의 부모가 지인의 한국인에게 (8b)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8b)의 '어떻게'의 선행절 연관어는 '무례하게'이다. 앞으로 논의할 것처럼, 의문부가어의 유사수문구문은 병합 유형에서만 쓰일 수 있다.

화제(topic) 초점(focus)

(9) a. 영화가 [e 영화를 보기 전에]_침 신문을 읽었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겠다. (상위절)

b. 발아 유형 구조 1

[CP ... [CP ...] ...], [_{CP} [그게]_{변항} 의문사-이-T] C] ...

화제 초점 (상위절 CP=그게)

(4) a. 영화가 [e 영화를 보기 전에]_침 신문을 읽었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겠다. (내포절)

b. 발아 유형 구조 2

[_{CP} ... [CP ...] ...], [_{CP} [그게]_{변항} 의문사-이-T] C] ...

화제 초점 (내포절 CP=그게)

유사수문구문 (4)와 (9) 유형 중 화자들은 (9)의 상위절 의미를 선호한다. 그럼에도, (4)의 내포절 의미로 유사수문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구조는 (4b)와 같기 때문에, 섬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병합 유형 구조의 ‘그게’는 Fernández-Sánchez and Ott(2010)의 담화대명사(D-pronoun) 개념으로 선행절의 부정대명사를 일컫는다. (9)와 (4)의 ‘그게’는 상위절 전체나 하위(부가어)절을 지칭함으로 변항(variable)으로 표기된다(S. Lee 2020, 2021). (9a)의 상위절이 유사수문구문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이때 이것은 섬제약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이다. 유사수문구문 (9)와 (4) 유형 중 화자들은 주로 (9)의 의미로 수문구문을 사용하지만, (4b)의 하위절 구조의 유사수문구문을 사용할 경우도 섬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다음 (10b)에서 보듯이, 영어의 의문부사인 how, why, when, where가 수문구문에 쓰일 수 있지만, (10c)에서 보듯, 한국어 유사수문구문 (4b)와 (11)과는 달리, 분열구문에는 쓰일 수 없다(Merchant, 2001: 120-127). S. Lee(2020: 125)가 지적하듯이, 한국어의 유사수문구문에 의문부사가 쓰일 수 있다.

(10) He fixed the car,...

a. but I don't know {how/why/when/where} he fixed the car.

b. but I don't know {how/why/when/where} ~~he fixed the car.~~

c. *but I don't know {how/why/when/where} it was.

(11) a. Mary가 갑자기 뛰어나갔는데, 그게 웬지 아니? (why)

b. John이 갑자기 큰돈을 벌었는데, 그게 어떻게인지 모르겠어. (how)

c. 우리나라에 IMF가 왔었는데, 그게 언제였는지 아니? (when)

d. John이 오늘 만나자고 했는데, 그게 어디선지 기억이 안나. (where=location)

e. 선생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론지 모르겠어. (where=direction)

2.2 유사수문구문의 부정섬 효과

한국어에서 VP에 부가된 의문부사인 ‘어떻게’, ‘언제’, 및 ‘어디서’의 유사수문구문은 위계상 IP내에서 VP와 IP사이에 위치한 NegP의 핵인 Neg에 대해 부정섬효과(negative island effect)를 보일 뿐, 내포절 IP 밖의 섬, 즉 복합명사구제약(CNPC)이나 부가어섬(adjunct island)의 제약은 보이지 않는다(D. Lee, 2021). (9a)와 다음 (12)가 이것을 말해 준다. Huang(1982a, b)이래로 중국어 및 한국어와 같은 의문사 원위치 언어들(wh-in-situ languages)은 논항 의문사와 의문부가어 간의 비대칭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왔다. how,

when 및 where의 의문부사는 낮은 의문부가어(low wh-adjunct)로, why는 높은 의문부가어(high wh-adjunct)로 분류된다(Huang, 1982a, b; Tsai, 1994a, b; Fujii et al., 2014). 낮은 의문부가어들이 논항 의문사들과 같이 LF에서 점(복합명사구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 즉 낮은 의문부가어들은 논항 의문사들처럼 논항의 의문사(wh-nominal)로 간주되고 높은 의문부가어 why만이 순수한 의문부사(pure wh-adverb)로 인식된다(Fujii et al., 2014). 한국어의 낮은 의문부가어 ‘어떻게’, ‘언제’ 및 ‘어디서’는 동사구(vP나 또는 VP)에 부가되고 ‘왜’는 Spec-CIntP에 위치한다(Ko, 2005). 영어에서 why와는 다르게, NegP보다 아래에 위치한 how는 부정섬효과를 보인다. Shlonsky and Soare(2011)에서 인용된 (13b)에서처럼, 부정소 Neg는 how의 이동을 금지시킨다(Rizzi, 1990; Tsai, 2008; Shlonsky and Soare, 2011). 이러한 영어의 why와 how의 대조적 쓰임은 한국어의 ‘왜’와 ‘어떻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16B)에서 보듯, 한국어의 의문부사 ‘언제’와 ‘어디서’는 ‘어떻게’와 같이 통사상 NegP보다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정섬 효과를 보인다. (16B’’)에서 의문부가어들은 생략에 의한 부정섬치료가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비문이 된다. 언급 했듯이, ‘요’가 붙은 의문사 조각구문은 PF에서 생략된 구문임을 말해준다. 부정섬을 넘어서 이동하는 (16B’’)의 의문부가어 잔여는 섬효과를 보여서 ‘요’가 붙을 수 없다. (16B, B’, B’’)의 비문법성이 보여주는 것은 낮은 의문부가어들이 LF의 원위치에서 부정섬 효과가 나타나면, 문두로 이동하더라도 그 부정섬 효과는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 철수는 [[_{NP} [_{CP} 영화가 여름에 누군가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는지만, 나는 그게 여름의 언제지/누군지 모르겠다.

(13) a. Why didn't Geraldine fix her bike?
b. *How didn't Geraldine fix her bike? (부정섬효과)

(14) A: 철수가 차를 고쳤어요.
B: 왜/어떻게/언제/어디서 철수가 차를 고쳤나요?
B': 왜/어떻게/언제/어디서 철수가 차를 고쳤나요?

(15) A: 철수가 차를 고치지 않았어요.
B: 왜 철수가 차를 고치지 않았나요?
B': 왜 철수가 차를 고치지 않았나요?

(16) A: 철수가 차를 고치지 않았어요.
B: *철수가 [_{NegP} Neg [_{VP} 어떻게/언제/어디서 차를 고치지 않]았나요? (부정섬효과)
B': *어떻게/*언제/*어디서 [_{IP} 철수가 [_{NegP} Neg [_{VP} t 차를 고치지 않]았나요? (부정섬효과)
B'': *어떻게/*언제/*어디서 [_{IP} 철수가 [_{NegP} Neg [_{VP} t 차를 고치지 않]았나요? (생략에 의한 부정섬치료 없음)

다음은 ‘왜’의 의미로 쓰이는 ‘어떻게’가 (15B)와 (15B’)에서처럼 부정섬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를 보자. (17)에서처럼, ‘어떻게’가 과거시제의 -게 되-구문에 쓰일 때, ‘어떻게’는 ‘왜’처럼 이유의 ‘어떻게’(어떻게^w)로 쓰인다(Ko, 2005). 이유의 ‘어떻게^w’는 방법 또는 도구의 ‘어떻게’와는 달리, ‘왜’처럼 NegP보다 높은 위계인 Spec-CIntP에서 생성된다(Ko, 2005). 이것은 (18)의 예에서 증명된다(Kim, 2021). (18B)와 (18B’)에서는 부정소가 점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19B)와 (19B’)에서는 부정소가 점으로 작용한다. (19B’’)의 의문부가어 잔여는 생략에 의한 섬치료가 없다. 이것이 의문사 조각구문의 특징이다.³²⁾

32) 복합명사구 효과와 부가어 섬효과를 보이는 의문사 조각구문의 분석을 위해서는 D. Lee(2021)을 참고할 것.

- (17) A: John은 {어떻게^W/왜} 꽃병을 깨게 되었니?
 B: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이유)
 B': #아무 주저 없이/#망치로. (방법/도구)
- (18) A: 영화는 차를 고치지 않게 되었어.
 B: 어떻게^W/왜 영화는 차를 고치지 않게 되었니?
 B': 어떻게^W/왜 영화는 차를 고치지 않게 되었니? (의문부가어 조각구문)
- (19) A: 영화는 차를 고치지 않게 되었어.
 B: 영화는 *언제/*어디서 차를 고치지 않게 되었니? (부정섬효과)
 B': *언제/*어디서 영화는 t 차를 고치지 않게 되었니? (부정섬효과)
 B'': *언제/*어디서 영화는 t 차를 고치지 않게 되었니? (생략에 의한 섬치료 없음)

의문부가어 쓰이는 유사수문구문의 내포절 내의 섬제약, 부정섬 제약 여부를 보자. (15A), 즉 (20A)에 대한 대답인 유사수문구문 (20B)는 (21)의 구조를 갖는데, 이때, 위계상 의문부가어보다 위에 위치한 부정소 Neg는 의문부가어 ‘어떻게/언제/어디서’의 의문자질 일치를 차단하여 문장 (20B)는 비문이 된다. 복합명사구제약이나 부가어섬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 유사수문구문들, 즉 (4a)나 (12)에서와는 달리 (20B)에는 (21)에서 보듯, 의문자질 일치에 대해 간접효과를 보이는 Neg가 유사수문구문의 IP 내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A)에 대한 대답으로 (20B)의 어떻게/언제/어디서의 유사수문구문은 부정섬 효과를 보여서 비문이다. 이것은 부가어섬과 복합명사구제약이 유사수문구문에서 무마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IP 위의 복합명사구나 부가어섬과는 달리, (21)에서처럼, Neg가 IP내의 섬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20B)의 낮은 의문부가어 어떻게/언제/어디서가 실제 쓰이는 구조는 (16B)와 같다. 그러나 (20B)는 (14A)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다. 이때는 (21)의 NegP가 내재하지 않는다. (21)에 부정소가 내재한다는 것은 부정소가 외현적으로 쓰이는 다음 (22)에 근거한다. (20A)에 대한 대답으로 ‘왜’의 유사수문구문 (20B)는 (22)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담화대명사인 그게는 (14A)를 의미한다. 예측대로, (23)에서처럼, (22)에 낮은 의문부가어들은 부정섬 효과를 보여서 쓰일 수 없다.

- (20) A: 철수가 차를 고치지 않았어요. (15A)
 B: 나는 그게 왜/*어떻게/*언제/*어디서-인지 모르겠어요.
 (21) 나는 그게 [_{CP} 왜 [_{IP} Neg [_{VP} 어떻게/언제/어디서]-이]-_이]-_{는지}] 모르겠어요.³³⁾
 (22)=5B') 나는 그게 왜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게=철수가 차를 고쳤어요(=14a))
 (23) 나는 그게 *어떻게/*언제/*어디서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게=철수가 차를 고쳤어요(=14a))
- (24) A: 영화는 차를 고치지 않게 되었어. (=18A)
 B: 나는 그게 왜/*어떻게-인지 모르겠어.³⁴⁾ (어떻게≠어떻게^W)
 B': 나는 (어떻게^W) 영화가 차를 고치지 않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24B)

2.3 유사수문구문의 의문사 위치

33) 여기서 계사 ‘이’는 IP내의 기능핵에 나타난다. 본고와는 다른 관점이지만, 계사 위치의 추적을 위해서 Park(2015)을 참고할 것.
 34) ‘왜’는 하위절에 쓰일 때도 Neg보다 위인 Spec-CIntP에 있어서 부정섬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Beck and Kim(1997)에 따르면,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 NPI)나 초점 요소는 의문사에 대해 간섭효과(intervention effect)를 보인다.³⁵⁾ (25a)와 (25b)의 문법성 차이는 부정극어가 의문사에 대해 간섭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에서 주어 위치의 부정극어는 부정의 작용역 내에서 아래로 의문자질 이동을 제한하는 작용역 제한 요소(scope downward-limiting element)이다. (25a, b)는 각각 (27a, b)로 도식화된다. (27b)에서 Spec-CP의 의문사는 C의 의문자질과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 인허되는데 이것은 (27a)와는 달리, 어떤 간섭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6B)의 의문사 조각구문은 문법적인데, 이것은 의문사가 주어인 부정극어를 넘어서 Spec-CP로 이동한다는 증거이다. 즉 의문사 조각구문은 (26B)에서처럼 의문사가 문두로 이동하고 뒤에 남은 IP의 생략으로 형성된다. ‘요’가 붙은 상승조의 조각구문이 이를 증거한다. ‘요’는 문두가 아닌 문장 중간에 쓰이는 의문사에는 붙을 수 없다(Yim, 2012; D. Lee, 2021). 이를 바탕으로 유사수문구문에서 의문사가 이동하는지의 여부를 고찰해 보자. (28B), (30B) 및 (32B)의 유사수문구문의 의문사는 각 B’의 문장에서처럼 이동없이 쓰여서 간섭효과를 보인다. 즉 (27a)의 구조에서 간섭효과를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9B), (31B) 및 (33B)의 유사수문구문의 의문사는 각 B’의 문장에서처럼 Spec-CP로 이동하여 간섭효과는 사라진다. 즉 (27b)의 구조에서 간섭효과는 없다. 조동사(modality)가 쓰이는 문장인 (34B’)의 의문사나 화제, 대조 및 초점 등의 담화효과(discourse effect)를 보이는 (35B’)의 의문사는 LF의 Spec-CP에서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 비해석 의문자질이 지워지고 문법적인 의문사 의문문이 도출된다. 문자화(Spellout) 이전에 조동사가 v에서 T를 거쳐 C로 이동한다고 보면, 그 조동사는 Spec-IP의 부정극어의 작용역이나 부정소 Neg의 부정성 효과 범위를 벗어난다. 조동사가 C로 이동할 때 의문자질이 무임승차(free-ride)로 NPI 작용역과 부정의 영역 밖의 C로 자질이동(feature movement)이 이루어져서 간섭효과와 부정성 효과는 사라진다. 언급했듯이, 한국어에서 주어 위치의 부정극어는 부정의 작용역 내에서 아래로 의문자질 이동을 제한하는 작용역 제한 요소이다. 따라서 문자화 이전에 의문사의 비해석자질이 위계상 주어 위의 C에 있게 되면 부정극어로 인한 간섭효과는 사라진다. C의 의문사의 비해석 자질은 LF에서 Spec-CP의 의문사와 지정어-핵(Spec-head) 일치에 의해 지워지고 문법적인 의문사 의문문이 도출된다. (35B’)에서 담화효과를 보이는 의문사들도 문자화 이전에 무임승차로 비해석자질을 C에 위치시킨다고 보겠다.

- (25) a. *아무도 누구를 초대하지 않았니?
 b. 누구를, 아무도 t_i 초대하지 않았니?
 (26) A: 아무도 영화를 만나지 않았어요.
 B: 누구를 [_{NP} 아무도 t 만나지 않았니]요?
 (27) a. [_{CP} C [_{NP} NPI [_{VP} Wh-word]]] (간섭효과)
 b. [_{CP} Wh-word; C [_{NP} NPI [_{VP} t_i]]] (간섭효과 없음)
 (28) A: 아무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

35) (ia)는 (ib)와는 달리, 초점 요소가 의문사에 대해 간섭효과를 보인다. 이때, (25a)와 (ia)의 비문법성 차이에서 보듯, 부정극어의 의문사에 대한 간섭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이것은 본고의 논의와는 무관하여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 (i) a. (?)?미라만 누구를 초대했니?
 b. 누구를, 미라만 t_i 초대했니?

- B: (?)?그게 어느 나라 법인지 몰라. (간접효과)
 B: ??아무도 **어느 나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니? (간접효과)
 (29) A: 법을 아무도 위반하지 않았어.
 B: 그게 어느 나라 법인지 몰라. (간접효과 없음)
 B: **어느 나라 법을** 아무도 위반하지 않았니? (간접효과 없음)
 (30) A: 아무도 어떤 여학생을 만나지 않았다.
 B: ?*그게 누구지 몰라. (간접효과)
 B: ?*아무도 **누구를** 만나지 않았니? (간접효과)
 (31) A: 어떤 여학생을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B: 그게 누구지 몰라. (간접효과 없음)
 B: **누구를** 아무도 만나지 않았니? (간접효과 없음)
 (32) A: 아무도 인증을 받지 못했어.
 B: ??그게 무슨 인증인지 모르겠어. (간접효과)
 B: ??아무도 **무슨 인증을** 받지 못했니? (간접효과)
 (33) A: 인증을 아무도 받지 못했어.
 B: 그게 무슨 인증인지 모르겠어. (간접효과 없음)
 B: **무슨 인증을** 아무도 받지 못했니? (간접효과 없음)
 (34) A: 아무도 누군가를 만날 수 없었어.
 B: (?)?그게 누구지 모르겠어. (간접효과 없음)
 B: (?)?아무도 누군가를 **만날 수** 없었니? (간접효과 없음)
 (35) A: 아무도 누군가-는/만 만나지 않았어.
 B: 그게 누구지 모르겠어. (간접효과 없음)
 B: 아무도 **누구-는/만** 만나지 않았니? (간접효과 없음)

3. 의문부가어의 부정섭 치료

Kuno(1997)가 제시한 다음 (57)의 두 문장의 문법성의 차이를 보자. (예문 번호는 작성 중인 논문의 인용문 번호를 그대로 표기하겠다.) 부정의 대상이 부정소의 성분통어영역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 (57a)와 (58b)에 의해 증명된다. 앞서 보았듯이, (57a)에서 how는 동사구 의문부사로 쓰여서 부정섭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부정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57b)에서 의문부사 how는 어떻게 부정소의 성분통어영역 밖에 쓰일 수 있을지의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은 다음에서 보듯, 한국어 의문 부사 의문문에서도 생긴다.

- (57) a. *How_i didn't you behave e_i?
 b. I know that cultures and customs in your country are different from those in my country. Since I don't want to be considered rude or impolite, please tell me how_i I shouldn't behave e_i.
 (58) a. John didn't do it carefully. (부사 carefully 부정)
 b. ??Carefully, John didn't do it.
 (59) a. John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부사 '무례하게' 부정)
 b. *어떻게 John이 행동하지 않았니?
 (60) a. John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부사 '무례하게' 부정, 의무의 조동사(modality) 구문)
 b. (미국인인 John이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올 때, 그는 한국에서

무례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의 부모가 지인의 한국인에게 ‘어떻게 John이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까?’라고 말할 수 있다.)

- (61) a. John이 어제 오지 않았다. (부사 ‘어제’ 부정)
 b. *언제 John이 오지 않았니?/*John이 언제 오지 않았니?
 (62) a. John이 어제 올 수 없었다. (부사 ‘어제’ 부정, 가능성의 조동사 구문)
 b. 언제 John이 올 수 없었니?/John이 언제 올 수 없었니?
 (63) a. John이 부산에서 오지 않았다. (‘부산에서’ 부정)
 b. *어디서 John이 오지 않았니?/*John이 어디서 오지 않았니?
 (64) a. John이 부산에서 올 수 없었다. (‘부산에서’ 부정, 가능성의 조동사 구문)
 b. 어디서 John이 올 수 없었니?/John이 어디서 올 수 없었니?

본고는 조동사도 부정의 대상이 되는 요소를 부정의 성분통어영역의 안과 밖에 관계없이 부정소와 연결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57b), (60b), (62b) 및 (64b)의 문법성을 옳게 포착한다. 문자화 이전에 조동사의 C로의 이동시 의문사 자질은 C로 무임승차한다. 문자화 이전에 조동사가 v에서 T를 거쳐 C로 이동한다고 보면, 그 조동사는 vP와 IP 사이의 NegP의 핵 Neg와 Spec-IP의 부정극어의 영역이나 작용역 범위를 벗어난다. 한국어에서 주어 위치의 부정극어는 부정의 작용역 내에서 의문자질 이동을 제한하는 작용역 제한 요소이다. 또한, 한국어 의문부사 의문문의 경우, 부정문의 핵인 부정소는 그것의 성분통어영역 내에서 의문 자질 이동을 제한하는 요소이다. 즉 LF에서 부정섬 효과를 나타낸다. 이때 NPI는 Spec-IP에 있는 주어이고 부정소는 Neg에 있는 핵이라서 이 두 요소는 그 성분 자체가 다른 것이다. NPI는 부정의 영역 내에서 위계상 아래로 함의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 두 구문에서 문자화 이전에 조동사가 C로 이동할 때 의문자질들이 무임승차로 NPI 작용역과 부정의 영역 밖의 C로 자질이동이 이루어져서 간섭효과와 부정섬 효과는 사라진다. C의 의문사의 비해석 자질은 LF에서 Spec-CP의 의문사와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 지워지고 문법적인 의문사 의문문이 도출된다. 담화효과를 보이는 의문사도 문자화 이전에 무임승차로 비해석자질을 C에 위치시킨다. 이것은 (67)과 (68)의 문법성이 보여주는 바이다. 언급했듯이, Beck and Kim(1997)에 따르면, 부정극어나 ‘-만’과 같은 작용역 요소는 의문사에 대해 간섭효과를 보인다. (65)와 (66)의 문법성 차이는 ‘-만’과 같은 작용역 요소나 부정극어가 의문사에 대해 간섭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71A)의 담화효과를 보이는 부가어를 묻는 (71B)의 의문부사의 ‘는’ 표시자가 탈락되더라도 그 의문부사는 담화효과를 여전히 보인다. 이것은 선행질의 부가어 표현이 담화효과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 즉 받아 유형은 허용되지 않고 병합 유형만 허용된다. (72B’)에서 의문부사는 그 비해석 의문자질이 문자화 이전에 조동사와 함께 C로 무임승차해 있어서 LF에서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서 지워진다. 이것은 (69a)가 선행질로 쓰일 때의 질문 (69c)의 문법성이 증명한다. 이 때, 부정섬 효과는 없다.

- (65) a. (?)*John만 누구를 만났니?
 b. 누구를 John만 만났니?
 (66) a. ?*아무도 무엇을 사지 않았니?
 b. 무엇을 아무도 사지 않았니?
 (67) a. (?)*John이 누구를 만날 수 있었니?
 b. (?)*아무도 무엇을 살 수 없었니?

- (68) a. John이 누구는 만났니?
 b. 아무도 무엇을 사지 않았니?
- (69) a. 철수가 빨리/오전에/교실에서 책을 읽지 않았어.
 b. 철수가 *어떻게/*언제/*어디서 책을 읽지 않았니?
 c. 철수가 어떻게/언제/어디서 책을 읽을 수 없었니?
 d. 철수가 어떻게는/언제는/어디서는 책을 읽지 않았니?
 e. {어떻게 John이/John이 어떻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까/하니? (=60b)
- (70) a. 부정섬 효과
 [CP C [IP T [NegP **Neg** [vP 어떻게/언제/어디서 v [VP V ...]]]]
 b. 문자화 이전의 조동사 또는 담화효과의 C의 의문사 비해석자질(QUF)
 [CP **Q** [IP T [NegP Neg [vP 어떻게/언제/어디서 v [VP V ...]]]]
- (71) A: 철수가 빠리는(대충은)/오전에는/교실에서는 책을 읽지 않았어.
 B: 인호는 그게 어떻게인지/언제인지/어디서인지 모르고 있어.
 B': 인호는 철수가 어떻게는/언제는/어디서는 책을 읽지 않았는지 모르고 있어.
- (72) A: 철수가 빨리/오전에/교실에서 책을 읽을 수 없었어.
 B: (?)인호는 그게 어떻게인지/어딘지/언제인지 모르고 있어.
 B: 인호는 철수가 어떻게/언제/어디서 책을 읽을 수 없었는지 모르고 있어.

(73)과 (74)도 (72)와 같이 의문부사는 그 비해석 의문자질이 문자화 이전에 조동사와 함께 C로 무임승차해 있어서 LF에서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서 지워진다. 이것은 각각 (73A)와 (74A)를 선행절로 취할 때의 질문인 (75a, b)의 문법성이 증명한다. 이 때, 부정섬 효과는 없다. (73B')과 (74B')은 각각 (73A)와 (74A)에 의문부사의 연관어가 쓰이지 않으면 문법성은 크게 떨어진다. 즉 연관어가 쓰이는 병합 유형에서 유사수문구문 (73B)와 (74B)가 쓰일 수 있다.

- (73) A: 철수가 크게/오전에/도서관에서 TV를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
 B: 인호는 그게 어떻게/언제/어디서-인지 모르고 있어.
 B': 인호는 철수가 어떻게/언제/어디서 TV를 시청하지 않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
- (74) A: John이 한국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B: 인호는 그게 어떻게 인지 모르고 있어.
 B': 인호는 John이 한국에서 어떻게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
- (75) a. 철수가 어떻게/언제/어디서 TV를 시청하지 않아야 하니?
 b. John이 (한국에서) 어떻게 행동하지 않아야 하니? (=69e)

4. 결론

유사수문구문의 의문사는 원위치에서 LF상 의문자질이 인허된다. 유사수문구문은 부정섬 효과를 보이는데, IP위의 복합명사구나 부가어섬과는 달리, 부정소 Neg가 IP내의 섬으로 기능한다. 이것이 본고가 고찰한 중요한 사항이다. 본고는 의문부사가 쓰이는 유사수문구문의 섬계약, 즉 부정섬의 계약을 다루었다. 나아가 본고는 조동사나 담화효과가 나타나는 병합 유형의 유사수문구문이 왜 부정섬 효과를 무마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유사수문구문에서 위계상 의문부가어보다 위에 위치한 부정소 Neg는 의문부가어 '어떻게/언제/어디서'의 의문자

질 일치를 차단하여 문장이 비문이 되게 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어에서 주어 위치의 부정극어는 부정의 작용역 내에서 의문자질 이동을 제한하는 작용역 제한 요소이다. 또한, 한국어 의문부사 의문문의 경우, 부정의 핵인 부정소는 그것의 성분통어영역 내에서 의문자질 이동을 제한하는 요소이다. 이때 LF에서 부정섬 효과가 나타난다. 조동사나 담화효과가 나타나는 문장에서는 부정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본고는 이때 병합 유형의 유사수문 구문이 부정섬 효과를 무마시키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문자화 이전에 조동사가 v에서 T를 거쳐 C로 이동한다고 보면, 그 조동사는 vP와 IP 사이의 NegP의 핵 Neg와 Spec-IP의 부정극어의 영역이나 작용역 범위를 벗어난다. C의 의문사의 비해석 자질은 LF에서 Spec-CP의 의문사와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 지워지고 문법적인 의문사 의문문이 도출된다. 문자화 이전에 조동사가 C로 이동할 때 의문자질이 무임승차로 NPI 작용역과 부정의 영역 밖의 C로 자질이동이 이루어져서 간섭효과와 부정섬 효과는 사라진다.

참고문헌

- Beck, Sigrid and Shin-Sook Kim. 1997. On Wh- and Operator Scope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6.4, 339-384. <https://doi.org/10.1023/A:1008280026102>.
- Chomsky, Noam.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 van Craenenbroek, Jeroen. 2013. Ellipsis, Identity, and Accommodation: The Case of Case. Paper presented in Identity in Ellipsis Conference, Leiden University.
- Fernández-Sánchez, Jesús. and Dennis Ott. 2020. Dislocations. *Language and Linguistic Compass*, 1-39. UK: Wiley and Sons Ltd. DOI: <http://10.1075/la.258>.
- Fujii, Tomohiro, Kensuke Takita, Barry Chung-Yu Yang, and Wei-Tien Dylan Tsai. 2014. Comparative Remarks of Wh-adverbials in situ in Japanese and Chinese. In Mamoru Saito (ed.), *Japanese Syntax in Comparative Perspective*, 181-205.
- Higgins, F. Roger. 1979. *The Pseudo-cleft Construction in English*. New York: Garland.
- Hong, Yong-Tcheol. 2017. Animacy of *Kes* in *Kes* Cleft Construc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7.3, 713-731.
- Huang, James. 1982a.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MIT.
- Huang, James. 1982b. Move WH in a Language without Wh-Movement. *Linguistic Review* 1.4, 369-416.
- Kim, Jeong-Seok. 1997. Syntactic Focus Movement and Ellipsis. Doctoral Dissertation, UConn.
- Kim, Jinkyong. 1996. *Negation in Korean: A Functional and Discourse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 Kim, Okgi. 2021. On the Syntax of 'Why'-like 'How'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6.1, 788-796.
- Ko, Heejung. 2005. Syntax of Why-in-situ: Merge into [Spec, CP] in the Overt Syntax.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3.4, 867-916.
- Kuno, Susumu. 1997. Remarks on Negation. Paper Presented at the 4th SICOL.

- Lee, Doo-Won. 1999. Remarks on Negative Island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III, 457-471.
- Lee, Doo-Won. 2021. Wh-Fragment vs. Sluicing-like Construction in Korean.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 Lee, Sook-Hee. 2019. "Reconsidering Korean Sluicing-like Construc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9.1, 97-121. DOI: 10.15860/sigg.29.1.201902.97.
- Lee, Sook-Hee. 2020. A Cleft Analysis of the Sprouting Type Sluicing-like Construction in Korean(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30.1, 115-132. DOI: 10.15860/sigg.30.1.202002.115.
- Lee, Sook-Hee. 2021. Two Structures and Specificationality of Korean Sluicing-like Constructions(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31.1, 107-128. DOI: 10.15860/sigg.31.1.202102.107.
- Merchant, Jason. 2001. *The Syntax of Silence: Sluicing, Islands, and the Theory of Ellip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rchant, Jason. 2004. Fragments and Ellips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 661-738.
- Park, Soyong. 2015. The Cleft Analysis of Korean Sluicing Revisited (in Korean).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71, 113-138. DOI: 10.17290/jlsk.2015.71.113.
- Pesetsky, David. 2000. *Phrasal Movement and Its Kin*. Cambridge, MA: MIT Press.
- Rizzi, Luigi. 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ass.: MIT Press.
- Ross, John Robert.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 Ross, John Robert. 1969. Guess Who? In *CLS 5: Papers from the Fif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edited by In Binnick Robert, Davison Alice, Green Georgia, and Jerry Morgan*, 252-286.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Shlonsky, Ur, and Gabriela. Soare. 2011. Where's 'Why'? *Linguistic Inquiry* 42.4, 651 - 669. https://doi.org/10.1162/LING_a_00064.
- Tancredi, C. 1990. Not Only Even, but Even Only. Ms. MIT.
- Thomas, Linda. 2001. *Beginning Syntax* Cambridge, MA: Blackwell.
- Tsai, W. Dylan. 1994a. On Economizing the Theory of A-bar Dependencies. Doctoral Dissertation, MIT.
- Tsai, W. Dylan. 1994b. On Nominal Islands and LF Extraction in Chines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2.1, 121-175.
- Tsai, W. Dylan. 2008. Left Periphery and How-Why Alternation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7, 83 - 115. <https://doi.org/10.1007/s10831-008-9021-0>.
- Vincente, Luis. 2014. Sluicing and Its Subtypes. Manuscript, Universität Potsdam.
- Yim, Changguk. 2012. Fragment Answers Containing -Yo in Korean: New Evidence for the PF Deletion Theory of Ellipsis. *Linguistic Inquiry* 43.3, 514-518.

Session 5

영어교육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쪽수
13:10-13:35	이승복	춘천교대	ELP 활용을 통한 영어학습자 자기주도성 향상 방안	203
13:35-14:00	이삭	서울교대 부설초교	학습자 몰입(engagement) 이론 기반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 개발 및 교수·학습 설계 원리	209
14:00-14:25	신창원	제주대	지역수준의 영어교육정책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215
14:25-14:45	휴식			
14:45-15:10	윤택남	춘천교대	음성대화처리기술 기반 수업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반응 연구	233
15:10-15:35	김병선	가톨릭 관동대	외국 동화 역번역을 통한 영어 어휘 학습 효과	237
15:35-16:00	허선민 & 이강영	충북대	코로나바이러스 19 영어 교육상황의 현실 점검: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239

ELP 활용을 통한 영어학습자 자기주도성 향상 방안

이승복
(춘천교육대학교)

I. 서론

최근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하나를 들자면 ‘자기주도성(learner’s autonomy)’을 꼽을 수 있다. 자기주도성이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활동 전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주도성 관련 연구논문들(Benson, 2003; Dickinson, 1995; Suharmoko, 2018 등)의 결과에 따르면,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외국어 학습 활동 과정에서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태도로 외국어 사용 능력을 발전시켜 간다. 이들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점은, 외국어 학습 활동에서 자기주도성은 다른 심리적 요소들 예를 들자면 학습동기, 자신감, 불안상태, 태도, 의지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학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목표 또는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학습 활동 전체와 학습 결과를 혼자 힘으로 스스로 점검, 확인, 분석한다.

그러나 자기주도성 학습 활동이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제 외국어 교육 상황에 적용, 활용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 영어교육 상황처럼 오랜 세월 동안 교육당국(교육부, 교육청)에 의한 하향식 교육과정 운영, 교사에 의한 설명 및 시범위주 수업 활동, 교과서 중심의 단원별 학습 활동, 정확성 위주의 반복연습 및 암기를 통한 기계적 훈련을 포함하는 외국어 교수 모형은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모순되게도 발전시키지 못하는 원인이었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특히,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경우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생각 없이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방향과 내용도 모른 채 다소 맹목적으로 이리 저리 떠밀려 다니기 십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린이들의 영어 학습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인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가 영어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터득시켜주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육 활동 과정에서도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영어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도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교육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 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자는 현재 유럽 전역 34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럽 언어 포트폴리오(European Language Portfolio: ELP)의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사들이 자신의 교실에 적용하여 어린이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개발시켜줄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CEFR, ELP에 나타난 자기주도성 학습 원리

1. CEFR에 나타난 외국어 유창성 단계 및 정의

1991년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는 수 백 년에 걸쳐 유럽 사회에서 언어 차이로 인해 지속되어온 인종,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스위스에서 유럽 국가 간(intergovernmental)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 회의 결과물로 유럽의회 산하 언어정책분과위원회(Language Policy Division)는 회의 다음 해인 1992년 유럽 전역 정규 학교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을 위한 공통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s for Languages: CEFR)안 초안을 만들고, 1997년에 개정안을 그리고 같은 해 이 개정안을 토대로 외국어 교육을 위한 실제 지침서인 ELP를 개발한다. CEFR의 공통기준에 따르면 외국어 사용자의 유창성은 아래의 그림1과 같이 초급(A1)에서 상급(C2) 6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1> 유럽 언어 공통 기준 외국어 유창성 기준(출처: Council of Europe, 2011)

CEFR의 외국어 유창성은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넓게는 초급(basic user), 중급(independent user), 상급(proficiency user) 3단계로 구분하고, 좁게는 각각의 단계를 다시 2단계 즉, A1/A2, B1/B2, C1/C2 6단계로 나누어진다. 유럽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로서 영어의 유창성 6단계는 아래의 표1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표 1> CEFR 외국어로서 영어 유창성 단계별 정의(출처: Council of Europe, 2011)

BASIC	A1 beginner			You can understand and use basic phrases and expressions. You can communicate in simple ways when people speak slowly to you.
	A2 Elementary		Cambridge A2 Key	You can take part in simple exchanges on familiar topics. You can understand and communicate routine information.
	A2+ Pre-Intermediate			You can participate in short conversations in routine contexts on topics of interest. You can make and respond to suggestions.
INDEPENDENT	B1 Intermediate	IELTS 4 to 5	Cambridge B1 Preliminary	You can communicate in situations and use simple language to communicate feelings, opinions, plans and experiences.
	B2 Upper Intermediate	IELTS 5.5 to 6.5	Cambridge B2 First	You can communicate easily with native English speakers. You can understand and express some complex ideas and topics.
PROFICIENT	C1 Advanced	IELTS 6.5 to 8	Cambridge C1 Advanced	You can understand and use a wide range of language. You can use English flexibly and effectively for social and academic purposes.
	C2 Proficiency	IELTS 8+	Cambridge C2 Proficiency	You can understand almost everything you hear or read. You can communicate very fluently and precisely in complex situations.

2. 외국어 교육과 ELP

CEFR의 부속물로서 개발된 외국어 교육 활동을 위한 실행 자료인 ELP는 위에서 언급 하였던 것처럼 1997년 초안이 만들어 지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유럽 15 개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된 후, 2001년부터 유럽의 34개 모든 국가는 이 포트폴리오를 자 국의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ELP 자료의 핵심 내용은 외국어 교육 활동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learner's autonomy)이다. ELP 구성은 세 영역 으로 이루어지는데 Language Passport, Language Biography, Language Dossier를 포함한다. 외국어 학습자는 Passport에 모국어를 포함하여 자신이 이해하거나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외국어 사용에 관한 다양한 경험 및 정보를 자세하게 수록한다. 이때 외국어 사용자는 외국어 사용에 관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여 매우 솔직하게 기록해야 한다. Biography 속에 학습자는 특정 외국어 학습 및 사용에 대한 자신의 학습목표, 활동 방향, 구체적인 활동 종류 및 내용, 학습 과정, 학습 결과 등을 스스로 정리하여 기록한다. Biography 작성 시 학습자들은 “I can _.” 또는 “I do _.”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이들 영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한다. Passport와 Biography 작성과 관련하여 학습자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수집, 정리하여 보관하는 Dossier를 만든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ELP 활용의 핵심은 외국어 교육 활동에서 학습자 자신의 자기주도성이다. 이승복(2021)은, 학습자 자율성이란 외국어 학습자 자신이 자신의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가는 것으로 학습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학습 자료 및 활동을 스스로 찾아 선택하고, 스스로 정한 일정에 따라 실천해 가는 행동 일체로 정의하고 있다.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터득하기 위해선 외국어 학습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상관없이 자신의 선생님,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한 상태에서 냉철하면서도 솔직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승복은 주장한다(2021, pp. 12-13). 외국어 교육 활동을 위한 유럽의 언어 공통기준인 CEFR과 ELP 활용의 근간은 ‘학습자 자신의 자기주도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다: 1) 명확한 학습목표 설정, 2) 최적의 학습 전략 사용, 3) 학습동기 강화.

3. ELP를 활용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 향상 방안

1) 명확한 학습목표 스스로 정하기

우리나라 교육부의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4]).

초등학교 영어는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른다.

나. 자기주변의 일상생활 주제에 관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다. 영어 학습을 통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한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초중등 모든 영어 학습자들은 교육부에서 정한 영어교육 목표를 반영하여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해당 영어교과에서 성취하고 싶은 목적,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외국어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ELP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눈에 두드러진 특징은 개별 학생이 자신의 교육목표를 정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이다. 해당 교사는 개별 학생들의 현재 언어수준, 관심 등을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실천 가능하고, 성취 가능한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모든 학생들을 교사의 의도대로 끌거나 밀고 가지 않는다. ELP에 나타난 자기주도성(learner's autonomy)의 요소를 우리나라 학교 EFL 교육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교사는 교육부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교육목표를 따르되 한 단계 더 나아가 정규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수준, 관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때 교사가 주의할 점 가운데 하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의 현재 언어 수준과 행동 특성 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교사가 옆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주안점은 학생이 정하는 목표가 너무 높거나 어려워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낮거나 쉬워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2)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학습 전략 스스로 찾기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 설정하기 이외에, 학습자 자기주도성 관련하여 ELP 활용을 통해 유럽의 외국어 교사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요소는, 개별 학생 자신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방향, 구체적인 학습 방법 및 자료, 결과 평가와 분석을 위한 방법 등을 스스로 정하고 찾는 점이다. Elizondo와 Garita(2013)의 다음과 같은 주장처럼, “how autonomous a learner becomes highly depends on how solid and effective strategies are” (p. 330), 우리나라 초중등 영어 학습자들도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을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집권적 하향식 형태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지도되고 있는 영어교육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사중심, 교재중심, 일체식 설명-반복-정확성-암기 위주의 지도 방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사는 개별 영어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방법, 내용, 자료,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 학습자가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주도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나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지시하는 대신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맞게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방향으로 지도 전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하듯, 모든 개별 학습자 사이에는 교사 자신을 포함하여 예외 없이 여러 면에서 수 없이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한 일체식 외국어 지도 방법은 해당 교사의 기대만큼 효과적이 못할 수 있다. 외국어 교육 활동에서 이와 같은 비효율성은 수없이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개별 학습자 스스로 인

식하여 그 방법 또는 전략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단기 교육목표는 물론 장기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이 분명하다. 바로 이점이 ELP에서 구현되고 있는 자기주도성 향상을 위한 외국어 지도 방법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 초-중등 EFL 상황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요소이다.

3) 자신의 외국어 학습동기 스스로 높이기

외국어 교육 활동에서 학습자의 동기(motivation)에 관한 대표적인 주장은 Krashen(1985)의 Affective Hypothesis인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를 사용할 때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낮거나 없는 즉, 자신감과 외국어 사용 또는 학습에 대한 학습동기가 많거나 강하면 그렇지 않은 외국어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습득이 빠르고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동기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 결과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 외국어 학습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학습동기가 있지만 공통적인 현상은 일반적으로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들의 외국어 사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다. 학습동기 유발 원인은 개별 학습자에 따라 워낙 다양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나, 학교 정규 외국어 교육 과정 운영에 초점을 맞춰보면 학습동기 유발 여부, 정도 차이는 분명히 학업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국어 학습 동기 효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교육과정 운영에 학습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 참여 정도에 따라 외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한 동기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성취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2001년부터 유럽 전역 34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을 위한 활용자료인 ELP는 개별 학습자들의 학습동기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학습목표 설정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부합하는 최적의 학습 방법, 내용, 자료를 선택하고, 성취 결과를 평가, 분석하는 모든 과정에 개별 학습자 모두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초중등 영어 교육 상황은 중앙집권적 하향식 모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별 영어 학습자들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현상이다. 중앙통제 하향식 교육 과정 운영 방식을 개별 교사의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전환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을 지라도 ELP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리들을 우리나라 초중등 영어교육 활동에 조금씩 응용한다면 이와 같은 작은 변화는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커다란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초중등 영어교육의 목표가 학생들이 영어로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분명한 이상, 영어교육 과정 운영에 개별 학습자를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영어교육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것은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교사가 찬란한 교수방법으로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성취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유럽의 모든 국가 학교 외국어 교육 과정 운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럽 언어 포트폴리오(European

Language Portfolio)의 외국어 교육 기본 원리를 우리나라 학교 영어교육 활동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내용의 핵심은 자기주도성 (learner's autonomy) 학습 활동으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설정한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학습 방향, 활동, 내용, 자료, 평가 방법을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맞게 학생 스스로 찾아내고, 셋째, 영어교육 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개별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EFL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앙 통제 방식의 수업에서는 학습자 사이의 수준, 관심, 목적 등의 개별 차이가 무시된 채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의 모든 활동이 진행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교육 과정 운영 방식은 불행스럽게도 외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혹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습자를 제도적으로 자연스럽게 양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정규 초중등 학교 영어교육 활동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교사의 입장에서 지도방법의 모형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ELP의 교육적 효과는 우리나라 영어교사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IV.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 이승복. (2021). European language portfolio(ELP)를 활용한 초등영어 지도방법 연구. *교육연구*, 39(2), 1-26.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Benson, P. (2003). *Learner autonomy in the classroom*. In Nunan, D. (Ed.).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 Hill.
- Council of Europe. (2011). *European Language Portfolio: Principles and Guideline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Dickinson, L. (1995). *Autonomy and motivation: A literature review*. *System*, 23, 165-174.
- Elizondo, L. B & Garita, C. O. (2013). A closer look into the EFL classroom. *Revista de Lenguas Modernas*, 19, 325-343 / ISSN: 1659-1933.
- Krashen, S.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New York: Longman.
- Suharmoko, A. R. (2018). Building autonomous learners in English as foreign language (EFL) classroom.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Volume 15, 231-233.

학습자 몰입(engagement) 이론 기반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 개발 및 교수·학습 설계 원리³⁶⁾

이삭

(서울교대부설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술이 학교 교육에 활용되고 있으며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외국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목표 언어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 중에서 인공지능 챗봇이 주목을 받고 있다. 초등영어학습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 주목을 받는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를 지도하는 교사가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를 교수·학습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였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탐구한 교실 기반의 수업 적용 연구는 일부(김성우, 이삭, 2020; 심규남 외 4인, 2020; 이삭, 2019; 임완철 외 4인, 2019; 최원경, 2020; 추성엽, 민덕기, 2019; 홍선호 외 3인, 2021)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일부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한 과정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였을 뿐 체계적인 교수·학습 모형이나 방법론에 근거하지 않았는데, 학습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접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설계 원리와 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습자 몰입이라는 구인이 교육학 연구 및 제2외국어/외국어교육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Christenson, Reschly, & Wylie, 2012; Hiver, Al-Hoorie, & Mercer, 2021; Lawson & Lawson, 2013; Philip & Duchesne, 2016), 이는 학습자 몰입이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 몰입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설계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고 교수·학습에 적용하여 학습자들에게 나타난 몰입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몰입에 효과적인 인공지능 챗봇 매개 초등영어 교수·학습 설계 원리와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2개의 연구 문제와 각 연구 문제별 3개의 하위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몰입 향상을 위한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 설계 및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1) 활동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인공지능 챗봇 설계 방안은 무엇인가? 2) 인공지능 챗봇 모드에 따른 효과적인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 3)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효과적인 인공지능 챗봇 운용 형태는 무엇인가? 둘째,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설계 원리 및 모형은 무엇인가? 1)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 대화문 설계 원리는 무엇

36) 본 원고는 발표자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인가? 2)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경험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3)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초등영어 교수·학습모형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II. 연구 방법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H초등학교 5학년 3개 학급 학습자 47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 기반 혼합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수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수업에 사용될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반복형, 문답형, 대화형 활동의 언어 중심 발화 활동과 과업형 활동인 과제 중심 발화 활동으로 이원화하여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총 13개 단원(주제)의 말하기 수업에서 크게 활동유형, 인공지능 챗봇 모드, 교수·학습방법의 3가지 이슈에 따라 3개 학급을 각각 연구반과 비교반으로 설정하여 교차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연구 방법 및 결과의 다각화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실험연구 기반 혼합연구 방법의 설계와 적용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말하기 활동 동영상, 교사 관찰지 및 수업일지, 학습자 자기인식 몰입도 설문 및 반구조화 면담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질적 자료는 주제 분석, 담화 분석을, 그리고 학습자 자기인식 몰입도 척도형 설문은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활동유형에 따른 학습자 몰입

실험연구의 첫 번째 이슈인 활동유형에 따른 학습자 몰입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형 발화 활동에서는 인공지능 챗봇이 주는 신기 효과에 의해 학습자의 언어 인식도가 증가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지루함과 탈 과업 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문답형 발화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발화 오류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주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 구사력이 발화 수행에 영향을 미쳐 학습자의 행동적, 정서적 반응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활동에서는 인공지능 챗봇과의 대화 중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서 의사소통의지가 확인되었다. 셋째, 대화형 발화 활동에서는 창의적 발화 시도를 통한 인공지능 챗봇의 특징을 탐색하는 학습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발화 자유도의 부재에 따라 과업 집중도 저하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해당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넷째, 과제 중심 발화 활동 중 조사하기 과업에서는 챗봇의 구조가 복잡하고 수행요구 발화량이 많음에 따라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조사하기 과업에서는 학습자 몰입의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영역이 정서적 영역에 다양한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여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과제 중심 발화 활동 중 역할놀이 과업에서는 발화 연습이 아닌 미션 수행에 초점을 둔 행동이 나타났다. 또한, 챗봇 활용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반복적인 성공을 경험한 학습자들에게서 말하기에 자신감을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2. 인공지능 챗봇 모드에 따른 학습자 몰입

실행연구의 두 번째 이슈인 인공지능 챗봇 모드에 따른 학습자 몰입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공지능 챗봇의 모드는 음성-문자 이중 모드와 음성 단일 모드의 두 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모드에 따라, 그리고 동일 차시 내에서 모드의 적용 방식에 따라 학습자 몰입에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음성-문자 이중 모드에서는 시·청각적 정보를 동시에 활용한 의사소통 활동을 시도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으며 학습자들은 태블릿과 일대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지적, 행동적으로 몰입하는 양상이었다. 반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사회적 몰입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음성 단일 모드에서는 학습자가 청각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챗봇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인지하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러대의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소리와 학습자의 탈 과업 행위에서 유발된 소음이 음성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자들의 전략적 행동이 나타났는데 발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상이한 정서적 몰입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동일 차시 내에서 활동유형에 따라 모드를 전환하여 언어 중심 발화 활동에서 음성-문자 이중 모드를, 과제 중심 발화 활동에서 음성 단일 모드를 적용한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인식하는 몰입도가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에서 음성 단일 모드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경험한 학습자들에게서 각각의 모드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가 다양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둠 활동에서 나타난 사회적 몰입의 상이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학습자에게 모드 선택권을 제공한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성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 두 가지 모드를 모두 활용하여 반복적인 발화 연습을 시도하는 학습자들이 많아지면서 학습자 발화량이 증가하였고, 이는 발화 성공에 따른 정서적 몰입을 높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더불어, 또래 학습자 간 소통이 많아지고 서로의 말하기 수행과정에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3.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학습자 몰입

실행연구의 세 번째 이슈인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학습자 몰입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초등영어 교수·학습방법을 체계화하고자 크게 개별 맞춤형 학습, 협력 학습, 스테이션 학습, 게이미피케이션의 4가지를 적용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챗봇의 운용 형태를 개별형, 협력형, 상호관찰형, 모듬형의 4가지로 선정하여 각 교수·학습방법 적용 단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첫째, 개별 맞춤형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개별 발화 연습 과정에 초점화된 행동을 보였으며,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협력 학습에서는 메타인지 사고 및 상호관찰을 통한 학습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하위 학습자가 말하기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었다. 한편, 협력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발화 기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셋째, 스테이션 학습에서는 학습자에게 활동의 진행 순서와 수행 정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학습자들에게서 다양한 행동 양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스테이션 활동을 수행하며 수행 성공 및 스테이션 전환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정서적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스테이션 활동을 수행할 때 교사가 협력 활동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학

습자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한 반응을 나타냈다. 넷째, 게이미피케이션에서는 학습자가 미션 수행을 위해 인지적 각성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상 시스템과 같은 외재적 요인이 학습자의 학습 관련 행동을 강화하는 모습이었다. 학습자들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에 흥미와 즐거움을 느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수행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초등영어 교수·학습 설계 원리 및 모형

지금까지 제시한 활동유형, 인공지능 챗봇 모드,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학습자 몰입양상을 토대로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교수·학습 설계 원리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 대화문 설계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 대화문 설계를 위해서는 피드백 제공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크게 상호작용 극대화를 위한 피드백과 오류수정을 통한 정확성 유도를 위한 피드백으로 나누어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을 고려한 대화문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챗봇을 의인화하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방법과 학습자 발화를 챗봇이 재진술 하는 대화 상황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는 소재를 활용해 대화문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학습자 수준에 따른 대화문 설계가 필요하다. 상위 학습자를 위해서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의사소통 구문을 다양하게 포함한 과제 중심 발화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중위 학습자를 위해서는 언어 중심 발화 활동을 통해 충분히 발화 연습을 진행한 뒤 과제 중심 발화 활동 경험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 하위 학습자를 위해서는 교과서 대화문을 활용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대화문을 설계하고 세밀한 활동 안내, 교사의 적절한 지원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 대화문 설계를 위해서는 챗봇 실행, 지시문 제시, 대화, 피드백, 답답 나누기, 마무리의 6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다.

이어서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경험 증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멀티모달리티 구현이 필요하다. 음성 정보뿐만 아니라 문자 정보를 통합한 의사소통활동으로 적용하면 언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어 학습에 효과적인 기능을 아이콘으로 제작하고 학습자가 이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시문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챗봇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앱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심미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 몰입 향상을 위한 학습자 경험 설계를 위해서 포인트, 레벨 시스템, 리더보드 등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챗봇 매개 초등영어 교수·학습 모형을 크게 CAMP 모형(차시 모형), 단원 모형, 단원 통합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차시 중심 모형인 CAMP 모형에서는 맥락, 지원, 매개, 표현의 4단계에 따른 학습 흐름과 각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활동유형, 인공지능 챗봇 모드, 교수·학습 방법 및 인공지능 챗봇 운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단원 모형에서는 주제별로 구성된 초등영어 교과서 내의 개별 단원 학습 시, 말하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지능 챗봇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어 기능의 위계를 고려하여 각 차시별로 어떤 발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셋째, 단원 통합 모형에서는 개별 단원을 2개 이상 진행하고 나서 학습한 구문을 복습하고자 2차시 분량의 수업을 구현함으로써 학습자가 각 단원에서 배운 표현을 반복 학습하고 상기하여 목표 구문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인공지능 챗봇을 초등영어교육에 체계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초등영어 학습목적형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난 몰입양상을 토대로 교수·학습 설계 원리 및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교실 기반 실험연구에 혼합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교실 기반 이론을 생성함으로써 추후 초등영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제작하고 활용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EFL 환경의 상황적 제약을 극복하고 학습자 몰입을 극대화하여 초등영어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발맞춘 혁신적인 외국어교육의 구현 및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우, 이삭. (2020). 인공지능기술 활용 대화형 영어 학습 앱을 적용한 초등영어 말하기 수업 분석. *초등영어교육*, 26(3), 177-202.
- 심규남, 송은주, 추성엽, 권해경, 민덕기. (2020). AI 챗봇 매개 초등영어 과정중심 평가 과업의 개발 및 적용. *영어평가*, 15(1), 41-61.
- 양혜진, 김혜영, 신동광, 이장호. (2019). 인공지능 음성챗봇기반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수업 연구.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2(4), 184-205.
- 이삭. (2019).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AI 챗봇 활용 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말하기 수행 및 정서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초등영어교육*, 25(3), 75-98.
- 임완철, 김성우, 조선형, 이삭, 김낙훈. (2019). *인공지능활용 대화형 영어학습 앱 현장적용 연구*. 정책연구 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최원경. (2020). AI 챗봇을 활용한 초등영어 과정중심 말하기 평가: 가능성과 한계. *초등영어교육*, 26(1), 131-152.
- 추성엽, 민덕기. (2019). 영어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과업 기반 AI 챗봇 활용 및 학생 발화 분석. *초등영어교육*, 25(2), 27-52.
- 홍선호, 윤택남, 이삭, 오은진. (2021). 초등영어교육에서 음성대화형 챗봇 활용 방법론 탐색 및 효과. *한국초등교육*, 31(특별호), 31-55.
- Christenson, S. L., Reschly, A. L., & Wylie, C. (Eds.). (2012). *Handbook of research on student engagement*.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Lawson, M. A., Lawson, H. A. (2013). New conceptual frameworks for student

engagement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3(3), 432-479.

Hiver, P., Al-Hoorie. A. H., & Mercer, S. (Eds.). (2021). Student engagement in the language classroom. *Multilingual Matters*.

Philp, J. & Duchesne, S. (2016). Exploring engagement in tasks in the language classroom.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6, 50-72.

지역수준의 영어교육정책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신창원
(제주대학교)

I. 서론

국내 영어교육정책은 국가수준의 정책과 지역수준의 정책으로 나뉘며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병창(2015)은 보편적인 교육 가치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국가발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이며, 지역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면서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지역수준의 교육정책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역할 구분은 각 주체가 영어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김희삼, 우석진, 전지현, 진경애(2010)는 영어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국가와 지역 단위의 정책적 혼선 및 중복을 피해야 하며 대립 관계에 있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점도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의 정책이 가져야할 서로 다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장기화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육격차와 같은 과거로부터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에 대한 대비도 요구되고 있다. 즉,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인한 학력격차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도 교육계 내외에서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미래교육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교육정책의 상호협력의 시점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성병창, 2015).

이점에서 본 연구는 영어교육의 관점에서 지역 교육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가단위 정책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어교육정책의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어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타 시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에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의 특성을 국가교육정책 및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공시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지역단위에서 시행된 영어교육정책을 분석한 연구는 국가단위 정책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었으며 일부 세부정책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었다(박선아, 최문홍, 2015; 우길주, 2008). 지역단위 영어교육정책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계획되고 시행되는데, 앞서 언급된 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단위 교육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각종 교육정책이 시행되는 공간인 학교는 지역 시도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다는 점에서 실제 초·중등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 관련 정책의 적절성 내지 효과성을 이해하는데 지역단위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수준 영어교육정책의 특성을 제주지역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지역수준 정책의 역할 및 적절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2021년 제주대학교교육과학연구소·제주도교육청정책연구소 하계 공동학술대회(2021. 6. 4)에서 발표된 “AI기반의 영어교육과 제주 교육의 미래”에서 제주지역 외국어(영어)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을 확대 보완함.

1.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의 주요 내용과 국가단위 정책과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2.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과 타 시도 영어교육정책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II. 국가수준의 영어교육정책

2.1. 영어과 국가교육과정

국가수준의 영어교육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어과 국가교육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과정은 현재 초·중등교육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교과목별 핵심역량,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며 사실상 교과목별 교육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주요 내용 (교육부, 2014)

성격	• 국제어로서의 영어/글로벌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 /EFL상황에서의 학교 영어과의 중요성 (이소영, 2016, p. 502)	
영어교육 목표	• 영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습득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 평생교육으로서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 및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 국제 사회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국제 사회 이해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영어 정보 문해력 등을 포함하여 정보의 진위 및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른다	
학교 급별 목표	초	•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중	• 학습자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친숙하고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 학습자들이 중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과 핵심역량	•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전체 목표 및 학교급별 목표에서 드러나는 영어교과의 주요 방향을 보면,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유지, 세계시민으로서의 타문화 및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량의 적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초등에서는 71개(2009 교육과정)에서 45개(2015 교육과정)로 성취기준이 축소되었고 중학교에서는 47개에서 34개로 성취기준이 축소되었다(김성혜, 2020). 아울러 듣기 및 말하기 중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관련 성취기준의 비중이 각각 62%와 56%이며 읽기와 쓰기 중심의 고등학교 과정은 읽기와 쓰기 관련 성취기준을 58%로 하였다(인천광역시 교육청, 2021). 이소영(2016)은 현행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핵심역량 선정의 문제, 내용체계 표의 구성요소 및 세부 사항의 타당성, 언어기능별 성취기준의 연계성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국가교육과정이 영어공교육의 근간을 이루며 시작점과 목표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2. 영어교육 관련 국가정책

국가교육과정과 함께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 즉, 집권한 정부가 영어교육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 제시와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가 있었다. 다만 국가교육과정에서 영어교과가 갖는 본질적인 목표에 충실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임시정책 혹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영어교육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현재 침체에 빠진 영어공교육의 모습은 그러한 일관성 없는 영어교육정책의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김정렬(2019)이 지적한 대로, 현행 영어공교육의 난맥상과 상관없이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영어 사용 능력을 증대해야 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진 영어교육 관련 정책과 관련 연구 등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내용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인 정부는 이명박 정권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몰입교육 등 집권 초부터 영어교육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영어교육 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다. 김희삼 외(2010)에 따르면, 당시 시행된 주요 영어교육정책은 아래와 같은데, 국가영어능력시험(NAET), 수준별 이동 수업, 국립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국가 혹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
1. 국가영어능력평가(NEAT) 도입
 2. 초등 3~4학년 영어시수 확대 및 교과서 개발
 3. 중등 회화수업 실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4. 영어교사 심화연수 확대 및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 실시
 5.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배치
 6. 초등영어 체험교실 구축
 7. 중등영어 전용교실 구축
 8. 초중등 EBS 영어교육방송 활용도 증대
 9. 영어교육 중점학교(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0. 국립학교 원어민 보조교사(English Program in Korea; EPIK) 확충 및 관리체제 개편
 11.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each and Learn in Korea; TaLK) 사업
 12. 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방학중 집중캠프 운영
 13. 농산어촌, 도서벽지 원어민 화상강의 운영
-

김희삼 외(2010)는 위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1)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교사의 자질과 교수능력 향상, (2)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장려 및 TEE 수업 단계적 실시, (3) 평가방안의 개선 - 듣기, 말하기, 쓰기 평가 비율 확대, (4) EFL 환경에서 제한된 영어노출 기회를 확대할 방안 모색, (5) 영어체험 교실, 다독 프로그램,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 환경의 효율화 등 영어교육 인프라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화, (6) 영어격차(English Divide)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7) 영어교육 강화 정책의 중·장기적 성과 파악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역량 강화, 수업 및 평가 개선, 영어노출기회 확대, 영어교육 인프라 효율성 제고, 영어격차 해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문복, 김미경, 권서경, 정희정(2018)은 ‘학교 영어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과제’를

다루면서 향후 영어교육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자료의 하나로 학교 영어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 미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영어교육 서비스 제공, (2) 국가 단위의 학교급별 영어 진단 기준 (CEFR-K) 개발, (3)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4) 원어민 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활용 학습공동체 운영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미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영어교육 서비스 제공’에서는, 번역기, 말하기·쓰기 자동채점 프로그램, 컴퓨터 기반 학습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교수·학습 내용 계획, 학생 맞춤형 추가 활동 제시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 기술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식 전환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국가 단위의 학교급별 영어 진단 기준 개발’에서는 수준별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학교급별 영어 역량 진단 시스템 개발 및 성취수준 개발·적용이 필요하며 영어 능숙도 성취기준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별 영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은 사회 경제적 차이가 영어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학생 수준별로 적절한 교육활동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즉, 학생 수준의 차이로 인한 교수 학습상의 문제는 영어교육에서 지속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년이라는 확실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콘텐츠 등을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활용 학습공동체 운영’은 영어교사의 말하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최근에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제안된 국가정책으로는 2019년에 발표된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 주요내용 (교육부, 2019)

목표	영어 의사소통능력 및 미래 핵심역량 신장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와 환경제공			
세 부 추 진 과 제	출발: 함께 출발하는 영어교육	성장: 즐겁게 배우는 영어 수업	자기주도: 스스로 성장하는 영어학습	교사역량: 출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선생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감과 기초를 다지는 영어학습 책임지도 즐거운 영어학습과 자연스러운 영어습득을 경험하는 ‘영어놀이터’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소외지역 초등학교 영어교육 지원 확대 - 영어캠프, 화상수업, 영어 체험활동, TaLK 원어민 확대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과 핵심역량을 신장하는 영어 수업 및 영어 교육활동 지원 - 영어수업개선, 국외학교와 쌍방향 화상수업, 동아리 및 체험활동 지원 영어 말하기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AI 활용 ‘영어말하기연습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 잡힌 언어능력을 완성하는 온라인 영어독서 지원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영어학습 콘텐츠 지원 - 영어노출기회 확대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과 연계를 위한 초·중 6학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실있는 영어수업 운영을 위한 초·중교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 - 연수 주제 확대, 연구방법 개선, 모든 학교에 영어전담 교사 등 영어능력 우수 교사 배치 추진

위 계획은 초등영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중등교육에 확대·적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출발(기초 확립 및 교육격차 완화), 성장(영어수업 및 교육활동 지원), 자기주도(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콘텐츠·프로그램 지원), 교사역량(교사 영어능력 제고)을 세부기준으로 하여 주요 계획을 제시한 점은 중등 영어교육 정책에도 적용 가능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 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영어놀이터’, ‘AI 활용 영어말하기연습 시스템 구축’,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영어놀이터’의 경우, 영어도서, 스마트기기, 영어학습 도구가 구비된 공간에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AI 활용 영어말하기연습 시스템’은 음성인식 및 합성,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AI가 맞춤형의 개별화된 교수·학습, 영어콘텐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영어노출과 사용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코로나 이전에 추진된 계획이지만, 최근 원격교육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영어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도 보이며, 실제 2021학년도부터 ‘AI 핑퐁’이란 이름으로 전국 초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은 읽기 및 문법 교육이 본격화되는 중학교 영어교육과정에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영어공교육 관련 주요 국가정책 및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방안 및 세부 사항에서는 다소 상이한 점도 있지만, 실질적인 영어사용의 측면과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을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보완할지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국가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목표인 영어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중심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영어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 영어교사의 역량 강화, (2) 영어교육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 (3) 개별화된 교수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방안, (4) 영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주된 관점인 지역수준의 영어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III.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을 기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중점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 중심의 영어교육정책을 검토해 보는 것은 영어공교육의 전체적인 체계성을 돌아보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수준에서 계획되고 시행되는 영어교육정책의 특성을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을 통해 살펴보고 국가수준 영어교육 정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주제인 ‘제주도 교육청에서 계획되고 시행되는 영어교육정책의 내용 및 국가단위 정책과의 관련성’ 그리고 ‘타 시도 영어교육정책과의 차이’ 등을 다루기 위해 제주도 교육청을 포함하여 외국어(영어)교육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6개 지역 교육청(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의 ‘외국어(영어)교육 운영 계획’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3.2 분석방법

첫 번째 연구문제인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의 내용 특성 및 국가단위 정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재임 중인 교육감 체제에서의 제주지역 외국어(영어)교육 목적과 세부 계획을 연도별로 비교함으로써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의 체계성 및 지속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제주도교육청의 ‘2021년 외국어교육 운영 계획’ 텍스트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계획서의 주요사항을 시각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이수상, 2014). 마지막으로 유목화된 세부 계획이 현행 2015 영어과 교육과정 및 주요 국가단위의 정책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해 봄으로써 그 적절성을 판단해 보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제주지역과 타 시도교육청 영어교육정책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의 영어교육정책을 공시한 6개 시도교육청과의 교육목표 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차이가 있는 목표와 관련된 세부 계획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코퍼스 기반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제주지역 영어교육 계획에서만 두드러지게 사용된 어휘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제별 분석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지역 영어교육 목표 연도별 비교 연도별 세부 계획 비교·검토 언어 네트워크 분석 - ‘2021년 외국어교육 계획’ 텍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시도교육청과 교육목표 비교 상이한 교육목표에 대한 세부 계획 비교 코퍼스 기반 키워드 분석

IV. 결과분석 및 논의

4.1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의 적절성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2021년에 공시한 외국어(영어)교육¹⁾ 운영 관련 세부정책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2021년 제주도교육청 외국어교육 운영 계획(제주도교육청, 2021, p. 24)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학생 참여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	외국어 교수인력 운영	외국어 교수인력 수업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캠프 운영 제주청소년모의유엔 운영 외국과 영어화상수업 운영 초등 3, 4학년 영어 보완교재 보급 및 활용 초등학교 영어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중·고교 영어듣기능력평가 시행 AI 활용 영어말하기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신규) 외국어교육 자율프로그램 운영(신규) 학생 영어동아리 운영(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스트영어교사 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교육컨설팅단 운영 영어교사심화연수 운영 외국어교육연구회 지원 TEE인증 영어교사 선발: 우수 및 최우수 단계 원어민보조교사 수업 컨설팅 및 근무평가제 운영

1)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을 포함하는 ‘외국어교육’ 운영 계획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외국어(영어)교육 계획’으로 병기하고자 한다.

국가교육과정과 국가정책 등에서 중심에 두고 있는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여 ‘학생참여 중심의 외국어(영어)교육 프로그램’, ‘교사 역량’ 및 ‘수업 역량 강화’의 하위 영역에 중점을 두고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I 활용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이 신규 정책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2019년에 발표된 ‘초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으로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AI 기반 영어교육이 본격적으로 공교육에 포함된 예로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연구문제인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출발점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어(영어)교육 운영 계획’에 제시된 외국어(영어)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2015-2021년 제주도교육청 외국어(영어)교육 목적

년도	외국어(영어) 교육 목적
2015-2016	<input type="checkbox"/> 국제자유도시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배양 <input type="checkbox"/>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이해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input type="checkbox"/> 사교육 수요 및 지역계층 간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2017-2018	<input type="checkbox"/> 국제자유도시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배양 <input type="checkbox"/>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이해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input type="checkbox"/> 영어권 국가의 수업체험 및 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교사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input type="checkbox"/> 학생 참여형 배움중심 수업활동으로 과정중심 평가의 내실화 기여
2019-2021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이해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input type="checkbox"/> 영어권 국가의 수업체험 및 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교사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input type="checkbox"/> 학생 참여형 배움중심 수업활동으로 과정중심 평가의 내실화 기여

외국어(영어)교육의 목적은 지난 7년간 세 번 정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의사소통 능력(중심)’과 ‘국제이해와 글로벌 마인드’와 같은 목적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2015-2016년에는 영어격차 해소를 통한 영어공교육 회복이 강조되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교사 역량 강화 및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평가의 내실화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1) 의사소통, (2) 국제이해 및 글로벌 마인드, (3) 영어격차 해소, (4) 교사역량 강화, (5) 학생중심 수업 및 평가 개선이 지난 7년간 제주지역 영어교육의 주된 목표가 되어 왔다. 이는 영어과 국가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능력’, ‘국제문화 이해’와 국가정책 및 관련 연구에서 강조해 온 ‘영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영어교사의 역량 강화’, ‘개별화된 교수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방안’과 사실상 맥을 같이하고 있어서 국가단위에서 강조하는 정책적 기조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세부 계획을 중심으로 지난 7년간 어떤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표 5>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어(영어)교육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유목화하여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5> 년도별 제주지역 외국어(영어)교육 운영 세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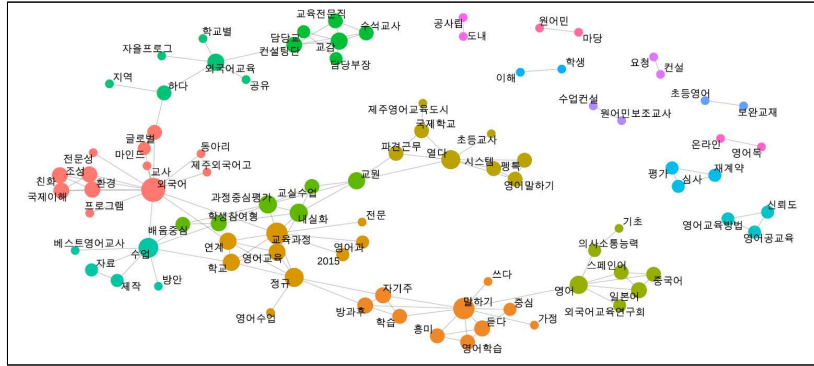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외국어 (영어) 교수 인력 강화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운영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운영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운영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운영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운영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운영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운영
	정부초청영어봉사 장학생(TaLK) 배치·운영	정부초청영어봉사 장학생(TaLK) 배치·운영	정부초청영어봉사 장학생(TaLK) 배치·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운영
외국어 (영어) 수업 개선 노력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외국어교육지원단 및 외국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외국어교육 지원단 및 외국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외국어교육 지원단 및 외국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외국어교육 지원단 및 외국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외국어교육 지원단 및 외국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외국어교육 지원단 및 외국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외국어교육 지원단 및 외국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배움중심의 영어교육과정 재구성 장학자료 개발	배움중심의 영어교육과정 재구성 장학자료 개발				
외국어 (영어) 교사 역량 강화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 교사제 시행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 교사제 시행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 교사제 시행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 교사제 시행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 교사제 시행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 교사제 시행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 교사제 시행
			교육과정 벤치마킹 현장체험 국외 파견 및 국제학교 파견	교육과정 벤치마킹 현장체험 국외 파견 및 국제학교 파견	교원 해외 및 국제학교 파견 근무 연수 운영	교원 해외 및 국제학교 파견 근무 연수 운영	교원 국제학교 파견 및 파견근무 연수 운영
			영어교사 심화연수 파견 운영	영어교사 심화연수 파견 운영	영어교사 심화연수 파견 운영	영어교사 심화연수 파견 운영	영어교사 심화연수 운영
			저경력 영어교사 배움중심수업 직무연수운영				
				문화협정 제2외국어 교원 국의 연수	문화협정 제2외국어 교원 국의 연수	문화협정 제2외국어 교원 국의 연수	문화협정 제2외국어 교원 국의 연수
				하와이 교사 초청			
					영어교사 단기연수 운영	영어교사 단기연수 운영	
외국어 (영어) 교육 강화 비교과 활동	외국어 관련 경시대회 운영	외국어 관련 경연대회 운영	외국어 관련 경연대회 운영	외국어 관련 경연대회 운영	외국어 관련 경연대회 운영	외국어 관련 경연대회 운영	
	제주글로벌 외국어축제 운영	제주글로벌 다문화축제 운영	제주글로벌 다문화축제 운영	제주글로벌 다문화축제 운영	제주글로벌 다문화축제 운영	제주글로벌 다문화축제 운영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들엄시민’ ‘입엄시민’ 학부모 동아리운영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
	체험영어 캠프 운영	체험영어 캠프 운영	체험영어 캠프 운영	체험영어 캠프 운영	체험영어 캠프 운영	체험영어 캠프 운영	체험영어 캠프 운영
			청소년 모의유엔 운영		제주 청소년 모의유엔 운영	제주 청소년 모의유엔 운영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운영
							외국어교육 자율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생 영어동아리 운영 지원 제주외국어축전영
외국어 (영어) 수업 지원	중·고교 영어듣기능력 평가 시행	중·고교 영어듣기능력 평가 시행	중·고교 영어듣기능력 평가 시행	중·고교 영어듣기능력 평가 시행	중·고교 영어듣기능력 평가 시행	중·고교 영어듣기능력 평가 시행	중·고교 영어듣기능력 평가 시행
	EBSe 영어교육 방송 활용 지원	EBSe 영어교육 방송 활용 지원	EBSe 영어교육 방송 활용 지원	EBSe 영어교육 방송 활용 지원	EBSe 영어교육 방송 활용 지원	EBSe 영어교육 방송 활용 지원	EBSe 영어교육 방송 활용 지원
			글로벌 화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화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국과의 영어화상 수업 운영 지원	외국과의 영어화상 수업 운영 지원	외국과의 영어화상 수업 운영 지원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초등 영어놀이터 구축·운영	초등 영어놀이터 구축·운영
							AI활용 영어말하기 시스템(앵독) 활용 지원

외국어(영어)교육 계획의 체계성, 지속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각 사업을 (1) 외국어(영어) 교수 인력 강화, (2) 외국어(영어) 수업 개선 노력, (3) 외국어(영어) 교사 역량 강화, (4) 외국어(영어) 교육 강화를 위한 비교과 활동, (5) 외국어(영어) 수업지원으로 유목화하고 각 영역별로 어떤 세부사업이 얼마큼의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정규교사 외에 외국어 교수 인력의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개별 외국어 교수 인력의 운영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정규교사를 포함한 각 집단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수업 개선 노력은 외교 중심의 정책 혹은 컨설팅 중심의 지원으로 수업 개선의 효과가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세 번째로 외국어교사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부 사업(예, 저경력교사 연수, 하와이 교사 초청, 영어교사 단기연수)은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며 ‘TEE 인증제’와 ‘베스트영어교사제’²⁾를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교사 역량 강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비교과 활동은 다른 영역에 비해 대부분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2021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외국어 자율 프로그램’ 및 ‘학생 영어동아리’를 제외하고는 교과 외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관련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영어 교육방송 활용과 초등영어 보완 교재(‘영어야 혼디놀게’)와 같은 듣기 평가 및 외국어(영어) 교재 지원, 외국과의 화상 영어수업, 영어놀이터, AI활용 말하기연습 시스템과 같은 외국어(영어) 교수·학습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 ‘초등 영어놀이터’와 ‘펍톡 활용 영어말하기’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진행되어온 ‘외국과의 화상 영어수업’과 ‘초등영어 보완교재’ 활용 부분은 적절한 성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외국어(영어)교육 운영 계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키워드 간 연결 관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이수상, 2014, 2018). 이러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인 ‘2021년 외국어교육 운영 계획’을 한글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고 불용어, 문장기호 등을 제거하였다. tidytext, KoNLP, widyr, tidygraph, ggraph, showtext 등의 R 패키지를 활용하여 명사, 형용사, 동사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시출현(co-occurrence) 키워드를 추출한 후 연결중심성이 높은 즉, 다른 키워드와 함께 사용되는 정도가 높은 키워드(아래 그림에서 원의 크기가 크게 표시된, ‘외국어’, ‘교육과정’, ‘말하기’, ‘수업’, ‘정규’ 등)를 중심으로 아래 <그림 1>과 같은 네트워크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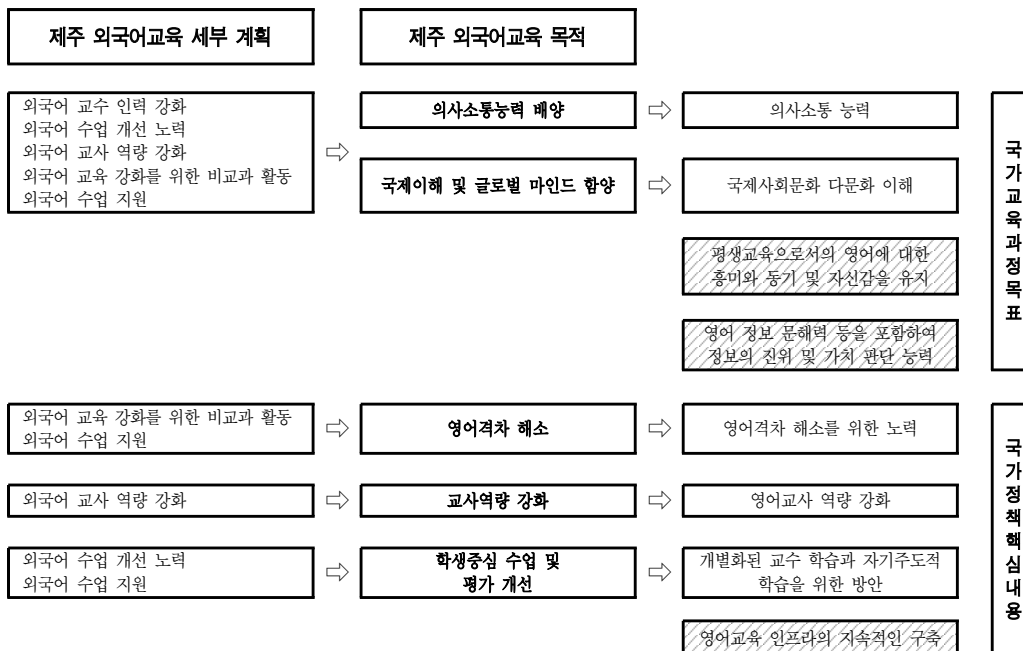
2) 엄밀하게 ‘TEE 인증제’는 영어교사 역량 강화의 측면으로, ‘베스트 교사제’는 원어민 교사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영어 교수 인력 강화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베스트 교사제’가 ‘TEE 인증제’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과 정규임용교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교사 역량 강화’ 영역에 포함시켰다.



<그림 1> ‘2021학년도 외국어(영어)교육 운영 계획’ 언어 네트워크 분석결과

여기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해당 텍스트의 주요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양슬기, 한동균, 2019), 그림 상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원이 크게 표시되며 키워드 간 관계가 가까운 경우는 같은 색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외국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제이해’, ‘글로벌’, ‘환경’, ‘구성’, ‘동아리’ 등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고 ‘교육과정’이란 키워드와 ‘학생참여형’, ‘과정중심평가’, ‘배움중심’ 등이 연결되어 있으며 ‘말하기’를 중심으로 ‘듣기’, ‘쓰기’, ‘학습’, ‘흥미’, ‘자기주도’ 등이 연결되어 있다. ‘수업’이란 키워드와 ‘베스트영어교사’, ‘자료’, ‘제작’ 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과정’, ‘말하기’, ‘수업’과 같은 주요 키워드는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의 중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와 밀접하게 연결된 키워드는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세부 계획의 적절성 혹은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논의된 국가교육과정과 국가단위 주요정책을 기준으로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2> 국가교육과정, 국가정책, 제주 외국어교육 목적, 세부 계획 관련성

위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국가 교육과정의 4가지 목표 중에서 ‘의사소통 능력’ 및 ‘국제사회 문화 및 다문화 이해’는 제주 외국어(영어)교육 목적과도 부합하여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의 나머지 목표인 ‘평생교육으로서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 및 자신감을 유지’와 ‘영어 정보 문해력 등을 포함하여 정보의 진위 및 가치 판단 능력’의 경우는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달성되기보다는 영어교과 수업내용에 담겨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가 영어교육정책의 측면에서 그간 강조되어 온 ‘영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체험영어캠프, AI활용 영어말하기 시스템 활용지원 등)’, ‘영어교사의 역량 강화(TEE 인증제 및 베스트영어교사제,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 ‘개별화된 교수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방안(초등영어보완교재 보급·활용, EBSe 영어교육방송 활용 지원, 초등 영어놀이터 구축·운영 등)’은 괄호안의 예로 제시된 것처럼 제주지역 외국어(영어)교육정책 속에 포함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만, ‘영어교육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 등은 영어(외국어)교과만의 세부 정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2021년 제주도 교육청 7개 핵심과제 중 ‘배움의 질 향상 위한 원격 수업지원’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안정적인 공공 플랫폼 지원’, ‘콘텐츠 개발 및 공유’, ‘원격수업 효과 제고를 위한 교사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 활성화’, ‘공간혁신과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점은 외국어(영어)교육 관련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제주지역 외국어(영어)교육 세부 계획을 하위 영역별로 유목화하여 체계성 및 지속성을 살펴보고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국가교육과정 및 주요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외국어교수 인력 강화’, ‘교사역량 강화’, ‘수업개선’, ‘(맞춤형의 자기주도 학습과 영어격차를 해소를 위한) 비교과 활동’, ‘수업지원’이 어느 정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외국어’, ‘교육과정’, ‘말하기’, ‘수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아울러 국가단위 주요정책과의 관련성도 보여서 국가정책과 상호보완적인 적절한 세부 계획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지역수준 영어교육정책의 체계성, 지속성, 적절성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의 효과성 혹은 확산성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전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시행 전에는 각 세부 정책이 해당 영역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 후에는 체계적인 환류과정을 통해서 각 세부 계획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의 차별성

앞 절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의 내적인 체계성 및 지속성 그리고 국가단위 정책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각 세부 계획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과 타 시도교육청 영어교육정책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교육청과 같이 별도의 구체적인 외국어(영어)교육 운영 계획을 공시하고 있는 6개 시도교육청(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의 외국어(영어)교육 운영 계획과 제주지역 외국어(영어)교육정책을 비교하였다. 먼저 제주를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의 2021년 외국어(영어)교육 관련 주요 목적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시도교육청별 외국어(영어) 교육 목표(2021년 기준)

시도교육청	외국어(영어) 교육목표
제주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이해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영어권 국가의 수업 체험 및 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학생 참여형 배움중심 수업활동으로 과정중심 평가의 내실화 기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영어교육으로 전환 교육과정에 맞는 단계별 학생 맞춤형 영어교육 실시 미래역량 함양 수업을 위한 영어교사 역량 강화 영어교육 지원인력 지원 및 교육자원을 활용한 영어교육격차 해소
경기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외국어교육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외국어수업 운영 외국어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의사소통역량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 실현 학생 수준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외국어교육격차 해소 다양한 매체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외국어 교실수업 지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및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등 영어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을 통한 영어 공교육 내실화
충청남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능력 중심 외국어 능력 신장 외국어교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교사 전문성 신장 외국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학습 환경 조성과 콘텐츠 제공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지원 확산
전라북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을 통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배양 참여와 협력중심의 외국어수업 내실화로 학교 교육 만족도 제고 사교육 감소 및 지역·계층 간 외국어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경상남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및 미래역량 신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외국어과 교원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활용 극대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2021학년도 제주도교육청 외국어(영어)교육 운영 계획에 따르면, ‘의사소통능력 배양’, ‘국제이해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교사 역량 강화’, ‘학생 중심 수업 및 평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의 목표에도 사실상 모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타 시도교육청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목표만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표 6>참조). 타 시도에서만 제시된 외국어(영어)교육 목표를 보면, (1) 수준별 맞춤형 외국어교육(서울시, 경기도 교육청), (2) 영어격차 해소(서울시, 경기도, 충남, 전북 교육청), (3) 외국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수업 운영(경기도 교육청), (4)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경기도 교육청)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영어격차 해소’는 과거 2015-2016년에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강조했던 목표이지만, ‘수준별 맞춤형 외국어교육’, ‘외국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수업 운영’,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은 외국어(영어)교과안에서의 목표로는 명시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물론 이런 목표가 없는 경우도 관련 정책 내용이 다른 영역의 세부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점에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같은 목표는 ‘초등영어보완교재 보급·활용’, ‘EBS 영어교육방송 활용 지원’, ‘초등 영어놀이터 구축·운영’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미래형 수업’도 교육청 핵심과제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교육 계획’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외국어(영어)교육 관련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전체적인 목표에 준하여 준비되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타 시도의 외국어(영어)교육 계획에서 강조되는 목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별화된 맞춤형의 수준별 교육’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은 향후 제주지역

3)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외국어(영어)교육 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시도교육청 간 비교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외국어(영어)교육의 목표에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구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준별·맞춤형 외국어(영어)교육’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시도교육청별 수준별·맞춤형 및 최신기술기반 외국어(영어)교육 계획

시도교육청	수준별 맞춤형 외국어(영어)교육	최신기술기반 외국어(영어)교육
제주도 교육청	-	• AI기반 말하기 시스템 활용(펍톡)
서울특별시 교육청	• 영어과 수요자 맞춤형 연수	• 초등 영어말하기 연습시스템(AI펍톡) 활용 지원
경기도 교육청	• 영어교육격차 해소 교육과정 연계 학교선택형 학생 맞춤형 영어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 •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과정 연계 학생맞춤형 영어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운영	• AI 기반 영어말하기 프로그램(펍톡)
인천광역시 교육청	-	• 인공지능 영어말하기 연습시스템(AI펍톡) 운영
충청남도 교육청	-	•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연수 • 인공지능(AI) 활용 영어 수업 사례 공유 • 인공지능(AI) 활용 영어 교육 전문적 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
전라북도 교육청	• 맞춤형 수업 개선 연수 지원	• 초등학생 영어말하기연습시스템 지원 AI 기반
경상남도 교육청	-	• 초등학생 영어말하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위 <표 7>에서 보면, ‘수준별 맞춤형 외국어(영어)교육’을 목표로 했던 서울과 경기지역 외국어(영어)교육 계획에는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전북의 경우, 목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세부 계획에 맞춤형 수업 관련 내용이 있다. 반면, ‘최신기술을 활용한 외국어(영어) 수업’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교육청은 교육부의 ‘초등영어 내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AI 기반 영어말하기연습 시스템(펍톡)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외국어(영어)교육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반면에 충남교육청의 경우는 교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연수 및 수업 공유와 인공지능 관련 전문적 교사학습공동체의 활성화 등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타 시도교육청의 외국어(영어)교육에서만 목표로 하는 ‘수준별 맞춤형 외국어교육’과 ‘최신기술 기반 외국어교육’의 경우, 목표상의 차별성과는 달리 새로운 내용이 있기보다는 국가정책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신기술기반 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강조한 서울 및 경기 교육청이 연관된 세부 계획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외국어(영어)교육 관련 세부 정책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언어자료에 대한 계량화된 분석 중 하나인 ‘코퍼스 기반 키워드 분석’(고광운, 2009; Jhang & Hong, 2012)을 실시하였다. 즉, 각 시도교육청의 ‘외국어(영어)교육 계획’ 문서에서 나머지 다른 시도교육청의 동일한 문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Antconc)을 활용하여 추출하였는데, 해당 교육청의 관련문서에서만 자주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그 시도교육청 외국어(영어)교육의 주요내용 혹은 특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하명정, 2013; Culpeper, 2009). 추출된 키워드 중에서 ‘의사소통중심’, ‘수업’, ‘운영’, ‘외국어교육

과정, ‘수립’, ‘전개’, ‘단계’, ‘지원’, ‘점검’ 등과 같이 ‘외국어(영어)교육 계획’과 관련된 문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어휘는 삭제하였으며 그 외 시도교육청별 키워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8> 시도교육청별 주요 키워드

시도교육청	주요 키워드
제주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엄시민 • 원어민보조교사 • 베스트영어교사제 • 수업컨설팅 • 학부모동아리 • TEE
서울시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간소통능력 • 전문학습공동체 • 주제기반
경기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교육모아 • 으뜸학교 • 연구회 • 상호국제교류동아리 • 선택형 • 외국어공감학생동아리 • 외국어교육센터 • 학생주도형 • 국제교류 • 프로젝트 • 영어교육격차해소
인천광역시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국제교육원 • 원어민교사 • 공공도서관 • 교육협력사업 • 옹진 • 수업공개
충청남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 독서교육 • 전문적교사학습공동체 • 중등교사
전라북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험 • 미국
경상남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고등학교 •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제주도교육청 외국어(영어)교육 계획에서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많이 언급된 어휘로 ‘들엄시민’, ‘원어민보조교사’, ‘베스트영어교사제’, ‘수업컨설팅’, ‘학부모동아리’, ‘TEE’가 추출되었다. 우선 다소 생소한 용어인 ‘들엄시민’은 ‘듣다 보면’의 제주어로 홍정실(2021)은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개요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영어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듣는 제주도 학부모 동아리 이름이다.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는 자녀들이 영어를 사교육을 통한 공부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로 익히기를 바라며 실천하는 동아리이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가입을 권장하며, 집에서 매일 꾸준히 자녀와 함께 영어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보는 활동을 한다(pp. 5-6)

이는 제주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도출된 키워드인 ‘학부모동아리’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울러 ‘베스트영어교사제’도 제주지역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로 우수한 한국인 영어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함께 제시된 키워드인 ‘TEE’, 즉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과도 연계하여 진행되는 제도이다. 그 외 ‘원어민보조교사’와 수업컨설팅’에 대한 용어가 자주 사용된 것으로 보아 타 시도에 비해 관련된 계획이 강조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들엄시민’의 경우는 국가단위 정책 중에서 ‘개별화된 교수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베스트영어교사제’는 ‘영어교사의 역량 강화’와 관련성이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 그 성과가 분석되었다(장모나, 2016; 홍정실, 2021). 홍

정실(2021)은 들엄시민 동아리 활동에 1년 이상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담 중심의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 성과 및 보완책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운영의 측면에서, 4가지 언어기능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 초등과 중등 들엄시민 간 연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즉, 영어읽기와 쓰기를 어려워하는 중학생을 위해 초·중등 들엄시민 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같은 맥락에서 영어 단어 쓰기를 어려워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위해 영어 자막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게 한다면 문자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중등 들엄시민 활동은 듣기 비중이 낮아지는 중학교 과정에 듣기 활동에 대한 보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들엄시민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원어민과의 나들이 행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들엄시민 활동의 수업모형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으로도 적용되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영어듣기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장모나(2016)는 지난 2010년부터 교실영어 사용의 강화를 위해 시행된 ‘TEE 인증제’와 원어민보조교사를 대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제주에서 시행 중인 ‘베스트영어교사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초등 영어전담 교사는 TEE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로 영어로 하는 수업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실 영어사용이 제한되는 이유로 학생들의 이해 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3분의 2정도가 베스트교사제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베스트영어교사는 자신감이 높은 반면, 만족도는 낮았으나 학부모와 학생은 베스트영어교사가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베스트영어교사는 원어민 교사를 대체한다는 자부심을 보였으나 초과수업, 수업 외 업무에 대한 부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제주의 베스트영어교사 제도는 원어민 영어교사를 내국인이 대체하면서 효과적인 영어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영어교육 관련 정책인 ‘베스트영어교사제’와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교수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방안’ 및 ‘영어교사의 역량 강화’와 같은 국가단위의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지역수준의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상으로 제주지역 영어교육정책의 주요내용 및 특색, 국가단위 정책과의 관련성, 타 시도교육청 외국어(영어)교육정책과의 비교를 통해서 지역수준에서 시행되는 외국어(영어)교육 계획의 특성과 그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그 역할을 되짚어 보았다.

먼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목표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국제사회 문화 및 다문화 이해’는 현재 제주지역 외국어(영어)교육의 목적과도 일치하며 국가정책에서 강조해 온 ‘영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영어교사의 역량 강화’, ‘개별화된 교수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방안’도 제주지역 외국어(영어) 교육 목적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였다. 목적에 따른 세부 계획의 경우, 전반적인 체계성 및 지속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국가단위 정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적절하게 국가교육과정 목표 및 주요 국가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보였다. 다만 각 세부

계획의 성과분석에 따른 환류체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보였다. 다음으로 외국어(영어)교육 계획(2021년 기준)상 타 시도교육청과의 차별성을 살펴보았을 때, 타 시도에서만 제시된 목적으로 수준별 맞춤형 외국어교육, 영어격차 해소, 외국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수업 운영,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 등이 있었다. 제주지역에서만 시행되는 영어교육 정책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방안에 강조를 둔 ‘들뜸시민 학부모동아리’와 교사역량 강화를 위한 ‘베스트영어교사제’가 있었는데 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국가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진다.

국가수준에서의 교육정책과 지역수준에서의 교육정책은 그 역할이 다르며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성병창, 2015). 교과별 국가교육과정의 존재하고 많은 관련 정책이 국가주도로 연구되고 시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수준의 교육정책이 분명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다만 국가정책을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해야 하는 교사와 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만의 요구 및 특색을 반영한 특화된 영어교육 정책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역수준의 영어교육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특정지역에만 국한하여 논의하였다는 연구대상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타 시도교육청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사례에 국한하지 않고 국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계획되고 운영되는 국가단위와 지역단위 언어교육정책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즉, 국내외 사례를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단위 영어교육정책의 특성과 역할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문헌 중심의 연구가 아닌 교육청 담당전문직, 영어교육전문가, 영어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수준의 영어교육정책이 분석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2021. 2021 외국어교육 기본 계획. 경기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2021. 외국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경상남도교육청.
- 고광윤. 2009. 코퍼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의 선택: *WordSmith Tools 4.0*과 *MonoConc Pro 2.2*를 중심으로. *영어학연구*, 27, 1-22.
- 교육부. 2014.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 교육부. 2019.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 교육부.
- 김성혜. 2020. 2015 개정 초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적정성에 대한 교사 인식. *English Teaching*, 75(2), 93-110.
- 김정렬. 2019. 영어수업에서 AI 스피커의 활용방안. 김인석(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영어교육* (pp. 189-213). 서울: 한국문화사.
- 김희삼, 우석진, 전지현, 진경애. 2010. 영어교육정책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박선아, 최문홍. 2015.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훈련을 연계한 지역수준 영어교육정책의 적용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3), 135-159.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2021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 성병창. 2015.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개발과 조정. *교육정치학연구*, 22(4), 141-162.
- 우길주. 2008. 방과후 학교 영어교육공동체 운영 모형 고찰: 지역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15(1), 105-121.
- 양슬기, 한동균. 2019.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과교육*, 58(4), 87-110.
- 이문복, 김미경, 권서경, 정희정. 2018. 학교 영어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 RRC 2018-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소영. 2016.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화 및 쟁점: 공통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6(7), 499-519.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수상. 2018.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활용과 한계*. 서울: 청람.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 2021 인천 외국어교육 활성화 운영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장모나. 2016. *TEE 인증과 베스트영어교사 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제주도 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대학원.
- 전라북도교육청. 2021. 2021 외국어교육 기본계획. 전라북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5. 2015학년도 외국어교육 활성화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6. 2016학년도 외국어교육 활성화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 2017학년도 외국어교육 운영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2018학년도 외국어교육 운영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 2019학년도 외국어교육 운영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0. 2020학년도 외국어교육 운영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 2021학년도 외국어교육 운영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 2021 제주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충정남도교육청. 2021. 2021년 외국어교육, 세계시민교육 추진 계획. 충청남도교육청.
- 하명정. 2013. 코퍼스에 기반한 문학텍스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440-447.
- 홍정실. 2021. *제주 들엄시민 영어 교육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Culpeper, J. 2009. Keyness: Words, parts of speech and semantic categories in the character-talk of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4, 29-59.
- Jhang, S. E. & Hong, S. C. 2012. A corpus-based analysis of English abstracts of Korean scholarly articles: A case study of English literature and English linguistics. *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4(4), 289-306.

음성대화처리기술 기반 수업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반응 연구⁴⁾

윤택남
(춘천교육대학교)

I. 들어가며

실제 최근 들어 영어 교과에서 음성대화처리기술을 활용한 말하기-듣기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비서로서의 기능보다 외국어 교육의 진정한(authentic) 도구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권태와 이효영, 2020; 교육부, 2020; 김인석과 김봉규, 2020; 심규남 외, 2020; 양혜진 외, 2019; 임완철 외, 2019; 정채관 외, 2019). 위의 연구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음성대화처리기술을 활용한 챗봇의 개발이나 Google의 Dialogflow, Amazon의 Skills Kit 등의 사용은 의사소통능력 증진이라는 우리나라의 교육방침에도 부합하며 특히 목표어의 노출과 상호작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성대화처리기술을 활용한 교육용 앱을 실제 영어 수업에 활용해 보고 이에 대한 초등영어학습자들의 인식과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대화처리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초등영어학습자들의 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음성대화처리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초등영어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음성대화처리기술을 활용한 수업은 초등영어학습자들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1년 1학기 강원도에 위치한 B 초등학교 5학년 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B 초등학교는 학년 당 3개 학급으로 구성된 국립초등학교로서 개인별 영어능력 향상을 꾀하고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Reading Gate®)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비록 리딩게이트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아니지만, 정규 교과 외에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영어 다독프로그램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실제 사전 조사에 나타난 참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실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참여자들이 동일 집단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Levene 등분산이 $F = .252$ 로 가정되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확률(p)이 .064로서 동일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앞서 지난 2020년 2학기에 8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실험연구(pilot test⁸⁾가 있

4) 본 원고는 발표자와 홍선호(서울교대) 교수님과 발표한 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임.

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실험의 미비점과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표집의 수와 연구 기간을 확대하고 아울러 주 실험도구인 설문지 제작에 있어 그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성대화처리 기술을 활용한 초등영어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설문지는 송은주(2020), 유영진(2020) 및 한다운(2020)의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4개 영역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사후에 걸쳐 1회씩 배포되었다.

사전과 사후에 배포된 설문지는 배포 후 양적으로 분석되었다. 최초 설문은 5학년 재학생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코로나 의심 및 등교 불가로 인해 실험참여가 어려웠던 1명과 설문응답의 불성실함을 나타낸 2인을 제외한 총 72명의 결과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Jamovi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우선 실험에 참여한 학생이 동일 집단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질성 검사부터 실시하였다. 이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음성대화처리 기술 활용 수업의 인식도, 정의적 특성 및 만족도를 기술통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사전과 사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변화의 추이를 비교한 후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실험 집단 내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음성대화처리기술 기반 In-Class 앱을 활용한 초등영어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5학년 초등영어학습자 7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사후 설문지를 통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음성대화처리기술을 활용한 수업은 초등영어학습자들의 인식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사전과 사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n-Class와 같은 음성대화처리 기술의 활용이 영어 학습자들에게 학습효과를 제고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유용한 방법임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음성대화처리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초등영어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자신감, 태도, 몰입도, 가치, 동기, 흥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자신감과 동기도, 그리고 흥미도 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음성대화처리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초등영어학습자들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본 결과, 만족도 하위항목 가운데 효과성을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학업의 효과성, 성취도, 의지 면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음성대화처리기술 기반의 영어 학습은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와 활용 가능성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초의사소통능력 신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권태, 이효영. (2020). 인공지능 챗봇의 중국어 교육 활용 방안 탐색. 중국학, 72, 215-233.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0.72.72.11>
- 교육부. (2020).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세종.
- 김인석, 김봉규. (2020). 인공지능형 대화형 챗봇 현황과 영어교육용 챗봇 개발 방안. 영어영문학 21, 33(2), 73-92.
- 송은주. (2020). AI활용 초등 영어 말하기 평가 모형 개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규남, 송은주, 추성엽, 권혜경, 민덕기. (2020). AI 챗봇 매개 초등영어 과정중심 평가 과업의 개발 및 적용. English Language Assessment, 15(1), 41-61. doi: <https://doi.org/10.37244/ela.2020.15.1.41>
- 양혜진, 김혜영, 신동광, 이장호. (2019). 인공지능 음성챗봇기반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수업 연구.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22(4), 184-205. doi: 10.15702/mall.2019.22.4.184
- 유영진. (2020). 인공지능 챗봇 활용 학습 환경에 대한 설계기반연구: 초등 영어 말하기 수업 중심으로. 석사학 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정채관, 안계명(성호), 홍선호, 이완기, 심창용, 이재희, 김해동, 김명희, 김선웅. (2018).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영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한다운. (2020). AI 챗봇 활용이 한국 EFL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영어 동화 역번역 활동이 대학생들의 영어어휘 학습에 미치는 효과

김병선
(가톨릭관동대학교)

I. 서론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있으며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어휘 학습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김태영, 이유진, 2013; Hu, 2011)에서 영어어휘가 탈동기(demotivation)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영어어휘 학습이 학습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며 도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위수준의 학습자들일수록 영어어휘 학습의 어려움은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Hu, 2001). 이는 영어어휘 지식이 영어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Nation(2001)의 주장과 일치하며,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어휘 학습전략을 다양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주장들(한미향, 2014; Gu & Johnson, 1996; Schmitt, 1997)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하위수준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 신장을 위해 교수자들이 어휘 지식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한종임(2004)은 EFL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 어휘에 대한 직접적 교수 없이 영어어휘를 습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함으로써 명시적 어휘 학습(explicit vocabulary learning) 지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영어어휘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교수자들이 제한된 교실 상황에서 영어어휘를 수업으로 다루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Nunan, 1999). 이것은 영어학습에서 어휘를 독립적인 학습활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학습활동의 부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진 결과로 보여진다(김낙복, 2005; 이화자, 1996). 즉, 영어어휘 학습은 교실 밖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몫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영어어휘 학습에 대한 조력을 받지 않는 한 하위수준의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어휘를 반복이나 암기와 같은 기계적인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맥락 추측이나 상위인지 전략과 같은 어휘 학습에 효과적인 복합적인 전략 활용은 요원(Gu & Johnson, 1996)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말로 번역된 영어 동화를 대학생들이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역번역 활동 속에서 영어어휘 학습을 수행하게 하고, 그 효과에 대해 정의적 요인과 만족도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어휘가 단순히 개별 의미만을 아는 것에 그쳐선 안 되며 다른 낱말들과 상호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는 맹수연과 나경희(2007)의 주장처럼, 본 연구는 문맥을 고려한 어휘 학습전략, 즉 동화 영작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문맥 안에서 익히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영어어휘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한다. 역번역 활동은 학습자들이 영어어휘의 기회뿐 아니라 어휘와 표현에 대한 기억을 촉진시켜준다(전나현, 황명환, 2020; Keating, 2008). 또 선행연구들에서 영작 활동이 어휘 지식을 증대시키고 공고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회의 장(윤희숙, 2010)을 제공한다고 하였고, 동화 활용은 영어어휘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Roya, 2015) 동시에 자연스럽게 어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교수 방법(유영란, 김혜련, 2006)이라 점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그동안의 동화를 활용한 영어어휘 지도 관련 연구들(김귀정, 이수경, 2009; 박선미, 노경희, 2015; 유영란, 김혜련, 2006)이 초등학생들에게 치우쳐져 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영화 동화 역번역을 통한 영어어휘 지도 접근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동화 역번역을 통한 영어어휘 학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둘째, 영어 동화 역번역을 통한 영어어휘 학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A Report on the Reality Check of the COVID-19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and Chinese Students' Voices

Seonmin Huh · Kang-Young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Online education became an important way to educate students with the COVID-19 pandemic era. Previous studies on online education identified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for online education (Alexander and Golja, 2007; Bliuc et al., 2007; Coates et al., 2005; Lee and Lee, 2008; Lee et al., 2009; Lester and King, 2009; Levy, 2007) and reported the learners, instructors, system, and learning factors affecting online education (Kim, Shin, and Jung, 2020). Research on students' performance and perception in online educational contexts reported mixed results (Benoit, Benoit, Milyo, and Hansen, 2006; Connolly, MacArthus, Stansfield, and McLellan, 2005; Lester and King, 2009; Maki, Maki, Patterson, and Whittaker, 2000; Twigg, 2003; Winsler and Manfra, 2002). Interestingly, in the limited scope of the research on online English language courses, students exclusively expressed higher satisfaction with face-to-face (Tratnik, Urh, and Jereb, 2019; Sriwichai, 2020). The present study reports on Korean and Chinese students' perceptions after attending both online and face-to-face English courses and answer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 1) How do students in Korea and China perceive their learning through face-to-face and online for interaction-oriented English courses during the two COVID-19 semesters?
- 2) How do students present his/her attitudes after experiencing both face-to-face and online lectures?

II. Methodology

1. Participants

302 Korean students who took the English courses (science (52.98%), education (13.91%), business (11.58), medicine (5.63%), and liberal arts majors (11.25%)) and 337 Chinese students (engineering (84.27%), science (8.31%), and architecture majors (7.42%)) participated. Students'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hinged mostly upon his/her major; however, generally their English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cores from the *Gaokao* (the Chinese equivalence of SAT) test ranged from 85 to 140 (out of

150).participated. 97% were freshmen and the rest were re-takers. Students'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varied.

2.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Based upon Fish and Snodgrass (2015), the present research added with some questions about “interaction”, “immediacy of feedback” (Mather and Sarkans, 2018), and “instructor’s presence” (Park and Kim, 2020). When analysing the data, descriptive statistics and qualitative theme-based analysis were used.

III. Results

1. Quantitative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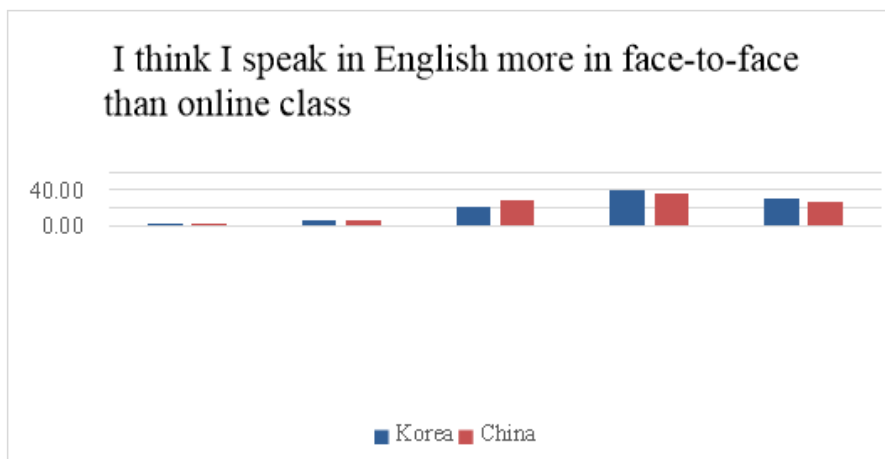
Students showed strong preferences toward face-to-face English education. To specify some examples, in Figure 1, respondents (61.59 % of Koreans reach to strongly agree and Chinese (64,99%) to strongly agree) perceived that face-to-face class helped to improve their English communication better.



[Figure 1] Students' Perceptions on English Communication Improvement through Face-to-Face

Figure 2 confirms students' positive perception on face-to-face class mode. 76% of Koreans and Chinese (62.32%) strongly believed that they speak English actively more in face-to-face settings than in online, suggesting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pivotally perceived that such communicative skills as speaking and listening occurred more through face-to-face settings. This also sheds a meaningful lights onto the direction of

two target courses of both Korea and China which were designed to develop/enhance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Figure 2] Students' Perceptions on Speaking English more in Face-to-Face

Figure 3 shows that professors' feedbacks through face-to-face settings tended to be preferred among students (57.80% of Koreans, 65.28% of Chinese). Students might possibly get better feedbacks through face-to-face interaction with professors and this is a strong evidence of students' preferred perception on face-to-face English class.



[Figure 3] Students' Feedback Preferences: Face-to-face over Online

2. Qualitative results

98 comments (53 were from Koreans and 45 from Chinese participants) included two themes: teachers' pedagogy and face-to-face vs. online. First, 53 comments were on teacher pedagogy—their general satisfaction about teacher pedagogy and class (i.e., 25

comments, such as *I enjoy the professor's lecture on practical grammar based on naturally emerging English conversations. I want to learn more about this type of practical grammar*, Korean # 14). Also, alternative pedagogy has been suggested (3 comments, as in *leave some questions for students to think for themselves when teaching online*, Chinese #28). The other 37 comments illustrated their preferences for face-to-face and online learning (21 comments of preference of face-to-face, as in *I prefer face-to-face learning. I physically meet my classmates and professor and feel a sense of belonging. It is a true community building* (Korean #12). 9 comments on preference of online, as in *Teaching through Zoom will have the same effect(s) as face-to-face* (Korean # 36).

IV. Discussion

The results illustrated that the Korean and Chinese students preferred face-to-face English classes to online ones. Students believed that the amount of speaking in English is greater with face-to-face lectures. They liked professors' face-to-face feedback better, confirming the previous research (Moqadam-Tabrizi, 2018; Tratnik et al., 2019; Sriwichai, 2020). Qualitative results presented students' desire to experience alternative pedagogy for online and their elaborated reasons for their positive perceptions on face-to-face English classes.

The findings imply that for any language courses aiming to develop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teaching and learning via online could not fully substitute face-to-face lectures. Building upon the previous studies (Moqadam-Tabrizi, 2018; Tratnik et al., 2019; Sriwichai, 2020), the present presentation claims that the courses aimed at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strongly requires immediacy and direct interpersonal interactio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nline English education, providing oral discourse practices synchronized with strong social interactions, professors' immediate feedback needs to be contextualized. For online English education, synchronized oral discourse practices and active social and personal interactions along with teachers' immediate feedbacks should be emphasized for effective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Words Cited

- Alexander, S., & Golja, T. (2007). Using students' experiences to derive quality in an e-learning system: An institution's perspective.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0(2), 17 - 33.
- Benoit, P. J., Benoit, W. L., Milyo, J., & Hansen, G. J. (2006). *The effects of traditional vs. web-assisted instruction on student learning and satisfaction*. Columbia, MO:

University of Missouri Graduate School.

- Bliuc, A. M., Goodyear, P., & Ellis, R. A. (2007). Research focus and methodological choices in studies into students' experiences of blend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10*, 231 - 244. <http://doi.org/10.1016/j.iheduc.2007.08.001>
- Coates, H., James, R., & Baldwin, G. (2005).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learning management systems on university teaching and learning. *Tertiary Education and Management, 11*, 19 - 36. <http://doi-org/10.1080/13583883.2005.9967137>
- Connolly, T. M., MacArthur, E., Stansfield, M., & McLellan, E. (2005).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three online learning courses in computing. *Computers & Education, 49*(2), 345 - 359.
- Fish, L. A., & Snodgrass, C. R. (2015). A preliminary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 perceptions of online versus face-to-face education. *The BRC Academy Journal of Business, 5* (1), 67 - 99. <http://dx.doi.org/10.15239/j.brcacadjb.2015.04.01.ja04>
- Kim, Y., Shin, Y., & Jung, Y. (2020). Pre-service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n online class implement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7*(4), 1 - 24.
- Lee, B. C., Yoon, J. O., & Lee, I. (2009). Learners' acceptance of e-learning in South Korea: Theories and results. *Computers & Education, 53*, 1320 - 1329. <https://doi.org/10.1016/j.compedu.2009.06.014>
- Lee, J. K., & Lee, W. K. (2008). The relationship of e-learners' self-regulatory efficacy and perception of e-learning environmental qualit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 32 - 47. <https://doi.org/10.1016/j.chb.2006.12.001>
- Lester, P. M., & King, C. M. (2009). Analog vs. digital instruction and learning: Teaching within first and second life environment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 457 - 483.
- Levy, Y. (2007). Comparing dropouts and persistence in e-learning courses. *Computers & Education, 48*(2), 185 - 204. <https://doi.org/10.1016/j.compedu.2004.12.004>
- Maki, R. H., Maki, W. S., Patterson, M., & Whittaker, P. D. (2000). Evaluation of a Web-based introductory psychology course: I. Learning and satisfaction in on-line versus lecture cour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2* (2). 230 - 239.
- Mather, M., & Sarkans, A. (2018). Student perceptions of online and face-to-fac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10*(2), 61 - 76.
- Park, C., & Kim, G. (2020). Perception of instructor presence and its effects on learning experience in online class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Research, 19*, 475 - 488. <http://doi.org/10.28945/4611>
- Sriwichai, C. (2020). Students' readiness and problems in learning English through blended learning environ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and Training, 6*(1), 23 - 34.

- Tratnik, A., Urh, M., & Jereb, E. (2019). Student satisfaction with an online and a face-to-face business English course in a higher education context.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56(1), 36 - 45.
- Twigg, C. A. (2003). Improving quality and reducing costs: Designs for effective learning. *Change*, 35, 22 - 29.
- Winsler, A., & Manfra, L. (2002, August). *Increasing student learning, technology use, and computer skills via use of WebCT in an undergraduate child development course: A pre-post course evaluation study*.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